

국제고려학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국제고려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국제고려학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제13호

국제고려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 국제고려학

### 제13호

#### 차례

이조시기 시조창작과 도교사상의 영향	김진걸	7
박태원의 개작소설 『홍길동전』과 그의 번역소설 『수호전』의 연관성	최유학	27
해방 전 재중 유이민소설에서 본 인신매매의 의미	남춘애	41
유치환의 시와 만주체험	장춘식	61
20세기 한국문학에 나타난 상해의 이미지	김동훈 · 한정숙	83
우리말 중성의 표기상 위치에 대하여	최호철	109
우리 겨레의 고대글자사용시기와 분포지역에 대한 사료적 고찰	안경상	127
한중 언어 문화-인지구조 비교로부터 본 한국어문화 교육 방법 연구	姜寶有	139
접촉언어학으로 본 동북아시아 세 민족언어의 혼종어	장흥권	161
중재협력을 통한 남·북한·중국 3국간의 상사분쟁 해결촉진 방안	김상호	19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의 기본내용과 특징	홍철화	215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나가고 있는 조선경제	리기성	227
Perspectives and Obstacles of Russia - Republic of Korea FTA Conclusion	Dr. Denis V. Suslov	237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가족복지정책	나병균	263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박지선 · 곤도리에 · 진제 · 나카지마 카즈오	283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와 과제 - 일본의 경험을 통하여	전광현	305
서흥 탈놀이에 대한 고찰	리영호	327
중국 조선족 전통유희의 역사적 변천과 그 교육적 효용성에 대한 연구	최영금	335
Dokseong, Naban jonja or Pindola? The mysterious Buddhist hermit in Korea's monasteries	Beatrix Mecsi	355
'발해삼채' 도기에 반영된 고구려적 성격	김경삼	365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 『비변사등록』의 사료적 가치	송현원	375
Reorienting the Book Market in Colonial Korea - Private Publishing Companies after 1919	Sang-ho Ro	385
재일동포사회와 한국 4·19혁명 - 한국민단계 학생청년운동을 중심으로	정아영	419
동해 표기와 일본 식민주의	Rainer Dormels	445

# 이조시기 시조창작과 도교사상의 영향

김진걸

북경제2외국어대학

## 1. 머리말

본 연구는 한국고전문학작품가운데서 시조문학에 국한시켜 거기에 표출된 도교사상의 전개양상과 특징 등을 통해 도교사상이 시조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조선조시대 고시조문학은 민족시가사상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예술적 성과를 거두었던 문학형태로서 융성했던 조선조시가문학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조선조인의 다양한 문화적 삶의 표상이기도 하다. 이런 우수한 문학작품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사상적인 배경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문학에 대한 사상적 연구는 곧 민족의 정신문화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한국고전문학작품의 사상분야별 연구 상황을 종합해보면 유·불 사상에 대한 편중의 시각과는 달리 도교사상을 소홀히 다루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국 문학사나 문학사상적 연구논저를 접하게 될 때 도교사상에 대한 탐색이 아예 없거나 있다 하여도 빈약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다. 그 단적인 예로 일본인 학자 松島隆裕(1991) 등 몇 사람이 함께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술했다는 『동아시아사상사』를 살펴보면 한국의 사상사를 거론함에 있어서 도교사상을 아예 제외해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유·불·도 삼대사상을 사실 한민족의 정신적 기반으로 인정하면서도 유가, 불교사상에 비해 도교

사상은 그리 대단치 않게 인식되어 온 것이 지금까지 학계의 주류적 경향이였다. 이런 의식의 지배하에 80년대 전까지도 한국고전문학의 도교사상분야에서의 연구는 노자, 장자의 번역서가 몇 편 나왔을 뿐 말 그대로 거의 불모에 가까웠다고 할 정도였다. 이런 사상적 편중의 시각은 이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문화유산을 두루 살펴보더라도 모든 정신생활의 내면에 도교사상이 깔려있지 않은 데가 없으며 고전문학의 경우 도교사상이 결부되어 있지 않는 작품은 별로 없다. 때문에 우리는 이 사상을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이다. 분명히 도교사상은 유가, 불교사상과 함께 한국, 나아가서는 동양인의 전통적인 사상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고전문학의 사상적 조류를 논할 때 문학적 성격에 크게 영향을 준 도교사상은 반드시 거론되어야 한다. 이것은 고시조문학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시조에 준 도교사상의 영향을 고찰함에 있어서 우선 시조의 내용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도교사상적요소를 검출해 낸 다음 그 시대적배경과 작가의 생애와 연계시키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도교사상이 체현된 근본원인과 그것이 시조의 문학 예술적 성격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 2. 도교사상이 고시조에 준 영향

주지하는바와 같이 시조는 한민족시가형식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시조는 한민족의 사상 감정과 예술의식을 가장 잘 드러낸 시가형식인 것이다.

한국 고전 시가사를 돌이켜보면 시가형식들이 아주 많았지만 오직 시조 하나만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한민족의 감정과 합치되었는지 알 수 있다. 즉 시조의 형식과 운율이 한민족의 감정적 울동을 표현함

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형식이 아니었겠는가고 생각된다.

시조의 작가들을 보더라도 왕후장상으로부터 일반서민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계층이 망라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그 어떤 시형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아마 한민족은 시조형식에서 안심하고 시상을 담을 수 있었고 시대와 계급을 초월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왔을 것이다. 한마디로 시조문학은 우리 민족혼의 보금자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14세기경, 다시 말하면 고려 말에 그 전시기의 향가, 경기체가 등 민족시가의 뒤를 이어 새로운 미학적 요구를 반영하여 나타난 시조는 대부분 조선조 때 창작되고 발전된 시 형식이었다.

비록 한국고전문학에서 한문학이 절대적인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한문학 가운데서도 또 한시문학이 정통문학의 위치에서 주로 창작되었지만 조선시대의 시인묵객들은 결코 시조를 소홀하게만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 증명으로 지금 4,000여 수에 가까운 방대한 양의 시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 시조들을 다시 그 내용에 따라 애정류·취락류·한정류·자연류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많은 시조들에 도교사상이 발현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도교사상가운데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신선사상·은둔도피사상·허무취락사상·허정염담사상이 각각 고시조 창작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2.1. 신선사상의 영향

“우리 선인들은 신선의 경지를 매우 좋아하였고 신선이 되기를 동경하였다. 번잡한 진세를 멀리하여 경치가 좋은 심산궁곡을 찾아 노닐면서 심청신한한 자신을 진선으로 묘사한 시조가 많다. 신선은 속인과 같이 화식을 앓고 生食을 하며 안개를 먹고, 청려장을 훌리지며 무한선경에 산다고 한다. 또 신선은 구름과 학을 벗하고 불로장생하며 신변자재 한다고 한다. 중국 전설에는 봉

래·방장·영주산을 삼신산이라 하여 거기에는 신선이 산다고 하며 사기에는 봉래·방장·영주산은 발해 중에 있다고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산·지리산·한라산을 삼신산이라고 불렀다. 또 백옥경을 신선경으로 읊었는데 백옥경은 천상우에 옥황상제가 산다고 하는 가상적인 서울이라고 한다.

신선을 읊은 시조에서는 학을 많이 읊어 학을 곧 신선으로 읊었고 소식의 전적벽부에 나오는 ‘우화이등선(羽化而登仙)’구를 애용하였고 무릉도원을 신선경의 극치로 묘사하기도 하였다.”<sup>1</sup>

이 문장은 신선사상의 구체표현양상을 거의 지적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 선인들이 신선의 경지를 매우 좋아하였고 진선이 되기를 동경했다는 점은 어딘가 석연치 못한 느낌을 주는데 이는 또 종래의 일반적인 상식이기도 하였다.

a 남산 깊은 골에 두어 니랑 이러두고  
삼신산 불사약을 다 캐여 심근말이  
어즈버 창해상전을 혼자 불가 하노라  
〈무명씨〉

(이하 작가명을 특별히 밝히지 않은 것은 전부 다 무명씨의 시조이다.)

b 시내 흐르는 골에 바회 지어 초당 짓고  
달아래 발을 갈고 구름속에 누웠이니  
건곤이 날 더러 니르기를 함께 늙자 하더라.  
c 락양동촌 리화정에 마고선녀의 술 익단 말 반겨듣고  
청려에 안장 지어 금돈 싣고 들어가서  
아해야 숙낭자 계시나 문밖에 리랑 왔다 살외라.

이 세 수의 시조는 모두가 무명씨 창작으로 되어 있는데 ‘창해상전을 혼자 보고’, ‘건곤과 함께 늙는’ 등 장생불사의 염원이라든가 ‘청려를 타고 다니며 마고선녀를 상대하는’ 등 신선의 경지를 갈망했다는 점에서 확실히 우의 논조

1 진동혁(1987: 44).

를 입증하는 좋은 실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신선사상을 나타낸 많은 시조 중에서 이런 경향의 시조는 얼마 안 된다. 그 나머지는 거의가 신선육망과는 거리가 먼 시조들이다. 그러므로 이제 시조에 반영된 신선사상도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d 이 피흘 혈어내여 저 바다를 메오면은  
 봉래산 고은 님을 걸어가도 보련마는  
 이 몸이 정위조 같아여 바잔일만 하노라  
 <서익>

e 늙은이의 불사약과 저문이 불로초를  
 봉래산 제일봉에 가면 얻을법 있건마는  
 아마도 리별 없을 약은 못얻을가 하노라

시조 d는 의주 부윤을 지낸 적 있는 서익의 시조인데 그야말로 예술적인 미가 넘치는 가작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운 '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산을 허물어 바다라도 메우고 싶지만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선계에 대한 대담한 상상을 빌려 재치 있게 표현한 시조이다. 즉 봉래산에 '님'이 계신다는 뜻은 '님'이 좋은 곳에서 축복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염원을 상징하는 동시에 현실에서 서로 만날 수 없다는 암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신선세계를 상징하는 봉래산에 갈수 없으리라는 것은 작가 자신이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정위조처럼 헛된 노력만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이 시조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님'이 여성일 경우 애정시조라 할 수 있고 '님'이 임금일 경우 충군시조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유교사상에 물 젖어 있던 조선조 양반사대부들은 신선사상을 구선(求仙)의 각도에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시상을 더욱더 무르익혀 주는 협조물로 자주 이용을 했던 것인데 이 시조에서는 애정을 표현하는 매개로 신선사상을 거들었던 것이다.

시조 e도 역시 신선사상의 형식을 빌려 주제를 강조한 애정시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별을 당하고 나면 신선들도 어쩔 수가 없을 거라는 시상이 담겨져 있다.

신선사상이 표현된 시조가운데서 이처럼 애정주제의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신선사상이 애정시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애정류 시조를 내용에 따라 분류해 보면 제일 많은 주제가 상사와 이별이다. 상사의 한과 이별의 원(怨)은 인간능력으로는 도저히 좌우시킬 것이 못되기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초인간적인 힘을 상상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신선사상이 애정류 시조에 많이 등장하게 된 주요한 원인일 것이다. 참고로 아래에 이 부류의 시조들을 몇 수 더 열거한다.

f 옥황께 울며 발괄하되 벼락상재 나리오서

벽력이 진동하며 깨치고저 리별 두자

그제야 그리던 님을 만나 백년동주하리라.

g 님 그린 고향지질을 무삼 약으로 고쳐넣고

태상로군 초환단과 서왕모의 천년반도

진원자의 인삼과와 삼산십주 불사약을

아무만 먹은들 하릴소나

아마도 그리던 님을 만나 보면 하릴법이 있나니

〈김시경〉

h 아침 양지별에 등을 찌고 앉았이니

우리 님 계신 덕도 이 별이 찌뚫던가

아마도 옥루고처에 소식 몰라 하노라

시조마다 자기의 특색을 갖고 있는 게 인상적이다. 벼락같은 기세가 느껴지는가 하면 깊은 사모의 정도 느껴지고 답답한 시름이 섞인 상사도 느껴진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시조는 아무래도 애정시조도 아니고 신선시조도 아닌 충군적인 유교시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비록 '옥루고처'라는 선경을 빌려

‘님’을 향한 근심걱정을 읊은 시조이긴 하지만 어쩐지 글줄 사이에서는 먼 강호로 유배된 충성스런 신하가 궁중에 계시는 임금의 신변을 걱정하고 있는 듯한 이미지가 더 강하게 풍겨온다.

그리고 신선사상을 빌려 아름다운 자연을 찬미한 시조들도 더러 있다.

i 일호주로 송군 봉래산하니 봉래상인이 소상영이라  
소상영여군가일곡하니 만이천봉옥 층층이로다  
아마도 해동 풍경이 이뿐인가 하노라.  
j 천산에 눈이 오니 건곤이 일색이로다  
백옥경 유리계인들 이에서 더할손가  
천수만산에 리화발하니 양춘본듯하야라.

일단 아름다운 경치를 대하게 되면 선계를 상상하게 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실은 그 누구도 선계를 본 일이 없으며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또한 신선사상의 제일가는 매력이 아닌지 싶다. 어떤 사물이든지 실제 존재하는 것은 영원히 상상 중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또 영원히 얻을 수 없는 것일수록 영원한 동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신선사상이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주고 특히 문학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원인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조 i, j는 자기의 심정과 느낌을 나타냄에 있어서 신선사상의식을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한 것이다. 자연류 시조에도 신선사상이 스며든 예라 하겠다.

또한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 삼천리 금수강산은 신선사상이 많이 체현된 객관원인이었고 이는 또 한국의 자연애호문학을 낳게 된 주요원인이기도 하다.

k 인생천지 백년간에 부귀공명 총부운이라  
찰하로 다 떨어지고 룡문에 장유하야

흥금에 삼킨후 락안봉 고쳐올라  
사조의 경인구를 청천에 랑음하고  
장건의 팔월차를 은하수에 흘리놓아  
월궁에 올라가서 옥비를 만나보고  
그제야 봉래산에 안기생 선문자와  
장년경도세술을 슬카장 의론하니  
세상에 취생몽사하야  
영영록록지배야 닐러 무엇하리오

이 시조에는 신선사상뿐만 아니라 허무취락사상, 은둔도피사상도 함께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으로부터 시조의 작가가 도교사상에 무척 심취해 있었음을 대변에 알아버릴 수 있다. 긴 사설시조 형식을 빌려 인생의 허무와 속세에서 벗어나 선도에 귀의하고 싶은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런데 이 시조에서 더 주목되는 것은 기나긴 초, 중, 장이 아니라 그 짝막한 종장이라는 점이다. 초장과 중장만 고려한다 할 때 이것은 전형적인 도교시조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종장에서 ‘영영록록지배야 닐러 무엇하리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 시조의 사상은 완전히 변한다.

물론 작가의 자세한 신상을 알 수 없는 전제에서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하겠지만 그 마지막 구절로부터 작가의 대체적인 의도를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영영록록지배’란 속된 무리를 가리키는 말로서 시조작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정적인 인간상이 되는 것이다.

우선 시조의 작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 멋대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조의 내용으로부터 우리는 저자가 유명사대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식계층이었음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기 지식계층이라 하면 대부분은 관리계층이었다. 비록 사설시조는 이미 시조문학이 서민화되기 시작할 때의 시조형식이기는 하지만 전부가 일반 서민의 창작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시조는 작가의 구선육망을 토로한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율분과 현세에 대한 불만의 심정을 도교사상에 의탁하여 잠시나마 달래본데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시조의 중심사상은 ‘영영록록지배야 닐러 무엇하리오’라는 구절에 있는 것이다.

속된 무리들은 상대도 안 된다는 도고한 자세와 그런 무리들과 상대하느니 아예 은거하여 다른 인생을 살겠다는 자백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심중에는 시종 그 하찮은 ‘영영록록지배’를 뿌리쳐 버릴 수 없는 모순된 심정이 반영된 것이다. 얼핏 보면 그 어떤 좌절에서 인생의 허무를 느낀 것 같지만 실은 자각이 아닌 꺾박에 의한 반성인 것이다.

이 한 수의 시조를 두고 여기서 역설을 늘어놓는 까닭은 이 시조가 조선조시대 특정된 계층의 사상의식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인 실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특정된 계층’은 조선조시대 사회와 당쟁 혹은 또 다른 원인으로 뜻을 펼 수 없었거나 정계에서 실각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요컨대, 조선조시대의 양반사대부들은 허다한 경우 도교사상을 소극적인 자세에서, 문학적인 수양의 필수과목의 정도로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은둔도피, 허무취락 등 사상에서 많이 체현된다.

그 외에도 신선사상이 반영된 시조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은 선적 용어들을 통해서 표현된다.

- l 죽림에 매고 간 승차 그 뉘라서 글러간고  
엄군평 아니면 려동빈의 재죄로다.  
언제나 이 승차 만나서 주유천하하리오.
- m 은하에 물이 지니 오작교가 뜨단 말가  
소 이끈 선량이 못 건너 오리로다.  
직녀의 촌만한 간장이 봄눈 스듯 하여라.
- n 학 타고 저 부는 동자야 너 다려 물어보자  
요지연 좌객이 누구누구 와 있더냐  
내 뒤에 남극선옹이 오시니 거기 물어보시소.

그리고 신선사상을 빌려 ‘님’을 여인 아픔과 애절한 마음, 절절한 그리움을 표현한 특별한 시조도 한 수 있다. 짙막한 3장 6구의 단시조에 그렇게 큰 슬픔이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데 크게 감동을 했던 시조이다.

- 님이갓오실덕에 날은어이두고간고  
陽緣이유수흐여두고갈法은흐거니와  
玉皇계所志原情하여다시오게흐시쇼<sup>2</sup>

또 ‘신선이 있다는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고 하면서 신선사상을 부정하는 시조들도 꽤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미 거론했던 학자가 있기에 여기서는 약한다.

이상에서 도교사상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신선사상이 시조에 미친 영향을 여러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물론 이것이 그 전부는 아닐지라도 대체로 이런 영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 2.2. 은둔도피사상의 영향

도교사상의 기초이론으로 되고 있는 도가의 대표적인 주장은 한 마디로 무위자연(無爲自然)이다. 도가의 방방면면의 학설과 주장은 모두 이 무위자연이란 뿌리로부터 뻗어나간 줄기라고 이해할 수 있다. 무위자연하여 생긴 대로 살려면 적극적인 개척활동은 포기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도피)이다. 노자가 염원했던 이상사회는 ‘개 짚는 소리만 들릴 뿐 사람은 서로 내왕하지 않는’ 사회였고 이를 실현하려면 또 반드시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은둔도피사상이 생기고 허정염담의 생활방식이 생긴 것이다.

---

2 이 시조는 다른 시조집에는 작가명이 밝혀지지 않았고 『가곡원류』에는 박효관의 시조로 되어 있다. 혹 님에게 버림받은 처지와 ‘님’에 대한 미련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陽緣이라고 한 걸 보면 위에서처럼 이해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

그런데 인간의 이런 소극적인 자세가 소극적인 후과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 듯싶다. 적어도 우리의 문학에 한해서는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에서 더 큰 이익을 얻게 되었는데 가히 ‘소극’이 낳은 ‘적극’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노자가 말한 ‘무용지용(無用之用)’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이런 소극적인 사상의 하나인 도피은둔사상이 고시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우리 문학에도 현실을 도피하여 은둔생활을 했거나, 혹은 직접 은둔생활은 하지 않더라도 현실에 대한 염오를 느끼고 은일 생활을 동경하고 이상으로 한 것이 많다.”<sup>3</sup>

p 시비에 개 짓어도 석경에 올이 없다.  
듣나니 물소리요 보나니 미록이로다.  
인세를 언제나 지난지 나는 몰라 하노라.  
q 산중에 무력일해야 절 가는줄 모르더니  
꽃땀면 춘절이요 잎땀면 하절이요 단풍들면 추절이라.  
지금에 청송록죽이 백설에 젖었으니 동절인가.

산 속에 은둔하여 시간가는 줄 모르고 무위자연한 삶을 즐기고 있는 시조작가들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이 두 수는 한국의 도교류 시조에서는 보기 드문 순수한 의미에서의 은둔시조인 것 같다.

이 시조들은 내용상 은둔 이외의 그 어떤 잡음도 들을 수 없다. 이 부류의 시조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치적인 내용이라든지 충군사상 같은 것들은 이 시조에서 찾아볼 수 없다.

요컨대, 한국의 은둔류 시조들은 중국과 상황을 달리하고 있다. 그것을 내용에 따라 다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이 바로 우에서 실0

---

3 최동원(1995: 381).

례를 들었던 순수한 은둔류 시조들이다.

두 번째 유형은 정치 사회적인 원인으로 하여 어쩔 수 없이 은둔의 길을 택하게 된 (자각적인 피세가 아닌) 핍박에 의한 은둔류 시조들이다.

r 책 덮고 창을 여니 강호에 배 떠 있다.  
왕래 백구는 무음 뜻 먹음은지  
이후란 공명을 떨치고 너를 좇아 놀리라  
〈정은〉

이 시조의 작가 정은은 병자호란 때 임금을 따라 남한산성에 들어갔다가 화의가 달성되니 칼로써 목숨을 끊으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던 인물이다. “내가 남한산성에서 죽지 못하면 무슨 면목으로 처자들을 대하겠는가”라고 한 뒤 산에 들어가면서 이 시조를 지었다 한다.

이외에 당쟁, 사화 등 사회적인 불안정 때문에 은둔의 길을 택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것이 시조에 반영된 것이다.

s 메아미 맵다하고 쓰르라미 쓰다 하네  
산채를 맵다더냐 백주를 쓰다더냐  
우리는 초야에 묻혔으니 맵고 쓴줄 몰래라.  
〈이정진〉

이 시조는 계속되는 당쟁에 환멸을 느끼고 은둔의 길을 택한 작가의 처지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은 은둔의 목적이 세상기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공명을 이룩한 뒤의 이상적인 생활방식이라고 여기는 데서 이루어지는 은둔류 시조들이다.

- t 고원 화죽들이 우리를 웃지 말아  
 립천구약이야 잊은 적 없건마는  
 성은이 지중하시니 갓고 가려 하노라.
- u 풍진에 얽매이여 떨치고 못갈지라도  
 강상일몽을 꾸원지 오래더니  
 성은을 다 갓은 후는 호연장귀하리라.
- v 강호에 기약을 두고 십년을 분주하니  
 그 모른 백구는 더디 온다 하건마는  
 성은이 지중하시니 갓고 가려 하노라.

도가적인 은둔의 입장에서 볼 때 우의 이 시조들은 참으로 웃기는 얘기라고 하겠다. 하지만 유가사상을 절대적인 통치이념으로 알았던 조선조 양반들에게는 더없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계에 몸을 담고 있을 적에는 강호를 생각하고 강호에 나가면 또 임금을 그리던 조선조 양반들의 모순된 심리상태가 그대로 반영된 시조들이다. 이것은 또 이념으로서의 유가사상을 표방하면서도 문학에 있어서는 도교사상의 경향을 띠고 있었던 조선조 양반들의 정신세계와도 일치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은 우의 세 부류의 은둔과 본질적인 구별을 갖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은둔을 위한 은둔이 아니고 부귀영달을 기다리기까지의 잠시적인 은둔인 것이다. (만약 이것도 은둔이라고 할 수 있다면) 즉 은둔이 결과가 아니고 과정인 것이다.

- w 세사를 내 아더나 가리라 위수빈에  
 세상이 나를 핀들 산수조차 날 필소나  
 강호에 일간어부 되어있어 대천시나 하리라.

“그야말로 강호에 병이 깊어 죽림에 누웠다고 자칭하다가도 임금이 다시 부르면 어와 성은이야 하고 달려갔던 것”<sup>4</sup>이다.

시조에 반영된 은둔도피사상의 검출을 통해 한국의 전반 은일, 은둔문학의 실상을 알아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 2.3. 허무취락사상의 영향

x 술 깨여 일어 앉아 거문고를 회롱하니  
창밖에 섰는 학 우쭈우쭈 히는고나  
아희야 남은술 고쳐 부었으라. 흥이 다시 오노매라.

〈김성신〉

y 아해는 약 캐라 가고 죽정은 뷔였는데  
홀어진 바둑을 뉘 쓸어 쥐여 담으리  
취하고 송하에 누었이니 철 가는줄 몰래라

많고 많은 같은 유형의 시조 중에서 두 수만 레로 든다. 사실 여기서 은둔도피사상, 허무취락사상, 허정염담사상 등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지만 이 사상들 사이에는 실제 명확한 구분이 없다. 그래서 이런 유의 시조들에는 흔히 이 몇 가지 사상이 다 들어있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다만 한 시조에서 어느 사상이 중점적으로 체현되는가 하는 것이 틀릴 뿐이다. 이 사상들 모두가 도가의 무위자연사상의 전개라는 점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치 최동원 교수가 『고시조론』에서 은일과 자연애호는 자연히 자위의 수단으로 취락적이며 향락적인 생활이 취해졌으리라 생각된다고 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 시조들은 여러 사상들이 융합적으로 체현된 가운데서도 보다 허무취락적인 사상에 치우쳤던 시조들이다. 시조 x는 안동사람으로 목사를 지낸 적 있는 김성신이 지은 것이고 시조 y는 작가를 알 수 없는 시조이다.

양반사대부들은 유학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작품이나 사상을 논함에 있어서 유가적인 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자주 있는데 이런 건

---

4 임종찬(1993: 69).

해는 어딘가 창백하다는 느낌이 든다. 유학자라 해서 다른 사상을 소유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이름 있는 유학자일수록 여러 가지 사상을 고루 겸비한 실례가 수두룩하다. 한국고전문학사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최치원을 보더라도 그의 사상은 유, 불, 도 3교 융합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던가. 그 외에도 비슷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 하물며 문학적인 면에서는 유가보다 도가를 더 중시했고 그래서 노장저서를 애독했던 조선조 유학자들임에야, 이 점을 수궁하면서도 그런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 2.4. 허정염담사상의 영향

이미 2.3에서 지적했듯이 은둔, 취락과 허정염담사상은 그 계선이 분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작품 속에 함께 나타나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러나 허정염담은 다른 두 사상보다 더 무위자연에 가깝기 때문에 생긴 대로 살리라는 뜻이 보다 짙다.

z 산뫼에 사자하니 두견이도 부끄럽다.  
 내집을 굽어보며 술 적다 우는괴야  
 두어라 안빈락도이니 한 할줄이 있이라  
 ㄱ 약이 령타하되 효험이 바이 없다.  
 청심절육하면 이 아니 선약인가  
 아마도 이 약 일흠은 사군자인가 하노라.

‘안빈락도’, ‘청심절육’ 이러한 구절들은 인간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분수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허정염담사상이 주로 표현된 것이다. 허나 2.2, 2.3, 2.4의 사상은 종종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기 일쑤다.

나 늙은이 저 늙은이 립천에 숨은 저 늙은이(은둔)  
시주가금여기로 늙어오는 저 늙은이(취락)  
평생에 불구문달하고 절로 늙은 저 늙은이(염담)

계속해서 2.2, 2.3, 2.4에서 본 시조들의 특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고시조문학의 역사 시기적인 현상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만약 우에서 예로 들었던 시조들의 공통적인 특점이 뭐냐 한다면 누구나 서슴없이 시조에 발현된 도교사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시조들의 형식구조상의 공통성이다. 즉 이 시조들은 전부 단시조들이라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시조는 그 형태구조상에서 단시조와 장시조로 나뉜다. 그것들은 또 외형상에서만 부동한 것이 아니라 내용상에서나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작가 층 등 면에서도 양상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 “단시조는 양반사대부 층에서 장시조는 가객을 포함한 중인층에서 주로 창작되었다.”<sup>5</sup> “단시조는 강호 한정류의 작품이 제일 많고, 장시조는 남녀애정을 다룬 작품이 제일 많다.”<sup>6</sup>

결론은 도교류의 시조는 거의가 단시조들이고 이것은 주로 양반사대부들에 의해 창작되었다는 것이다. 즉 도교류 시조에서도 은둔, 취락, 허정염담 등 사상을 주로 체현한 강호 한정류의 시조가 가장 많은 원인은 무엇이이었을까?

조선조 양반사대부들은 정계에서 실각하게 되면 곧 자아안위를 위한 수단으로 은거생활의 고결한 자세를 보이면서 도교사상의 충실한 추종자인 것처럼 행세하다가도 정계에 복귀하게 되면 곧 ‘성은에 보답’하러 나갔다. 파란 많았던 조선조 양반들의 정치생활이 바로 많은 강호 한정류 시조를 낳게 된 주된 원인 이었다.

또한 강호 한정류 시조가 단시조 중에서 제일 많다는 것은 역으로 조선조

---

5 임종찬(1993: 69).

6 임종찬(1993: 168).

사회의 정치적 불안과 시대적 혼란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부류 시조작가가 주요하게 양반사대부들이었던 다른 한 원인이 라면 먹고 살기도 어려웠던 사회하층사람들에게는 산수 간에 은거하여 시나 짓고 풍월이나 읊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혹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들의 눈에는 이런 은둔생활이 사치라고 보일 수 있고 어찌 보면 삶에 대한 모독이고 죄악으로 비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상에서 도교사상을 특점에 따라 몇 개의 구체적인 사상으로 나누고 시조에 대한 영향에 대해 각각 서술하였다. 그것이 도교사상을 표현하려 했든지 아니면 도교사상을 빌려 다른 그 어떤 뜻을 나타내는 우의(寓意)적인 뜻으로 사용되었든지 불문하고 도교사상의 영향임은 분명한 것이다.

이외에도 시조 속에 발현된 도교사상적 요소 즉 도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시조는 많고 많은데 이를테면 구체적인 선적(仙的)용어—신선의 이름이거나 학, 백구, 미륵, 청려, 청우 등 선계를 상징하는 동물들, 그리고 선계의 지명 등을 빌려서 나타냈거나 혹은 노장저서에 나오는 이야기(典故)거나 신선이라고 여기는 문인들—이백, 소식, 유령, 도연명 등의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표현한 시조들인데 여기서는 약하다.

## 2.5. 윤고산과 도교류 시조

한 사물의 대표적인 특징을 모른다면 그것은 그 사물을 완전히 이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시조를 논함에 있어서 윤선도의 작품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지나친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경우라 하겠다.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나마 윤선도의 시조에 대해 별도로 서술하려고 한다.

윤선도(1587~1671)는 선조20년부터 현종12년 사이의 사람으로서 자를 약이(約而), 호를 고산(孤山)이라 하였다. 한국고시조문학사상 제일 걸출한 작가이며 또한 정철 이후 한국어의 언어미를 가장 크게 발휘한 언어대가이며 자연

시인이기도 하다.

역사상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민족수난과 광해군의 난정, 당쟁과 사화 등을 모조리 겪었던 그는 85년의 인생에서 많은 우수한 문학작품(특히 시조)을 남겨놓았는데 여기서는 그의 생애와 다른 문학작품은 약하고 시조만 취급한다.

그의 시조작품으로는 현재 75수가 전해지고 있는데 견회요 5수, 우후요 1수, 산중신곡 18수, 산중속신곡 2수, 고금영 1수, 증반금 1수, 초연곡 2수, 파연곡 2수, 어부사시사 40수, 몽천요 3수가 있다. 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상이 은둔도피사상과 자연애사상이었다. 물론 도가에서 추구하는 “외계 사회를 처음부터 관심 밖에 둔 채 예약이나 경제에 뜻이 없어 공리와 현달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자연을 벗 삼는”<sup>7</sup> 그런 비현실적이고 소극적인 은둔도피는 아니었지만 현실에 대한 불만과 자신의 고결한 성품에 대한 추구, 자연에 대한 애착을 도교사상을 빌려서 표현하였다는 점을 참고로 할 때 그의 시조작품은 도교사상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또 정치이념에서는 전형적인 사대부이고 유학자였지만 문학에서는 노장의 도(道)사상으로 일관되었던 작가의 세계관의 진실한 반영이었다. 심지어 작가는 유가의 충군사상을 나타냄에 있어서도 도교사상의 형식을 빌려 표현하고 있다.

ㄷ 상해런가 꿈이런가 백옥경의 올라가니  
옥황은 반기시나 군선이 꺼리나다.  
두어라 오호연월이 내 분일시 올랐다.

〈윤선도〉

ㄹ 꽃잠의 꿈을 꾸어 십이루에 드러가니  
옥황은 우스시되 군선이 꾸질나다.  
어즈버 백만억 창생을 어니결의 무르리

〈윤선도〉

---

7 임종찬(1993: 215).

그의 “몽천요” 3장의 앞 두 장인데 드러내놓고 말 못할 반대파들에 의해 밀려난 율화를 선계에 의탁하여 터뜨리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도교사상에 심취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다만 문학의 표현형태에 한해서 영향을 미쳤던 것이고 귀결점은 결국 다시 유가사상 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그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어부사시사”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40수의 방대한 연시조로 구성된 이 작품은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속세의 모든 시끄러움을 잊고 청고하게 살아가려는 작가의 은일적인 기분과 지향을 선명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작가는 여기서 그친 게 아니고 어부사어음 한 수를 더 지어서 창작 의도를 밝히고 있다.

□ 강산이 조타한들 내 분으로 누었으나  
    님군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갑고자 하여도 힘을 일이 업세라.

똑같은 시조가 그의 “산중신곡”에도 들어있음으로서 작가의 의도는 더더욱 명확해진다.

이런 ‘임금님의 은혜’에 감격해하는 심정은 진심에서 우러러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바 있었지만 사대부들의 은거생활은 그들이 시조에서 읊은 것처럼 안빈낙도의 그런 생활이 아니었다.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는 사대부들의 은거생활은 거의 드물다. 윤선도의 부용동(芙蓉洞)에서의 실제 생활을 기록한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시조에서처럼 ‘띠집’을 짓고 살 정도로 가난했던 것이 아니고 반대로 거의 신선에 가까운 나날들을 보냈던 것이다. 이런 면에서 당연하게 ‘성은’이 고마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시조창작에 있어서 윤선도는 그 시대 양반사대부들의 대표적인 실례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윤선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시대 양반사대부들의 시조창작의 주류적 경향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 3. 맺는말

지금까지 시조작품 속에 발현된 도교사상에 대한 소재론적 검출을 통하여 도교사상이 한국 고시조에 준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결론은 분명하다. 도교사상은 시조작품의 사상적 주제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부분이었고 주로는 작품의 우의(寓意), 환상 등 문학 예술의식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로 하여 시조 작품은 짙은 낭만주의 경향을 띠게 되었고 한국낭만주의 문학에 기여하게 되었다.

도교사상은 보다 환상적이지요, 고답적이다.

문학은 보다 환상적이지요, 고답적인 것을 요구한다.

도교사상이나 문학의 이러한 특징들이 바로 표현 예술면에서 도교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고시조작품들이 것처럼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는 중요한 원인이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 참고문헌

- 문일환(1997) 『조선고전문학사』, 베이징: 민족출판사.  
최동원(1995) 『고시조론』, 서울: 삼영사.  
李養正(1996) 『道教概說』, 北京: 中華書局.  
松島隆裕 외 著 조성을 譯(1991) 『동아시아사상사』, 서울: 한울 아카데미.  
임종찬(1993) 『고시조의 본질』, 서울: 국학자료원.  
民族出版社 편집부 편(1990) 『시조집』, 베이징: 민족출판사.  
김하명 편(1963) 『시조선집』, 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출판사.  
윤성근 편(1982) 『윤선도작품집』, 서울: 형실출판사.  
이태극(1982) 『한국명시조선』, 서울: 정음사.  
한국학문헌연구소 편(1973) 『가곡원류』, 서울: 아세아문화사.  
최창록(1997) 『한국도교문학사』, 서울: 국학자료원.

# 박태원의 개작소설 『홍길동전』과 그의 번역소설 『수호전』의 연관성

최 유 학  
중앙민족대학

## 1. 박태원의 『홍길동전』의 개작동기와 『수호전』의 번역동기

박태원이 개작한 『홍길동전』(박태원, 조선금융조합연합회, 1947)은 해방공간에 들어서면서 변모된 박태원의 작품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으로 사회에 대한 강한 비판정신과 참여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홍길동전』은 개작 작품이라는 데서 개작 상황에 따라 작품에 드러나는 작가의식을 쉽게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수호전』 번역과 연관성을 가진다는 데서 주목을 요한다.

박태원 역 『水滸傳』은 일제 말 『조광』에 연재된 『수호전』과 해방 공간에 완역된 『수호전』(1948-1950)이 있다. 일제 말에 번역한 『수호전』은 1942년 8월에서 1944년 12월까지 장장 2년 5개월간 27회에 걸쳐 『조광』에 연재되었다. 『조광』에 연재할 당시에는 완역을 못했으며 70회본 『수호전』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70회본 『수호전』의 절반<sup>1</sup> 정도의 번역이 완료되었다.

해방공간에 박태원은 완역본 『수호전』을 1948, 1949, 1950년 3년에 걸쳐

---

1 70회본 『수호전』(施耐庵 著, 汪原放 句讀, 『水滸』, 14版, 亞東圖書館, 1933년 3월)을 박태원 번역소설 『수호전』의 주요 원문 텍스트로 가정한다면 박태원은 이 70회본의 38회의 8페이지 “當日晝酒, 自在房里睡臥, 不在話下”까지 번역을 완료한 셈이다.

번역, 출판하였다. 그 발행시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권은 1948년 12월 20일에 발행하였고 제2권은 1949년 2월 20일에 발행하였으며 제3권은 1950년 1월 15일에 발행하였다. 제1권이 발행한지 1년쯤 지난 시간인 1949년 12월 10일에 再版된 것을 보면 박태원 역 『수호전』이 독자들의 인기를 모으는 데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박태원의 일제 말기 『수호전』 번역작업(1942-1944)은 광복 후의 개작소설인 『홍길동전』(1947)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 그리고 광복 후의 『수호전』 번역작업(1948-1950)이 그의 개작소설 『홍길동전』(1947)과 시기상 연결되어 있는 점을 보아 그 상호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수호전』의 영웅적 인물들은 부패한 관리들의 폭압에 맞서 농민봉기의 근거지인 양산박을 형성하였다. 이런 官逼民反의 역사의식은 그의 『홍길동전』(1947)에도 나타난다.

『홍길동전』의 개작은 고전소설에 대한 박태원의 태도를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식과 당시 시국에 대한 작가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박태원의 개작소설 『홍길동전』과 그의 번역소설 『수호전』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이에 따른 작가의식의 변모양상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작가의 『수호전』 번역작품을 통해 작가의식을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지만 작가의 개작작품을 통하여 작가의식을 살펴보는 것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임이 분명하다. 『홍길동전』에 대한 개작은 당시 시국에 대한 박태원의 정치적 입장을 일부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박태원은 당시 좌우이념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민중의 힘에 대한 긍정의 입장을 표현하고자 허균의 『홍길동전』에 대한 개작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박태원이 『수호전』을 번역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였을까? 박태원이 번역대상으로 삼은 『수호전』은 억압세력에 대한 폭력적 반항을 많이 다루고 있는 중국 고전명작으로 이에 대한 번역, 출판은 단순한 현실회피라기보다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역사상 봉건왕조가 『수호전』이 민란을 일으키는 성격의 책이라 하

여 금서로 정한 사례가 있으며 한국의 역사상 마찬가지로의 예가 있었다. 그러나 이와 반대의견으로 수호전의 송강의 변절행위로 하여 저항적인 성격이 많이 약화되어서 오히려 친일논리에 부합된다는 다른 상반된 결론도 얻을 수도 있었지만 박태원은 김성탄의 70회본의 형식을 선택함으로써 송강의 변절행위가 구체화되지 않은 작품 즉 저항정신을 강화한 『수호전』으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이를 결코 무사상적 글쓰기라고 할 수 없으며 친일논리에 영합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처럼 박태원은 저항정신이 강한 일부 중국소설들을 접촉하고 특히 직접 번역까지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역사의식을 정립하고 창작의 지평을 넓혀나가게 되었다. 예를 들면 『수호전』의 번역과정에서 박태원은 官逼民反, 逼上梁山, 替天行道의 역사의식을 접촉하게 되고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는 곧 이후의 창작으로 이어졌다. 『수호전』의 영웅적 인물들은 부패한 사회적 환경을 경험한 후 정치적 부패와 사회적 무질서를 극복한 대안적 세계인 양산박을 형성하였다. 『수호전』은 이러한 농민봉기군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박태원은 번역저본의 선택을 위하여서라도 120회본 『수호전』, 70회본 『수호전』 외에도 많은 다른 판본을 읽어 보았을 것이다. 120회본 『수호전』의 허무적인 결과에 대한 실망은 박태원으로 하여금 현실생활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자극하였을 것이며 이는 곧 광복 후에 현실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광복 후에 박태원은 일제 말에 완역하지 못했던 『수호전』 완역본을 추진하는 동시에 현실 참여의 성격이 짙은 소설들을 많이 창작해내었다. 그중 한 작품이 바로 그의 개작소설 『홍길동전』이다.

『수호전』의 官逼民反의 역사의식은 그의 『홍길동전』에서 그대로 나타나지만 시대적 의미를 갖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고도 할 수 있다. 작가는 『홍길동전』의 「책끝에」에서 해동요순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조가 『홍길동전』의 배경이라는 점에서 그의 행동의 정당성을 발견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연산

군 시대로 재해석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홍길동전』의 주제를 “替天行道”로 규정하고 있다(박태원, 1947: 175). 번역소설 중의 농민봉기 내용과 박태원 소설들의 농민봉기 내용이 흡사한 점이 많은 것은 번역작업이 소설 창작에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말해주고 있다.

## 2. 『홍길동전』과 『수호전』의 연관성

박태원의 『홍길동전』 개작은 중국 고전 소설의 번역과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수호전』의 번역과 『홍길동전』의 개작은 더욱 긴밀한 영향 관계를 갖고 있다. 허균의 『홍길동전』이 『수호전』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수의 연구결과가 있다.<sup>2</sup> 허균은 『수호전』의 애독자였고 『수호전』의 영향을 받아 『홍길동전』을 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치상황하에서 조정에 반란하는 내용을 담은 『수호전』의 부정적 영향을 혹평하였다. 당시 허균은 李卓吾評의 100회본 『수호전』과 120회본 『수호전』을 보았을 것으로 추측된다(이재수, 1956: 43-89). 따라서 그의 『홍길동전』 창작에 영향을 준 것은 100회본 『수호전』과 120회본 『수호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박태원이 번역한 『수호전』은 120회본과 70회본 모두를 번역저본으로 삼았으므로 그가 개작한 『홍길동전』은 120회본의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특히 70회본의 金聖歎評 『수호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박태원이 개작한 『홍길동전』은 일제말기 중국 소설의 번역으로 시작된 박태원의 작품 변모 경향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다음과 같은 데서 『홍길동전』과 『수호전』의 연관성이 발견된다.

---

2 이재수, 1956, 「한국 소설 발달 단계에 있어서 중국소설의 영향」, 『경북대학교 학술지』 ; 김상훈, 1961, 「비교학적으로 본 홍길동전과 수호전의 고찰」,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 이봉린, 1967, 「수호전이 홍길동전에 미친 영향」, 대구대 석사학위논문 ; 장주옥, 1974, 「수호전과 홍길동전의 비교」,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2.1. 대결구도의 유사성

박태원의 『홍길동전』의 대결구도가 『수호전』과 닮아 있다.

박태원의 『홍길동전』은 영웅적 존재를 통해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한 부정을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수호전』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김종욱, 1995: 236). 박태원의 『홍길동전』에서의 홍길동과 조생원은 활빈당 조직을 결성하는 목표를 곧 『수호전』의 양산박으로 정하고 있다. 박태원의 개작소설 『홍길동전』에서 조생원은 “동지만 있다면, 오늘이라도 양산박을 꾸며 볼 마음이 단단히 있네.” “이때야 말로 나는, 녹림에 호걸들이 모여서 체천행도(替天行道)－하늘을 대신하여 도를 행할 시기라 생각하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 그는 홍길동의 모사가 되려는 인물로 『수호전』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인물이다. 이러한 “양산박”, “替天行道”를 직접 언급하는 부분은 허균의 『홍길동전』에 없는 내용이다. 개작을 통해 『홍길동전』 원작에 『수호전』의 요소를 더 첨가한 것은 조정과 활빈당의 대립구도를 강화해준 셈이었다. 이는 허균의 『홍길동전』에 보이는 『삼국지』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과는 연관된 듯 하다. 허균의 『홍길동전』에는 길동이 서당에서 “대장부 세상에 나매, 공명(孔明)을 본받지 못하면, 차라리 병법을 배워 대장인을 허리에 비껴차고 동정서벌하여, 국가에 큰 공을 세우고 이름을 만대에 빛냄이 장부의 쾌사라(허균, 1994: 398).”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박태원은 “孔明”을 직접 언급하는 내용을 제거하였다.

『수호전』의 영웅적 인물들이 부패한 사회적 환경을 경험한 후 정치적 부패와 사회적 환경을 경험한 후 정치적 부패와 사회적 무질서를 극복한 대안적 세계인 양산박을 형성하였듯이 박태원의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은 신분질서와 연산군과 지배계층의 부정부패에 대한 저항으로 의적이 되는 것이다.

박태원은 고본에서는 나오지 않는 음전이라는 인물의 설정을 통해 대립구도를 강화하였다. 박태원의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은 음전의 희생을 경험한

후 기존 질서를 부정하는 문제적 인물로 성장하는 것이다(김종욱, 1995: 237). 음전은 박태원의 각성을 촉구하는 중요한 인물로 등장한다. 음전은 아버지와 오빠를 왜적의 손에 잃고, 이붓아버에게 가진 구박을 다 받다가 유일한 의지로 삼던 어머니마저 쉽게 여의고 포악한 연산과 간신배무리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는 인물이다. 음전의 죽음으로 홍길동이 연산군과 그 간신배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타올랐다. 박태원은 작품에서 음전의 생명을 앗아간 악한 지배계층은 음전의 아버지와 오빠의 생명을 앗아간 왜적과 다름없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 음전의 불행한 운명을 통하여 작가는 왜적의 횡포라는 민족적인 문제와 폭군과 탐관오리들의 횡포라는 사회적 문제로 승화시키고 있으며 홍길동과 활빈당의 역사적 정당성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박태원의 『홍길동전』은 허균의 『홍길동전』에 비해 대립구도를 강화하였다는 데서 박태원의 『홍길동전』이 70회본의 『수호전』에 더 접근하여 있음을 볼 수 있다. 박태원은 허균과는 달리 홍길동의 아버지 홍판서와 형 인형을 모두 부패한 지배계층으로 제시하는데, 이는 아버지 세대의 부정부패를 아들 세대의 손으로 척결하려는 작가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는 부패한 지배계층인 연산군과 활빈당 사이의 대립관계의 해소를 막기 위한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박태원은 120회본을 번역저본으로 삼았지만 그중 일부는 조정과 양산박의 대립관계로만 일관된 70회본 『수호전』을 번역저본으로 삼아 번역을 하였으며 형식상 70회본의 구조를 많이 취하였다. 허균의 『홍길동전』으로는 지배층과 활빈당의 관계가 마지막에는 일종의 화해로 끝나버리고 마는데 박태원은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홍길동전』에서는 부패한 조정을 대표하는 연산군과는 끝까지 대립으로 그리고 있으며 중중반정에 이르러서야 조정과 화해를 이루도록 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박태원은 선악대립의 구조를 취하였지만 단순히 지배계층을 “악”으로 제시하고 피지배계층을 “선”으로 대비시키지 않았다. 악에 속하는 지배계층은 연산군과 탐관오리들이며 중중반정 세력은 악의 범주에

들지 않았으며 포도대장 이흠도 악의 범주에 넣지 않고 후에 홍길동에 감화되어 귀화하는 인물로 그렸다.

## 2.2. 시대적 배경, 등장인물 및 일부 사건의 유사성

박태원의 『홍길동전』은 시대적 배경 설정 방법과 일부 등장인물의 유형, 일부 사건의 내용 등 면에서 『수호전』과 비슷한 점이 있다.

작가는 『홍길동전』의 「책끝에」에서 배경을 연산군 시절로 재창작한 것은 홍길동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라고 말하고 있다.

홍길동과 그의 활빈당(活貧黨)이 눈부신 활약을 하고, 그들의 활약이 충분히 뜻 있는 것이기 위하여는 아무래도 어두운 시절, 어지러운 세상이어야만 하겠다. 이조(李朝)에 있어, 드물게 보는 영명(英名)한 군주(君主)로, 『해동요순(海東堯舜)』의 일 커름까지 받는 세종대왕(世宗大王) 재위년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여서는 모처럼의 『홍길동』이도 한갓 요망스런 작란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리하여 나는 역사 위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어지러웁고 또 추악하던 인군 연산(燕山)의 시절을 빌기로 하였다.……그러한 시절에 있어, 길동이는 결국 『활빈당』의 맹주가 되지 않고는 못 배겼으리라 믿는다(박태원, 1947: 175).

실제로 작품은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하여 소설화함으로써 연산군의 황음무도(荒淫無道)와 지방관리들의 부정부패상을 폭로하고 있으며 활빈당의 결성원인과 발전과정 및 활약상을 지극히 신빙성 있게 펼쳐 보이고 있다.

박태원의 『홍길동전』은 그 시대적 배경을 연산군 시대로 하고 있으며 임사홍, 유자광 등 간신이 득세하고 있다. 이는 『수호전』의 시대적 배경이 고구, 채경 등 탐관오리들이 득세하고 있는 휘종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과 비슷하다. 『수호전』에 고구와 그의 수양아들 고아내가 부정인물의 전형으로 등장한다면 박태원의 『홍길동전』에는 이와 대응되게 임사홍과 그의 아들 임승재가

온갖 나쁜 행태를 저지르는 부정인물로 등장한다. 박태원은 홍길동과 관련된 인물들의 창조로 이 작품을 지극히 현실적인 작품으로 개작하는 데 성공하였다. 『수호전』의 많은 영웅호걸들이 등장하며 처음에는 제각기 활동하다가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양산박에 모이게 된다면, 『홍길동전』에서도 보면 홍길동, 조생원 등이 등장하며 처음에는 제각기 활동하다가 선산, 문경에 모인다. 조생원 같은 인물은 『수호전』의 군사 오용과 같은 참모역할을 하는 인물로 등장하며 홍길동과 조생원의 관계는 송강과 오용의 관계와 비슷하다. 홍길동의 음전을 잃게 된 분노의 감정을 의적 활빈당의 괴수로 이끌어준 것은 조력자로서의 조생원의 지략과 지혜에 의해서이다. 이흠은 홍길동을 잡기 위해 문경으로 내려온 사람이 결국 활빈당의 두령이 되어 용문산패의 우두머리가 된다. 이는 『수호전』의 많은 두령들이 관군의 신분으로 양산박을 치러 내려왔다가 양산박에 의해 잡혔다가 양산박에 가담하는 것과 흡사하다. 그리고 박태원의 『홍길동전』에서 지방 탐관오리가 서울 권문세가에 바치는 봉물짐을 뺏고 량반 토호들의 집들을 들이치고 그 재산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등 내용은 『수호전』을 많이 닮아있다.

“홍길동”이 연산군조의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을 박태원이 미리 알고 있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박태원의 이와 같은 시대배경 설정은 박태원 개작의 『홍길동전』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박태원은 『수호전』을 번역하면서 허랑방탕한 일개 부랑자 고구가 태위가 되어 忠良을 해치기 시작하는 서두에서 당시 부패한 사회가 양산박을 낳았다는 『수호전』의 주제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게 되었다. 박태원은 허균의 『홍길동전』이 시대적 배경 설정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었고 개작을 하면서 『수호전』의 시대적 배경 설정 방법을 패러디<sup>3</sup>하기로 하

3 패로디는 문학전통을 예민하게 인식하는 거리와 차이의 기법이다. 자기만의 개성적 스타일을 창조하는 일이 더 이상은 가능하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다양한 스타일을 다소 무분별하게 모방하는 경향을 보이는 패스티쉬와는 달리 패로디스트는 선행텍스트를 모방하되 그와는 다른 별종의 세계를 창조한다. 따라서 모방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계기일 뿐이다. Linda Hutcheon, 2000, *A Theory of Parody*,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30-49(방민호, 2001, 『체

였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홍길동이라는 영웅의 출현에 개연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홍길동전이라는 평범한 민중적 영웅인물을 형상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박태원은 “해인사를 들이친 전후곡절에 관하여는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저술된 고본 『홍길동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박태원 1947: 80)”며 해인사 사건의 내용을 고본의 것을 그대로 인용한 후 “고본 〈홍길동전〉은 단순히 소설로 볼 때는 흥미가 아주 없지도 않으나 문헌으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는 저술이다(박태원 1947: 83)”고 언급하였다. 이로부터 박태원은 소설로서의 가치를 염두에 둘 뿐 아니라 역사적 문헌으로서의 가치를 추구하는 창작방법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홍길동”은 연산군조의 실존인물이다.<sup>4</sup> 이는 박태원에 의해 새롭게 창작된 『홍길동전』은 허균의 작품보다 실제 역사적 사실에 근접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박태원은 홍길동을 실제 인물에 가깝게, 즉 비범한 영웅 보다는 자연적인 영웅에 가깝게 형상화하고자 하였고 객관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박태원의 『홍길동전』이 허균의 소설과는 달리 보다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작품으로 완성될 수 있는 데에는 『수호전』을 번역하면서 변모된 작가의 역사 의식이 크게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흥판서의 서자로 태어났고 활빈당의 피수가 되는 기본줄거리는 같으나 새로운 시대적 배경의 설정을 통해 새로운 영웅인물의 형상을 창조해내었다.

---

만식과 조선적 근대문학의 구상』, 소명출판, 152쪽 재인용).

4 이능우, 1969년 2월 28일, 「〈홍길동傳〉과 許筠의 關係—實在 傳說型의 人物 洪吉同의 出現에서—」, 『국어국문학』 42·43호, 국어국문학회, 5-10 ; 김기동, 1981년 12월, 「文獻說話에 나오는 洪吉童—洪吉童은 實存人物이었다—」, 『한국문학연구』 4권, 동국대학교한국문학연구소, 331-336.

### 2.3. 신화적 색채의 약화와 현실적 요소의 강화

박태원은 허균의 『홍길동전』의 신화적인 색채를 약화시키며 홍길동의 인간적인 면모를 창조하였는데 이는 박태원이 『수호전』을 번역하면서 원문의 신비스러운 내용의 서두(楔子, 「張天使祈禳溫疫 洪太衛誤走妖魔」)를 생략하고 번역하지 않음으로써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것과 비슷한 처리방식이다. 물론 박태원이 『수호전』의 서두를 생략한 것은 서두가 108호걸을 요마로 폄하하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주인공들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박태원의 의도가 작용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허균의 『홍길동전』은 환상적인 색채로 초인간적인 영웅을 그려냈다면 박태원의 『홍길동전』은 역사적 무대에서 서서히 성장하고 각성하고 활약하는 진실한 영웅과 민중 속에 몸을 둔 영웅을 그려냈다. 박태원의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은 신화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으로 조생원의 지략에 도움을 받고 민중들의 지지를 받아 악한 지배계층을 벌하고 그들에게 거두어 들인 재물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영웅의 고뇌는 개인적인 고뇌로부터 민중적이고, 사회적이고, 민족적인 고뇌로 확대된다. 또한 그 과정에서 폭압이 가혹해질수록 저항이 심해진다는 官逼民反의 논리를 보여주며 연산군을 대표로 하는 지배계층의 부당성과 피지배계층의 반항의 정당성을 부각함으로써 민중에 의한 역사를 제시하였다.

박태원이 허균의 『홍길동전』의 신화적인 색채를 약화시킨다는 것은 바로 『홍길동전』에 들어 있는 『서유기』적 요소를 삭제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허균의 『홍길동전』에는 경개가 절승한 곳에 큰 바위 밑에 돌문이 닫혀 있고 돌문을 여니 넓은 평야에 수백 가구 집이 들어 서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벌유동천 화과산 수렴동을 연상케 한다. 그리고 고본에 나오는 똑같이 생긴 여덟 홍길동이가 등장하여 서로 자기가 길동이라고 고집한다는 내용은 똑같이 생긴 손오공 두 명이 서로 자기가 진짜 손오공이라고 다투는 장면

과 흡사하며 그 여덟 홍길동이가 모두 짚으로 만든 초인이 化한 것이란 내용은 손오공이 자신의 털을 원숭이로 化시키는 내용과 흡사하다. 이러한 고분의 신비스러운 내용들을 박태원은 전부 제거하고 별유동천을 현실적인 공간인 문경 토기벼루로 대신하였고 똑같은 홍길동은 분장에 의해서라고 리얼하게 그리고 있다.

#### 2.4. 결말의 유사성

『홍길동전』의 결말에서 70회본 『수호전』과의 유사성이 많이 보인다. 『홍길동전』의 낙관적인 결말은 박태원의 『수호전』의 난관적인 결말과 비슷하다. 둘 다 모두 축제적인 분위기가 짙은 장면들로 결말을 맺었다.

『홍길동전』의 결말은 중중반정이라는 축제적인 분위기다. 홍길동은 이 축제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새 임금이 인군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뒤로 물러선다. “의적”으로서의 홍길동의 활빈당 활동과 탐관오리와의 대립은 중중반정에 이르러 의병대장으로 역할전환이 이루어진다. 연산군 폐립을 계획하는 홍길동은 끝내 성희안, 박원중, 유순정 등 진성대군을 추대하기 위한 자들과 손잡지 못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임금을 맡기고 민중 속으로 물러나게 된다.

박태원의 『수호전』은 양산박 108 호걸들이 모두 모이는 “양산박 대취의”, 大團圓의 축제분위기속에서 결말을 맺었다. 비록 대취의의 그날 밤에 노준의가 108호걸들이 일제히 處斬당하는 꿈을 꾸는 장면은 그들이 조정의 招安을 받아들여도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비운을 암시하기는 하나 꿈을 깨어보니 “일개 편액(一個扁額)에, 『천하태평(天下太平)』이라 사개 청자(四個靑字)가 씌어 있었다……”<sup>5</sup>고 되어 있어 단지 꿈이었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박태원은 송강의 변절과 108호걸이 죽어가는 비참하고 허무한 결말이 있는 120

5 박태원 역, 1950년 1월 15일, 『수호전』 제3권, 정음사, 536면.

회분의 형식으로 결말을 맺은 것이 아니라 108호결이 양산박에 모이는 것으로 끝을 맺는 70회분의 형식으로 결말을 맺었다. 이는 아마 양산박과 조정을 끊임없는 대결의 관계로 처리한 70회분이 박태원의 변모된 역사의식에 더욱 부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홍길동이 조정과 대결을 하다가 중종반정을 맞으며 스스로 몰리가고 108호결은 모이며 계속 대결을 펼쳐나갈 것이라는 두 소설의 결말은 다른 점도 있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면 두 소설 모두 축제적인 장면으로 끝맺고 있으며 낙관적 결말이라는 데서 공통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홍길동이 몰리난 것도 불의에 굴복해서가 아니라 중종반정이라는 정의의 결과를 맞았기 때문이며 불의를 만나서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몰리난 것이다. 박태원 번역의 『수호전』이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대결을 펼쳐나간다는 결과가 『홍길동전』의 정의가 이긴다는 결과와 유사성을 가질 뿐 아니라 박태원이 허균의 『홍길동전』의 울도국 건국이라는 환상적인 결말을 버리고 현실적인 역사적 사건인 중종반정으로 결말을 맺는 것은 『수호전』의 번역에서 서두부분의 환상적인 이야기를 삭제함으로써 얻는 효과와 동일한 처리방법인 것이다.

박태원이 역사적 사건에 의하여 『홍길동전』의 결말을 맺는 것은 스토리를 사실인 것처럼 전개해나가려는 박태원의 작가의식이 작용한 결과이다. 만일 박태원이 홍길동전의 영웅적인 위력에 의해 연산군이 몰리나게 된다는 급격적인 결말을 선택하였다면 박태원이 조생원과 음전이 등 인물형상을 등장시킴으로써 홍길동전의 신화적 색채를 약화시키는 효과에 역행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한 사람의 영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정당성에 의해 연산군이 중종반정에 의해 폐립된다는 객관적 현실의 논리가 반영되지 못하게 된다. “맨상투 바람의 젊은 농군”의 홍길동이 “새 인군은 착하고 어즌 인군이 되어” 달라는 바람을 드러내는 것(박태원 1947: 172)으로 끝맺는 것은 바로 봉건시대 홍길동과 활빈당의 정치적 실천의 시대적 한계를 드러

내는 효과를 갖는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결말에 이르러서는 홍길동을 죽이고 말았다”<sup>6</sup>고 한 것이다. 이러한 박태원의 결말은 영웅호걸들의 정치적 실천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또한 120회본 『수호전』의 108호걸들이 招安을 받는다는 결말과 흡사하다. 박태원이 비록 120회본 『수호전』을 번역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읽었을 것임으로 그 결말을 참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 3. 결론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홍길동전』과 『수호전』의 연관성을 대결구도의 유사성, 시대적 배경·등장인물 및 일부 사건의 유사성, 신화적 색채의 약화와 현실적 요소의 강화, 결말의 유사성 등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박태원의 『수호전』과 박태원의 『홍길동전』은 비슷한 점이 많지만 다른 점도 많다. 양산박의 두령들과 달리 홍길동과 조생원은 부정하게 재산을 모은 아버지를 떠나 선산으로 오게 된다. 홍길동과 조생원의 부모들의 부정이 자식 세대에 의해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인식은 허균의 『홍길동전』과 『수호전』이 미치지 못한 점이다.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그 부정적 현실을 개혁하려 하는 주인공들의 선명한 의지는 당시 해방공간에 새로운 민족 국가의 건설에 대한 작가의 염원과 소원을 담고 있는 것이다. 비록 홍길동의 한계를 드러내는 결말을 취하였지만 민중의 힘에 대한 긍정을 담은 박태원의 역사의식은 작품 속에서 충분히 반영되었다. 박태원의 『홍길동전』에서는 영웅에 의한 사회변혁은 역사발전법칙에 맞는 사회변혁과 일치하여야만 비로소 역사적 정당성을 갖게 되며 영웅적인 개인은 민중의 뜻, 힘과 결합되어야

6 “더구나 결말에 이르러서는 작자 자신이 크게 불만이다. 모처럼 홍길동이란 이름을 살펴보고 고 뜻을 들었던 노릇이, 결말에 이르러 아주, 죽이고 말았다(박태원, 1947, 『홍길동전』, 조선 금융조합연합회, 176).”

무궁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해방공간에 창작된 박태원의 『홍길동전』은 시대적인 원인으로 하여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이 허균의 『홍길동전』과 『수호전』보다 훨씬 심층적이다.

## 참고문헌

- 박태원 역, 『수호전』, 『조광』, 『한국근대단편소설대계 5』, 1942년 8월, 10월, 1943년 1월, 2월, 7월, 8월, 10월, 12월, 1944년 1-12월.
- 역, 『수호전』, 정음사, 1948년 12월 20일 제1권 발행, 1949년 2월 20일 제2권 발행, 1950년 1월 15일 제3권 발행.
- (1947) 『홍길동전』, 조선금융조합연합회.
- 허균(1994) 「홍길동전」, 장영우 편, 『한국 대표 고전 30선』, 춘원문화사, 398.
- 施耐庵 著(1933) 汪原放 句讀, 『水滸』, 14版, 亞東圖書館.
- 著(1929) 『一百二十回的水滸』, 上海: 商務印書館.
- 강상희(1990) 「박태원 문학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강진호 외(1995) 『박태원 소설연구』, 깊은샘.
- 김기동(1981) 「文獻說話에 나오는 洪吉童—洪吉童은 實存人物이었다—」, 『한국문학연구』 4권, 동국대학교한국문학연구소.
- 김봉진(2001) 『박태원 소설세계』, 국학자료원.
- 김상태(1996) 『박태원—기교와 이태올로지』, 건국대학교출판부.
- 김상훈(1961) 「비교학적으로 본 홍길동전과 수호전의 고찰」,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 김종욱(1995) 「일상성과 역사성의 만남」, 강진호 외, 『박태원 소설연구』, 깊은샘.
- 김홍식(2000) 『박태원 연구』, 국학자료원.
- 이능우(1969) 「〈홍길동傳〉과 許筠의 關係—實在 傳說型의 人物 洪吉童의 出現에서—」, 『국어국문학』 42·43호, 국어국문학회.
- 이봉린(1967) 「수호전이 홍길동전에 미친 영향」, 대구대 석사학위논문.
- 이재수(1956) 「한국 소설 발달 단계에 있어서 중국소설의 영향」, 『경북대학교 학술저널』.
- 장주옥(1974) 「수호전과 홍길동전의 비교」,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1993) 『박태원 문학연구』, 국학자료원.

# 해방 전 재증 유이민소설에서 본 인신매매의 의미

남 춘 애

중국 대련민족대학교

## 1. 서론

지금까지의 해방 전 중국 유이민문학<sup>1</sup>의 연구는 나날이 심화되고 확대되어 이미 국제화되었고 이와 더불어 많은 연구 성과를 쌓았다.<sup>2</sup> 그러나 이런 다양한 연구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유이민문학 연구는 새로운 연구의 공간을 남겨 두고 있는데, 이것은 입지에 따라 새 연구를 가능케 하는 학술 연구의 보편 원리에 의한 것이다.

문학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학작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

1 '유'이란 현재 당면한 국내외 정세나 대세를 가리키는 말로, 본고에서 말하는 '유이민문학'이란 "고통스러운 실향의식 및 민족 수난의 역사적 의미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작품들로서, 다만 발표시기가 그 시대 일제의 군국주의치하라는 특정 조건을 담고 있다. 타자의혹독한 무력침탈로 말미암아 삶의 뿌리를 송두리채 뽑힌 극악 상황에서 생활의 새 근거지를 위해 다른 나라로 유랑 이주하는 과정이나, 이주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소설들"이라 지칭한다.

2 불확실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 일본, 중국 연구학자들이 창출한 유관 연구 논문은 통합 500여 편, 단행본이 200여 편이 된다고 한다. 대표적인 학자로: 한국의 오양호, 민현기, 표언복; 일본의 오오무라 마스오(이 학자는 1985년 중국 북간도의 명동촌에 있는 윤동주의 생가를 처음 찾아간 사람이다. 그가 윤동주 묘와 비석을 찾은 것을 계기로 윤동주에 대한 연구가 열을 띠기 시작했고, 이는 유이민사문학 연구에 획기적 의미를 지닌다. 백성민, 2001.3, 『유서깊은 명동촌』, 연변인민출판사), 중국의 황유복, 김호웅 등.

그 의미와 가치를 분명히 드러내고, 해당 작품 혹은 작가의 문학사적 위치를 정확히 자리매김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크게 다를바 없이 유이민소설 중의 인신매매 모티프에 입각하여 그것을 유형화하고 그에 나름대로의 의미적 가치기준을 부여하는 과제를 그 목표로 삼았다. 말하자면 유이민여성들의 성매매를 방조한 식민지 체제나 사회적 빈곤 속에서 행해졌던 그 시대 조선 여성의 참극이 갖는 표면적 의미와 그 뒤에 숨어있는 이면적 주제를 접목시키는 일에 주안점을 두고자 하였다. 물론 이러한 입지는 해석의 자의성과 관련되게 되고, 이로하여 문학작품에 표현된 사실적 의미를 떠나 새로운 의미가 재생산되기도 하는데, 인신매매를 모티프로 한 해방 전 재중 유민소설을 연구하다 보면 성매매가 그녀들에게 보편적 생활 규범이기도 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도 된다. 그녀들은 국권 상실의 희생자이며 토지의 소유권이나 경작권을 유린당한 유랑민으로서 그 시대에 맞먹는 한민족의 정신적 분위기의 한 단면을 형성하였다.

韓민족은 식민지 국민으로 36년간의 역사 흐름 속에서 한많은 아픔을 경과하였다. 그 중에서 여성의 성적 침탈과 인권 유린이라는 가장 파렴치한 사회악까지 겪어온 것은 이미 증언된 역사적 진실이다. 이와 같은 사회 상황의 배면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다. 먼저 남성지배의 가부장사회<sup>3</sup>라는 유교적 사상이 그 온상이 되었다. 말하자면 “여성의 노동력이나 성적 능력이 남성 가족원의 이익 속에서 상품화 되고 대여”<sup>4</sup>되는 유교적 상황이 유이민소설에 재연된다. 이를테면 빚 대신 아내나 딸을 저당 잡히는 일, 더욱 심각한 것은 여성을 선물품으로 삼거나 별의 목적으로 팔아먹는 등 역사적 진실들이 증언이

3 드루드 달립, 1989, 「개념의 혼돈—현실의 혼돈: 가부장제국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여성과 국가』, 한국여성개발원, 18쪽. 이 연구에서는 가부장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가부장은 연장자인 남성에게 의해 지배되는 사회를 일컫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좀더 간단히 말하자면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소유인 여성, 자녀, 노동자, 하인 등에 의한 봉건적 지배를 뜻하는 것이다.

4 거더 러너, 2004, 『가부장제의 창조』, 강세영 옮김, 당대, 253쪽 재인용.

되어 유이민소설에 담겨있는데, 최서해의 「홍염」<sup>5</sup>을 위시한 많은 유이민소설들은 이 점을 잘 부각하고 있다. 이런 유이민소설들은 그 시대에 있어 여자는 생계해결책의 최후대책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문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여자와 밥을 바꿀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은 그 시대의 삶이 유이민여자에게 썩워준 운명적 멍에가 되어 그들의 삶의 권리를 박제화하였다. 따라서 유이민여성들은 그러한 삶의 운명을 진단한 후 숨가쁘게 적응하고 반응하는 일군이 되는데, 유랑의 길에 방치된 가족이 생계를 위해 선택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 몰풍스러운 삶의 모습은 유이민여성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고 있고, 그들이 사회와 맺는 관계의 한 방식이 되기도 했다.

다음, 그 시기 도덕 기준과 가치의 가늠자에 의한, 말하자면 시대적 윤리 조건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그 시대에 있어 ‘여성은 한낱 남성의 재산으로 취급되었고 남성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던 삶의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망국이라는 시대 현실에 의해, 그리고 그러한 시대의 억압과 강제에 의해 기인된 심각한 사회악 속에 인신매매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중 삼중의 아픔은 그 시대 여성들을 극참에 이르게 하였다. ‘모든 도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점은 그것이 강제의 오래된 역사를 가졌다는 점’<sup>6</sup>이다. 니체의 이 말에서 인간의 도덕적 삶은 오랜 역사적 연원을 가지며 그런 만큼 완고한 강제를 동반한다는 것이 해명된다. 따라서 유이민소설의 인신매매현상은 그 시대 사회도덕의 역사성과 병행하게 된다. 물론 유이민소설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인식 지평에 따라, 그리고 역사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그 의미적 차원을 나름대로의 시점에 맞추어 달리 이해하고 설정할 수는 있다. 이를테면 유이민소설에서 인신매매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으로 그려져 있다<sup>7</sup>거나 시대의 유행병으로 짚고 넘어가는 이해방식 등이다. 그러나

5 최서해, 1927.1, 「홍염」, 『조선문단』.

6 니체, 1982, 『선악을 넘어서』, 김훈 옮김, 청하, 109~100쪽.

7 김창걸의 작품 「암야」에서 보여준 부분이다. 이를테면 다섯 딸을 팔아 한 아들을 장가보내

극명한 것은 극소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성노동·성착취·성매매 등의 명어를 쓴 유이민여자들의 운명은 억압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생활이란 말 그대로 죽음을 동반한 지옥 자체일 수밖에 없음을 결론짓는다.

상술했다싶이 유이민소설들은 그 자체가 시련과 수난의 대명사라는 거대 의미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따라서 작가의 서술 관점이 유이민 생활의 시련과 수난에 더 많은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경우들을 그 모티프별<sup>8</sup>로 하나씩 파헤치어 그 이면적 의미를 탐구해 보는 일은 유이민 현실에 대한 연구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름대로의 새 의미를 부여하는 일은 그 의의를 갖는다. 유이민여성들의 ‘삶은 이야기될 필요가 있고 그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sup>9</sup>이다. 새로운 시점의 확립은 언제나 중요한 것이다.

## 2. 인신매매의 양상

상품화되어서는 안될 여자의 몸이 팔고 사는 ‘상품화’로 되어가는 과정, 자유 의지에 반하여 제 3자에 의해 몸을 상품화해야만 했던 쓰라린 역사를 그린 소설들은 해방 전 유이민소설들에서 모티프군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유이민소설들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테마 중 골간을 이루는 하나의 영역이다. 현재의 시각으로는 어처구니없게 보일지 모르나, 인신 자체를 매매의 상품으로 간주하는 반사회적·반인륜적 사건들은 해방 전 중국 유이민소설들에 자주 나타나는 서사 주제의 중요한 패턴임을 실감하게 된다. 소설적 사실들에서는 가족에 국한된 표면이 확장되어 그녀들의 뒤에 있는 나라적인 참상이 보인

---

며 팔 때는 고가로 팔고 살 때는 저가로 하여 으리으리한 부자가 되었다는 소설적 이야기다. 그리고 안수길의 「벼」에서 기생 향옥이가 매봉돈에 벌이는 술장사 쌀장사가 이에 속한다.

8 남춘애, 2007, 「해방 전 중국 유이민소설에 나타난 소금의 의미」, 『어문연구』 54집 ; 「해방 전 중국 유이민소설에 나타난 아편의 의미」, 2007,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7집.

9 폴 리콕르, 1999, 『시간과 이야기』, 김한식, 이경래 옮김, 문학과 지성사, 167쪽.

다. 유이민여성들은 사회상이 부여하는 비참한 삶의 요청을 강제적으로 받아들이는 고통스러운 존재들이었지만 가해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수 없는 삶을 살았다.

“타인을 폭력, 심한 해악에의 협박 또는 술책으로 그가 매음을 하도록 하거나, 타국에서 그의 체재와 결부된 빈궁함을 이용하여 그가 제 3자에게 또는 그 면전에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에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집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술책, 협박 또는 폭력으로 유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 비교적 덜 중한 경우에 있어서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sup>10</sup>는 규정은 일찍 그 시대 법도로 정해져 있었지만, 나라를 상실하고 법의 보호가 전무한 상황에서 인신매매를 강요당했던 유이민사회와는 무관했다. 그때 유이민여성은 인격적 인간으로보다는 물적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몸은 마음의 통(筒)으로, 몸을 먼저 법도와 규범 가운데 둬으로써 사사로운 욕망을 이기도록 해야 함<sup>11</sup>을 인격적으로 체득하여 간직할 수 없는 사회현실과 생활 상황은 여성들이 성매매에 나서야 할 이유를 직설한다. 그들은 몸을 버리는 삶을 통해서 생존을 가능케 하려는 무리들이다. 유이민여성의 삶에서 우선되어야 할 가치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희생이다. 그 희생의 뒤에는 그 시대 유이민여성들의 삶에서 우선되어야 할 가치를 부각해 준다.

유이민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반영되고 있는 인신매매는 사회적·역사적·경제적인 요인이 위주가 되고 있으면서도 유교사상의 축이 되어있는 남자 지향적 사회의 단면도 내포되지 않은 건 아니다. 나라 없는 배경 하에 노출된 여자가 강요당하는 것이라면 가정을 위한 희생이고, 희생당함이고, 성적 노예가 되어 지옥을 살거나 또는 죽음의 길이다. ‘복잡하게 뒤엉켜있는 문화적인

---

10 『인신매매의 실태에 관한 연구』, 199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6쪽.

11 전목(錢穆), 1997, 『주자학의 세계』, 이완재, 박도근 옮김, 이문, 111쪽.

텔레마, 말하자면 재산으로 간주되는 여성, 남자의 소유물로 간주되는 여성, 프르노와 성욕의 공포, 섹스와 사회계급<sup>12</sup> 등 윤리관과 이중 규범의 사회상은 여자의 삶에 필연적으로 매춘부라는 계층을 형성시켰고 그 역시 여성의 삶을 영망으로 내모는 길이기도 하다. 빛 대신 지주나 유곽에 팔려가는 경우<sup>13</sup>나, 아편 값으로 되놈<sup>14</sup>에게 팔리는 경우나, 자진하여 접대원<sup>15</sup>이 되는 경우 모두 통합하면 역시 하나의 성격, 말하자면 성을 팔아 생계를 유지한다는 제도화된 시장일 뿐인데 이 역시 유이민 삶에 실존했던 진실의 재현이다.

인신매매가 행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원인이라면 유이민사회에서 아내나 딸을 포함한 부녀자들을 팔았다 하여 어떠한 법적인 제재도 따르지 않았던 데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예외가 있다면 유이민소설 중 이태준의 「아무일도 없소」<sup>16</sup>에서 주인공 여자가 밀매음 혐의로 경찰청에서 매를 맞고 일주일 동안 유치장 신세를 지며 단속을 받는 장면이 한번 등장했을 뿐이다. 이것은 유이민여성들의 매매행위가 정론화 되었다는 표징의 하나로서 도덕에 입혀진 여성의 관습적 규범이 깨어지고 ‘매춘은 오로지 여성의 일로 정의되어 왔’다는 것을 알수 있게 한다. 유교의 아버지인 공자를 위시하여 그의 제자들에 의하면 ‘여성 최대의 임무는 남편과 양친에 순종하는 일,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는 것’이다. 말하자면 여성의 생물적인 기능이 강조되고 정신적면의 가치는 둘째다. ‘유교의 이상은 오로지 가사에 전념하는 여성이며, 가정 외의 일에 여성

12 번벌로, 보니 벌로, 1996, 『매춘의 역사』, 서석연, 박종만 옮김, 까치, 14~17쪽 참조.

13 이서구, 1928.1.22, 「눈물에 젖는 사람들」, 『매일신문』. 주인공 인순이는 아버지 김유진에 의해 빚값에 팔려 청인에게 끌려가서 유린당하고 나중에 화류병에 걸려 죽는 사실을 쓰고 있다.

14 ‘되놈’이란 그 시기 부득이 중국으로 이주한 유이민들의 눈에 비친 중국인의 깔꿈하지 못하거나 부정한 면을 표달한 저하의 말이다.

15 이효석, 1929, 「기우」, 『조선지광』. 이 작품에서는 영어와 일어에 능통한 지식인 계순이가 덮쳐드는 생활난의 해결책으로 스스로 작부로 매춘부로 전락하는 유이민으로 그려졌다.

16 이태준, 1931.7, 「아무 일도 없소」, 『동광』, 216쪽.

이 참여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으로 간주되었고 여성은 결혼 전에는 부친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더욱이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들에게 그 운명이 맡겨졌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이었으나 그것마저도 가족의 손으로 결정된다. 부친이 마음만 먹는다면 딸을 매춘부로 팔수도 있었다.<sup>17</sup>고 한다. 그 시대 유이민여성은 ‘삼종’의 도리를 따르고 적악한 일이 없지만 무성격적으로 무자아적으로 살아야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물론 중국에 이어 한국은 유교 특히 주자 성리학이 실현되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은 뿌리가 깊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사회 무대에서 유랑하는, 신분적으로는 아무 배경 없는 유이민일지라도 사상은 유교의 테두리 안을 벗어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의 병폐로 남겨놓은 것이 혈육을 파는 현상이었을 것이다.

### 3. 유이민의 삶과 인신매매

유이민소설에 있어 절대 다수의 매춘부는 양친이나 보호자에 의해 팔려서 넘겨지는 경우이다. 최서해의 「홍염」에서 용례나, 강경애의 「동정」<sup>18</sup>에서의 산월이가 그러하다. 채만식의 「정거장 근처」<sup>19</sup>에서는 무지한 돌쇠가 아내를 만주길로 행하는 노자로 팔아먹고 노모와 함께 만주로 떠나고 있다. 김소엽의 「끝없는 평행선」<sup>20</sup>은 남의 첩이 되어 재가한 어머니에 의해 ‘하얼빈’ 인육시장에 팔려간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아버지나 남편과 같은 남권사회의 희생물이던 여자가 이 작품에서처럼 어머니에게 팔려가는 경우는 거의 보기 드문데, 모성을 허물고 딸을 파는 어머니를 유이민소설에서 등장한다. 김연희

17 번별로, 보니 별로, 1996, 『매춘의 역사』, 서석연, 박종만 옮김, 까치, 159~161쪽 참조.

18 강경애, 1934, 「동정」, 『청년조선』, 5~10쪽.

19 채만식, 1937, 「정거장 근처」, 『여성』, 3~10쪽.

20 김소엽, 1935.6, 「끝없는 평행선」, 『조선문학』.

의 「파선」<sup>21</sup> 역시 「홍염」과 같이 빛 대신 여자를 공물마냥 바쳐야 하는, 즉 아내를 빼앗기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유괴되어 인신매매에 빠져버린 경우도 적지 않다. 김광주의 「아계」<sup>22</sup>는 돈벌이에 눈이 먼 친척의 속임수에 넘어가 매춘부로 된 경우이고, 이삼청의 「선중」<sup>23</sup>은 전문적인 인신매매업자에 의해 무리를 이루어 중국 대련으로 끌려가는 유이민소녀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유이민소설에 표현된 이런 문학적 사실을 해부해 보면 그 시대에 있어 그것을 그릇된 행위라고 감시하거나 질정하는 도덕적 구속은 전무되어 있다. 도덕을 규정하는 것은 인간이며 그에 따른 행위란 단지 부수적인 것에 불과<sup>24</sup>하다는 도덕 원리의 한 측면이 유이민여성의 삶을 상징해주었다. 그들은 다만 삶을 의무로 받아들이고 성을 팔아서라도 그 의무를 실행에 옮기는 ‘의무의 인간들’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의무는 그러한 모형에 단단히 결박되어서 결코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질곡의 현실은 그들에게 운명으로 주어졌을 뿐이다.

최서해의 「홍염」은 항상 방화나 살인의 모티프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인신매매 모티프로도 대표성을 갖는다. 문서방은 일할 수록 늘어만 가는 값을 수 없는 빛 대신 열일곱 살 나는 외동딸 용례를 인가에게 넘겨주고, 이로부터 용례는 성적 노예로 밖에 살 수 없게 된다. 문서방이 죽어가는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떠방에 갇힌 용례를 만나게 해달라고 몇 번이나 빌다시피 했지만 만나는 것마저 불허가 된다. 이로 하여 문서방의 행위에 인간으로서의 극단이 생길 수 있는 전제가 지어진다. 딸을 공물처럼 바쳐놓고 통한 속에 살지만 그래도 생을 포기하지는 못하고 인간의 삶에 대한 욕망을 이어간다. 죽어가는 엄마의 청마저 거절하는 지주 인가를 대할 때 최저층의 무서운

21 김연희, 1925, 「파선」, 『시대일보』.

22 김광주, 1936.9, 「아계」, 『조선문학(중보판)』.

23 이삼청, 1935.5, 「선중」, 『신홍』, 132쪽.

24 니체, 1982, 『선악을 넘어서』, 김훈 옮김, 청하, 208쪽.

인간은 비로소 살아나 한밤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는 인가를 도끼로 쳐죽이며 성의 시달림에 사람모양 아닌 용례를 품에 안는다. 이 와중에 문서방이 삶이라는 의무이행의 정상에서 인간의 참된 의미를 맛보았다면 그것은 순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구원받은 용례의 훗 날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로 나서기 때문이다. 소설이 상대하고 있는 그러한 사회의 맥락 안에서 구원을 받은 인신이지만 모든 것을 빼앗긴 용례에게는 역시 매춘의 길을 그냥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길 밖에 없을 것이다. 용례는 이 두 갈래 길에서 어느 삶을 선택하던 결과는 마찬가지다. 용례의 여생에는 기대나 확신이 서지 않는다.

강경애의 「동정」에서도 역시 빗값 대신에 팔려온 여자를 그리고 있다. 작품은 열 두 살 나이에 빗값에 팔려 용정까지 흘러든 산월이란 여주인공이 스스로의 삶의 비극성을 깨달음으로 자살의 길을 걷게 되는 이야기를 펼치고 있다. 접대부로 있으며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지만 사랑했던 남자로부터 배신당하고 주인에게 피멍이 들도록 매를 맞으며 살아야 하는 눈앞의 생활에 절망하고 만다. 마침 '나'라는 인물과 만나 동정을 받게 되고 또 나에 의해 자신의 처지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해보게 된 그는 탈출을 꿈꾼다. 하지만 여비를 대여 주겠다고 실재적 도움이 없는 거짓 동정 앞에서 더는 앞길이 없는 그는 탈주에서 실패하게 되며 우물에 몸을 던지는 죽음의 길을 택한다. 그녀에게 있어 살아남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살아남는다고 해도 여전히 매춘부로서의 고통을 씻을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죽음은 유이민여성의 삶에서 자유에로의 해탈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설야의 「인조폭포」<sup>25</sup>에서 인순이는 집안이 동양척식회사에 땅을 빼앗기고 몰락하는 바람에 만주의 M시에 팔려온다. '인육시장'에서 몸을 파는 인순이는 수돌이와 함께 탈출을 시도하지만 성공하지 못한다. 다시 인육시장에서

25 한설야, 1928.2, 「인조폭포」, 『조선지평』.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지속한다. 사랑은 지극히 아름답고 정상적인 정감이지만 유이민여성들의 삶에서는 도저히 소유할 수 없는 사치품이나 다름없다. 「인조폭포」는 아래에 논할, 자유에의 욕망을 실현한 「암야」와 동자격을 지니진 못했으나 유이민여성들이 아름다운 삶에 대한 절절한 갈망의지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

김창걸의 「암야」<sup>26</sup> 역시 가난 때문에 딸을 팔아넘기지 않으면 안 되는 비극을 그리고 있다. 빛 대신 팔려가는 소재를 다룬 작품 중의 하나로 딸을 팔수 밖에 없는 극빈에 시달리는 유이민의 생활난이 생생히 제시되었다. 고분이네 집은 이주한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이주민의 생활은 식민지시대 백성들이 임한 생활 터전의 갈라터진 원 이미지를 그대로 명시해준다. 주인공 고분이는 팔려가는 전날, 사랑하는 명손이와 야간도주를 하여 그 악운에서 벗어난다. 작품에 제시된 동족들 사이의 빈부의 차이로 갈라지는 계급적 대립의식이 내비치고 있다거나, 악운을 과감히 벗어나는 전망적 행위 등은 「홍염」, 「동정」, 「장삼이사」 등에 비해 앞서가는 점이다. 그런데 이 작품은 딸을 팔아 빚을 갚는 것이 망국민으로 타국에 흘러든 유이민의 어떤 풍속인양 그려지고 있다. 이는 유이민들이 딸을 팔아야만 살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생활의 필수로 그려져 있어 삶에 다른 전망을 전혀 그려볼 수 없는 처절한 느낌을 심심히 해준다. 이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성매매는 자그마한 물품 매매마냥 자연스럽게 유이민들이 삶의 보편 원리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을 확인하게 한다.

“마도강이란 돈바람만 분다더니 쪽지게 바람에 어깨만 붓네”라는 명손이 부른 홍염 노래가 말하고 있듯이 이주 10년이 되었으나 지게나무를 해다 시장에 파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대부분 유이민의 생활형편이다. 부자가 된 예외라면 ‘아들은 하나밖에 없으나 딸 오형제를 두어 며느리는 이백 원에 사

---

26 김창걸 외, 2006, 「암야」, 『중국조선족문학대계: 11』, 보고서.

오고 딸들은 고값으로 팔아 촌에서 받을 오십여 일경을 깔고 사는 요민'<sup>27</sup>이 된 최영감의 경우다. 김유사는 바로 이런 최영감의 돈을 일백 오십원 빚지고 있는 바람에 딸 고분이를 이백 원에 팔아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른다. “사실 고분이가 열 여덟이 되도록 팔리지 않은 것이 기적이다”라고 하거나, “네놈의 집에서 딸을 안 팔고 어디 일백 오십 원이 날데 있냐. 딸을 팔기 싫거든 네놈의 에미네래도 파러라, 어느게나 일백오십원 돈 될것만내노아라. 네놈이 팔기싫으면 내가팔마.”<sup>28</sup>라고 하는 최영감의 말이라든가, 또 고분이를 사려 하는 사람 중 고분이 아버지보다 몇 살 이상인 윤주사나 외눈통인 남주사나 모두 유이민으로서 여자를 팔거나 사는 매혼을 마치 정당한 일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런 매매가 유이민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은 주목할 점이다. 삶의 절박함때문에 성매매 행위가 확대되어 유이민의 삶의 의무로 전의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암야」의 인신매매는 중국 이주에 성공한 유이민들의 삶의 분위기 속에 너무나 깊숙이 스며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 이색적인 특성을 띠게 하는 것 외에 성매매는 생명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의 의무같은 것으로 되었음도 말한다. 그만큼 인신매매는 유이민들의 삶의 마지막 방선이면서도 일종의 막무가내한 에너지의 존재였음을 명시하는 이야기다.

김창걸의 「마리아」<sup>29</sup>는 제3자의 여성으로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형의 기생을 그리고 있어 또한 특이하다. 주인공 마리아는 한 유부남의 유혹에 걸려들어 몸을 망친 후 그 남자와 함께 살림을 차리고 살다가 본처가 나타나는 바람에 쫓겨나 카페의 여급으로 떨어진다. 마리아는 자기가 하고 있는 생활에 몸서리를 치면서도, 또한 시골로 도피하여 평화로운 전원생활을 할 것을 동경은 하면서도, ‘여자란 세상 어디에서나 꿩 앞에 선 병아리무리’라고 생각하며 그 생활로 삶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 여자다. 그의 이런 몸부림에는 불쌍한 여성

27 김창걸 외, 2006, 「암야」, 『중국조선족문학대계: 11』, 보고사, 135~136쪽.

28 김창걸 외, 2006, 「암야」, 상계서, 보고사, 136~137쪽.

29 김창걸, 1940.8.6~7, 「마리아」, 『만선일보』.

들의 희생과 타락을 강요하는 만주국의 현실을 암시적으로 비판한데 그 의미적 가치가 있<sup>30</sup>고 운명에 순종하듯이 부유하는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유이민의 어쩔수 없는 삶이 잘 각인된다. 김창걸의 이 두 작품에는 그러한 '시대의 풍상이 죽히 그려'<sup>31</sup>져 있어 유랑민들이 살아가는 불안한 삶의 조건과 간고한 생존 환경의 이면에 숨어있는 집요한 강요의 의미를 보게 한다.

이서구의 「눈물 젖은 사람」에는 두 매춘부가 부각되었다. 빗값으로 끌려간 열 여섯 살 난 인숙이인데, 성적 학대에 시달리다가 구출은 되었으나 깊어진 병 때문에 죽고 마는 비극을 그리고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인물 화숙은 부친이 이주비 마련을 위해 팔아넘기는 바람에 기생으로 전락된다. 몰락한 김유진은 만주로 갈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가족들에게는 수양딸로 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어린 딸 화숙이를 기생 장사꾼에게 이백원 받고 팔아넘겼다. 이는 김소엽의 「끝없는 평행선」에서 생모에 의해 팔려가는 딸을 그린 것과 비슷한 점이다. 아무리 혈육이지만 팔림을 당하는 이 일은 여자의 무가치적 비극인 것이면서도 여성성의 훼손적 비극이다. 그 비극 뒤에 비쳐진 것은 남성의 속수무책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상은 이스라엘의 사회질서하에 있는 '아버지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지배해온 한 재산권에 대한 양도'<sup>32</sup>와 같은 지배와 억압의 대상으로서의 유이민여성의 삶이 되었다. 여성매매는 고대의 흑인 노예의 역사에서 비롯하여 인류 역사와 더불어 존재해온 여성 억압의 최고 형태인 매매춘의 역사 속에 항상 존재해 왔다. 역사와 더불어 여성은 억압받고 예속되었으며 여성은 '최후의 식민지'로 남아있다.

이후 다시 천원에 전매되어 기생으로 전전하던 화숙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와 대학교수가 된 오빠를 통해 기적(妓籍)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길에 들어선다. 삶의 벼랑에 선 여인이 새 삶을 되찾는 예는 유이민소설에

30 김호웅, 1998, 『재만조선인문학연구』, 국학자료원, 214쪽.

31 김유정, 1936.12, 「새로운 문학의 목표」, 『풍림』 제1집, 34쪽 재인용.

32 스잔 브라운 밀러, 1990, 『성폭력의 역사』, 편집부 엮음, 일월서각.

서 「암야」 외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처럼 비난하거나 거부할 비관적인 세상에 생존의 새 공간을 마련한 화숙의 새 삶에는 희망적 의미가 생성된다. 이러한 전망성에는 작가의식이 매개된다. 속약하고 잔인한 식민화시대를 초월하고자 한 노력이 보인다. 때문에 이 작품은 인신매매의 비극에만 그치던 서사들의 반복적 형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인식소를 부각하여 인신매매가 진정 함의하는 영역을 넓혀 새로운 개체적 인격을 부각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운명으로는 받아들여지던 유이민여성의 극악한 삶에 새로운 지향을 심어주고 그들의 삶에 미래의식과 새 시각을 열어주는 데 기여하였다.

상술한 몇몇 작품과는 다른 경우로서 「마약」, 「기우」, 「장삼이사」, 「아무 일도 없소」, 「음학의 제단」, 「벼」가 있다.

강경애의 「마약」에서는 빛 대신 팔리거나 끌러가는 대부분의 경우를 벗어나 아편 중독으로 인한 남편의 계속적인 아편 흡연의 밀천을 마련하기 위해 팔려간 아내의 운명이 그려지고 있어 인신매매 모티프의 단일성과 국한성을 허물었다. 이 작품에는 남자가 타락된 생활의 밀천으로 인신매매를 강요하기도 했음을 배제할 수 없음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학적 사실에는 유이민여자는 용례나 산월이식으로 생계지책이 되었을 뿐만아니라 타락된 남자의 희생물로도 살아야 했던 극악한 사회풍조가 매개되는데, 이것은 매춘을 강요하는 유이민사회의 전반적인 실상이기도 한다.

이효석의 「기우」는 영어와 일어에 능통한 지식인이 덮쳐드는 생활난의 해결책으로 스스로 매춘부로 전락한 유이민여인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 계순은 경영 실패로 하여 몰락한 가족의 딸로서 두 번씩이나 팔려 다니다가 작부(酌婦)로 전락하고, 결국은 하얼빈의 '마굴'에까지 굴러 떨어진다. 계순은 성병이 깊어진 상태로 음독자살한다. 우리는 이 작품에서 사회적 안목으로는 꽤찮은 생활을 만들수 있으리라 믿게 하는 지식층 유이민여인의 경우일지라도 매매춘에 삶을 기대게 하는 사회의 큰 분위기를 느낄수 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유이민여성들의 삶이란 차별이 없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또한 지식층을 포

함한 여성들이 그러한 완고한 삶의 형태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 분위기에는 모든 유이민여성이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천연스럽게 지켜갈수 없는 함몰의 의미가 동반된다.

최명익의 「장삼이사」는 만주에 팔려와 집대부 생활을 하다 탈출하였으나 붙잡혀 다시 만주로 끌려가는 여자를 부각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이외적이 라면 탈주한 여자를 붙잡아오는 중년 신사는 만주땅에서 불쌍한 동포 여인들의 육체를 팔아먹으면서 돈벌이 하는 기생업을 경영하는 유이민이라는 점이다. 1930년대 유이민소설에서 이민들의 생활에 시련과 고통을 강요한 가장 중요한 세력은 중국인이 그 첫째이고, 그 다음으로는 타락하거나 몰인정한 동족들이었다<sup>33</sup>는 연구와 맞먹는, 인간적 숨결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섬찍하고 살벌한 유이민 삶의 한 얼굴이다. 어떤 역에서 중년 신사는 내리고 차창 밖에서 옥주도 붙잡혔다고 보고하던 젊은이가 대신 기차에 오르자마자 여자의 뺨을 후려친다. 역지로 울음을 참고 있던 그 여자는 화장실로 가더니 딴 사람인양 화장하고 천연한 모습으로 되돌아와 “옥주년도 잡혔어요?” 하고 묻는다. 그 여자가 위기를 넘기는 이 너절한 방법에서 인권을 최대한으로 무시당하고 유린당하고 그대로 박탈당하면서도 다가오는 비극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한심하리만치 가련한 유이민여인의 모습이 보인다. 그 모습 속에 숨쉬는 삶의 의미는 다만 막무가내일뿐이다. 그녀의 삶의 상황은 인간을 지켜주는 인격따위는 이미 살기 위한 식민지 여성들에 의해 자동 청산된 걸레조각이 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러한 삶에는 존엄과 인격이 차단된 유이민여성의 정신적 징후만이 살아있고 밥의 담보를 위한 몸의 교환적 가치만 살아있다. 이러한 것은 아래의 한 승객과 중년신사의 말을 빌어 다시 증언된다. “만주루 북주루 땡겨보든 돈벌이는 색씨 장사가 제일인가 보든”. “돈벌이야 여자 장사만 한 것이 없지만 앓아눕기가 일쑤요, 또 죽게 되면 돈 천 원쯤은 장사비

---

33 표인복, 2004, 『해방 전 중국 유이민소설 연구』, 한국문화사.

로 나가기가 예사지”. 이 짝막한 말 속에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상품에 불과하기에 얼마든지 시장이 있다는 속내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근대에 의해 오염된 타락상’<sup>34</sup>에 대한 축약이며, 만주 유이민 사회의 일모로서 심각한 사회문제적 의미로 다가온다. 작가의 이러한 적극적인 현실의식은 유이민소설 중 인신매매를 모티프로 한 소설계열에 의미를 부여함에 있어 좋은 서지자료가 되었고 또한 작가가 이루어낸 문학성과이기도 하다.

이태준의 「아무일도 없소」는 먹고 살 길이 없어진 독립운동가의 딸이 스스로 매춘부로 전락한 이야기를 소설적으로 펴내고 있다. 그녀의 아버지는 만세운동(3·1운동) 이후 「대동단」<sup>35</sup>에 기여 해외로 망명한 후 편지 한 통 외에 10년이 넘도록 소식이 두절된 상태다. 그 여자는 어머니와 함께 집을 팔아 5, 6년을 살면서 살기 어렵게 되어 짜전하는 홀아비 한 사람이 졸라대며 함께 살았으나 성병만 옮겨놓은 채 겨우 쌀 몇 말 주고는 발길을 끊는다. 약값이나 물어달라는 청마저 거절하는 홀아비를 신고하였으나 경찰서에서는 오히려 그 여자를 밀매음을 했다고 마구 때리고 일주일 동안 유치장 신세를 지게 하고 여론적으로도 신문에 ‘뻘심 좋은 밀매음녀’라고 보도되었다. 유이민소설 중에서 밀매음에 대해 부정당 행위로 취급하며 그것에 대한 법적 다스림 형태를 보여준 첫 소설이다. 풀려난 여자는 60 노인 모친과의 생활을 위해 여전히 매춘을 행한다. 그러나 몸피는 딸임을 눈치채게 되자 노모는 양젓물을 먹고 자살해버린다. 건너방에 모친의 시신을 모셔놓고 살기 위해 모친의 장례비 마련을 위해 매춘을 행해야 하는 여자의 비극성은 제목인 「아무 일도 없다」란 제목에 담겨 역설적으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독립이라는 배경 하에 매춘부로 전락한 여자의 비극이 얼마나 불가피한 삶이었는데가를 강조하여 보여주는 역할을 한 것도 간과할 수 없다. 그 여자가 수난에 대한 피동적 선택

34 송기섭, 2008, 『근대소설의 서사 윤리』, 태학사, 59쪽.

35 전협(全協)·최익환(崔益煥) 등이 전민족의 대동단결을 표방하며 1919년 3월 말 서울에서 결성한 독립운동단체. 조선민족대동단(朝鮮民族大同團)이라고도 한다.

은 인신매매에 유린된 정절이 고귀한 것으로 격상되어 작품에 처절한 의미를 더해준다.

박계주의 「음학의 제단」에서는 화북의 황군 위문소에 팔려가 하루 저녁 백여명의 일본군을 상대하려다가 죽어가는 위안부의 비극적 실상을 그렸다. 식민지 하의 유이민현실 속에서 여자들이 감당해야 했던 참극이다. 1937년 7월 7일 노구교전쟁, 즉 중·일전쟁 발발을 전후하여 중국 내 일본 군인의 수가 격증하면서 ‘위안부’의 수요가 더불어 격증했다. 일제의 ‘황군’을 대상으로 하는 위안소는 “황군의 압잡이”가 된 한인들에 의해 경영되었다.<sup>36</sup> 그리하여 개인 단위로 행해지던 인신매매 행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일본이 조직적으로 동원한 중군위안부와 같은 직업적인 인신매매, 기만적인 집단적 인신매매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실을 증언해주는 임종국 저서의 한토막을 증거로 들면: “1938년 1월 중국 상해에다 세운 일본 육군 위안소 개설에 끝어모은 위안부 제 1진의 편성은 조선여성 80명, 일본여성 24명이다. 조선의 여성은 거짓으로 속여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었고, 일본 여성은 돈벌이의 목적으로 自意에 의해서 온 여자들이었다. 아무리 비열한 매춘업자라고 해도 일본인 처녀를 속여서 데리고 가는 일’은 없었다. 그렇게 되면 엄벌에 처해지고 폐업을 당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유이민여성에 대해서는 어떤 거짓말을 해서 데리고 와도 상관 없는 것이었다. 그것이 일본 정부와 총독부의 조선민족대책의 근본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제시대의 정신대(挺身隊)는 일제가 유이민여인에게 행한 가장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로서 군대위안부<sup>37</sup>라는 구실 아래 자행했던 성적

36 김명수, 1985, 『명수산문록』, 삼형문화사, 32쪽.

37 일본군대의 위안부라고 하면 그 8-9할이 젊은 한국여성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위안부란 옛 일본군 특유의 군대 전속창녀를 뜻하는 것이다. 전지의 부대에서서는 통상 위안부라든가 위안소라고 부르지 않는다. 보통 ‘삐’라든가 ‘삐집’이라고 부르면서 경멸한다. 조선여자는 ‘조선삐’ 중국여자는 ‘중국삐’, 일본여자는 ‘일본삐’라고 부른다. 그 ‘삐’의 어원 해석은 매음부(Prostitute)라는 말로 그 머릿글자를 딴 것이다. 임종국, 1981, 『정신대(挺身隊)』, 일월총서 1, 52쪽.

침탈이다. 정신대는 대략 2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일본이라는 침략국에 의해 집단으로 유인, 혹은 강제 동원하여 팔아넘긴 여성 집단 매매의 표본<sup>38</sup>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다가’ 1945년 일본이 패전한 시기에 소련군이 중국에 들어오면서 유이민매춘부들은 피난을 가게 된다. 그러지 않으면 유이민여자는 중국인에게 맞아죽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때 친일파로 있던 위안소 관리인들은 다시 위안부들을 소련군에게 대여하기로 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소련군은 많은 경우 감옥에서 나온 죄수들이 많기에 특히 여자들을 밝혔”<sup>39</sup>고 한다. “특히 집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으나 다시 빗 때문에 팔릴까봐 돌아가지 않는 여자들이 많았다”는 위안부 경험을 가진 할머니의 말은 그 시대의 정신적 징후가 미안하게 내장된 문제적 의미를 심사숙고하게 한다.

안수길의 「벼」<sup>40</sup>도 인신매매소설계열에 속한다. 고향에서 박침지를 망하게 만들고 끝내는 가난한 유이민 신세로 되게 한 요인의 하나인 기생 향옥이가 매봉둔에서 장사를 벌인다. 그녀는 포목상 겸 잡화상을 하다가 경영이 호황을 맞아 쌀 매매도 하며 ‘밤에는 술도 팔’았다. ‘나중에는 작부 하나를 데려다 색주가 비슷한 것을 차리’면서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데 까지 간다. 前述한 작품처럼 먹고 살기 위한 매매가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한 매매를 하는 유이민여인의 이야기다. 그리고 몸 팔던 여자를 장사에 성공하는 쪽으로 부각하고 있는 것은 작품의 다른 한 이색적인 면이다. 이는 작가의 인식상의 새로운 점을 발견하게 됨과 동시에 인신매매의 의미적 색채가 다양함을 말해주기도 하는 부분이다.

38 임종국, 1981, 『정신대(挺身隊)』, 일월총서 1, 53쪽.

39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 2003, 한국정신대연구소 엮음, 한울, 23~25쪽.

40 안수길, 1941.11.11~12.25, 「벼」, 『만선일보』.

#### 4. 인신매매의 의미 (결론을 대신하여)

이상 해방 전 중국 유이민소설에 빈번히 투영되는 매춘 모티프에 대하여 논급하면서, 인신매매라는 진실과 개념은 ‘여성이 처한 억압의 경험을 생물학에 둘 것이 아니라 사회체계에 두어야 한다’는 입지를 표명하고자 하였다. 더구나 유이민소설에 부각된 그 시대 여성이 처한 매매의 궁극적 위치는 ‘상품의 매매에서보다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를 초래한 사회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 근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유이민소설에서 모티프군을 이루고 있는 억압과 강제에 의한 여성들의 인신매매에 대한 문학적 소설적 예증들은 전쟁에 의해 빛어진 식민지와 망국이 낳은 비극으로 시대의 근저에 머무른다. 유이민소설은 팔리고 사들여지는 인신매매라는 상품화는 유이민사회를 참극에 몰아넣는 제도 아닌 제도가 되어버렸음을 진실하게 말해주었음도 밝힌다. 제도는 “수많은 개인의 참여로 이루어지지만 거의 대부분 개인을 초월하여 만들어지고 강제”<sup>41</sup>된다. 그러기에 인신매매를 한 유이민여성의 생명의 역사에는 그 제도를 이기지 못하고, 프란츠 파농이 목도한 자기의 마음의 땅으로부터 유배당한 뼈에 스민 아픈 과거만 기록되었을 뿐이다. 그녀들은 “개인의 영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영혼 속에 있”으며 “실존의 울가미에 매달려 증오를 절규할 권리”<sup>42</sup>조차 빼앗긴 인생을 살았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남자도 매매되’는 역사가 있었지만, 그들은 남자로 서보다는 ‘노예, 노름꾼, 운동선수, 농노, 파국에 사회적 신분으로서 매매되는 것’ 뿐이었다. 그러나 ‘여자들은 노예, 농노, 매춘부로서 뿐만 아니라 단지 여자로서도 거래’되었다. “문명 시대인 오늘에 와서도 여자의 매매는 문제성 있는 개념이다.”<sup>43</sup> 여성이 상품화되고 인신매매가 심각했던 것은 그 어느 시대

41 송기섭, 2008, 『근대소설의 서사 윤리』, 태학사, 276쪽.

42 프란츠 파농, 1978, 『자기의 땅에서 유배당한 자들』, 김남주 옮김, 청사, 231쪽 재인용.

43 P.스트렐/A 편저, 1983, 『여성해방의 이론적 체계』, 풀빛, 286쪽.

를 불문하고 인간성의 상실을 의미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돈을 주고 사고 팔며 사창가로 팔아넘기는 행위는 비인간적이며 인륜을 거스르는 일이다.

유이민여자들의 인신매매는 삶의 마지막 에너지로써 생계유지를 위한 말단 수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이민소설들에서는 극명히 부각하고 있다. 인신매매의 경우가 어떻게 이루졌든 불문하고 모든 것은 오직 생계의 절박함이 주형한 죽음의 의미였다. 인신을 매매하는 것은 거대 의미의 자장에 놓고 보면 장사의 의미와 다를바 없다. 유이민소설에서의 인신매매는 실존주의 철학가 사르트르가 말한것처럼 ‘인간존재의 근원은 결여(manque)이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무엇인가 부족한 상태에서 생존하게 되기에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욕망을 하게 되고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다른 이성을 찾게 된다’<sup>44</sup>는 욕망 이론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서 강제에 의한 성적 수탈의 의미로만 자리매김한다.

우리는 인신매매 서사를 위주로 하고 있는 모티프들에서 돈의 힘, 돈은 가치 저장의 사회적 기능을 상실하고 있고, 인신매매나 매춘 및 매개의 부정적인 매개가 되고 있음을 절감할 수 있다. 물론 살기 위해 타국 땅을 도는 유이민들에겐 어디서나 무엇을 하나 경제의 이름을 내건 돈이 목숨이겠지만 몸을 파는 것으로 돈을 구함은 사람을 상품으로 파는 반도덕의 아픔 속에 신음하는 모습을 동반하게 된다. 용례든 산월이든 고분이든 돈을 찾거나 돈의 수단에 이해 팔려가는 운명을 면치 못한다. 이는 돈의 힘이 편만하는 사회적 현실의 수용 때문이다. 유이민소설 중 인신매매 모티프에 속하는 작품은 돈에 매이지 않으면 아니되는 삶의 두려움과 암흑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부류의 모든 작품은 물질적인 현실관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과 물질적 존재로서의 돈은 주인공들의 꿈이면서도 동시에 추악한 현실의 세계를 대리하고 만들어나가는 악몽임을 말하고 있다.

---

44 박태상, 1995, 「애정모티프연구」, 국어국문학, 268쪽.

인신매매는 기성된 역사가 빚어낸 참극이다, 이러한 제반 의미들은 ‘여성은 노예의 일에 종사한 최초의 인간’이라는 베벨의 말보다 ‘여성은 삶의 마지막까지를 지켜내는 그 시대 희생품이자 무명영웅’이었다는 의미를 파생한다. 나아가서 인신매매를 해야만 하는 사실은 그들의 “삶이란 제 목 매기”<sup>45</sup>와 같은 데 그것은 망국의 배경을 등에 얹은 유이민여인들의 운명의 한갈래 길이기도 했다는것을 의미해준다.

---

45 프란츠 파농, 1978, 『자기의 땅에서 유배당한 자들』, 김남주 옮김, 청사, 104쪽 재인용.

# 유치환의 시와 만주체험

장 춘 식

중국사회과학원

## 1. 청마의 생애와 만주체험

청마 유치환(靑馬 柳致環, 1908-1967)은 한국에서 등단하여 상당한 문명(文名)을 이룬 후 중국에 들어와 활동한 시인이다.

청마의 본관은 진주(晉州)이지만 경남 통영에서 출생하였다. 형 유치진(柳致眞)은 현대 극작가이다. 유치환은 11세까지 외가에서 한문을 배우다가 1922년 통영보통학교 4년을 마치고 일본 도요야마중학교(豊山中學校)에 입학하였다. 이 무렵 형 유치진이 중심이 된 동인지 『土聲』에 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가세가 기울어 4학년 때 귀국하여, 1926년 동래고등보통학교에 편입하여 졸업하고, 이듬해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하였으나 1년 만에 중퇴하였다. 그 후 당시 시단을 풍미하던 일본의 무정부주의자들과 정지용(鄭芝溶)의 시에 감동하여, 형 치진과 함께 회람잡지 『掃除夫』를 만들어 시를 발표하였다.

1931년 『文藝月刊』에 시 「靜寂」을 발표하면서 정식으로 문단에 등단하였다. 그 뒤 잡다한 직업을 전전하다가 1937년 부산에서 문예동인지 『生理』를 주재하여 5집까지 간행하고, 1939년 첫 시집 『靑馬詩抄』를 발간하였다. 여기에 초기의 대표작인 「깃발」, 「그리움」, 「일월」 등 55편이 수록되었다.

1940년 3월, 통영협성고등학교 교사직을 사임, 가족을 거느리고 만주 빈강성 연수현(煙首縣)으로 이주하여, 농장관리인 겸 정미소 경영인으로 5년여를 살았다. 이때 만주의 황량한 광야를 배경으로 한 허무의식과 가열한 생의 의지를 쓴 시들이 제2시집 『生命의 書』(1947)에 수록되었다. 1945년 6월 말 귀국하였고 광복 후에도 활발한 시작활동을 하였다. 1953년부터 고향에서 줄곧 교직으로 일관하였고, 안의중학교(安義中學校) 교장을 시작으로 하여 경주고등학교 등 여러 학교를 거쳐 부산남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 1967년 교통사고로 죽었다.

시집으로는 상기 2권 외에도 『울릉도』, 『보병과 더불어』, 『청령日記』, 『청마시집』, 『제9시집』, 『유치환선집』,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 『미루나무와 남풍』, 『파도야 어찌란 말이나』 등이 있고, 수상록으로는 『예루살렘의 답』과 2권의 수필집, 자작시 해설집 『구름에 그린다』 등이 있다.

이상의 경력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1940년부터 5년여에 걸치는 만주체험이다. 32세부터 37세까지 청장년기의 중요한 시기를 만주에서 보냈다는 말이 되는데, 그 체험은 귀국 후 얼마 안 되어 시집 『生命의 書』를 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절실한 것이었다. 본고에서 관심을 가진 부분도 이 시기의 시작품이다.

청마의 시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치환의 시와 만주체험을 연관시켜 검토한 연구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 점에 주목하여 본고에서는 유치환의 시와 5년여에 걸친 그의 만주체험을 연관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텍스트는 주로 보고사의 『중국조선민족무학대계5 현대시』(2006) 유치환 부분을 이용하고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 2. 원시적인 생명력과 현실 부정의 의지

유치환의 시를 흔히 “생명에의 의지”라는 표현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를 서정주와 더불어 생명파 시인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만큼 유치

환의 시에서 생명에 대한 관심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강한 생명의 욕구가 내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生命의 書 一章」<sup>1</sup>을 보면 그런 생명에의 의지 혹은 욕구가 얼마나 강하게 시인의 가슴 속에서 약동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시에서 생명의 욕구 혹은 생명에의 의지는 진리 혹은 생명의 본질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화자는 아라비아의 사막에 자신을 내맡겨 생명의 본질을 경험해보고자 한다. 구도자의 그것과 조금도 닮이 없는 생명의 예찬이라 하겠다.

「生命의 書」<sup>2</sup>에 오면 그러한 생명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은근히 내비친다.

빼치빼치 亞細亞의 巨大한 地壁 알타이의 氣脈이  
드디어 나의 故鄕의 조그마한 고흔 丘陵에 다옴과 같이  
내 오늘 나의 핏대속에 脈脈히 줄기 흐른  
저- 未開穉 種族의 鬱蒼한 性格을 깨닷노니  
人語鳥 우는 原始林의 안개 깊은 雄渾한 아침을 헤치고  
털 깊은 나의 祖上이 그 廣漠한 鬭爭의 生活을 草創한 以來 敗殘은 오직 罪惡이  
있도다-  
내 오늘 人智의 蓄積한 文明의 어지러운 康昧에 서건대  
오히려 未開人의 朦衡(?)와도 같은 勃勃한 生命의 몸부림이며  
머리를 들어 우르르면 光明에 漂渺한 樹木우엔 한點 白雲!  
내 절로 삶의 喜悅에 가만히 휘파람 불며  
다음의 滿滿한 鬭志를 준비하여셨나니  
행여 어느때 悔恨없는 나의 精悍한 피가  
그 옛날 果敢한 種族의 野性을 본받아서

---

1 시집 『生命의 書』에 수록.

2 『만선일보』, 1942.1.18-1.21, 「生命의 書」라는 제목으로 3편을 3일에 걸쳐 런재하고 있는데,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앞의 「怒한 山」과 「陰獸」도 이 연작시에 묶여있었던 것을 『재만 조선시인집』에 수록할 때 각각 따로 표제를 붙여 수록한 것이 아닐까 짐작해본다.

屍體로 엮드린 나의 尺土를 새빨 개 물드릴지라도  
아아 해바라기같은 太陽이여  
나의 좋은 怨讐와 大地우에 더 한층 強烈히 빛날지니라.

「生命의 書」 전문이다. 울분에 넘치는 생명의 원천을 화지는 알타이산맥과 닿아있는 종족의 핏줄에서 찾는다. “저- 未開痏 種族의 鬱蒼한 性格”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말이 알타이어계에 속한다는 사실은 대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종도 알타이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미개적 종족의 생명력은 패배를 모르며 오히려 패잔은 죄악이었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내 오늘 人智의 蓄積한 文明의 어지러운 康昧에 서건대/오히려 未開人의 朦衡(?) 와도 같은 勃勃한 生命의 몸부림이여”라는 두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지혜에 의해 축적된 현대의 문명은 “어지러운 康昧”인 반면에 미개인의 생명력은 발발하며 몸부림친다. 원시와 현대를 대결시키고 있는 형국인데, 여기서 현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고 해도 문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문명비판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뒤에 나오는 회한(悔恨)없는 자신의 정한(精悍)의 피가 그 옛날 종족의 과감한 야성을 본받아서 죽으면서 자신이 엮드린 작은 땅을 새빨강게 물들일지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와 연관시켜보면 현실에 대한 저항의 의미는 더욱 강해진다. 그리고 마지막 행인 “나의 좋은 怨讐와 大地우에 더 한층 強烈히 빛날지니라.”에서 그러한 생명욕구와 과감한 야성의 죽음에 대한 환희는 절정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암울한 현실에서 시인 유치환이 추구했던 것은 미개적 종족의 과감한 야성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본연적인 생명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원시적 혹은 본연적인 생명력을 숭상한 유치환에게 있어 원시성에 대한 문명의 잠식은 일종의 모독이나 다름이 없다. 「濱綏線 開道에서」<sup>3</sup>는 그런 시인

---

3 시집 『生命의 書』에 수록.

의 의식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白雪에 덮힌 山山”에 “칠칠히 樹木이 들어”선 “老爺嶺도 高嶺子 길은 山間”은 원시적인 생명력의 상징이 되겠고 철도역과 술집, 집 등은 현대문명을 상징한다 하겠는데 그렇다면 “敢히 年輪도 헤아릴 수 없는 아람들이 老木들이/서슴없이 발목짚을 찍히어/씻을 수 없는 罪狀 같이 마을바닥에 어지러이 덩거리만 남아 박혔나니”라는 표현은 원시적인 생명에 대한 문명의 유린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화자에게 있어 그러한 문명의 유린은 겨우 “작은 人爲의 冒瀆”에 지나지 않는다. “작은 人爲의 冒瀆엔 關焉 할바 없는 深深한 바람이 일고/그 무엔지 利慾하여 여기에 어울린 작은 마을은/의지 없어 다시 그의 있을 바를 모르도다”라는 표현은 결국 문명보다는 태고의 원시성이 훨씬 더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유치환은 인간 지혜의 축적에 의해 이루어진 현대문명과 종족의 과감한 야성 사이의 대결을 통해 문명비판을 시도함으로써 작품의 중심은 오히려 미개인의 야성에 대한 지향성에 놓여진다. 그리고 이런 지향성은 현실의 삶에 대한 분노를 동반한다. 「怒한 山」<sup>4</sup>에서 이점은 확인된다.

그淪落이 거리를지켜  
 먼 寒天에山은 홀로이 돌아앉아 있었도다.  
 눈뜨자 거리는 저자를이루어  
 사람들은 다투어 貪婪하기에 餘念이없고.  
 내 일즉이  
 호올로 슬프기를 두려하지 않았나니  
 日暮에 하늘은 陰寒히 雪意를 품고  
 사람은 오히려 우르러하늘을 憎惡하건만  
 아아 山이여 너는 높이怒하여  
 그寒天에 구디 접어주지말고 있으라.

4 『在滿朝鮮詩人集』, 1943, 間島 藝文堂.

「怒한 山」의 전문이다. 시인은 분노를 울분으로 풀어낸다.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에 저항하고자 하는지를 분명히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이 작품의 화자는 어딘가에 울분을 토한다. 어쩌면 하늘과 산의 대결로 비쳐지기도 하지만 그 하늘(寒天)과 그 산은 그냥 하늘과 산이 아니라 화자의 심상이 부여된 하늘이요 산이다. 그것을 우리는 “사람들은 다투어 貪婪하기에 餘念없고”라는 표현에서 조금은 감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하늘도 노한 모습이다. “陰寒히 雪意를 품”었다고 한 것은 그런 하늘을 우러러 증오하는 사람에 대한 일종의 분노를 잉태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자는 산더러 더 높이 노하여 그러한 한천에 굽어들지 말라고 호소한다. 결국 화자 자신이 음한히 설의를 품은 하늘보다도, 그에 굽어들지 않고 분노하는 산보다도 더 울분에 차있음을 드러낸 것이 아닐까 한다. “神도 怒하시기를 그만두셨나니”나 “地獄의 惡靈같은 주린 그림자를 끌고/因果인양 피의 復讐를 헤이는/아 너 이 슬픈 陰樹.”라는 유치환의 또 다른 시 「陰獸」<sup>5</sup>의 표현에서 이점은 좀 더 뚜렷해지는 것이다.

문학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일제의 중국 동북강점기간은 문학을 통한 현실 부정이나 비판의 자유를 빼앗긴 시간이었다. 따라서 우리 시인들은 여러 가지 시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우회적인 방식으로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나 인식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유치환의 경우 현대문명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한편 그것을 원시적인 삶의 야성과 대립시킴으로써 일종의 울분과 비분강개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시 작품 중에서 원시적인 야성을 생명력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환희로 표현한 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5 『在滿朝鮮詩人集』, 1943, 間島 藝文堂.

### 3. 죽음과 허무의식

유치환의 시에서 생명에의 의지 혹은 집착은 상기와 같이 원시적 혹은 근원적 생명력에 대한 욕구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죽음이나 생명의 허무의식으로도 표현된다. 어쩌면 생명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며 따라서 이 때 시인의 상상은 좀 더 인간의 본능에 근접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내 너를 내세우노니」<sup>6</sup>에서 시인은 생명을 지극히 극한적인 상황에 놓고 그 본질을 실험해본다. “호을로 人類를 떠나 짐승같이 彷徨하다/마지막 어느 氷河의 河床 밑에 이르러/주림과 寒氣에 제 糞尿를 먹고서라도/내 오히려 그 모진 生命慾을 버리지 안겠느뇨” 고독과 극한적인 실존의 상황 속에서도 생명욕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고는 다시 존재의 허무를 떠올린다. “다시 내 너게 묻노니//薄暮의 이 연고 없이 외롭고 情다운/아늑한 거리와 사람을 버리고 /永劫의 주검!/눈 코 귀 입을 틀어막는 鐵壁 같은 어둠속에/너 어떻게 호을로 종시 묻히어 있겠느뇨” 그러나 여기서는 비록 섬찍한 죽음의 공포와 이로 인한 허무를 내비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실존적인 생명의 욕구를 강하게 드러낸다. 극한적인 상황이란 사실상 생명의 의지력에 대한 시험의 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인이 다른 작품인 「兒殤」<sup>7</sup>이나 「六年後」<sup>8</sup>에서처럼 아이의 요절을 슬퍼하는 아버지의 허탈한 심정을 표현한 것도 죽음을 통해 삶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 된다.

그러나 「虛脫」<sup>9</sup>에 오면 상황은 달라진다. 실존에 대한 회의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

6 『문장(文章)』지 1940년 1월호에 게재. 후에 시집 『生命의 書』에 수록.

7 시집 『生命의 書』에 수록.

8 시집 『生命의 書』에 수록.

9 시집 『生命의 書』에 수록.

아 앓이어 잠 못이루는 한밤  
 宇宙도 知覺도 죽고  
 붉은 등불에 비쳐 있는 房안은  
 오직 하나 지켜 있는 實在!  
 記憶도 關聯도 意味도 숨고  
 壁도 시렁도 책상도  
 奇怪한 魑魅의 나라의 形象을 하고  
 곁에 잠든 아내 마저  
 겨우 한개 物體로 化石 하였나니  
 아아 이 虛脫한 時空에서  
 너는 무엇을 믿겠느냐  
 아득한 어둠 저편  
 가늘게 떠는 별빛이뇨  
 한숨 짓는 바람결이뇨  
 오직 한오라기 앓이는 齒神經!

「虛脫」의 전문인데 여기서 화자의 실존은 허무하다. 잠든 아내마저 하나의 물체로 화석해 있다고 했으니 허탈의 극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단 하나 “앓이는 齒神經”만이 실존을 느끼게 한다고 했다. “實在”하고 있는 것은 치아의 아픔뿐이기 때문이다. 이는 치통이 심하여 그 아픔이 너무 클 때 느끼는 허탈이기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회의 혹은 허무의식이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허무의식이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된 작품은 아무래도 「드디어 알리라」<sup>10</sup>라 하겠다.

드디어 큰악한 空虛이었음을 알리라  
 나의 삶은 한떨기 이름 없이 살고 죽는 들꽃  
 하그리 못내 감당하여 애답던 生涯도

---

10 시집 『生命의 書』에 수록.

정처 없이 지나간 一陣의 바람  
 須臾에 멎었다 사라진 한점 구름의 자취임을 알리라  
 두번 또 못을 세상  
 돌도 없는 나의 목숨의 終焉의 밤은  
 日月이여 나의 주검가에 다시도 어지러이 뜨지를 말라  
 億兆 星座로 燦爛히 九天을 裝飾한 밤은  
 그대로 나의 큰악한 墳墓!  
 지성하고도 은밀한 풀벌레 울음이여 너는  
 나의 永遠한 소망의 痛哭이 될지니  
 드디어 드디어 空虛이었음을 나는 알리라

작품 전반이 죽음과 허무의 집합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공허(空虛)” 혹은 허무의 이미지들로 점철되어 있다. 화자 자신의 삶을 “이름 없이 살고 죽는 들꽃”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애뒀던 생애를 “정처 없이 지나간 一陣의 바람”으로, “須臾에 멎었다 사라진 한점 구름의 자취”로 인식한 것은 철저한 허무의식이다.

그러나 허무는 생명 존재에 대한 인식의 한 측면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비록 이런 허무를 겹쳐히 받아들이고 극복하려는 의지보다는 어느 정도 허무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노출되기는 하였지만 허무에 대한 시인의 이러한 인식은 나무랄 바가 아니라 하겠다. 생명이란 결국 삶과 죽음이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4. 광야의 삭막함과 방랑의 욕구

유치환의 시에서 생명에의 의지나 지향성은 늘 자연적인 것, 원시적인 것과 연결된다. 숲, 사막, 광야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또한 중국이라는 유치환이 생활했던 자연환경과도 무관하지 않거니와 이를 통해 유치환은 생명의 본질을 보다 근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유치환의 시에서 만주벌판의 삭막함은 일차적으로 초기 이민시인들이 대체로 그랬던 것처럼 이민지에 대한 선입견 혹은 편견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합이빈도리공원(哈爾濱道裡公園)」<sup>11</sup>이 이 경우에 속한다. “五月도 첫달갓치 흐리고 슬픈 季候/사람의 숨씨로 꾸며진 꽃밭 하나 업시/크나큰 느낌나무만 하늘도 어두이 들어서서/머리우에 가마귀씨 終日을 바람에 우짖는” 등의 표현은 거친 땅의 이미지다. 그만큼 이주민에게 있어 “만주”라고 하는 이민지는 춥고 거칠고 음산한 땅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비록 자연현상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한국 땅에서 이주해온 유치환에게 있어 그러한 자연은 불모의 땅이고 차가운 기후가 되었겠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인이 이러한 춥고 거친 땅에 이주해올 수밖에 없는 현실과 운명일 것이다. 「北方十月」<sup>12</sup>이라는 작품에는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하게 표현된다.

이곳 十月은 벌써 죽음의 季節의 始初러노  
 까마귀는 城귀에 모여들 근심하고  
 다시 天日도 볼 수 없는 한 장 납빛 하늘은  
 荒漠한 曠野를 鐵柵인 양 눌러 막아  
 아아 北方 이 巨大한 鬱暗의 意志는  
 娼婦인 양 虛無를 안고 나누었나니  
 내 스스로 여기에다 버리려는 孤獨한 思惟도  
 이렇게 적고 찾을 길 없음이여  
 호을로 허물어진 城터에 서건대  
 朔風에 남은 高粱대만  
 갈 데 없는 감정인 양 못 견디어 울고  
 한때 騎馬의 흙빛 兵丁 있어  
 人力이 아닌 듯  
 默默히 西쪽 별 끝으로 向하여 달려가도다

11 『滿洲詩人集』, 1943, 第一協和俱樂部文化部.

12 시집 『生命의 書』에 수록.

여기서 화자의 느낌은 북만의 열악한 기후와 환경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을 넘어서나. 이 작품을 지배하는 것은 죽음, 어두움(까마귀, 울암)과 차가움(朔風)이다. 표면적으로는 북만 지역의 자연에 대한 화자의 느낌을 그대로 드러낸 것 같지만 여기에는 자연환경 자체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자연에서 화자가 느끼는 의식의 암담함이다. 그리고 그 의식의 암담함은 자연에서 보다는 현실적인 삶 혹은 사회의 암담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유치환의 방랑벽은 홀로 된 호젓함과 상실감을 동반한다. 때로는 누구도 알아줄 이 없는 허허벌판에서 마음의 고요를 찾지만 때로는 또 그러한 황막함에 당황하고 그런 자신을 체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車窓에서」<sup>13</sup>라는 작품은 전자의 경우에 속한다. “아무도 아는 이 없는 새에 자리 잡고 앉으면/이 게 마음 편안함이어”에서는 그러한 화자의 느낌이 직설적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편안함”은 “기름때 저린 ‘유치환이’”와 연관되어 삶의 고달픔과 불안함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욕구를 동반한다. “義理니 愛情이니/그 濕하고 거미줄 같은 속에 묻히어/나는 어떻게 살아 나왔던가”라는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불만이 이를 반증해준다. “내만의 생각의 즐거운 외로움에/이 길이 마지막 西伯利亞로 가는 길이라도/나는 하나도 슬퍼하지 않으리”라는 결구부분의 강조된 표현은 현실적인 삶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강한 방랑의 욕구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인지 유치환은 “절도(絶島)”와도 같은 적막을 오히려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허구한 歲月이/광야는 외로워 絶島이요/새빨간 夕陽이 물 들은/세상의 끝 같은 北쪽 의지 없는 마을”이라고 한 「絶島」<sup>14</sup>의 이미지가 그렇다. “큰 악한 終焉 인양/曠野의 하로는 또 지오”에서는 그런 자화적인 즐거움이 뚜렷이 엿보인다. 「郭爾羅斯後旗行」<sup>15</sup>에서는 유랑의 땅이 절대고독 속에 잠겨 울적

13 시집 『生命의 書』에 수록.

14 시집 『生命의 書』에 수록.

15 시집 『生命의 書』에 수록.

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떨수록 알뜰한 너 생각 의지하고/이 외딴 세상의 외딴 하늘 우리러/나는 家畜과 더불어 살 수 있으리”라는 표현이 그렇다. 그러니까 적막에 대한 즐거움은 실제로는 역시 “자학적인 즐거움”에 다름이 아니다. 다수의 경우 유치환의 방랑 욕구는 현실적인 삶에 대한 불만과 직결되어 있다. 「絶命地」<sup>16</sup>라는 작품이 그렇다.

고향도 사랑도 懷疑도 버리고  
 여기에 굳이 立命하려는 길에  
 曠野는 陰雨에 바다처럼 荒漠히 거칠어  
 타고 가는 망아지를 小舟인 양 추녀 끝에 매어두고  
 낮설은 胡人の 客棧에 홀로 들어 앉으면  
 嗚咽인 양 悔恨이여 닳을 쏘아 시험하라  
 내 여기에 소리없이 죽기로  
 나의 人生은 다시도 記憶치 않으리니

「絶命地」의 전문인데 이 작품에서 화자는 죽어도 자신의 인생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렇다고 현재의 위치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도 아니다. “曠野는 陰雨에 바다처럼 荒漠히 거칠어”라는 표현에서 이 점은 확인된다. “낮설은 胡人の 客棧에 홀로 들어앉으면”이라는 표현에서 보는 것처럼 화자는 아직도 이민지의 현지에 적응되지 못하였으며 그래서 오열처럼 회한을 풀어낸다. 고향도 사랑도 회의도 다 버리고 떠나왔다고 했으니 떠나온 고향 땅에 미련이 남은 것도 아니다. 화자의 삶이 얼마나 극한적인 상황에 이르렀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에게 이제 남은 것은 여전히 방랑이요 방황이다. 「曠野에 와서」<sup>17</sup>의 경우 비록 “興安嶺 가까운 北邊의/이 廣漠한 별판 끝”에서 망

16 시집 『生命의 書』에 수록.

17 시집 『生命의 書』에 수록.

나니들처럼이라도 안정을 찾고자 하지만(“내 망난이에 본받아/화투장을 뒤치고/담배를 눌러 꺼도”)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암담해진다. “나의 脫走할 思念의 하늘도 보하지 않고/停車場도 二百里 밖/암담한 진창에 갇힌 鐵壁 같은 絶望의 曠野!”는 간침 속의 암담한 현실과 방랑의 욕구를 모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설흔 여섯 나이가 보람 없이 서글퍼/이대로 활개치고 萬里라도 가고지고.”라고 한 「北方秋色」<sup>18</sup>의 이미지 또한 마찬가지로 경우가 된다. 그러니까 유치환의 시에서 광야의 삭막함과 방랑의 욕구는 암담한 현실에서 탈출하기 위한 한 수단이 되는 셈이다. 이런 탈출의 욕구 혹은 방랑의 욕구는 「새에게」<sup>19</sup>에서 가장 잘 표현된다.

아아 나는 예까지 내쳐 왔고나  
 北만주도 풀 깊고 꿈 깊은  
 허구한 세월을 가도 가도 인기척 드문 여기  
 여기만의 외로운 세상의 福된 태양인 양 이낌없는 햇빛에  
 바람 절로 빛나고 절로 구름 흐르고  
 종일 두고 우짖고 사는 별레소리 새소리에  
 웃터 벗어 팔에 끼고 아아 나는 드디어 예까지 왔고나.

작품의 제1연인데 화자가 방랑의 한 중간 역점으로 도착한 곳은 비록 “허구한 세월을 가도 가도 인기척 드문” 곳이지만 어느 정도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자연이 주는 만족감이라 하겠는데 그러나 그러한 인적 드문 자연 속에서 화자가 느끼는 것은 부끄러움이다. “내게는 오직 汚物 같은 五臟과 향수와 외롭고 부끄럼만이 있거늘-” 여기서 “汚物 같은 五臟”은 아무래도 현실 속에서 오염된 자신을 말할 것이고 그러한 오물 같은 현실은 자연의 순수함과 대결을 이룬다. “그 지극히 안식한 앓음새로 푸른 별과 더불어 고운 꿈자리를

18 시집 『柳致環』에 수록.

19 시집 『柳致環』에 수록.

이를 계냐”라는 표현은 순수한 자연에 대한 진실보한 찬미가 될 것이다. 결국 화자의 방랑은 이러한 대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아아 하늘 땅 사이 이렇듯 적적히 흘러넘치는 햇빛 가운데서도  
내가 가질 바 몸매 하나 갖추지 못하고  
아아 이 외로운 길을 지향없이 가야만 하느니  
나는 내쳐 가야만 하느니.

그러니까 유치환의 방랑 욕구는 현실과 현실 속에서 오염된 자신을 탈출하려는 욕구에 다름 아니다. 이는 앞항에서 살펴본 문명비판과도 맥이 닿아있다 하겠는데 이 점은 일반적으로 이주민이 느끼는 방랑의 슬픔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 다수의 이주민은 삶의 터전을 상실한 상황에서 부득이 새로운 터전을 찾아 이주를 선택하였지만 유치환의 방랑은 새로운 정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방랑 자체를 위한 방랑이라는 느낌마저 없지 않다. 그렇다면 유치환의 방랑 욕구는 상당정도 개인적이며 주관적이라 해야 할 것이다.

## 5. 향수와 정체성 인식의 변화

유치환은 서른두 살 나던 1940년 3월 만주에 들어온다. 따라서 유치환의 신분 인식은 기본적으로 망명자 혹은 유랑자의 그것에 해당된다. 이 점은 당시 만주에 정착하여 살면서 문학 활동을 했던 여타의 문인들과 구별된다. 그렇기는 하나 그의 시작품에도 이민자의 정체성 인식이 점차 심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유치환이 점차 만주 조선 이주민으로 신분이 변화되어 가고 있었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歸故」<sup>20</sup>의 경우 고향에 돌아온 화자는 잠깐 외출에서 돌아온 젊은이의 그

---

20 『滿洲詩人集』, 1943, 第一協和俱樂部文化部.

것에 다름 아니다. 고향은 정답고 마음 편하다. “흰 冊曆처럼 愛情에 날그신 어머니님 곁에서/나는 끼고온 新刊을 그림책인양 보았소”에서는 아직 이국땅에서 돌아온 이민자의 흔적마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思鄉」<sup>21</sup>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화자는 이제 이국땅에 정착해 사는 이주민이다.

鄉愁는 또한  
김정 망토를 쓴 병든 고양이런가.  
해만 지면 은밀히 기어와  
내 대신 내 자리에 살찌기 앓나니

마음 내키지 않아  
저녁상도 받은 양 밀어놓고  
가만히 일어 췌에 가 서면  
푸른 暮色의 먼 거리에  
우리 아기의 얼굴 같은 등불 두었!

「사향」 전문인데 이제 이국땅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은 화자에게 있어 고향은 아직도 아픔이다. 그래서 향수는 “해만 지면 은밀히 기어와” 화자를 괴롭힌다. 그만큼 아직은 이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더 슬픈 일은 그렇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고향에 대한 정은 이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다.

「편지」<sup>22</sup>는 편지라고 하는 고향 혹은 고국과의 통신수단을 매개체로 하여 향수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전략)  
한나절 가도 드날이 업서  
마을엔 그뉘나 사는지 마는지

---

21 시집 『柳致環』에 수록.

22 『滿洲詩人集』, 1943, 第一協和俱樂部文化部.

개도 안짓고  
닥도 안올고

삼앗든 消息  
이봄 들어 두장이나 편지 왔단다

「편지」의 후반부이다. 앞부분의 정답던 추억에 이어지는 이 예문은 고향의 피폐상을 암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개도 안짓고/닥도 안올고”라는 표현에는 영락한 고향의 이미지가 담겨있고 마지막 연의 “삼앗든 消息/이봄 들어 두장이나 편지 왔단다”는 고향의 불길한 소식을 전해줄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걱정이 암시된다. 그리고 편지라는 표제가 이 마지막 행에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측은 한결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흔히 말하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과는 전혀 반대의 암시이고 또 그러한 암시를 제시하기 이전의 표현들이 영락한 고향의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고향은 그냥 정다운 땅만은 아니라는 말이 된다. 즉 고향에 돌아간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 이국땅에서 겪는 아픔보다 별로 나을 것 같지 않다는 말이다.

「우크라이나寺院」<sup>23</sup>이라는 작품은 조국을 멀리 떠나 이국땅에서 살아가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운명을 동정한 작품이다. 그러나 이는 남을 동정한 것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異國의 땅에 고이 바친 삶들이기에/十字架는 一齊히 西녘으로/꿈에도 못잊을 祖國을 向하여 눈감았나니”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인 자신의 운명, 혹은 이주민의 운명과 등치된다는 점에서 결국 자신의 슬픔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가필의 흔적이 엿보이는 「道袍」<sup>24</sup>와 「飛燕과 더불어」<sup>25</sup>는 그런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이 두 작품은 이국땅에 살면서도 자신의 신분을 “曠野의 기나긴 해를” “먼

23 시집 『生命의 書』에 수록.

24 시집 『生命의 書』에 수록.

25 시집 『生命의 書』에 수록.

故國 생각에 가까스로 보"내는 “한귀人”, “꺼우리광스”로 인식하는 이주민의 슬픈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때 화자의 신분인식은 이중적이다. 몸은 이민 지에 살지만 마음은 항상 고국과 고향에 가 있으며 또 그럼에도 고향에는 갈 수 없는 이주민의 운명인 것이다.

그러나 「沙曼屯附近」<sup>26</sup>에 오면 상황은 어느 정도 변화를 보인다.

쓸쓸히 陸橋의 난간을 비치던 落照도 사라지고  
 먼 거리로 돌아가는 人車소리 끊이고 나면  
 어디선지 말뚝냄새 풍기는 푸른 밤이 고요히 드리워져  
 보슬보슬 별빛 내리는 菜田 새로  
 화안히 불 밝힌 성글은 窓마다  
 단란한 그림자 크다랗게 서리고  
 이속하여  
 車窓마다 꽃다발 같은 旅愁를 자옥 실은  
 二十三時 十七分 마지막 南行列車가  
 바퀴소리 멀리 멀리 남기고 굴러간 때는  
 도란도란 이야기에도 지치어  
 마을은 별빛만 찬란하오.

이 시의 화자는 비록 아직도 “車窓마다 꽃다발 같은 旅愁를 자옥 실은/二十三時 十七分 마지막 南行列車가/바퀴소리 멀리 멀리 남기고 굴러간 때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은연중에 고향을 생각하지만 이민지의 삶에 적응되어간다. “하늘도 曠野갓치 외로운 이 北쪽거리를/짐승갓치 孤獨하여 호을노 걸어도/내 오히려 人生을 倫理치 못하고/마음은 望鄉의 屢된 생각에 지치었노니”<sup>27</sup>에서 보이는 이민지에 대한 부적응의 이미지들이 이 작품에서는 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비록 아직도 “쓸쓸히”, “말뚝냄새” 등 이민지에 대한 부정적인

26 시집 『柳致環』에 수록.

27 「哈爾濱道裡公園」, 1943, 『滿洲詩人集』, 第一協和俱樂部文化部.

이미지들이 간혹 보이지만 “보슬보슬 별빛 내리는 菜田”, “화안히 불 밝힌 성  
글은 窓”, “단란한 그림자”, “도란도란 이야기”, “마을은 별빛만 찬란하오” 등과  
같이 밝고 안정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미지들이 주조를 이룬다. 결국 이  
때에 와서 유치환은 점차 이민지의 삶에 적응되어 갔고 이민시인으로서 자신  
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된다.

## 6. 시대적 혹은 역사적 상상력의 결여

유치환은 오래전부터 친일의혹을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그가 남긴 「수(首)」,<sup>28</sup>  
「전야(前夜)」,<sup>29</sup> 「북두성(北斗星)」<sup>30</sup> 등이 친일시로 알려져 있다. 일부에서는  
「들녘」<sup>31</sup>마저 친일작품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들녘」은 일제의 괴뢰정부인 만주국 치하에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여름의 풍경을 밝게 그렸다는 점에서 현실 순응 혹은 체제 협력의 경향이 노  
출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이를 친일시로 보는 것은 무리다. 만주국이 비록  
일제가 조작한 괴뢰정부이기는 하나 일제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 「수」  
의 경우 작품에 나오는 “匪賊”을 공산당 항일 빨치산으로 보고 따라서 이를  
친일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 시기 사용한 “비적”이라는 개념에는 공산  
당 항일 빨치산도 포함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공산당 빨치산  
이라는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흔히 말하는 “마적” 혹은 “토비”라고 하는  
비적들이 이 시기에 사라졌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전야」와 「북두성」이다. 「북두성」의 경우 더러 논란의 여  
지는 있지만 “亞細亞의 山脈 넘어서/東方의 새벽을 일으키다”라는 2행의 표현

---

28 『국민문학』, 1942년 3월호.

29 『춘추』, 1943년 12월호.

30 『조광』, 1944년 3월호.

31 시집 『生命의 晝』에 수록.

에서 “동아공영”이라는 일제의 식민주의 이념이 반영되어 친일적인 경향이 노출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야」에 담겼던 새 역사, 새 세대의 도래가 「북두성」에서는 ‘동방의 새벽’ 도래로 되풀이한다.”<sup>32</sup>라는 박태일의 평가는 일리가 있다. 박태일은 이 시를 ‘대동아공영권’의 이상을 이처럼 힘차게 녹인 시는 드물다”고 평한다. 그리고 “그(유치환)의 개성 가운데 하나인 거대 관념적 상상이다 시인의 목소리를 잘 묶은 부왜시”로 결론짓는다. 물론 그와는 정 반대의 주장도 있다. ‘아세아’를 시인이 디디고 있는 어둠에 갇힌 땅의 은유로 읽고 ‘동방의 새벽’을 ‘서광에 빛나는 아침’으로 읽어도 된다.”<sup>33</sup>는 정과리의 주장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정과리 자신이 희석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아래의 「大東亞戰爭과 文筆家の 覺悟」라는 글에서 노출된 유치환의 시대 인식은 이런 해석을 곧바로 뒤집어 놓는다.

박태일이 “새 역사, 새 세대의 도래”를 표현했다고 지적한 것처럼 「전야」는 일제의 대동아전쟁을 구가했다는 혐의가 짙다. “새 出發의 그 年輪에서/征服의 名曲을 부르려니/勝利의 秘曲을 부르려니……”라는 말미의 표현은 더욱 그런 혐의를 확신하게 한다.

새 世紀의 에스프리에서  
 뽀뽀이 樂想을 빚어  
 제가끔 音樂을 演奏하다.

死… 生 破壞…建設의 新生과 創設  
 天地를 뒤흔드는 歷史의 심포니…….  
 聽覺은 神韻에 魅了되고  
 새 世代에의 心臟은 울어 울어  
 聖像 아래 魔笛은 소리를 거두다.

32 박태일, 2007.12, 「청마 유치환의 북방시 연구—통영 출항과 만주국, 그리고 부왜시문」, 『어문학 98집』, 한국어문학회.

33 인터넷 자료.

驚異한 神技 가운데  
섬과 섬이 꽃봉오리처럼 터지다  
森林과 森林이鬱蒼히 솟다.  
무지개와 무지개 恍惚히 걸리다.

薔薇빛 舞臺 위에  
熱演은 끓어올라  
樂屋 싸늘한 壁面 너머로  
華麗한 새날의 饗宴이 豫言되다

終幕이 내리지면  
偉大한 人生劇으로 옮길  
많은 俳優 俳優들은  
새 出發의 그 年輪에서  
征服의 名曲을 부르려니  
勝利의 秘曲을 부르려니…….

시인은 일제의 대동아전쟁을 새 세기 개척을 위한 악장에 비유한다. 그리고 이를 섬마다 아름다운 꽃봉오리 터지고 삼림이 울창하며 무지개가 황홀한 유토피아적 현실로 표현한다. 철두철미 “황국신민”의 입장이 된 것이다. 그러나 시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작품에는 아직도 “대동아전쟁”이라는 표현은 없다.

이런 점에서 「大東亞戰爭과 文筆家の 覺悟」라는 글은 유치환의 내면화된 친일 문학 성향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大東亞戰의 意義와 帝國의 地位는 일즉 歷史의 어느 時代나 어느 나라의 그것보다 比類업시 偉大한것일겁니다.

이러한 意味로운 오늘 皇國臣民된 우리는 조그마한 個人的 生活의 不便가튼것은 數에 模들수 업는만큼 여간 커다란 보람이 안입니다. 時局에 便乘하여서도 안될것

이고 時代에 離脫하여서도 안될것이고 어테까지던지 眞實한 人間生活의 探求를 國家의 意志함에 副하여 展開시켜가지 안으면 안될것입니다.

나라가 잇서야 山河도 藝術도 잇는것을 枚擧할수 업시 目擊하고잇지 안습니까.

오늘 赫赫한 日本의 指導的 地盤우에다 바비론 以上の 絢爛한 文化를 建設하여야 할것은 오로지 藝術家에게 지어진 커다란 使命이 아닐 수 업습니다.<sup>34</sup>

여기서 유치환은 자신을 “황국신민”으로 자처하며 “국가의 의지함에 부하” 여야 한다고 한다. 같은 명제로 『만선일보』에 게재된 10편의 글은 대체로 비슷한 성향을 나타내는데 문제는 같은 제하에 글을 게재한 다른 9명의 문인이 대체로 30대 미만의 젊은 문인들 혹은 아직 무명의 문인들인데 비해 유치환만은 이미 30대 중반이 된 기성문인이라는 점이다. 김조규나 현경준, 함형수 등 당시 만주 조선인 문인들 중 기성문인이라 할 수 있던 이들은 이 명제 글에 기고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상기의 분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치환은 현실에 늘 불만을 가지며 때로는 분노하기도 한다. 또한 삶의 허무와 그 극복에 시적인 재능을 보여 왔다. 그런데 이들 현실에 대한 불만을 따져보면 기본적으로 개인적이다. 생명에의 의지 표현이든 방랑의 욕구 표현이든 향수의 표현이든, 더구나 허무주의적인 이미지들은 역사와 사회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유치환은 개인의 의지와 욕구와 생명에만 충실했던 셈이다. 민족적인 사명감이나 역사적 책임의식 같은 것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런 작가적 자세 혹은 문학적 성향 때문에 일제의 강력한 식민주의적 강압에 직면하여 곧바로 머리를 숙였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상기 박태일의 주장이 정확하다면 유치환은 일제의 대동아공영과 같은 식민주의적 이념을 시적으로 내면화시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시인의 이와 같은 작가적 자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유

34 柳致環, 「大東亞戰爭과 文筆家の 覺悟」, 『滿鮮日報』, 1942.2.6.

치환은 역사적 혹은 시대적 상상력이 결여한 시인이었다는 말이 된다.

## 7. 결론

유치환의 시는 기본적으로 생명에의 지향성으로 일관하고 있다. 만주체험이 유치환의 시심에 준 영향도 주로는 이런 측면이다. 거친 만주 땅의 자연 형태는 이런 생명에의 지향성에 원시적인 야성의 이미지를 더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에의 지향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다. 역사나 사회, 시대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 원시성과 문명의 대결도 사실상 개인적인 삶과 관련될 뿐 시대나 사회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유치환의 시에 친일적인 부분이 노출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시대적 혹은 역사적 상상력이 결여된 시인의 의식은 외부적인 압력이 강하게 다가올 때 쉽게 변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식민지 사회 민족의 위기에 대한 사명감, 책임감이 뚜렷하지 못했던 유치환에게 있어 체제 협력이나 “부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만큼 일제의 식민주의 담론이 조선사회와 만주 사회에 만연되어 있었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 20세기 한국문학에 나타난 상해의 이미지

김 동 훈 · 한 정 속

상해공상외국어대학

### 1. 들어가는 말

3천년 전의 상해는 하나의 자그마한 어촌에 불과했다. 그때는 상해라 부르지 않고 ‘호’라고 했는데 호는 본디 고기 잡는 밭의 이름이었다고 한다. 밭은 굽직한 갈대를 촘촘히 엮어 만든 고기 잡는 전문 도구인데, 마을 어부들이 밀물이 올라올 때면 강에 뛰어들어가 일자로 쪽 늘어서서 이 고기밭을 가로 쳐 놓고 썰물이 빠질 때를 기다렸다가 밭에 걸린 팔뚝 같은 고기들을 잡아냈다고 한다. 그래서 그 고기밭 이름 ‘호’가 상해의 별칭이 되었다고 한다.

‘상해’라는 이름이 처음 세상에 알려지기는 1077년부터이다. 『송희요집고』라는 문헌에 ‘상해포(上海浦)’라는 지명이 처음 나타났는데 문자 그대로 보통 나루터나 저자거리 비슷한 뜻으로 씌어졌다. 그 당시만 해도 이 거리는 인근의 소주·항주와는 비교가 안 되는 자그마한 향·진이였다. 1840년 아편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상해는 중국의 3류현으로 분류되어 별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1842년 6월 영국군함 나미시스호가 장강하구에 밀입해 오송포대를 향해 함포사격을 개시했다. 상해군민들은 진화성 제독의 통솔하에 침략자를 완강히 저항했으나 영국군의 강대한 신식무기를 당할 수 없어 모두가 장렬히 희생됐

다. 무능한 청정부는 굴욕적인 ‘중영남경조약’에 조인했고 상해는 광주·북주·하문·영파와 함께 구미 열강의 무역개항 장으로 탈바꿈했다. 주권을 상실한 상해는 식민지로의 전략과 더불어 아시아의 경제·무역·금융·문화의 허브로 부상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봉건의 장벽에 가리웠던 상해는 최초의 근대화도시로서 눈부신 매력을 발산했다. 서양과 동양 여러 나라들에서 선교사·해병·외교관·실업가·문화인·탐험가·실직자들이 몰려왔고 앵글로색슨족·라틴족의 귀족과 그들의 피정복국에서 고용되어온 인도순사·안남순사들도 이상야릇한 옷차림으로 조계지를 순시하며 상전의 위광을 표상한다. 조계지의 출현과 더불어 양행·교회당·병원·학교·전보국·권업회·사진관·레스토랑이 줄줄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양차·네온등·맥주·커피·축음기·왈쯔·트위스트·경마장 등 서양식 문화가 현대문명의 화려함으로 상가와 오락장을 장식했다. 표면적인 화려함 뒤면에는 암암리에 상업거두·당파우두머리·스파이·폭력배들이 난무했고 궁지에 내몰린 영세민들은 기아선에서 아우성쳤다. 한편 혁명사의 입장에서 보면 상해는 영웅적 도시이기도 했다. 1842년 8월의 항영투쟁, 1921년 7월의 공산당 창건, 1937년 8월의 항일대전, 1949년 5월의 상해해방 등 중대사건들이 곧 영광과 비애의 굴곡이 교차되는 역사적 순간들이었다.

뒤늦게 근대문명에 접한 한국의 진보적 사상가들에게 있어 상해는 근대문명을 확인하는 계몽의 장이었다.

1905년의 을사조약과 1910년의 경술국치를 당한 한국의 망명지사들이 줄줄이 상해를 찾아왔다. 김택영은 상해·소주지역을 ‘신비의 고장’(김택영, 1905)이라 불렀고, 장지연은 양자강지역을 ‘강호의 즐거움’(장지연, 1908)을 누리는 자유의 땅으로 이해했다. 신규식은 신해혁명의 회소식에 접하여 상해로 달려왔다. 그들은 구한말 문단의 거벽들로서 「오호부」·「시일야방성대곡」·「한국훈」 등 굴원의 ‘이소’를 방불케하는 시대적 명문으로 한가슴에 쌓인 애국의 절창을 쏟아냈다.

1919년 4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상해는 한국의 애국자들에게 독립과 광복의 희망을 안겨준 찬란한 등대로 떠올랐다. 그 등대를 찾아 안창호·이동영·이시영·박은식 등 임정요원들과, 이동휘·계봉우·홍명희·김두봉 등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지사들, 이광수·주요한·주요섭·현진건·김광주·피천득 등 문학도와 최상덕·신언준·강노항 등 신문기자들, 김구·이봉창·윤봉길 등 독립당계열의 폭력주의자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대부분 문무와 지용을 겸비한 사람들로서 수필·전기·시·소설 등 부동한 문체양식으로 그 시대를 증언하고 그 역사와 현장을 자기의 피부로 촉감하고 확인했다.

그만큼 그들이 남긴 문학유산이 소중하고 값진 것이었다.

필자는 본 논고에서 그들이 남긴 수백 편의 글에서 상해라는 이 근대적 식민지 대도시가 어떤 이미지로 부각되었는가를 집중 조명해보고자 한다.

## 2. 첫 번째 이미지 - 상해는 세계로 통하는 20세기 초 근대문명의 '축도'였다

20세기 10년대의 상해는 이미 중국의 경제·문화의 중심지로 뿔뿔이 자리잡았다. 당시 중국에 망명한 한국 작가와 기자들은 상해의 근대적 문명에 경도되었고 그에 대한 부러움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 대표작으로 우선 1915년 『청춘』지에 발표된 이광수의 수기 「상해에서」를 꼽을 수 있다. 서한체 형식으로 쓰여진 이 글에서 작가는 상해 부두의 철갑선, 대궁실 같은 회풍은행·벨기은행, 영조계의 인도순사, 불조계의 베트남순사, 6대주의 초목이 모인 황포탄공원, 화려한 영마대로, 설틈 없이 달리는 전차·자동차를 들어 상해 시가의 찬란함을 역설하면서 상해문명의 종합적 가치를 강조했다.

상해는 세계의 축도라고 보아만 하나이다.<sup>1</sup>

그 근거로 ‘인종치고 아니 와 사는 이 없고’, ‘십수 개국 통화가 다 통용되고’, ‘영어는 전시 각색 인종의 통용어로 되었다는 것과 ‘상무인서관이란 굉장한 책사’에는 ‘외국서적이 구비하고 풍족하며’, ‘수백 종이나 지나문으로 번역되었사오며, 사전류는 거의 완비하리만큼 편찬되었다’는 것을 들었다. ‘현세 문명의 정화’를 ‘유감없이 본’ 작가는 자국의 후진성에 대조해 ‘설음’도 나고, ‘찬 땀도 흘리고’,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다.

이광수는 상해의 근대문명에 찬사를 보낸 한편 뒤이어 그가 내포한 각종 사회적 모순들을 속속들이 파헤쳤다.

상해는 또한 기형적 지나의 축도로소이다.<sup>2</sup>

한편에는 종발 여자가 ‘노예 노릇’ 하는데 한편에는 ‘최신식 여권논자가 여자의 각성을 환기’하고, 한편에는 ‘백림대학 교수’ 같은 최신식 학자·명사가 ‘최신’ 사조의 구각에 거품을 날리는가 하면 한편에는 공수위좌하여 ‘공맹의 예’를 설하는 낡은 선비가 있다. 골목골목 나붙어 있는 약 광고 뒤에는 참혹한 화류병 - “물질문명이 출산하는 생활난과 도덕의 부패”가 도사리고 있음을 들어 작가는 이 근대 도시의 기형성을 조목조목 밝힌다. 결국 “양자강 유역의 부는 대부분 룬돈과 뉴욕과 파리의 창고에 넣은 바 되고”, 중국땅이면서 중국의 주권을 못 가진 상해라는 ‘무서운 상처’로서는 “독주와 아편이 들어와 4만 만인의 세포와 세포를 마취하고 파괴”함을 막을 수 없음을 개탄한다.

‘상해우객’이라 칭한 이의 글(「상해의 해부」)에서 저자는 상해가 “동양문화의 범(范)을 좌우할 자유항”과 세계를 통하는 관문이 되기를 바라면서 상해의 식민지 현실을 식민지 조선의 모델로 인정했다.

---

1 이광수(1915: 29).

2 이광수(1915: 29).

### 3. 두 번째 이미지 - 상해는 한국 애국청년들이 오매불망하던 마음속의 ‘메카’이며 ‘예루살렘’이었다

한국 본토에서의 일제의 탄압과 수탈이 날로 심각해지자 한국의 수많은 애국청년들은 저마다 “나라가 망했는데 어찌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있냐”는 자책감에 모대기였다. 그 무렵에 상해라는 곳에 한국 임시정부가 들어섰고 그 청사 앞에는 버젓이 태극기가 휘날린다는 희소식이 국내에 전해졌다. 김학철은 자서전 『최후의 분대장』에서 그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쓰고 있다.

윤봉길·서원준·안몽룡 사건으로 그렇잖아도 들떴던 마음이 이재유 사건까지 겪고 나니 나는 의마심원이랄까 “생각은 말처럼 달리고 마음은 원숭이처럼 설레어” 도저히 다잡을 수가 없게 됐다.

이 무렵부터 “태극기 휘날리는 상해의 임시정부”는 아예 내 마음의 메카로 돼버렸다. 그리고 조선학생들도 당당히 군사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황포군관학교는 내 마음속에서 아예 오매불망하는 예루살렘으로 돼버렸다.<sup>3</sup>

상해를 목표로 가출을 결행한 저자는 압록강·봉천·산해관·천진·남경을 거쳐 며칠 후 끝내 목적지에 도착했고 그 즉시 독립운동단체와의 접선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가 찾는 임시정부는 이미 상해를 떠난 지 오래다. 저자는 김혜숙이란 다른 한 독립운동가의 입을 빌어 그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다.

내애길 듣고 낙담일랑 마세요. 그 하늘같이 바라고 온 임시정부가 지금 상해엔 없다구요. 지난번 그 폭탄사건으로 이 조계에서 배겨내질 못하고 풍비박산했거든요. 기실 임시정부란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했었죠.<sup>4</sup>

---

3 김학철(1995: 92).

4 김학철(1995: 112).

임시정부가 없는 상해는 결국 그에게 대실망을 안겨주었고 실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그는 의열단의 변신인 폭력주의조직 조선민족혁명당을 찾아 새로운 출로를 모색했다.

#### 4. 세 번째 이미지 - 상해는 20세기 20-30년대 항일 독립운동의 책원지이며 결전의 장이었다

1919년 4월 임시정부 출범 이후 상해는 명실공히 한국독립운동의 책원지로 급부상했다. 서울과 만주·노령·LA·모스크바 등지로 다녀가는 독립운동가들이 흔히 상해에 들러 임정 또는 의열단의 지시를 받고 각지로 출발했다. 정원택의 『지산해외여행일지』에는 그가 중국 유학 중 신규식으로부터 독립운동의 밑서를 받고 길림에서 독립의군부를 조직하던 행적이 생동하게 기록되어 있다.

임정(한국독립당)이 지휘한 항일테러와 의열단(조선민족혁명당)이 지휘한 항일테러의 행적을 기록한 김구의 『백범일지』와 김학철의 『최후의 분대장』·『격정시대』는 상해가 독립운동가의 은신처와 결전의 장으로 이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적 자료이다.

자서전체로 쓴 김구의 『백범일지』는 그 자신과 이봉창·윤봉길 등 애국선열들의 투철한 항일의식과 희생정신 및 자주독립의 념원을 진실하게 그려냈다. 자진하여 임시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청원했던 김구의 순박한 태도, 일본천황 저격의 임무를 맡고 일본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밤을 상해에서 김구와 함께 묵으면서 선생의 넓은 도량에 못내 감격해했던 이봉창의 이별의 모습, 천장질 행사를 이용해 특제한 도시락폭탄으로 상해 홍구공원에서 시라카와대장 이하 일본 문무대관 수명을 살상한 천하영웅 윤봉길의 거사, 그리고 애매한 동포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동경 저격 사건과 홍구 폭탄 사건의 책임자는 자신이라는 성명서를 떼땀이 발표한 김구의 소행, 이러한 중대한 세부 묘사들

을 통해 『백범일지』는 세 애국자의 침착성·용감성·낙관성 비범한 슬기와 영웅적 성격을 생동하게 부각했다.<sup>5</sup>

김학철의 자서전 『최후의 분대장』과 장편소설 『격정시대』는 많은 편폭을 할애하여 의렬단의 변신인 조선민족혁명당의 상해에서의 반일테러 활동을 소상하게 기록했다. 김원봉 이하 수십 명에 달하는 의렬단의 애국지사들의 행적은 그동안 남과 북의 항일사료들에서 소외되어 왔던 부분이다. 김학철은 상해 애인리에 안둔했던 그 시절의 전우들과 8·13상해전 이후 ‘상해패’ 이름으로 황포군교에 편입된 민혁명 성원들의 다양한 항일 일화들을 재치 있는 유머로 흥미진진하게 엮어 내려가면서 오랫동안 항일투쟁사에서 잊혀진 의렬단 및 민혁당의 역사적 진실을 복원하는 어려운 작업을 완수했다. 그의 복원 작업으로 상해 민혁당의 김혜숙·손일엽·심성운·유일평·최우강·윤세주(총독살해 미수로 검거되었음)·이경산·노철룡·이강·장진광·장중광·이하유... 등 무명영웅들이 역사의 현장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김학철은 결코 그들을 과대 분식하거나 미화하지 않았다. 민혁명 성원들의 테러리즘과 공산주의·왕정복고주의 등 사상의식의 복합성을 지적했고 민혁당의 창시자 김원봉을 묘사할 때에도 그의 ‘타고난 카리스마’적 성격을 강조하면서도 그의 말재주 없음을 기어이 들춰낸다.

김학철은 민족혁명당의 수령 김원봉과 더불어 한국독립당의 수령 김구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표시했다.

김구선생을 비록 ‘노완구’라고 부르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분을 여간만 존경하지 않았다. 그분이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를 초를 때마다 중국어를 그대로 옮겨서 ‘다사복’이라고 하는 따위도 우리는 다 애교로 받아 들였었다.<sup>6</sup>

상기한 바와 같이 『백범일지』와 『최후의 분대장』은 항일전쟁시기 상해에

---

5 김구(1929: 229-253).

6 김학철(1995: 179).

서 같이 활약했던 정치적 이념이 서로 다른 우익계열의 한독당(김구)과 좌익계열의 민혁명당(김원봉)의 항일 테러사실을 함께 읽을 수 있는 소중한 문학사료이다. 물론 1930년대 상해에서의 그들의 테러행위는 현재 중동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의 반인류적인 공포적 행위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자는 항일을 위한 세계 반과소 전쟁의 일환으로서 정당하고 정의적인 행위였으며 후자는 무고한 백성을 상대로 한 반인류적인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의열단의 폭력활동을 반영한 소설에서 김산의 「기묘한 무기」를 빼놓을 수 없다. 이 소설은 일경에 체포된 의열단 단원 오성룡이 상해일본영사관 감방을 지혜롭게 탈출하는 전 과정을 실감있게 그려냈다. 작품의 주제에서 일본제국 주의를 압박계층과 피압박계층을 반드시 구분해봐야 한다는 정치적 설교가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밖에 상해에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의 당파적 분열상을 리얼하게 보여준 문학작품도 있다. 1930년 『조선일보』에 발표된 심훈의 소설 「동방의 애인」이 곧 이 부류의 소설이다. 심훈은 1919년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출옥 후 상해로 건너와 망명생활을 했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우리 민족과 같은 계급에 처한 남녀노소가 다함께 사랑할 수 있는 ‘공통된 애인’을 이상형으로 내세운다. 그 ‘공통된 애인’이란 곧 ‘민족에 대한 전통적 애착심’에서 벗어난 새로운 ‘애인’ 즉 ‘사회주의 혁명’이었다. 정치소설의 성격을 띤 이 작품에서 작가는 동렬과 박진이라는 두 주인공의 시각을 통해 상해 독립운동가들의 생활고, 당파적 분열상과 부패상을 그려내면서 결혼 후 ‘공동의 애인’을 찾아 함께 모스크바로 달려가는 동렬부부와 결혼 후 허영심의 만족을 위해 일본으로 가는 아내와 갈라지는 박진부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었다. 상해라는 도시가 한국 망명객들의 집합소이며 또한 혁명가와 타락자의 갈림길이기도 하였다.<sup>7</sup> 최독견의 단편소설 「황혼」도 3·1운동 후 상해로 망명한 한 독립운동가의 경제적 궁핍과 혁명가로서의 비장한 각오를 보여주고 있다.

독립운동가들의 민족의식을 시로 표현한 주요한의 상해시절의 창작도 주목할 만 하다. 주요한은 1919년 5월 상해로 와 호강대학에 입학했고 『독립신문』의 기자와 편집으로 일하면서 도산과 춘원의 영향을 받아 '약'이라는 필명으로 11편의 자유시를 발표했다. 주요한 자신은 그것들을 독립가나 군가 같은 단순한 창가라고 보았지만 그 당시 시단의 수준으로 보아 손색이 없는 작품들이다.

동무들아/ 이날을 기억하느냐  
 피와 꽃과 눈물로서/ 너의 조국이 다시 산 날  
 이날에/ 이천만의 소리가 / 물결같이 움직였다  
 이날에/ 삼천리 산과 별이 / 기쁨으로 떨었다  
 오오 이날에/ 이 크고 거룩한 날에  
 너의 가슴은 끓어오르고  
 붉은 두뺨은 눈물로 빛났다.<sup>8</sup>

3·1운동 일주년을 맞아 쓴 회상의 시, 집단적 자아를 노래한 시이다. 이밖에도 호강대학 재학시기 상해체험을 바탕으로 쓴 「상해풍경」·「상해소녀」·「불란스공원」 등 시들에서 고향 상실감과 집단적 민족의식을 간접적으로 표출했다.

## 5. 네 번째 이미지 - 상해는 세계적 문호 노신선생이 살아 숨쉬는 문화의 도시였다

노신은 중국 신문화운동의 거장이다. 절강 소흥에서 태어나 일본에 가 유학하고 돌아와 북경·하문·광주 등지에서 교편을 잡았다. 후기에는 주로 상해를 무대로 좌익작가연맹을 지도 했고 「광인일기」·「아Q정전」 등 명작으로

7 심훈(1930: 577).

8 주요한(1927).

세계문호의 반열에 올랐다.

노신은 상해를 찾아온 한국 애국청년과 문학도들의 첫 번째 숭배대상이었다.

노신의 이름이 한국에 알려지기는 1920년 말부터이다. 양백화가 『개벽지』 11호에 일본 『지나학』 잡지에 실린 아오키 마사루의 중국의 문학혁명에 관한 논문을 번역게재하면서 처음으로 노신의 「광인일기」를 언급했다. 그 후 1925년에 유수인이 「광인일기」를 한국어로 번역했고 1929년 1월 개벽사에서 간행한 『중국단편소설집』에 양건식이 번역한 노신의 「두발 이야기」가 실렸다. 1931년 1월 정내동의 장편논문 「중국단편소설가 노신과 그의 작품」이 『조선일보』에 20기로 나누어 연재되면서 노신의 명성이 한국에 널리 전파되었다. 1934년 신언준 기자가 쓴 「중국의 대문호 노신방문기」가 『신동아』 제4기에 발표되면서 노신숭배자가 급격히 많아졌다. 유수인·김구경·신언준·이륙사 등 청년문학도들이 노신과 서신거래를 했고 한국문단에 대한 노신의 조언을 듣기도 했다. 그중에서 노신을 연구 소개한 대표적인 논문은 이륙사의 「노신 추도문」이다.

이륙사는 「노신 추도문」에서 「광인일기」는 ‘폭탄선언’ 이상으로 중국청년들에게 사상적 충격을 주었고 「아Q정전」은 그 당시 중국을 ‘아Q시대’라 부를 만큼 문학사에 이정표를 세웠다고 했다.

실로 수많은 아Q들은 벌써 자신들의 운명을 열어갈 길을 노신에게서 배웠다. 그래서 중국의 모든 노동층들은 남경로의 아스팔트가 자신들의 발밑에서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시고탑로 9호로 그들이 가졌던 위대한 문호의 최후를 애도하는 마음들은 황포강의 파도와 같이 밀려가고 있는 것이다.<sup>9</sup>

국민성을 개조하고 봉건제도를 개변하려 한 노신문학의 목적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이다. 이륙사는 노신을 ‘중국현대문학의 아버지’라 높이 찬양했

---

9 이륙사(1936: 77).

고 그 자신도 노신같은 작가가 되고자 했다. 노신평과 노신평정신이 일세를 풍미했던 상해는 문화의 도시로서 한국문화인들에게 커다란 매력을 던져주었다.

## 6. 다섯 번째 이미지 - 상해는 식민지 기형아이며 가난한 자의 지옥이었다

광복전 상해의 식민성에 대해서는 이광수의 글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이상야릇한 복장을 입은 인도·베트남 순사들이 상전의 위광을 뿔내며 조계에서 행세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해의 식민지 현실을 풍자적인 시각으로 썼던 것이다. 한편에서는 ‘동양의 파리’·‘동양의 몬테카로’라고 찬양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공원·경마장과 수영장에 “중국인과 개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패쪽이 붙어있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대조적인 현실이었다.

상해의 식민지 현실을 고발한 대표적 작품으로는 주요섭의 단편소설 「인력거꾼」과 「살인」, 피천득의 수필 「은전 한 닢」, 김광주의 단편소설 「포도의 우울」·「남경로의 창공」·「야지」와 「북평서 온 손님」, 최독견의 단편 「남자」·「별금」·「낙원이 부서지네」와 수필 「상해·황포강반의 산책」을 들 수 있다.

주요섭은 주요한의 뒤를 따라 1920년 상해에 와서 호강대학 중학부와 본과를 졸업했고 5·30참안을 반대하여 일어난 상해 학생운동에도 직접 참가했다. 1921년 처녀작 「추운 밤」을 발표하면서부터 줄곧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단편 「인력거꾼」은 시골에서 상해에 들어와 8년 동안 인력거를 끌다가 중노동에 지쳐 죽은 아쩡이라는 주인공의 비참한 삶을 형상화 했다. 통계에 의하면 그 당시 상해에는 2만 명의 인력거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고된 노동과 폭염·일사병 등 원인으로 9년 이상을 더 살지 못한다고 했다. 그래서 아쩡의 죽음을 지켜보던 동료들이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지껄인다. “무엇을 요. 저 죽을 때가 다 돼서 죽었군요. 팔년 동안이나 인력거를 끌었다니깐요.

남보다 한 일년 일찍 죽은 셈이지만. 지난 번 공보조사에 보면 인력거를 끌기 시작한지 9년 만에 모두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설적 수법으로 작자는 노동의 보수가 노동력의 지속을 불가능케 할 정도의 빈곤의 양상을 고발한다.<sup>10</sup>

「살인」 또한 상해를 무대로, 한 중국 기생의 삶을 그리고 있다.<sup>11</sup> 보리서말에 도로공사 십장인 서양인에게 팔리고, 그 부하 노동자를 거쳐서 창녀가 되기에 이른 주인공 우뽤는 사모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고 기생들의 고향을 빨아 먹는 포주를 살해한다. 이 두 작품은 이국 상해의 최하층 인간들의 불우한 운명과 빈곤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자타의 식민성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작자는 빈곤의 원인과 해결책이 무엇인가는 묻지 않았다. 한국의 현실은 그보다는 낫다는 윤리적 우월감과 위안의 근거를 제공한 듯 하다. “상해는 지옥과 같은 곳이어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관심거리로 삼는” 그런 정도라고 보았다. 도시 영세민 근로자들의 비위생적인 생태나 상해거리의 아침 난전에 대한 묘사에서 상해에 대한 작가의 오리엔탈리즘적 정서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주요섭은 목사의 아들로서 빈곤을 모르고 자랐다. 이런 이유로 상해 최하층 인간들의 삶의 불행에 대한 주요섭의 시각은 객관적이고 냉정했다. 노신의 소설 「사소한 이야기」에 그려진 인력거꾼은 이기적인 지식인과 대조되는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이며 동정과 존경의 대상이었다.

상해에서 자라온 주요섭의 1920년대 발자취를 찾아보기 위해 필자는 2005년 겨울에 호강대학을 찾았다. 지금은 상하이공대학으로 교문이 바뀌어 버린 호강대학의 옛터에는 아직도 1906년이란 개교년도와 沪江大学이란 이름을 세로 새긴 큼직한 화강석 돌기둥이 우뚝 서 있고 캠퍼스에는 아담한 벽돌양옥

---

10 주요한(1925).

11 주요한(1925).

에 검은색 삼각형 양철 지붕을 얹은 고색 찬연한 기독교 건축물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항일전쟁시기에 호강대학도 수차 전화에 시달려왔지만 그 당시의 당안 자료가 상해시 그 어딘가에 아직 보관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노 교수들의 추측도 나왔다.

상해의 중국 영세민 근로자들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작가로는 주요섭을 제외하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곧 이년 전에 타계한 유명한 수필작가 피천득이다.

피천득도 1920년대 말에 상해에 유학와서 1931년에 호강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은전 한 닢」·「상해 대전 회상기」 등 상해를 배경으로 수필 여러 편을 썼다. 「은전 한 닢」은 오랜 기간에 걸친 간난신고 끝에 일원짜리 은전 한 잎을 얻은 한 중국인 거지의 모습을 연민의 심정으로 회상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내가 상해에서 본 일이다.”라고 간단하게 서두를 떼고 나서 일원짜리 동전 한 잎을 손에 쥔 거지가 선후로 두 전장집에 가서 그것이 정말 은으로 만든 돈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서술한다. 그다음 ‘나’와 거지와 뜻밖의 대화 장면을 마련하여 극적인 전환점에 이르면서 은전 한 잎을 절대적 보배로 여기는 늙은 거지의 모습을 통해 극도의 빈궁이 가져다 준 비애의 형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것은 훔친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 저 같은 놈에게 일 원짜리를 줘니까? 각전 한 닢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동전 한 닢 주시는 분도 백에 한 분이 쉽지 않습니다. 나는 한 푼 한 푼 얻은 돈에서 몇 닢씩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 아흔여덟 닢을 각전 닢과 바꾸었습니다. 이리기를 여섯 번을 하여 이 귀한 대양 한 푼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돈을 얻느라고 여섯 달이 더 걸렸습니다.<sup>12</sup>

그러면 늙은 거지가 그 어리석은 집착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은전 한 닢을 향한 남에게는 무의미하게 보이는 그 집념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

---

12 피천득(창작 연대 미상: 292).

까? 마지막 한마디 말 “이 돈 한 개가 갖고 싶었습니다.”에 집약된 진정한 의미는 못사람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거지에게도 끈질기게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고 단 한번만이라도 인간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고 싶은 갈망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은전 한 닢을 갖기 위해 여섯 달 동안 잔돈 아흔여덟 닢 모으기와 각전 바꾸기를 여섯 번이나 하는데 한편에서는 주육지림으로 돈을 물 쓰듯 하는 이런 기형적 사회가 바로 식민지 상해였다.

주요섭과 피천득의 작품들은 상해 중국 서민들의 비참한 삶과 그 빈곤 문제를 고발했다면, 최독건과 김광주의 작품에서는 상해 조선인 유민들의 기구한 삶과 식민지 구속에서 변질·타락되어 가는 조선인 사회의 기형적 모습이 리얼하게 묘사되었다.

최독건(본명 상덕)은 상해에 건너와 유학을 한 다음 『상해일일신문』의 기자로 있었고 1925년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1927년 『조선일보』에 연재된 그의 통속연애소설 「승방비곡」이 대단한 인기를 얻어 최서해로부터 “참말 기상 천외라 할만치 복잡하고도 통일이 있으며 청신하고도 묘미가 있다.”는 극찬을 받았다고 전한다. 그밖에도 「유모」·「바보의 진노」 등 단편 대표작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그의 상해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만 골라서 집중 조명해 보겠다.

『신민』 1926년 9월호에 발표된 그의 단편 「남자」는 연애소설이다. 노령에서 나서 자라 상해에 온 16세 소녀 S를 사랑하는 ‘남자’가 상해 F공원에서 9시에 그 소녀를 만나기로 했다. 약속한 시간에 S가 다른 남자와 같이 손을 잡고 B리 골목·E관 옆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주인공 ‘남자’는 S소녀를 ‘더러운 계집’으로 오해했다가 그의 진실한 고백을 듣고 오히려 자신을 반성한다. 작품은 두 사람의 엇갈리는 심리변화과정을 재치 있게 엮어가면서 이역 타향에 와서도 타락되지 않고 사랑의 순결을 지키고자 한 조선 청년들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단편 「벌금」도 역시 『신민』(1926년 12월) 잡지에 발표된 소설이다. 작품에는 두 가지 사실이 서술되었다. 한 가지는 주인공이 전차비를 절약하기 위해

k군을 따돌리는 야속한 행동이다. K군이 중국옷을 입은 것을 보고 중국사람은 공원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규칙을 이용해 퍼뿌릭공원에 들어가자고 억지를 부려 끝내 k군을 때버린다. 생활의 궁핍에서 생기는 주인공의 이기심이 가증스럽게 느껴지고 중국인과 가는 공원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식민주의자의 인종적 멸시가 분노를 야기시킨다.

공원에 들어간 주인공은 얼굴에 검은 그물을 쓰고 어깨에 잠자리 옷을 입은 서양귀부인이 개에게 빵 속을 파내 주고 중국 애에게 빵 껍질을 주는 못된 행실을 보고 그 '서양년'과 '기름진 개'가 죽도록 미웠으며 증오와 의분을 참지 못해 개의 옆구리를 발길로 걷어찼다가 인도순사에게 붙잡혀 공부국경찰서에 끌려간다. 그 결과 벌금 3만 원의 언도를 받았다. 사람이 개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다는 상해의 식민지 현실을 간접적으로 질타한 소설이다.

단편 「낙원이 부서지네」(『신민』 1927년 5월)는 스케치식 이야기 구조로 연애·갈등·이혼의 과정을 일목료연하게 그려냈다. 갓 결혼한 부부는 서울도 동경도 마다하고 '동양의 파리'라는 상해로 간다. “넓다란 상해에 좁다란 낙원을 세웠다.” 영어와 음악을 아는 아내는 수입 높은 직업을 찾아 여황같이 높아지고 직업 없는 남편은 아내의 양말을 빨아주고 묵은 밥을 데쳐먹는 신세가 되며 '왕바치'라는 욕까지 먹는다. 결국 '저기압'이 '폭풍화'되면서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었다.<sup>13</sup> 상해 조선인들의 분화·타락되는 과정을 통해 식민지화·기형화 되어가는 상해의 음영을 사생화식으로 그린 독특한 작품이다. 최독견의 작품들은 중대한 사회적 주제나 평론가의 평가에 크게 관심이 없이 독자의 인기로 승패를 결정하려 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상해에 건너와 사는 조선유민들의 가난한 생활을 가장 리얼하게 다각적으로 반영한 작가는 김광주이다. 김광주는 1929년 8월 상해 남양의과대학에 유학하여 의학공부를 하다가 생활난으로 중퇴하고 반일단체 홍사단에 가입하여

---

13 최독견(1927).

여러 모로 활약했다. 중국 신문에운동과 노신·곽말약·장광자의 작품을 평하는 글들을 한국 국내 잡지에 발표하다가 1933년 『신동아』에 처녀작 「밤이 깊어 갈 때」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장했다. 상해의 조선유민들의 생활을 반영한 그의 대표적인 소설로는 1930년대 중반에 쓴 「포도의 우울」·「남경로의 창공」·「야지」·「북평서 온 영감」과 1949년에 발표한 「양자강 연안」 등이다.

단편 「포도의 우울」과 「남경로의 창공」은 상하이역에 와 사는 두 젊은 인테리의 방황과 고민을 반영했고 단편 「야지」와 「북평서 온 영감」은 상해의 '따스가'와 '정자간'에서 모진 수모와 굴욕을 당하며 살아가는 조선인 창녀·영세민의 참담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포도의 우울」의 주인공 철이는 나약하고 결단성 없는 가난한 지식인으로서 아내의 해산을 목전에 두고 돈 15원을 구하려고 종일 거리를 헤맨다. 돈밖에 모르는 핀둥핀둥 살만 찌가는 처남에게서는 구걸하기 싫었고 길에서 만난 서울 친구 A는 월급 탄 날이지만 단 2원도 꾸어주기를 거절한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철이는 다행히 옆집에 사는 '애희할머니'의 도움으로 아내가 순산한 것을 보고 서민들의 순후한 인정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외국된 도시문명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

「남경로의 창공」은 타락된 '지사'의 가정에서 뛰쳐나오려는 조선의 지식인 명수와 그의 아버지와의 갈등을 통해 상해 도시 문명의 음영 속에서 사라져가는 전통사회를 냉철하게 거부하고 민족적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지식인의 새로운 출발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 5년 전까지만 해도 명수는 지사의 아들로 자랑스러웠는데 k대학 문과를 졸업하고 돌아와 보니 가족상황은 완전히 판판으로 바뀌었다. 아버지는 아편밀수 부로키로 타락해 "술과 계집을 쫓아 밤을 새우고", 남편의 외도에 상심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마작에 정신을 붓고", 여동생은 밤낮 "피아노나 통탕거리면서" 그러한 생활에 마취되어 버렸다. 지난날 가장 진실한 인간으로 자처하던 A교수는 시정배로 전락되고, 그의 아내 소니아는 술과 춤으로 소일하는 음탕한 여자가 되었다.

아버지·어머니·누이동생·A선생·그의 아내 소니아……명수는 아무 것도 더 생각하기를 싫었다. 춤과 계집과 술과 마장, 연분홍빛 향락을 쫓아 일생을 살라는 계급들—그러나 지사의 거리 상해라는 이 아름다운 명사가 그들의 이런 생활을 곱게 곱게 덮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sup>14</sup>

명수의 결론은 “그들의 생활을 덮고 있는 이 어두컴컴한 껍질을 벗겨서 밝은 태양 아래 드러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일생을 붓대를 들고 싸워보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식민지 도시문화의 병폐 속에서 잠식되고 타락되어가는 조선인 사회에 대한 분노의 외침이다.

지식인의 방황과 고민을 주로 반영한 이상의 소설과 달리 단편 「야지」는 상해의 밑바닥에서 뒹굴면서 갖은 수모와 굴욕을 당해온 조선인 창녀의 불우한 운명을 다루고 있다. 서한체형식으로 씌여진 이 소설에서 주인공 이뿐이는 서울에 있는 그의 송아지 친구 명숙에게 자기가 창녀로 타락된 과정과 상해 어느 여자대학 영문과를 다닌다는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를 자백한다. 그는 도적 같은 삼촌에게 속히워 길림에 팔려오고 “만주바닥을 구르고 굴러서 상해까지 흘러왔다.” 그녀는 “중국 여자 셋, 그와 같은 조선 여자가 하나, 모두 다섯 여자의 고깃덩어리가 아귀같이 그악스럽고 심술궂은 포주 영감과 마누라의 배를 불리느라 썩고 또 썩는다”고 쓴다.

나는 밤쥐와 같이 낮에는 잠자고 밤이 깊어 온 세상 사람들이 단잠을 이룰 때면 헛박을 뒤집어 쓴 것같이 진한 분 때문에 윤곽조차 비틀어진 것 같은 기괴망측한 얼굴에 음탕한 웃음을 짓고 상해의 한복판 저 따스가 뒷골목에 출몰하여 오고가는 행인의 팔목을 지근거리 하룻밤의 고깃덩이 임자를 낚시질하는 신세다. 온 세상 사람들이 천하다 더럽다 칩 백고 손가락질하는 “야지”가 되어버린 것이다.<sup>15</sup>

이처럼 이뿐이 눈에 비친 상해는 ‘악마굴’·‘감옥소’, 청춘을 좀 먹어 들어가

---

14 김광주(1935: 288-297).

15 김광주(1936: 300).

는 ‘악착스런 천지’였다. 이뿐이에게도 일찍 “조선 천지에 이름을 떨치는 여류 작가”가 되려는 야심이 있었고, “귀여운 아들딸을 두 팔에 하나씩 안고 다만 하루라도 에미 노릇을 하다 죽고 싶”은 본능적 욕구가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편지의 마지막에 그 무정한 세상에 용감한 도전장을 냈다.

나는 반드시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나는 무슨 짓이라도 해서 내 몸을 빼내고야 말겠다.<sup>16</sup>

비록 그녀의 복수는 개인적 저항이지만 사회의 퇴폐와 타락을 극복하고 인간의 자존을 잃지 않으려는 서민계층의 의지와 역량을 대변한다.

「북평서 온 영감」의 주인공 ‘영감’은 조선에서 머슴을 살다가 아내가 서울로 도망갔기에 만주와 북평을 거쳐 상해로 굴러들어온 순수한 농민 출신의 유랑민이었다. 북평에서 아편과 갈보 장사를 하는 사람 집에서 심부름을 하다가 쫓겨난 그는 상해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찾아왔다. 중어도 모르고 기술도 없는 그는 사람이 바글바글하는 상해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홍구마켓’에 가서 소고기를 조선인들에게 도매하는 임시 일거리를 찾았다. 그런데 우연히 예배당에 갔다가 독립운동가의 따님이란 메리라는 양풍을 마실대로 마신 ‘귀한 아가씨’를 보고 그만 환장해 버린다. 그녀의 얼굴이 자기를 배신하고 서울로 도망간 아내의 얼굴과 너무 흡사했으므로 ‘영감’은 메리에게 반해, 밤에는 잠꼬대를 하고 낮에는 돈을 벌어 메리에게 장가를 들려고 분주하게 설친다. 그런데 메리는 돈 많은 B씨네 집에 시집가게 되고 ‘영감’은 엉뚱한 짓을 저지른다. 신랑신부가 잠자리에 막 들려고 할 때, 신방에 침입했다가 무엇에 놀라 칼을 집어 던진 채 달아난 것이다. 결국 ‘영감’은 불조계의 경찰에 잡혀 일본 나가사키 감옥에 압송된다.<sup>17</sup> ‘영감’의 인생철학은 단순한 것이었

---

16 김광주(1936: 312).

17 김광주(1936: 314-329).

다. “땀든 곱든 마음 착한 아내를 데리고 다만 한 칸 방에서라도 자식을 안고 살아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시는 그의 아내를 빼앗아갔고 노동의 권리, 생의 권리마저 빼앗아갔다. 손지봉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작품은 도시라는 공간에서 용납될 수 없는 한 인간이 결국은 감옥이라는 공간으로 격리되는 양상을 순조롭게 서술하여 순박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는 도시라는 공간의 장벽을 상해라는 무대를 통해 보여주었다.”<sup>18</sup>

김광주는 1940년 상해 해방직전까지도 이 도시와의 인연을 끊지 못했다. 이 해에 발표된 그의 소설 「양자강연안」은 이전의 소설들과 달리, 광복이 되어 상해로 몰려드는 귀국동포들을 배경으로 정착과 회귀의 갈등 사이에서 모 대기는 한 평범한 지식의 심리를 묘사했다. 주인공 구보노인은 20대에 망명하여 40년 동안 상해·중경·곤명 등지를 전전해 온 애국자였다. 그는 중국망명 생활 과정에 “왜놈 밀정의 총알을 맞고 병신이 되고 아내마저 잃었고 조선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내일처럼 뛰어들어 해결해 준” 사랑스러운 인간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으로 생각했고 더구나 “혁명가로 둔갑하여 국내로 들어”가는 것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며 “인생의 부귀와 영화와 지위와 명예를 위해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왔다. 그에게는 평민 의식·정직성과 더불어 그동안 정이 든 상해를 떠나는 것도 쉬운 게 아니라는 집념이 자리 잡았다. “결국 이런 복잡한 감정으로 구보노인은 조선으로 돌아갈 것을 단념하고 말았다.” 그런데 두 자식 남매가 기어코 귀국하지는 바람에 남매의 귀국만은 동의했으나, 그것도 성사되지 않아 할말을 잃고 만다. 한점 부끄럼 없이 정직하게 살려는 평범한 애국자의 숭고한 모습이 상해부두에 거인처럼 떠오르는 대목이다.

상기 소설들은 상해의 중국인 영세민과 조선인 유민들의 기구한 삶을 다각

---

18 손지봉(1988: 14).

적으로 전시하면서 식민지 도시의 음영과 도시문명에서 소외된 인간들의 기형적인 모습을 리얼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문학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 7. 여섯 번째 이미지 - 단절격리시대 한국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상해는 1930년대의 '트위스트'뿐이었다

1950년 조선전쟁의 발발과 더불어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오랫동안 냉전의 찬 기류가 흘렀다. 1992년 중한수교 이전까지 두 나라는 서로 적대국으로 치부되어 모든 내왕이 거의 단절되어 버렸다. 40여 년의 단절 격리 시대에 상해는 한국인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지고 있었으며 이데올로기의 장벽으로 하여 굳게 문이 닫힌 중한 문화교류는 최저의 냉점에 이르렀다.

그런데 1990년대의 한국 대중가요무대에 〈사랑의 트위스트〉란 인기곡과 가사가 떠오르면서 낯선 이국도시 상해가 모든 한국청년들의 가슴 속에 힘찬 사랑의 멜로디로 울려 퍼졌다. 이 가사는 나팔바지가 유행되던 1970년대의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학창시절에 함께 추었던  
잊지 못할 상하이 트위스트  
나팔바지에 빵집을 누비던  
추억 속의 사랑의 트위스트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  
트위스트 추면서  
난생처음 그녀를 알았고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  
트위스트 추면서  
온 동네를 주름잡았던

사랑했던 사람들을  
잊지 못할 추억의 트위스트

그녀와 함께 신나게 추던  
잊지 못할 상하이 트위스트  
단발 머리에 미소가 예뻐던  
추억 속의 사랑의 트위스트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  
트위스트 추면서  
난생 처음 그녀를 알았고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  
트위스트 추면서  
그녀에게 빠져버렸던  
터질 것만 같은 이 가슴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

한국청년들이 이 노래를 즐겨 부르던 1990년대의 한국은 중등 선진국으로의 경제적 진출과 더불어 근대화 과정이 바야흐로 급속히 가속화되던 시기였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은 1920-1930년대 상해의 근대화 과정과 문화적인 어떤 공통성이 있었으며 따라서 공간적 장벽을 넘어 댄스·트위스트·경마·골프 등 서양문화의 상징물들을 매체로 상해의 근대 문명과 어떤 심리적 공명대를 형성했던 것 같다. 기실 1970년대의 상해는 사상 유례없는 흥위병 운동으로 전통이 깨어지고 서양문화가 배척되는 극도의 침울한 시기에 처해 있었다. 그런 시대에 상해라는 이름으로 된 사랑 주제의 대중가요가 것처럼 한국 청년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컬 하지 않을 수 없다.

## 8. 일곱 번째 이미지 - 개혁개방시기 한국작품에 부상된 상해는 회의와 경탄, 충격 그 자체였다

1992년 중한수교 이후 한국 작가들의 상해 방문은 날이 갈수록 잦아졌으며 상해를 주제로 한 문학작품들이 두각을 내밀기 시작했다. 그중에서 비교적 돋보이는 작가는 신상성이다. 그는 「잠자는 사자의 콧수염을 건들지 마라」·「가을 같은 조선족 바이올리스트 여인」·「루쉰·중국 현대문학의 대부」·「상하이, 윤봉길과 루쉰 두 거인의 만남」 등 수필에서 경제적·문화적 또는 역사적인 다양한 시각으로 상해를 조명했다. 황포강의 야경을 ‘동화세계’에 비유하는가 하면 상해를 중국경제를 이끌어 가는 ‘힘찬 기관차’라고 찬양하기도 했다.

신상성은 197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회귀선」이 당선되면서 문단에 데뷔했다. 한국사이버문학가협회회장·국제펜클럽 한국본부 국제협력위원장·용인대 교수·낙양외대·천진외대 석좌교수를 거쳐 현재 피지 수도에 있는 수바외대 총장을 맡고 있다. 『처용의 웃음소리』·『늑대를 기다립니다』·『행동춘 패랭이 꽃』·『목숨이 끝』·『내 마음속의 들쥐』 등 소설집이 있는데 그중에서 상해를 배경으로 한 단편소설 「인도향」이 중국의 사회적 문제를 직접 겨냥하였다는 점에서 독특한 의미가 부여된다.

작품에서는 북경과 상해라는 두 공간이 서로 교차되면서 두개의 원이 그려진다. 표면상으로는 주인공 ‘나’와 아내 연푸나와의 연애·성공·분리가 이야기의 줄거리를 끌어가는 연쇄적 역할을 하고, 내면적으로는 돌함의 비밀을 파헤치는 신비한 과정을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하에서의 빈부의 격차문제, 도시의 범죄문제, 인간성의 존중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상해 『해방일보』에 「돌함의 비밀」이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비밀의 주인공은 상해 홍커우 공원 관리원인 털보이다. 털보는 ‘정직하고 충직하고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호인’이라고 칭찬 받아온 사람이었다. 그는 풍기문란죄를 적발한다는 미명으로 밤마다 전지불을 켜들고 공원 안의 대나무 숲을 누빈

다. 그렇게 적발된 ‘풍기문란자’가 137명이나 된다. 그 137명의 이름과 직장·직책·적발날짜·전화번호 등을 자세히 적어 들함 속에 넣어 대나무 숲에 숨겨 두었다. 털보는 전지불로 ‘풍기문란자’를 발견할 적마다 공작증(사본증) 제시를 요구했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하면서 돈과 금품을 요구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한국제 밀수 소나타 승용차’도 갖게 될 정도로 무소불위하는 ‘황제’가 되었다. 우연히 그의 손에 걸린 ‘풍기문란자’ 가운데 중학교 교장과 그의 옛 애인인 시공안국 국장부인도 있었다. 털보는 중학교 교장한테서 돈 일만 원을 뜯어냈고 교장이 자살한 뒤에는 국장부인을 협박해 ‘부인의 몸’을 요구했고 부인을 밧줄로 묶어 놓고 짙은 나체사진까지 들고 다니며 부인을 미끼로 팔자를 고칠 생각이었다. 털보는 수시로 공원 관리인 사택에 국장부인을 불러 놓고 성폭행을 감행했다. 국장부인은 결국 미리 준비해 놓은 농약으로 털보를 독살했다. 알고 보니 그 하찮은 신분의 공원 관리인 ‘털보황제’는 ‘부처님 반토막 같은 호인’이 아니라 ‘히틀러와 지존과 두목의 독성을 합성한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사건의 이러한 결말은 사회주의 시장경제하에서 일어나는 빈부의 격차와 도시의 범죄를 ‘유일하게 성공한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느냐 하는 엄숙한 사회적 문제를 던져주는 한편, 또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개인의 사랑문제가 어떻게 외부의 억압이나 간섭 없이 표면화 되어야 하는가 하는 개방적 주장을 시사했다. 살인죄로 수갑을 차게 된 국장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름만 들어도 떠르르한 남편은 ‘명예와 일만을 위해 사는 철저한 사회주의 일꾼’이어서 자신은 ‘공식파티 때만 데리고 다니는 인형’에 불과했다고 공소한다. 그러나 아내는 명예나 명분보다 남편의 개인적 사랑을 갈망했고 그래서 방황 중에 만난 어린 시절의 연인(중학교교장)을 만나 공원에서 ‘어른 소꿉장난’을 한 것이다. 여성의 진정한 사랑이 인간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외부의 억압과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소설이 궁극적으로 펼치고자 하는 윤리적 주장이다.

소설은 일인칭·의식의 흐름의 수법으로 북경에서 상해로, 돈황에서 소림

사로, 1990년대에서 1980년대로 자유로이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가정부’로서의 그미, ‘아내 연류냐’로서의 그미, ‘시공간국장 부인’으로서의 그미를 하나로 동일시화 했고, 결국 두 가지 사회제도하에서 그려진 두개의 부동한 표현방식의 사랑의 원(圓)이 사랑의 본질의 본능적 표면화라는 시점에서 하나로 합쳐진다. 회족 노인한테서 5원을 주고 산 그 ‘인도향’의 아득한 향기는 행복의 추억을 불러내는 마술 같은 향기이며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주는 ‘부처님’의 사랑, 휴머니스트의 인간적 사랑이었다.

## 9. 나오는 말: 이상에서 20세기 한국문학에 비친 상해의 모습을 윤곽적으로 살펴보았다

창작의 주체가 망명자·유이민·유학생과 교수·기자·편집인들이었고 더구나 그들의 상해 체험 기간이 길지 않았으며 언어적 장애로 중국인과의 소통의 자유가 불가능했던 등 원인으로 상해를 주제로 한 장편 대작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수필·수기·소설·시·노래만 보아도 양적·질적으로 하나의 독자적인 문학적 맥을 이루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작품들에 묘사된 상해의 이미지는 실로 다양했다.

망명자들에게는 메카·예루살렘 같은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였고, 독립운동가들에게는 항일의 책원지와 결전의 장으로 이용되었다. 문학청년들의 가슴에는 세계적 문호가 살아 숨쉬는 문화의 성소로 자리 잡았으며, 식민지 문명의 희생물인 가난한 도시 영세민들에게는 악마의 소굴과 지옥으로 간주되었다. 1970년대 단절격리의 시대에도 1930년대 상해의 근대문명은 서양문화의 전파자와 수용자로서 근대화의 기로에 선 한국청년들의 추억과 향수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한국작가 작품 속의 중국인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객관적이고 냉정한 편이었으나 때로는 ‘문화적 우위’를 나타내는 오리엔탈리즘적 시각도 내비쳤고, 때

로는 ‘식민지 조선인’으로서의 자비와 열등감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배경으로 한 20세기 상술한 작품들은 한국 본토 문학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과제, 즉 식민지 상해의 근대성과 개방시기 상해의 현대성에 대한 독특한 문학적 조명과 윤리적 가치 평가를 진행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전내영(2003) 『상해 언어 발전사』, 상해인민출판사.  
이광수(1915) 「상해에서」, 소재영 편, 『간도유랑 40년』, 조선일보(1989).  
김학철(1995) 『최후의 분대장』, 문학과 지성사.  
김구(1929) 『백범일지』, 아이템북스(2006).  
김산(1930) 「기묘한 무기」, 『신동방』 1기.  
심훈(1930) 『심훈문학전집』, 탐구당(1966).  
주요한(1920) 「즐김 노래」, 『독립신문』 49호.  
최독건(1927) 「황혼」, 『신민』, 1927년 8월호.  
양왕용(1982) 『한국근대시연구』, 삼영사.  
이육사(1936) 『이육사전집』, 정음사(1980).  
주요섭(1925) 「인력거꾼」, 『개벽』, 1925년 4월호.  
주요섭(1925) 「살인」, 『개벽』, 1925년 6월호.  
조동일(1993) 『한국문학통사』 제5권, 지식산업사.  
피천득(1981) 「은전 한 뼉」, 『한국현대수필문학대전집』 23집, 한성출판사.  
김광주(1930) 「포도의 우울」, 『신동아』, 1934년 2월호.  
김광주(1934) 「남경로의 창공」, 『조선문학 시가특대호』, 1935년 6월.  
김광주(1934) 「야지」, 『조선문학』 속간, 1936년 9월.  
김광주(1936) 「북평서 온 영감」, 『신동아』, 1936년 2월, 제5권.  
김동훈·허경진 등(2007) 『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 7·13권, 보고서.  
손지봉(1988) 「1920-30년대 한국문학에 나타난 상해의 의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년 석사학위 청구논문.  
신상성(1995) 「인도향」, 『신상성대표소설선집: 내 마음속의 들쥐』, 온북스(2008).



# 우리말 종성의 표기상 위치에 대하여\*

최 호 철  
고려대학교

## 1. 머리말

우리말 음절의 표기 형태는 ‘초성+중성, 초성+중성+종성’의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들 음절 표기에서 초성·중성·종성은 각기 정해진 위치에 자리하게 되는데, 초성과 중성은 상호 관계에서 좌우와 상하로 자리하고(가, 고), 종성은 언제나 초성과 중성이 합해진 초중성 음절의 아래에 자리한다(간, 곧). 이는 훈민정음 창제와 더불어 제시되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訓民正音」(1446)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 글은 음절 표기에서 종성이 초성과 중성이 합하여 이루어진 초중성 음절의 아래에만 자리하게 되는 이치와 그것이 함의하는 바를 살피고, 그에 따라 종성의 자리는 서사(書寫) 형식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을 논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한 논의를 언어 정책적인 측면으로 확대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론적인 논의 자체에 의의를 두어 기술하고자 한다.

---

\* 이 글은 2009년 8월 27일 국제고려학회 제9차 코리아학국제학술토론회(중국 상해복단대학)에서 ‘받쳐 적는 우리말 종성’이란 제목으로 구두 발표한 것을 수정한 것임.

## 2. ‘訓民正音’ 운용 법칙

「訓民正音」(1446)에는 ‘훈민정음’ 낱글자 28개의 제자 원리와 그 운용 법칙에 대한 기술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 운용 법칙에는 초성·중성·종성의 셋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하나의 음절을 이룬다는 성음법(成音法), 비이나 리 아래에 〇을 이어서 쓰는 연서법(連書法), 초성·중성·종성 각각에서 두 세 낱글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란히 쓰는 병서법(並書法), 초성은 중성의 왼쪽이나 위에 붙여 쓰고 중성은 초중성의 합자 아래에 쓰는 부서법(附書法) 등이 있다.

### 2.1. 성음법(成音法)

이에 관한 내용은 예의(例義)와 제자해(制字解) 및 합자해(合字解)에 기술되어 있다.

- (1) ㄱ. 凡字必合而成音(모든 글자가 반드시 합해져야 음을 이룬다.) <예의>
  - 나. 以初中終合成之字言之(초성·중성·종성이 합해서 이루어진 글자로써 말할 것 같으면) <제자해>
  - ㄷ. 初中終三聲 合而成字(초성·중성·종성의 삼성이 합해져야 글자를 이룬다.) <합자해>

세 군데에서 언급한 것을 종합하면 ‘凡字’는 ‘初中終(三聲)’과 대응되고, ‘成音’은 ‘成(之)字’와 대응되므로 같은 ‘字’라도 예의에서는 낱글자를 가리키고 제자해·합자해에서는 음절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에서 기술한 내용이나 ‘정(之), 동(道)’ 등과 같은 당시의 한자음 표기를 보면 음절은 반드시 초성·중성·종성의 삼성이 모두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아래의 종성해(終聲解)에 있는 내용이나 ‘쏘다, 고티’ 등과 같은

당시의 우리말 표기를 보면 중성 자리가 비어 있더라도 음절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且○聲淡而虛 不必用於終 而中聲可得成音也(또한 ○은 소리가 맑고 비어 있어서 중성에 반드시 쓰지 않더라도 중성이 음절을 이룰 수 있다.) <중성해>

이를 종합하면 소리의 측면에서 음절은 반드시 초성·중성·종성의 삼성이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표기의 측면에서는 ○ 중성을 쓰지 않을 뿐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훈민정음의 음절 표기는 ‘초성+중성+종성’이 모두 갖추어진 형태로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성의 ○은 그 소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이 생략된 형태로 적는다는 것이다.

## 2.2. 연서법(連書法)

이에 관한 내용은 예의(例義)와 제자해(制字解) 및 합자해(合字解)에 기술되어 있다.

- (3) ㄱ. ○連書脣音之下 則爲脣輕音(○을 순음 아래에 이어 쓰면 순경음이 된다.) <예의>
- ㄴ. ○連書脣音之下 則爲脣輕音者 以輕音脣乍合而喉聲多也(○을 순음 아래에 이어 써서 순경음이 된다는 것은 경음으로서 입술이 잠깐 합해지고 목구멍 소리가 많기 때문이다.) <제자해>
- ㄷ. 若欲備用 則依脣輕例 ○連書ㄹ下 爲半舌輕音 舌乍附上腭(만약 갖추어 쓰려면 순경의 예에 따라 ○을 ㄹ 아래에 이어 써서 반설경음을 만들 것이니 혀를 윗잇몸에 잠깐 붙인다.) <합자해>

위에서 연서는 비이나 ㄹ 아래에 ○을 쓰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의 합자해에 있는 기술은 중성을 합해서 써야 하는 경우로서 이는 마땅히

두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적어야 하지만 그리하지 않고 두 글자를 세로로 이어 적도록 한 것이니 이것 역시 성격은 다르지만 일종의 연서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 一起 | 聲 於國語無用 兒童之言 邊野之語 或有之 當合二字而用 如기긔之類 其先縱後橫 與他不同(· 一가 | 소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말에 소용이 없고 어린이말이나 시골말에 혹 있으니 이는 마땅히 두 글자를 합하여 쓰되 ‘기긔’ 따위와 같은 것인바 세로된 것을 먼저하고 가로된 것을 나중합이 것이 다른 것과 같지 않다.) <합자해>

결국 연서는 초성·중성·종성에서 두 글자를 합해서 써야 할 경우에 그것들을 세로로 이어 적는다는 것이다.

초 초	중 중	땡, 땡, 땡, 땡, 땡	중 중	!, !
--------	--------	---------------	--------	------

### 2.3. 병서법(竝書法)

이에 관한 내용은 예의(例義)와 합자해(合字解)에 기술되어 있다.

- (5) ㄱ. 初聲合用則並書 終聲同(초성을 합해서 쓰려면 나란히 쓸 것이니 종성도 마찬가지로이다.) <예의>
- ㄴ. 初聲二字三字合用並書 如諺語·ㅅㅈ爲地 ㅅㅈ爲隻 ㅅㅈ爲隙之類 各自並書 如諺語·혀爲舌而·혀爲引 괴·여爲我愛人而괴·여爲人愛我 소·다爲覆物而ㅅ·다爲射之類(초성의 두세 글자 합용병서는 우리말의 ‘·ㅅㅈ’가 地가 되고, ‘ㅅㅈ’이 隻이 되고, ‘ㅅㅈ’이 隙이 되는 따위와 같다. 각자병서는 우리말의 ‘·혀’는 舌이 되는데 ‘·혀’는 引이 되고, ‘괴·여’는 我愛人이 되는데 ‘괴·여’는 人愛我가 되고, ‘소·다’는 覆物이 되는데 ‘ㅅ·다’는 射之가 되는 따위와 같다.) <합자해>

- ㄷ. 中聲二字三字合用 如諺語·과爲琴柱·해爲炬之類(중성의 두세 글자 합용은 우리말의 ‘·과’가 琴柱가 되고, ‘·해’가 炬가 되는 따위와 같다.) <합자해>
- ㄹ. 終聲二字三字合用 如諺語 흙爲土·낫爲鈞 鬪·빼爲西時之類(중성의 두세 글자 합용은 우리말의 ‘흙’이 土가 되고, ‘·낫’이 鈞가 되고, ‘鬪·빼’가 西時가 되는 따위와 같다.) <합자해>
- ㄹ. 其合用並書 自左而右 初中終三聲皆同(그 합용병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이니 초중종의 삼성이 다 마찬가지로이다.) <합자해>

이와 같이 초성·중성·종성 각각에서 두세 글자들을 합해서 쓸 경우 그 배치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병서는 세로로 이어 쓰는 연서와는 다르게 초성·중성·종성에서 두세 글자를 합해서 써야 할 경우에 그것들을 가로로 나란히 적는다는 것이다.

초초 ㄷ, ㅅ, ㅈ, ㅊ, ㅌ, ㄴ, ㄹ, ㄷ, ㅅ, ㅈ, ㅊ, ㅌ, ㄴ, ㄹ   
 중중 ㅌ, ㄴ, ㄹ   
 종종 ㄷ, ㅅ, ㅈ, ㅊ, ㅌ, ㄴ, ㄹ, ...

## 2.4. 부서법(附書法)

이에 관한 내용은 예의(例義)와 합자해(合字解)에 기술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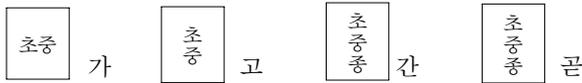
- (6) ㄱ. ·一ㅌㅅㅈㅊㅌ 附書初聲之下 丨ㅌㅌㅌㅌ 附書於右(·一ㅌㅅㅈㅊㅌ는 초성의 아래에 붙여 쓰고, 丨ㅌㅌㅌㅌ는 오른쪽에 붙여 쓴다.) <예의>
- ㄴ. 初聲或在中聲之上 或在中聲之左 如君字 ㅌ在ㅌ上 業字 ㅌ在ㅌ左之類(초성은 중성의 위에 있거나 중성의 왼쪽에 있는데, 君 음절의 ㅌ이 ㅌ 위에 있고 業 음절의 ㅌ이 ㅌ 왼쪽에 있는 따위와 같다.) <합자해>
- ㄷ. 中聲則圓者橫者在初聲之下 ·一ㅌㅌㅌㅌ 是也 縱者在初聲之右 丨ㅌㅌㅌ 是也 如吞字 ·在ㅌ下 卽字一在ㅌ下 侵字 丨在ㅌ右之類(중성의 둥근 것과 가로된 것은 초성의 아래에 있으니 ·一ㅌㅌㅌㅌ가 그것이요, 세로된 것은 초성의 오른쪽에 있으니 丨ㅌㅌㅌ가 그것이니, 吞 음절의 ·

가 ㅌ의 아래에 있고, 卽 음절의 一가 ㅈ의 아래에 있으며, 侵 음절의 丨가 ㅈ의 오른쪽에 있는 따위와 같다.) <합자해>

ㄷ. 終聲在初中之下 如君字ㄴ在ㄱ下 業字ㅍ在어下之類(종성은 초중성의 아래에 있으니, 君 음절의 ㄴ이 ‘ㄱ’의 아래에 있고, 業 음절의 ㅍ이 ‘어’의 아래에 있는 따위와 같다). <합자해>

여기에서 종성의 위치를 기술하는 것과 나머지 초성·중성의 위치를 기술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초성·중성은 이들 상호 관계 속에서 좌우 또는 상하로 자리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종성은 오로지 초성과 중성이 합해진 초중성 음절의 아래에 자리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결국 훈민정음의 음절 표기 형태는 초성·중성의 위치와 종성의 유무에 따라 각각 두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전자의 경우는 초성·중성이 좌우로 배치되는 것과 상하로 배치되는 것의 두 유형이고, 후자의 경우는 초중성 음절의 아래에 종성이 있는 것과 종성이 없는 것의 두 유형이다.



### 3. 음절의 구조

음절을 세 부분으로 구분한 것은 한자음을 성모(聲母)와 운모(韻母)의 두 부분으로 구분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가히 혁신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金敏洙, 1992: 119). 게다가 세 부분의 명칭에서도 그 순서를 반영하여 각각을 맨처음 오는 초성(初聲), 맨나중 오는 종성(終聲), 가운데 오는 중성(中聲)으로 명명하였는바, 이와 관련해서는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 (7) ㄱ. 正音初聲 卽韻書之字母也 聲音由此而生 故曰母 如牙音君字初聲是 ㄱ ㄱ  
 與 ㄱ 而爲 ㄱ 快字初聲是 ㅋ ㅋ 與 ㄱ 而爲 ㅋ 𪎗 字初聲是 ㄱ ㄱ 與 ㅍ 而爲 ㅍ  
 業字初聲是 ㅇ ㅇ 與 ㄱ 而爲 ㄱ 類(정음의 초성은 곧 운서의 자모이다. 성  
 음이 이로부터 생기므로 모라 한다. 아음 君 자의 초성은 ㄱ이니 ㄱ이  
 ㄱ과 더불어 ‘ㄱ’이 되고, 快 자의 초성은 ㅋ이니 ㅋ이 ㄱ과 더불어 ‘ㅋ’  
 가 되고, 𪎗 자의 초성은 ㄱ이니 ㄱ이 ㅍ와 더불어 ‘ㅍ’가 되고, 業 자의  
 초성은 ㅇ이니 ㅇ이 ㄱ과 더불어 ‘ㄱ’이 되는 따위와 같다.) <초성해>
- 나. 中聲者 居字韻之中 合初終而成音 如吞字中聲是 ㆍ 居 ㅍ ㄴ 之間而爲 ㅍ 卽  
 字中聲是 一 一 居 ㅍ ㄴ 之間而爲 ㅍ 侵字中聲是 丨 丨 居 ㅍ ㄴ 之間而爲 ㅍ 類  
 (중성은 자운의 가운데 있어 초성·중성과 합하여 음절을 이룬다. 吞 자  
 의 중성은 ㆍ이니 ㆍ가 ㅍ과 ㄴ 사이에 있어 ‘ㅍ’이 되고, 卽 자의 중성은  
 一이니 一가 ㅍ과 ㄴ 사이에 있어 ‘ㅍ’이 되고, 侵 자의 중성은 丨이니  
 丨가 ㅍ과 ㄴ 사이에 있어 ‘ㅍ’이 되는 따위와 같다.) <중성해>
- 드. 終聲者 承初中而成字韻 如卽字終聲是 ㄱ ㄱ 居 ㅍ ㄴ 終而爲 ㅍ 洪字終聲是 ㅇ  
 ㅇ 居 ㅍ ㄴ 終而爲 ㅍ 類(중성은 초중성을 이어받아 자운을 이룬다. 卽 자의  
 중성은 ㄱ이니 ㄱ이 ‘ㅍ’의 끝에 있어 ‘ㅍ’이 되고, 洪 자의 중성은 ㅇ이니  
 ㅇ이 ‘ㅍ’의 끝에 있어 ‘ㅍ’이 되는 따위와 같다.) <중성해>

그렇다면 이들이 합하여 음절을 이룰 때 세 부분의 결합을 단층적으로 보았  
 는가 아니면 다층적으로 보았는가 하는 것을 살필 필요가 있다. 당시의 음절  
 구조의 분석 결과 초성은 한자음의 성모에 해당하고 중성과 종성은 운모에  
 해당한다. 이를 음절 구조의 생성 측면에서 보면 먼저 중성과 종성이 합하여  
 한 단위를 이루고 다음에 초성이 합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위의 초  
 성해에 나와 있는 기술에서 해석해낼 수 있다.

그런데 중성해의 기술로 보아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먼저 초성과 중성이 합  
 하여 한 단위를 이루고 다음에 종성이 합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중성  
 해의 기술로 보아서는 두 경우와 같은 다층적인 결합이 아니라 세 부분이 동시  
 에 합해지는 단층적인 결합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명시적인 기술은  
 없으나 합자해에 있는 아래의 내용을 보면 그 속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 (8) ㄱ. 初聲或在中聲之上 或在中聲之左 如君字 ㄱ이 ㄷ上 業字 ㅁ이 ㄱ左之類(초성은 중성의 위에 있거나 중성의 왼쪽에 있는데, 君 음절의 ㄱ이 ㄷ 위에 있고 業 음절의 ㅁ이 ㄱ 왼쪽에 있는 따위와 같다.) 〈합자해〉
- ㄴ. 中聲則圓者橫者在初聲之下 · 一 ㅁ ㅅ ㄷ ㅍ 是也 縱者在初聲之右 ㅌ ㅊ ㅅ ㅈ ㅊ ㅅ 是也 如呑字 · 在 ㅌ 下 卽字 一 在 ㅅ 下 侵字 ㅌ 在 ㅊ 右之類(중성의 둥근 것과 가로된 것은 초성의 아래에 있으니 · 一 ㅁ ㅅ ㄷ ㅍ 가 그것이요, 세로된 것은 초성의 오른쪽에 있으니 ㅌ ㅊ ㅅ ㅈ ㅊ ㅅ 가 그것이니,呑 음절의 · 가 ㅌ의 아래에 있고, 卽 음절의 一 가 ㅅ의 아래에 있으며, 侵 음절의 ㅌ 가 ㅊ의 오른쪽에 있는 따위와 같다.) 〈합자해〉
- ㄷ. 終聲在初中之下 如君字 ㄴ이 ㄱ下 業字 ㅂ이 ㅁ下之類(종성은 초중성의 아래에 있으니, 君 음절의 ㄴ이 ‘ㄱ’의 아래에 있고, 業 음절의 ㅂ이 ‘ㅁ’의 아래에 있는 따위와 같다.) 〈합자해〉

위의 초성의 위치에 대하여 중성의 위 또는 왼쪽에 있다고 기술하면서 예로 든 ‘군, 업’에 대하여 ㄱ이 ㄷ 위에 있고 ㅁ이 ㅅ 왼쪽에 있다고 하지 않고 ㄱ이 ㄷ 위에 있고, ㅁ이 ㄱ 왼쪽에 있다고 한 것은 중성과 종성의 결합보다는 초성과 중성의 결합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중성의 위치에 대하여 중성은 초성과 종성의 사이에 있으므로 초성을 기준으로 기술할 수도 있고 종성을 기준으로 기술할 수도 있지만, 초성을 기준으로 그것의 아래 또는 오른쪽에 있다고 기술한 것은 중성과 종성의 결합 이전에 초성과 중성의 결합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초성과 중성의 결합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기술은 종성의 위치를 기술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만약에 중성과 종성의 결합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종성의 위치를 기술함에 있어 초성의 위치를 기술한 것처럼 예로 든 ‘군, 업’에 대하여 ㄴ이 ㄷ 아래에 있고, ㅂ이 ㅁ 아래에 있다고 기술하여야 하겠지만, 군이 ㄴ이 ‘ㄱ’의 아래에 있고, ㅂ이 ‘ㅁ’의 아래에 있다고 기술한 것은 초성과 중성의 결합이 중성과 종성의 결합보다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시의 한자 음절의 구조 분석에서 일차적인 성모와 운모의 구분을 한 다음에 운모에 대하여 운두(韻頭), 운복(韻腹), 운미(韻尾)의 구분을 한 것과는 달리 「訓民正音」(1446)에서는 일차적인 초중성과 종성의 구분을 한 다음에 초중성에 대하여 초성과 중성을 구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음절을 이루는 결합 측면에서 볼 때 성운학(聲韻學)에서는 운두·운복·운미의 결합 이후에 성모가 결합되는 것으로 보았다면, 「訓民正音」(1446)에서는 초성·중성의 결합 이후에 종성이 결합되는 것으로 보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음절에 대한 다층적인 결합을 반영하여 그 구조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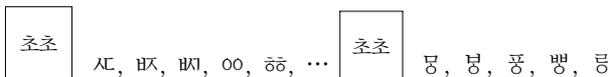
(9) 음절의 표기 형태



#### 4. 종성(終聲)의 위치

이상에서 살핀 훈민정음의 운용 법칙을 정리하면, 첫째로 초성·중성·종성 각각의 자리에 두세 글자를 적을 경우에는 가로로 나란히 적을 것이나 일부 세로로 이어 적는 것도 있다. 둘째로 음절은 초성·중성·종성이 합하여 이루어지는데, 종성이 없는 음절의 표기 형태는 초성과 중성이 좌우 또는 상하로 배치되고, 종성이 있는 음절의 표기 형태는 초중성과 종성이 상하로 배치된다.

(10) ㄱ. 좌우/상하 배치: 겹초성의 표기 형태



ㄴ. 좌우/상하 배치: 겹중성의 표기 형태

중중    가, 내, ...                      중중    !, ㄱ

ㄷ. 좌우/상하 배치: 겹중성의 표기 형태

중중    리, ㄷ, ㄷ, ...                      중중    땡, 땡, 땡, 땡, 땡

ㄹ. 좌우/상하 배치: 초성과 중성의 표기 형태

초중    가                                      초중    고

ㅁ. 상하 배치: 초중성과 중성의 표기 형태

초중    간                                      초중    끈  
중    중

음절이 이루어지는 구성 요소의 하나인 초성·중성·종성이 두세 글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각각의 안에서 글자들이 배열되는 형태는 상하와 좌우의 두 유형이 있으며, 초성과 중성이 합해지는 경우에도 그 배열의 형태는 상하와 좌우의 두 유형이 있다. 그런데 중성이 없는 음절인 초중성 결합체에 중성이 합해지는 경우에는 그 배열의 형태가 상하의 한 유형만이 존재한다. 여기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초중성 결합체와 중성이 합해지는 경우의 배열 형태에 상하의 유형만 있고 좌우의 유형은 왜 없는지 하는 것이다.

음절 표기에서 중성의 위치에 대해 「訓民正音」(1446)의 종성해에서 중성은 초중성 합성을 이어 받으므로 초중성 합성의 끝에 온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합자해에서 중성이 초중성 합성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11) ㄱ. 終聲者 承初中而成字韻 如卽字終聲是 ㄱ ㄱ居즈終而爲즉 洪字終聲是 ㅁ ㅁ居호終而爲호之類(중성은 초중성을 이어받아 자운을 이룬다. 卽 자의 종성은 ㄱ이니 ㄱ이 ‘즈’의 끝에 있어 ‘즉’이 되고, 洪 자의 종성은 ㅁ

이니 〇이 ‘호’의 끝에 있어 ‘향’이 되는 따위와 같다). <중성해>

ㄴ. 終聲在初中之下 如君字ㄴ在下 業字ㅂ在어下之類(중성은 초중성의 아래에 있으니, 君 음절의 ㄴ이 ‘구’의 아래에 있고, 業 음절의 ㅂ이 ‘어’의 아래에 있는 따위와 같다). <합자해>

중성해의 ‘끝’에 온다는 기술은 음절 구조상의 차례를 언급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중성의 위치가 초중성 합성의 아래에 온다고 단언할 수가 없다.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음절 표기상 위치에서 초중성 합성의 위나 오른쪽 또는 왼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합자해에서는 중성이 초중성의 ‘아래’에 있는 것으로 분명히 기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성해의 기술로서는 음절 표기상 중성의 위치로 초중성 합성의 상하와 좌우 네 경우를 설정할 수 있는데, 합자해의 기술을 보면 중성의 위치는 초중성 합성의 아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여기에서 ‘끝’이 지시하는 바와 ‘아래’가 지시하는 바를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서사(書寫) 형식이 위에서 아래로 써 가는 종서(縱書)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아래에서 위로 써 가는 종서라면 그 ‘끝’은 ‘위’가 될 것이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 가는 횡서(橫書)라면 그 ‘끝’은 ‘오른쪽’이 될 것이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 가는 횡서라면 그 ‘끝’은 ‘왼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12) 서사 형식에 따른 끝

- ㄱ. 상하(↓) 종서의 끝: 초중 중 초중중
- ㄴ. 하상(↑) 종서의 끝: 종중 초중 초
- ㄷ. 좌우(→) 횡서의 끝: 초중중 초중중
- ㄹ. 우좌(←) 횡서의 끝: 중중초 중중

당시의 서사 형식이 비록 종서라 하더라도 초성끼리의 합성, 중성끼리의 합성, 종성끼리의 합성에서나 초성과 중성의 합성에서는 좌우 배치도 인정하였

다. 그런데 종성이 있는 음절에서 초중성 결합체와 종성의 배치는 상하만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종성은 언제나 초중성 결합체의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종성에 대하여 ‘받침’이라는 말을 사용해왔다.

(13) ㄱ. 리봉운(1897), 「국문문정정리理」, 「歷代韓國文法大系」 3-02.

종성 받침이니 단흔음이라. (3a면). 좌모성과 우모성을 합하여 즘음을 문드러지니 글즈음이 되고 종성은 받침이니 받침을 하여야 언어의 음이 잇는되로 말이 되는지라. (4a면). 가령 받침은 엽해 하려면 제몹받침을 하여야 올커늘 금즈에 국문 쓰는 사름이 엽받침을 하려면 스웃슬 붓치니 스웃슨 본시 사즈줄 좌모즈 |니 드른 즘에 붓칠 거시 업느리치가 드른 즘에도 좌모즈가 잇시니 제즈 좌모즈로 엽받침을 하는 거시 올흘 거시라. (4b면).

ㄴ. 유상호(1897), “국문론”, 「國文論集成」, 「歷代韓國文法大系」 3-06.

이 글즈들은 즘음이 여덟 ㄱ지 표요 모음이 열 ㅎ ㅎ지 표로 합하여 문드러지니( | 이 표는 모음에 든 것이되 받침으로도 쓰고 ㅏ · 이 두 ㄱ지 모음 표는 모양은 다르나 음은 달을 거시 엽고 단지 이 표는 받침이 만히 드러 가는 음에문 쓰자는 것), (11면). 설령 사름의 목 속에 잇는 답이라 홀 것 ㅎ하면 이 답이라 ㅎ는 말의 음은 높으니 웃 다 즘에 미움을 받치면 되겟고 흠이나 돌노 싸은 답이라 홀 것 ㅎ하면 이 답이라 ㅎ는 말의 음은 나즈니 아릭 드 즘에 미움을 받치면 높고 나즌 말의 음을 분간하겠스나, (27면).

ㄷ. 周時經(1908), 「國語文典音學」, 「歷代韓國文法大系」 1-10.

俗에 ㅏ | ㅓ을 시외니행이라 ㅎ은 異凝 以外 十五行의 各字에 |를 後合(俗稱 받침)하는 字가 我國語와 漢文音에 多하고 異의 音이 |와 同 ㅎ며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은 다 後合하는 字들인 故로 |도 此行에 記 ㅎ고. (51면)

ㄹ.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받침 ① 다른 물건의 밑에 대는 데 쓰게 만든 물건. ¶ 화분 받침/수석은 받침을 어떻게 대느냐에 따라서도 모습이 매우 다르다. ② 『언어』 한글을 적을 때 모음 글자 아래에 받쳐 적는 자음. ‘ㅁ’, ‘ㅅ’에서 ‘ㄱ’, ‘ㄴ’ 따 위이다. ㄴ·ㄷ·ㄹ·ㅁ·ㅂ·ㅅ·ㅇ·ㅈ·ㅊ·ㅌ·ㅍ·ㅎ. ③ 『언어』 = 종성(終聲).

중성이 있는 음절에서 초중성 결합체와 중성의 배치를 상하만 인정한 것은 중성이 있는 음절과 중성이 없는 음절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중성이 없는 음절에서는 끝에 오는 구성 부분인 중성이 다음에 이어지는 음절 단위로 넘어가는 일이 없지만, 중성이 있는 음절에서는 끝에 오는 구성 부분인 중성이 다음에 이어지는 음절 단위로 넘어가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의 제자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중성에 다시 초성을 쓰는 것에 대하여 중성이 다시 초성이 되는 이치를 들어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는 현대 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면 환경에 따른 변이음 관계를 포착한 것으로서 언어학사상 커다란 의의가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金敏洙, 1992: 120).

#### (14) ㄱ. 초성·중성의 관계

以初聲對中聲而言之 陰陽 天道也 剛柔 地道也 中聲者 一深一淺一闔一闢 是則陰陽分而五行之氣具焉 天之用也 初聲者 或虛或實或颺或滯或重若輕 是則剛柔著而五行之質成焉 地之功也 中聲以深淺闔闢唱之於前 初聲以五音清濁和之於後 而爲初亦爲終 亦可見萬物初生於地 復歸於地也 (초성을 중성에 대하여 말하면, 음양은 하늘의 이치요, 강유는 땅의 이치다. 중성은 하나가 깊으면 하나가 얇고, 하나가 오프라지면 하나가 퍼지니, 이는 음양이 나뉘고 오행의 기가 구비된 하늘의 작용이다, 초성은 비기도 하고 차기도 하고, 날리기도 하고 걸리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니, 이는 강유가 나타나 오행의 질을 이룬 땅의 공이다. 중성이 심천합벽으로 앞에서 부르면 초성이 오음청탁으로 뒤에 화답하여 초성도 되고 중성도 되니, 만물이 땅에서 나서 다시 땅으로 돌아감을 가히 볼 것이다). <제자해>

#### ㄴ. 초성·중성·중성의 관계

以初中終合成之字言之 亦有動靜互根陰陽交變之義焉 動者 天也 靜者 地也 兼互動靜者 人也 蓋五行在天則神之運也 在地則質之成也 在人則仁禮信義智神之運也 肝心脾肺腎質之成也 初聲有發動之義 天之事也 終聲有止定之義 地之事也 中聲承初之生 接終之成 人之事也 蓋字韻之要在於中

聲 初終合而成音 亦猶天地生成萬物 而其財成輔相則必賴乎人也 終聲之復用初聲者 以其動而陽者乾也 靜而陰者亦乾也 乾實分陰陽而無不君宰也 一元之氣 周流不窮 四時之運 循環無端 故貞而復元 冬而復春 初聲之復爲終 終聲之復爲初 亦此義也(초성·중성·종성이 합하여 이루어진 글자로 말하면 역시 동정이 서로 근본이 되고 음양이 사귀어 변하는 뜻이 있으니, 동이란 하늘이요 정이란 땅이며 동정을 겸한 것은 사람이다. 대개 오행이 하늘에 있어서는 신의 운행이요, 땅에 있어서는 질의 이룸이며, 사람에게 있어서 인예신의지가 신의 운행이요, 간심비폐작예신질의 이룸이다. 초성에는 발동의 뜻이 있으니 하늘의 일이요, 종성에는 지정의 뜻이 있으니 땅의 일이요, 중성은 초성의 생김을 이고 종성의 이룸을 받으니 사람의 일이다. 대개 자운의 주요함이 중성에 있으니, 초성과 종성이 합하여 음을 이루는 것이 역시 하늘과 땅이 만물을 생성하되 그것을 따르고 낚는 것은 반드시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과 같다. 종성에 초성을 다시 쓰는 것은 동해서 양인 것도 건이요 정해서 음인 것도 건이니, 건이 실상 음양으로 나뉘어도 주재하지 않음이 없는 까닭이다. 일원의 기가 두루 흘러 다함이 없고 사시의 운행이 순환하여 끝이 없으므로 정이 다시 원이 되고 겨울이 다시 봄이 되는 것이다. 초성이 다시 종성이 되고 종성이 다시 초성이 되는 것 역시 이러한 이치다). <제자해>

당시의 종서 형식에서 종성이 초성 되는 이치를 자연스럽게 보여 주는 표기 형태를 찾기 위하여 가능한 두 표기 형태, 즉 종성이 초중성 결합체의 오른쪽에 있는 좌우 배치인 경우와 아래에 있는 상하 배치인 경우를 대비하여 보이면 아래와 같다.

(15) ㄱ. <좌우 배치>

차	구
자	구
바	버
자	구
보	부

ㄴ. <상하 배치>

잡	굽
자	구
바	버
자	구
보	부

위에서 종성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그 종성이 다음 음절에서 초성으로 바뀔 때 그 자리가 오른쪽에서 아래로 달라지기 때문에 종성이 자연스럽게 초성이 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하지만, 종성이 아래쪽에 있는 경우는 그 종성이 다음 음절에서 초성으로 바뀔 때 그 자리가 아래이기 때문에 종성이 초성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종성이 있는 음절에서 초중성 결합체와 종성의 배치는 하나의 음절만을 표기할 경우에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좌우 배치와 상하 배치가 다 가능하겠지만, 종서 형식에서 두 음절 이상을 연달아 적을 경우에 종성과 초성이 한 줄로 늘어서는 상하 배치가 종성이 초성 되는 이치인 변이음 관계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는 표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어간(어근) 부분을 분리하더라도 그 형태가 유지되므로 종서 형식에서 종성을 아래에 적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16) ㄱ. 먹    머    머    머	ㄴ. 먹    머    머    머
다    글    거    기	ㄱ    ㄱ    ㄱ

그런데 위와 같은 표기 형태를 횡서에 적용해 보면 종성과 초성이 한 줄로 늘어선 있지 않기 때문에 종성이 초성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지 못한다. 이는 표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어간(어근) 부분을 분리하면 그 형태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횡서 형식에서 종성을 아래에 적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표기 형태는 그 음절 자체로도 통일성이 없고, 종성과 초성이 한 줄로 늘어선 있지 않기 때문에 종성이 초성되는 이치를 자연스럽게 보여주지 못한다.

(17) ㄱ. 먹다    머글    머거    머기	ㄴ. 먹    머기    머기    머기
------------------------------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대 표기에서는 이른바 형태 표기 이론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표기 형태를 내놓게 되었다.

(18) ㄱ. 먹다 먹을 먹어 먹이      ㄴ. 먹 먹 먹 먹

그런데 횡서 형식에 맞춘 위와 같은 표기 형태는 그 음절 자체로는 통일성이 있지만, 종성과 초성이 한 줄로 늘어서 있지 않기 때문에 종성이 초성 되는 이치를 자연스럽게 보여 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횡서 형식에서 음절 자체로도 통일성이 있고, 종성이 초성 되는 이치를 자연스럽게 보여 주며, 표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어간(어근) 부분을 분리하더라도 그 형태가 유지될 수 있는 표기 형태로 아래와 같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19) ㄱ. 먹다 먹르 먹거 먹기      ㄴ. 먹 먹 먹 먹 먹기

이는 종서 형식에 맞는 합자해의 설명을 횡서 형식에 맞게 응용한 것으로서 「訓民正音」(1446)의 기술을 새롭게 해석해 본 것이다. 「訓民正音」(1446)이 의도하는 바가 표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어간(어근)과 어미(접사)의 표기 형태를 크게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을 온전히 보여 주는 것이라 할 때 그 의도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종서 형식의 틀에서 종성의 위치를 ‘아래’로 명시한 것을 횡서 형식의 틀에서는 ‘오른쪽’으로 응용하여 해석할 수 있겠다.

## 5. 맺음말

「訓民正音」(1446)에는 음절이 이루어지는 구성 요소의 하나인 초성·중성·종성이 두세 글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각각의 안에서 글자들이 배열되는 형태는 상하와 좌우의 두 유형이 있으며, 초성과 중성이 합해지는 경우에도 그 배열의 형태는 상하와 좌우의 두 유형이 있다. 그런데 초중성 결합체에

중성이 합해지는 경우에는 그 배열의 형태가 상하의 한 유형만이 존재한다.

표기상 음절을 이루는 단위는 ‘초성+중성+종성’과 ‘초성+중성’인데, 중성이 있는 음절에서 초중성 결합체와 중성의 배치를 상하만 인정한 것은 중성이 있는 음절과 중성이 없는 음절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중성이 없는 음절에서는 끝에 오는 구성 부분인 중성이 다음에 이어지는 음절 단위로 넘어가는 일이 없지만, 중성이 있는 음절에서는 끝에 오는 구성 부분인 중성이 다음에 이어지는 음절 단위로 넘어가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의 종서 형식에서 중성이 초성 되는 이치를 자연스럽게 보여 주는 표기 형태는 중성이 아래쪽에 있을 경우로서 그 중성이 다음 음절에서 초성으로 바뀔 때 그 자리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중성이 자연스럽게 초성이 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중성이 있는 음절에서 초중성 결합체와 중성의 배치는 하나의 음절만을 표기할 경우에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좌우 배치와 상하 배치가 다 가능하겠지만, 종서 형식에서 두 음절 이상을 연달아 적을 경우에 종성과 초성이 한 줄로 늘어서는 상하 배치가 중성이 초성 되는 이치인 변이음 관계를 잘 보여 준다고 하겠다. 이는 표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어간(어근) 부분을 분리하더라도 그 형태가 유지되므로 종서 형식에서 중성을 아래에 적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횡서 형식에 맞춘 현대 표기 형태는 그 음절 자체로는 통일성이 있지만, 두 음절 이상을 연달아 적을 경우에는 종성과 초성이 한 줄로 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성이 초성 되는 이치를 자연스럽게 보여 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횡서 형식에서 음절 자체로도 통일성이 있고, 중성이 초성 되는 이치를 자연스럽게 보여 주며, 표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어간(어근) 부분을 분리하더라도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訓民正音」(1446)의 의도를 제대로 살리고자 한다면 중성의 위치는 ‘아래’가 아닌 ‘오른쪽’이 될 수 있겠

다. 이는 종서 형식에 맞는 합자해의 설명을 횡서 형식에 맞게 응용한 것으로서 「訓民正音」(1446)의 기술을 새롭게 해석해 본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金敏洙(1985) 『注解訓民正音』(4판), 서울: 通文館.
- 金敏洙(1992) 『新國語學史』(全訂再版), 서울: 一潮閣.
- 리봉운(1897) 『국國문門정正리理』, 金敏洙·河東鎬·高永根 編, 『歷代韓國文法大系』 3-02, 서울: 塔出版社.
- 李敦柱(1995) 『漢字音韻學의 理解』, 서울: 塔出版社.
- 田蒙秀·洪起文 譯註(1949) 『訓民正音 譯解』, 평양: 朝鮮語文研究會.
- 周時經(1908) 『國語文典音學』, 金敏洙·河東鎬·高永根 編, 『歷代韓國文法大系』 1-10, 서울: 塔出版社.
- 쥬상호(1897) 「국문론」, 河東鎬 編(1985), 『國文論集成』, 金敏洙·河東鎬·高永根 編, 『歷代韓國文法大系』 3-06, 서울: 塔出版社.
- 洪起文(1946) 『正音發達史』, 서울: 서울新聞社出版局.

# 우리 겨레의 고대글자사용시기와 분포지역에 대한 사료적 고찰

안 경 상

조선사회과학원

위해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의 우수성을 살리고 내세우는데서 중요한 것은 민족유산을 옳게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다.”

우리 겨레는 세계적으로 그 과학성이 공인된 가장 발전된 글자 ‘훈민정음’을 창제한 자랑스러운 민족이며 세계적으로 금속활자를 처음으로 만든 슬기로운 민족이다.

이러한 성과는 결코 하루이틀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서 유구한 력사와 문화적 전통을 토대로 하고 있다.

단군조선시기에 사용된 우리 겨레의 고유한 고대글자는 이러한 자랑스러운 력사적 전통의 일단을 보여주는 귀중한 언어문화의 결정체이다.

오늘 토론에서는 지금까지 발굴한 력사언어학적 자료들에 기초하여 고대글자와 관련한 저의 몇 가지 견해를 발표하려고 한다.

## 1. 고대글자관련 자료의 몇 가지 력사언어학적 특징

력사문헌들에 기록된 고대글자관련 자료들은 자기의 고유한 력사언어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고대글자가 있었다는 식의 일반기록이 아니라 글자실체를 직접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글자의 존재문제를 증명하는데서 글자실체를 제시하는 것은 핵심부분의 하나로 된다.

『녕변지』, 『독학서법진결』, 『고금력대법첩』과 같은 역사책들에는 16자, 11자, 9자의 고대글자실체들이 뚜렷이 기록되어 있으며 평안북도 룡천군 신암리의 무늬그릇, 룡녕성 러대시의 토기접시, 평양의 락랑벽돌과 강서군의 태성리 벽돌, 동북지방의 발해유물인 기와들에서는 한 글자 내지 세 글자 정도로 이루어진 글자실체들이 발견되었다.

둘째로, 글자이름에 대한 명칭화가 되어있는 것이다.

그 어떤 역사적 사실에 명칭이 부여되었다면 그만큼 역사적 인식이 공고화되고 일반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국유사』 권3에 『신지비사(神誌秘詞)』, 『대동운부군옥』과 『해동력대명가필보』에 『신지(神誌)』, 『녕변지』에 『신지전자(神誌篆字), 신지전(神誌篆)』, 『단군요의』에 『단군전비(檀君篆碑)』와 같은 기록들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고대글자인 신지글자의 명칭을 나타낸 것들이다.

셋째로, 고대글자관련 자료들이 역사적으로 실재한 사건, 인물들과 연관되어있는 것이다.

고대글자관련 자료들이 이미 공인된 역사적인 사건들, 인물들과 연관성이 없이 동떨어지고 고립된 역사적 과정으로 일관된다면 많은 의혹이 생길 것이다.

『삼국유사』 권3에서 “또 〈신비지사〉서문을 고찰하면…”과 같은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보장왕이 도교를 신봉하고 도덕이 절을 읊기다”에서 나오며 훈민정음창제자의 한 사람인 정린지가 『훈민정음해례』에서 훈민정음은 옛글자를 본떴다고 한 것, 『리조실록』에서 최만리가 옛글자가 있었다고 한 것, 『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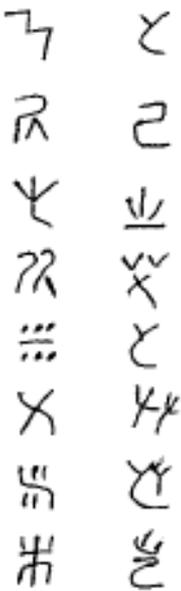
민정음운해』의 저자인 신경준이 고대글자가 있었다고 하면서 부족점을 지적한 것 등에서의 “보장왕, 정린지, 최만리, 신경준” 등은 모두 실재한 사건들과 인물들이다.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은 5천 년 전의 고대글자문제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데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측면으로 된다.

## 1) 고대글자의 사용시기와 분포지역

### ① 글자체계자료에 의한 고찰

고대글자의 사용시기와 분포지역은 고대글자인 신지글자가 기록된 글자체계자료와 글자체계자료에 기초하여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글자체계자료란 9자로부터 28자에 이르기까지 력사문헌들에 기록된 자료로서 고대글자의 체계적면모를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현재 『녕변지』, 『창힐조적어』를 비롯한 일련의 문헌들에 고대글자의 면모를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들이 기록되어 있다.

녕변읍지인 『녕변지』에는 “단군천부경81자신지전(君天符經八十一字神誌篆)”의 내용 다음에 “다른 책에 신지전자가 또 있다(他本又有神誌篆字)”라고 하여 16자의 신지글자를 두 줄로 내리 적고 있다.

### 『녕변지』의 16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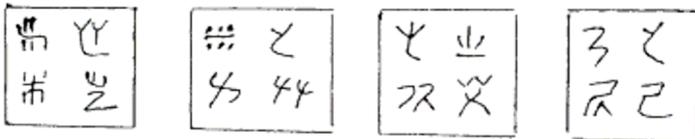
『녕변지』에서는 “고운 최치원 선생이 말하기를 단군천부경81자 신지전을 옛 비에서 보고 그

글자를 풀어 읽었으며 태백산에 삼가 새겼다고 하였는데 근세에 비로소 평안

북도 녕변군 묘향산에 나타났다...계연수가 23년 전인 정사년(1917)에 약초 캐러 태백산 골짜기 끝에 들어갔다가 돌벼랑에서 그 천부경81자를 보고 그대로 베껴보니 원문과 틀림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신라 때 사람인 최치원의 등장을 통해 『녕변지』가 적어도 신라 때부터 내려오는 오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역사문헌인 『해동력대명가필보』에서도 『고조선신지자(古朝鮮神誌字)』라고 하여 16개의 글자실체를 보이고 있다.



《해동력대명가필보》의 16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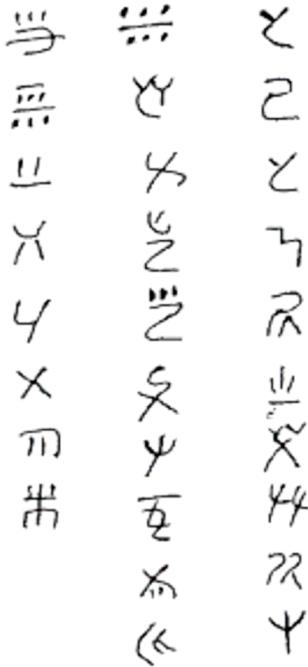
이 책의 필자는 아버지 때부터 단군조선 이래 4천여 년에 걸치는 칠백여 명의 명인들의 글씨를 기록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이 문헌도 오랜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섬서성 백수현 사관향의 『창힐사당』에 있는 『창힐조적서』의 비문에도 28개의 고대글자가 기록되어 있다.

『창힐사당』에 대하여 중문잡지 『문사지식(文史知識)』(1989년 6호)에서는 “창힐사당은 ‘창성사당’이라고도 부르는데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처음 이 사당을 지은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사당안의 돌비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동한(東漢)의 연희 5년(162)에는 벌써 상당히 큰 규모였다고 한다. 그 가운데 ‘창힐조적서’라는 비석이 있는데 이 비는 백수현의 현장이었던 량선

장이 모사하여 새긴 것으로서 청조 건륭19년(1754) 겨울에 세웠다고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통해 『창힐사당』의 력사가 기원전시기까지 거슬러 오르는 오랜 력사임을 알 수 있다.



《창힐조직서》의 28자



신암리의 무늬그릇글자

이밖에도 『독학서법진결(獨學書法眞訣)』, 『고금력대법첩(古今歷代法帖)』, 『고서력대법첩(古書歷代法帖)』, 섬서성서안시의 『비림(碑林)』 지역에 있는 『제가고법첩5창힐서』, 『순화각첩(淳化閣帖)』 등에 고대글자실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들은 모두 적어도 고구려, 백제, 신라와 중국의 당나라시기의 력사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러한 글자체계 자료를 통하여 고대글자가 시기적으로는 후기신라 때나 중국의 당나라 때까지 쓰였으며 지역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평안도와 중국의 섬서성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었다는 견해를 세울 수 있다.

② 글자사용자료에 의한 고찰

글자사용자료란 그릇, 기와, 벽돌과 같이 사람들이 사용한 유물에 새겨진 자료를 의미한다.

평안북도 룡천군 신암리에서 발굴한 고조선시기의 무늬그릇(B.C. 8-7세기의 유물)에는 두개의 고대글자가 새겨

저었다.

신암리의 '무늬그릇'은 주변의 다른 유물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정에 고조선시기인 B.C. 8-7세기의 유물로 확인된 것이다.

여기서의 두 번째 글자는 『녕변지』의 12번째 글자이고 『창힐조적서』의 9번째 글자이다.

그리고 첫 번째 글자는 『창힐조적서』의 25번째 글자와 변형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료녕성 러대시 러순구 백람자에서 발굴한 토기접시(B.C. 3세기의 유물)에도 두 개의 고대글자가 새겨져있다.

여기서의 첫 글자는 『창힐조적서』의 19번째 글자와 변형관계로 보이고 둘째 글자는 『창힐조적서』의 13번째 글자이고 『녕변지』의 14번째 글자이다.



백람자의 토기접시의 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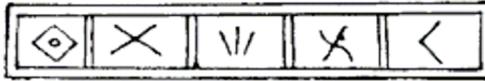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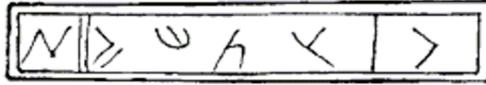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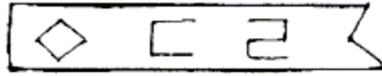
이 유물은 고조선의 것이며 시기적으로는 B.C. 3세기의 것이다.

두 자료를 통해 고대글자가 B.C. 3세기경까지 고조선의 유물들에 새겨지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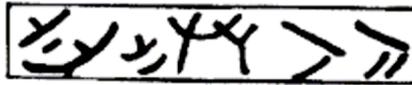
고구려에서도 고대글자인 신지글자는 여전히 사용되었다.

이것은 평양일대에서 발굴한 유물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평양시 락랑구역과 평안남도 강서군 태성리 일대에서 발굴한 락랑벽돌(A.D. 1-4세기 말의 유물)에도 고대글자들이 새겨져있다.



락랑구역의 벽돌



강서군 태성리의 벽돌



한자기록의 벽돌

락랑구역과 태성리의 벽돌은 『녕변지』의 2, 3, 11, 14번째, 『창힐조적서』의 2, 3, 6, 10, 13, 17, 25번째 글자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 두 지역의 벽돌들은 고구려의 유물들이며 시기적으로는 빨라서 A.D. 1세기경, 늦어서 A.D. 4세기 전반의 것으로 확인된 것들이다.

락랑벽돌에 새겨진 고대글자는 한자기록과 엄연하게 차이나고 있다.

한자기록의 벽돌들은 육안으로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발해유물들에서도 같은 계통의 고대글자들이 발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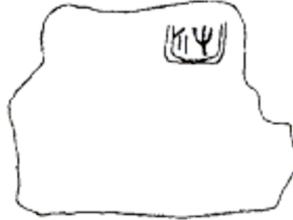
중국의 동북지방인 흑룡강성의 옛 상경룡천부지역에서 발굴한 발해시기의

기와들에는 신지글자계통의 글자들이 새겨져있다.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자료 88-76, 72, 74, 57, 53을 보면 다음과 같다.



88-76자료. 암기 와



88-72자료. 수기 와



88-74자료. 수기 와



88-57자료. 암기 와

발해유적유물에 새겨진 글자들이 끼림문자계통으로 보이는 것이 적지 않은데 이것과 달리 신지글자계통의 기별적 글자들이 기록된 것은 곧 고대글자사용범위가 상당히 넓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대글자인 신지글자는 적어도 고려시기까지는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최근에 발굴한 '성천롯데단검'에 3개의 신지글자가 새겨져있는 것을 통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고려시기의 황동제품으로 확정된 이 유물은 손잡이부분이 많이 닳아졌으나 글자의 형체는



88-53 자료. 수기 와

기본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낫단검의 첫 글자는 『녕변지』의 14번째 글자, 『창힐조적서』의 13번째 글자이고 세 번째 글자는 『녕변지』의 네 번째, 『창힐조적서』의 7번째 글자와 완전히 일치하다.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발해기와 88-74와 같은데 현재 『녕변지』, 『창힐조적서』의 어느 글자와 같다고 결론하기는 힘들다.

이상의 자료고찰을 통하여 고조선시기부터 고려시기까지의 장구한 역사적



성천낫단검의 글자

기간에 고대글자-신지글자는 평양과 강서를 포괄하는 대동강일대와 평안북도의 녕변 료녕성의 러대시는 물론 동북으로 발해의 상경룡천부와 서남으로 섬서성 서안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서 쓰인 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2. 몇 가지 제기되는 문제

고대글자문제는 지금으로부터 멀리로는 45천년 전, 가까이로는 1600여 년 전의 오랜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학술사업으로서 많은 문제가 제기된다.

그중 몇 가지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려 한다.

첫째로, 신지글자와 창힐글자와의 관계문제이다.

현존 자료발굴에 의하면 신지글자와 창힐글자는 완전히 같은 하나의 글자이다. 이것은 더 논할 여지가 없이 명백하다. 따라서 문제의 초점은 자연히 고조선의 고유한 글자인가 아니면 한자의 고대형인가 하는 데로 집중된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으로 고찰방법의 각도를 돌려야 한다.

우선 글자의 자형문제이다.

중국최초의 자전인 『설문해자』와 하남성 안양의 갑골글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공인된 200여 자의 한자부수들은 자기의 고유한 자형을 보인다.

이 자형들은 획수, 획조합, 획모양에서 신지글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아무리 한자를 초서체로 생략한다고 해도 자기의 고유한 필법, 자형의 본질적 징표는 달리할 수 없다. 우리는 고대시기부터 동방사람들이 오른손으로 글을 쓰며 위에서 아래로 내려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한자는 상형글자로서의 생명력, 뜻글자로서의 생명력, 고립어로서의 생명력을 가진다는 것을 깊이 고려하는 문제이다.

교착어로서 토가 발달한 우리 겨레의 언어와 달리 한어는 사물현상의 모양을 반영하고 문장구성에서 글자 수가 적으며 어순이 다르다.

다음으로 발생기간에 관한 리해이다.

한자는 뜻글자로서 『훈민정음』을 창제하듯 빠른 시일이 아니라 오랜 기간 민족의 서사체계로 형성된다.

다음으로 중국학계의 견해를 중시하는 것이다.

중문잡지 『문물참고자료(文物參考資料)』(1957년 제1기)에는 창힐글자와 한자관계를 전면적으로 연구한 「법첩에 보존되어있는 력사자료에 대하여」라는 논문이 실렸는데 필요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순화각첩」 권5에는 알아보기 힘든 두 단락간의 글이 있는데 본래 제목은 「하우씨대우서(夏后氏大禹書)」와 「헌원씨사창힐서(軒轅氏史蒼書)」이다.

「강첩(絳帖)」에서는 이 두 단락의 글자를 권1에 싣고 「고창힐서(古蒼書)」와 「하우서」라고 하였다. ……이 두 단락의 글자는 현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하우서」도 아니고 「창힐서」도 아니며 현존하는 가장 오랜 이족의 글자(彝文)이며 중국의 여러 민족들의 력사연구에서 극히 진귀한 자료로 된다.”

기초한자의 고대형과 그 발전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중국학자들의 결론은 신지글자와 한자의 본질적 차이에서 오는 응당하고 필연적인 귀결이다.

둘째로, 글자대비에서 지엽적이고 개별적인데 치우치는 사고방식을 철저히

경계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서로 다른 갈래의 개별적 글자들이 그 모양을 같이하는 현상은 적지 않다.

우리 글자 ㄱ(키읃)과 일본어 ㄱ(오), 영어의 r(아르)와 로어의 r(계)가 그 사례이다.

때문에 글자의 민족성, 계통문제는 우연히 일치되는 개별적 글자들의 모양에 포로되어서가 아니라 글자의 창제원리에 기초하여 전반적으로 관통되는 체계성, 법칙성에 의해 규정해야 한다.

셋째로, 글자존재문제는 반드시 역사적으로 존재한 음운체계의 변천과정과 연관시켜 증명해야 한다.

이것은 단군관계문헌들인 『단군세기』, 『태백일사』 등에 단군조선 때 ‘가림토글자’가 쓰였다고 한 문제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것이다.

만일 구태어 가림토글자를 인정한다고 가정하면 이 글자의 창제원리는 훈민정음과 같다.

그것은 자형이 같기 때문인데 자형의 공통성은 곧 창제원리의 공통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림토글자에는 된소리를 나타내는 글자, 거센소리를 나타내는 글자, 겹모음글자 등 있어야 할 글자는 다 있다.

이것은 말소리의 시각적 효과를 생명으로 하는 글자의 사명에 비추어 볼 때 너무도 믿기 어렵다.

고조선시기에 된소리, 거센소리, 받침소리, 겹모음이 없었다는 것은 언어학계에 공인된 진리이다.

따라서 가림토글자는 이 한 가지 측면에서만 보아도 위작이라고 결론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겨레의 고대 글자문제와 관련하여 아직도 해명하여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다.

앞으로 북, 남, 해외의 모든 언어학자, 국어학자들의 깊은 연구와 자료교환, 학술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한중 언어 문화-인지구조 비교로부터 본 한국어 문화 교육 방법 연구\*

姜 寶 有  
복단대학교

## 1. 머리말

언어는 사고방식과 인지방식에 의해 문화인자로 네트워크화되고 언어문화로 승화된다. 문화를 인간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그리고 그 결과물의 총칭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은 언어 인지구조에 일정한 영향을 줄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언어를 외면하고 문화를 이해할 수 없고 문화를 외면하고 언어를 이해할 수 없듯이, 언어교육과 언어연구는 해당 문화의 사고방식과 인지방식과의 유기적인 연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이 바로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그 민족의 사고방식과 인지방식을 이해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외국어 교육방법에서 구조적 접근방법, 기능적 접근방법, 전통적 접근방법, 종합적 접근방법, 문화적 접근방법, 인지적 접근방법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구조적 접근방법으로는 청각 구두 교수법이 있고 기

---

\* 이 학술연구는 2008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AKS-2008-R-35).

능적 접근방법으로는 의사소통 교수법과 과제중심 교수법이 있다. 전통적 접근방법으로는 문법번역 교수법이 있고 종합적 접근방법으로는 통합 교수법이 있으며 문화적 접근방법으로는 문화투영 교수법이 있고 인지적 접근방법으로는 인지적 교수법이 있다(강보유, 2005년: 144-149).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언어구조에 투영된 사고방식과 인지방식에 대한 비교로부터 한국어문화 교육 방법을 새로 창안해보고자 한다.

언어구조에 투영된 사고방식과 인지방식을 우리는 언어문화라고 잠정 부르기로 한다. 따라서 한국어문화란 바로 한국인의 언어생활과 한국어에 투영된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인지방식을 말한다.<sup>1</sup>

강보유(2002년: 1-17)와 강보유(2005년: 143-157)에서는 한국어문화 교육 방법을 모색함에 있어서 문화언어학적인 접근방법으로 ‘문화투영교수법’을 창안하여 교수와 연구에 응용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즉 사고방식 차이에 따른 언어문화 표현구조에 대해서는 문화언어학적인 접근으로 해결이 가능했었지만 인지방식 차이에 따른 부동한 언어문화 표현구조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왜냐하면 개념상 언어문화의 범주를 문화언어학적인 시각에서 한정하고 다루었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그 보완책으로 인지언어학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 문화언어학적인 접근방법과 인지언어학적인 접근방법을 접목한 ‘문화인지교수법’ 개발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본 논문이 바로 이를 위한 첫 단계 작업으로 된다. 그러므로 문화언어학적 시각에서 필자가 그간 논의했던 주제와 내용들을 재인용함을 서슴지 않으면서 일부 개념들은 수정하고 새로운 내용들을 더 보충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는 ‘문화인지교수법’ 개발에 앞서 먼저 한국어

---

1 강보유(2005년: 148-149)에서 문화언어학적 시각에서 언어와 문화 사이의 상호 작용으로 언어와 문화가 하나로 융합된 인자(因子) 즉 언어행위와 언어구조에 투영된 문화인자를 언어문화라고 잠정 지칭하면서 한국인의 언어생활과 한국어구조에 투영된 한국문화를 한국어문화라고 한 바 있다.

와 중국어에 대한 문화-인지구조 비교를 통한 새로운 교수법 개발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 2. 사고방식과 인지방식에 비친 문화인자

중국인은 “天人合一”의 整體性思惟로 주체와 객체를 융합된 하나로 보면서 자연보다 인간을 더 강조한다. 한국인은 “重客體, 輕主體, 依据自然”의 우주관으로 주체와 객체를 분리시키면서도 객체에 더 많은 각광을 보내면서 인간의 자연속성을 더 강조한다.

중국인의 자기중심적인 주관형(主觀型) 문화의식과 한국인의 자연 그대로의 객관형(客觀型) 문화의식이 정원(庭園)문화와 음식(飲食)문화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정원문화를 볼 때, 중국의 정원은 북경의 이화원(頤和園)이나 강소성 소주의 출정원(拙政園)처럼 자연을 인공적으로 깎고 다듬고 하여 하나의 대자연의 축도를 정원에 옮기는 주체의식이 강한 인공적인 축소형이다. 자연을 이용해 정원을 만든다기보다 자연을 정원구조에 깎아 맞추는 느낌을 준다.

한국의 정원은 서울의 비원(秘苑)이나 전라도 담양의 소쇄원(瀟灑園)처럼 자연을 있는 그대로 크게 손상시키지 않고 언덕이나 계곡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없으면 없는 그대로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을 되도록 살리는 객체의식이 강하게 내비친다. 자연을 가까이하고 자연에 의지하는 한국인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한국의 정원은 자연적인 그윽한 맛이 풍긴다면 중국의 정원은 인공적인 냄새가 짙게 풍긴다.

중국의 가옥은 또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나와 자연을 격리시키는 밀폐식이라면 한국의 가옥은 대체로 울바자로 둘러싸여 있어서 밖을 내다 볼 수도 있고 안을 들여다 볼 수도 있는, 자연과 호흡을 함께 하는 개방식이다.

중국의 정원은 인공미가 짙은 주관성이 돋보이는 폐쇄적인 은폐형이고 한

국의 정원은 자연미가 짙은 객관성이 돋보이는 개방적인 노출형이다.

음식문화를 볼 때, 중국의 요리는 지지고 볶고 하는 주관의식이 강하게 비치는 화식(火食)문화이지만 한국의 식탁은 나물천지로서 진짜 자연 그대로인 생식(生食)문화가 돋보인다. 즉 중국음식은 가공적인 맛을 내지만 한국음식은 자연 그대로의 맛을 낸다.

중국음식문화에는 자연성을 죽이는 중화(中和), 융화(融和) 사상이 투영되어 있고 한국음식문화에는 자연 맛을 살리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한국인의 심성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한국인과 중국인은 성격상 다른 성향을 보여 마치 한국인은 ‘빨리 빨리’로, 중국인은 ‘慢慢地’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짙다. 한국 사람들은 식당에만 가면 ‘빨리 빨리’를 외치고 중국인은 밑반찬을 들면서 뜨거운 요리가 나오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 그래서 그런지 밥 때가 되면 한국 사람들은 “어서 드세요.”라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請慢用(천천히 드세요)”이라고 한다. 이는 지정확적인 관계도 있겠지만 한국의 음식문화가 공간형이라면 중국의 음식문화는 시간형이라는 것과는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은 음식 맛을 보고 “맛있다/맛없다”라는 객관적 표현을 쓰지만 중국 사람들은 “好吃/不好吃(맛이 좋다/맛이 안 좋다)”라는 주관적 표현을 쓴다. 중국음식은 미각을 자극하지만 한국음식은 통각을 자극한다고 할까?!

대대손손 생활해온 주거공간이나 음식습관은 인간의 감정노출방식에 틀림없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중국인의 주체중심적인 문화의식과 한국인의 객체중심적인 문화의식이 언어표현구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가 본 연구의 관심사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중심 문화의식, 객체중심 문화의식이라고 하는 이것은 각광(脚光)을 어디에 더 많이 보내는가 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언어가 문화인을 만들고 또 문화인의 생활방식 즉 사고방식과 인지방식을 규제한다고 할 때, 그 언어구조 속에는 반드시 이런 문화의식이 투영되게 마

런이다. 민족의 문화의식이 언어구조에 투영되면서 세계 언어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

인간의 사고방식과 인지방식이 언어에 투영되면서 언어구조는 문화인자로 네트워크화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주체와 객체를 융합된 하나로 보는 중국인의 “天人合一”의 整體性思维的 주관형(主觀型) 문화의식은 ‘자기중심의 중국어’를 만들어냈다. 주체와 객체를 분리시키면서도 객체에 더 많은 각광을 보내는 한국인의 “重客體, 輕主體, 依據自然”의 객관형(客觀型) 문화의식은 인간의 자연속성을 더 강조하면서 자기보다 상대방을 더 의식하는 ‘상대중심의 한국어’를 만들어냈다.

아래에 사고방식과 인지방식의 차이로 나타나는 한중 언어 문화-인지구조에 대한 비교로부터 한국어문화 교육 방법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 3. 문화-인지구조 비교로부터 본 발음 교육 방법

발음 교육은 음절의 문화-인지구조 해부로부터 진행할 수 있다.

중국어 음운은 聲母와 韻母로 양분되는데, 자음(聲母) 21개, 모음(韻母) 36개로 도합 57개의 음소가 있지만 음절구성상 제약이 많고 또 한국어와 같은 폐음절(중성)이 없는 관계로 음절수가 적어 395개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에 4개의 성조(聲調)까지 가세해도 음절수가 1,300개를 넘지 않는다.

한국어는 자음 19개, 모음 21개로 도합 40개의 음운이 있지만 음절구성상 제약이 적고 또 음절구조상 3분법으로 초성, 중성, 종성이 갖추어져서 음절수가 많아 2,088개에 달한다. 한국어 음절구성에서 폐음절이 1,758개나 되어 음절 총수의 84.2%를 차지한다.

한국어가 요즘 들어 외래어 직수입이 호황을 보이고 있는 이것은 선진문화의 직수입과 관련된다 하겠지만 또 다른 원인으로는 한국어의 음절구조가 비교적 다양함으로써 외래어 표기법에 장애요소가 적은 때문인 것으로도 평

가할 만하다.

중국어가 외래어 수입에 인색한 것은 자기 전통을 지킨다는 것이 주요 원인 이겠지만 외래어를 직수입하고 싶어도 음절구성상의 상대적인 단순화로 해서 외래어 표기법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원인도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음절의 발음단위로 볼 때, 중국어는 글자중심(字中心)의 언어이다. 중국 한자(漢字)는 표의문자로서 매개 음절(글자)마다 단어의 기능을 하면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자마다 또박또박 발음하도록 되어있어서 음운변화가 별로 없다. 이것이 바로 중국어 표의문화의 특징이다.

음절의 발음단위로 볼 때, 한국어는 낱말중심(詞中心)의 언어이다. 한글은 표음문자로서 음절 묶음이 단어의 기능을 한다. 때문에 음운변화가 특별히 많다. 한국어의 단어는 2음절어 혹은 3음절어가 대부분이다. 1음절어라 해도 한국어는 문법적으로 조사가 첨가되어 2음절 이상의 형태단어로 활용되기 때문에 발음 시에 음절과 음절 사이에서 음운변화가 많이 생긴다. 특히 종성과 초성이 만나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음운변화가 생긴다. 이것이 바로 한국어 표음문화의 특징이다.

한글은 발음규칙이 특별히 많아서 음운변화가 별로 없는 중국 한자에 버릇된 중국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인들은 한국어 발음 시 연음(連音)을 하려 하지 않는데, 문화-인지학적으로 볼 때, 한국어 연음을 못하는 원인은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음절구조로 볼 때, 현대중국어는 한국어와는 달리 절대부분이 폐음절이 아닌 개음절로 되어있기 때문에 발음생리학적으로 연음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 중국어는 운율(韻律)상 매개 음절이 거의 하나의 음보(音步)로 역할하기 때문에 발음심리학적으로 글자마다 또박또박 발음하려는 문화-인지적인 심리가 깔려 있다. 즉 연음을 해야 할 위치에서 연음을 하려는 심리적 준비가 없다. 시초부터 글자를 단위로 발음하는데 버릇되고 연음에 버릇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어에서의 연음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한국어에서의 연음은 안

하려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한글이 음소문자이기는 하지만 영어처럼 풀어쓰지 않고 자형을 한자처럼 음절마다 묶어 쓴 관계로 《음절=글자》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된다.

인구어는 강약액센트(輕重音)를 초음단(超音段)의 주요특징으로 삼고 경음, 중음이 의미식별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서방의 시가, 성악의 가락과 선율은 강약의 박자를 기초로 한다. 중국어의 초음단의 주요특징은 성조(聲調)로서 중국의 성악은 자음의 성조를 기초로 한다.

한국어에서는 고저장단에서 장단이 주로 초음단의 기능을 한다면, 한국의 가락도 장단을 기초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말에 “가락이 맞는다”를 “장단이 맞는다”로, “박자를 맞추다”를 “장단을 맞추다”로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 4. 문화 - 인지구조 비교로부터 본 어휘 교육 방법

어휘 교육은 어휘의 문화-인지구조의 대응관계로 진행할 수 있다.

언어에서 문화적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분야가 바로 어휘 영역이다.

어휘장 분포로 볼 때, 한국어는 상징어가 그 어느 언어 특히 중국어보다도 특별히 풍부하다. 이는 한국인의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자연의 맛과 소리, 모양을 그대로 살리는 객체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어휘구성에서 한국어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되었지만 중국어는 고유어와 외래어로 되어 있다.

한국어에서 형용사 어휘장을 살펴보면, 감각형용사, 심리형용사, 성상형용사 대부분이 고유어로 구성되었다면 판단형용사, 태도형용사와 같은 주관형용사들은 흔히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어에서 한자어로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이것은 표의문자로서의 한자의 우수성으로 평가할 만도 하지만 문화-인지학적으로 본다면 추상적 개

념을 고유어로 표기하기 이전에 벌써 한문화가 밀물처럼 수입된 것과도 관련된다.

두 언어의 어휘체계를 완전대응, 비대응, 불완전대응 체계로 분류하고 그 속에 투영된 문화인자를 발굴하는 작업을 어휘비교론에서 우선한다.

완전대응 체계에 속하는 어휘들은 개념의 내포와 외연이 같은 전문용어와 술어(術語)가 절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어휘들은 대개 세계 공동문화재산이라 오해나 곡해가 있을 수 없기에 어휘 교육에서 별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어휘의 비대응 체계에 속하는 어휘들은 그 수가 적고 또 문화적인 접촉이 잦아수록 서로 차용해 쓸 수 있기에 어휘 교육에서 쉽게 접수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의 “김치”, “한복”, “태권도”, “님”은 중국어에 대응되는 단어가 없다. 한국어에는 또 “아들”과 “딸”을 포괄하는 상위어가 고유어에 없는 관계로 중국어 “子女, 子息”을 차용하고 있다. 한국어에서 “빨래(하다)”는 독자적인 의미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어에서는 그에 대응되는 상위어가 없기에 빨랫감이 다름에 따라 “洗衣服(옷을 빨다/씻다)”, “洗被子(이불을 빨다/씻다)”로 분별하여 표현한다. 이런 비대응 체계에 들어있는 어휘들에는 흔히 문화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불완전대응 체계에 속하는 어휘는 양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참조물과 의미 가치가 다른 관계로 문화적인 간섭을 받을 소지가 많아서 어휘 교육에서 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그러므로 어휘의 불완전대응 체계에서의 “빈자리”를 문화-인지학적인 시각에서 고찰해야 한다.

객관세계를 등분할 때, 한국어는 각광을 주체보다 객체에 더 많이 보내는 관계로 지시대명사 분류체계에서 중국어와 불완전대응 현상이 나타난다.

중국어는 “这”와 “那”에 의한 2분법이 발달했지만 한국어는 근칭(近稱)의 “이/여기”, 중칭(中稱)의 “그/거기” 그리고 원칭(遠稱)의 “저/저기”에 의한 3분법이 발달했다. 이렇게 한국어는 시공간에 대한 척도가 자연에 순응함으로써 그 기준점이 비교적 고정되어 있다. 이런 3분법은 바로 객체에 더 많은 각광

을 보내줌을 말해준다. 중국어에서는 자기중심적인 “这”와 자기 주위를 떠난 “那”로 2분법을 취하는데, 중국어의 “这”는 한국어의 “이”보다 가리키는 범위가 훨씬 커서 한국어의 “그” 범위까지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한국어의 “그/거기”는 공간적인 거리개념을 떠나서 흔히 대화현장에 없는 사물이나 사실, 장소를 가리킬 때가 많다. 한국어에는 또 “그러므로, 그러나,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그래서”와 같은 객관화된 접속부사가 많다.

한국어에서는 “가다(去)”와 “오다(來)”의 출발점이 분명하지만 중국어에서는 그 기준이 자기중심적이어서 “來”로써 “去”를 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한국어에서는 전화를 하거나 받으면서 상대방 쪽으로 간다고 할 때에는 “곧 갈게요.”라고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我就來(곧 올게요)”라고 표현함으로써 각광을 말하는 주체인 화자에게 보낸다. “점점 더 좋다.”를 한국어에서는 “갈수록 좋다.”라고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越來越好(올수록 좋다)”라고 표현한다. 이야기 구심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형제간 친족어에서도 한국어와 중국어는 불완전대응 관계가 이루어진다.

중국어 “哥哥”와 “姐姐”에 대응되는 한국어 친족어는 화자(나)의 성별기준에 따라 달리 부르게 되는데, 화자(나)가 남동생이라면 각각 “형(님)”, “누나”라 부르고 화자(나)가 여동생이라면 각각 “오빠”, “언니”라고 부른다. 이렇게 한국어에서는 손아랫사람의 성별까지도 교대하지만 중국어에서는 그런 교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손윗사람에 대해서는 “형(님)”, “누나”, “오빠”, “언니”하고 세분하지만 아랫사람인 “동생”에 대해서는 세분하지 않는다. 되려 중국어에서는 성별관계에 따라 남동생은 “弟弟”라 부르고 여동생은 “妹妹”라고 부른다. 한국어에서는 또 동생을 이르는 “아우”는 부르는 사람과 부름을 받는 사람간의 성별이 같아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이 있다. 이는 문화언어학으로 볼 때, 자기의 신분까지 교대해주는 문화심리현상으로서 상대방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국어의 청자 대우 형식으로 볼만하다. 형제간에 손윗사람의 역할과 손윗사람에 대한 존경 그리고 남녀의 뚜렷한 구분이 가족문화에서 지켜지고 있

음을 말해준다.

단어의 문화상징적 의미체계에서도 불완전대응 현상이 나타난다. 중국문화에서는 “붉다(红色)”가 행복, 기쁨, 길상, 환락, 열렬 그리고 행운, 성공과 같은 가장 생활화한 문화상징의미를 담고 있어 红色은 漢民族이 가장 愛用하는 색깔로 되고 있다. 한국문화에서는 “희다(白色)”가 고결(高潔), 순결(純潔), 희망(希望), 길상(吉祥) 등과 같은 문화상징의미를 담고 있어 “흰색”이 韓民族의 가장 친근한 색깔이면서 가장 즐기는 색깔로 되고 있다. 여기에서 동일한 빛깔에 대한 한중 간의 부동한 인지태도와 문화상징체계를 읽을 수 있다.

한국어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를 흔히 중국어로 옮길 때 “亡羊补牢”라고 하는데 이는 엄중한 오역이 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에는 “소를 잃어버린 후 외양간을 손질한들 쓸 데 없다”는 뜻을 나타내지만 “亡羊补牢”에는 “이미 실패나 손실을 당한 뒤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차후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는 뜻이 더 있다. 외양간의 소는 한두 마리이지만 양우리의 양은 몇 백 마리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또 시공간에 대한 인지구조에서 불완전대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어에서의 “左右”는 “왼쪽과 오른쪽”이라는 공간적인 원형 의미로부터 시간적인 “내외”, 공간적인 “안팎”, 수량적인 “가량”으로 의미 확장을 실현했지만 한국어에서의 “좌우(左右)”는 공간적인 “곁 또는 옆”으로만 의미가 확장됨으로써 불완전대응 현상이 나타난다. 고로 한국어에서는 “내외(内外)”가 “안과 밖”이라는 원형적 의미로부터 수량이나 시간상의 “근접”으로 의미가 확장되면서 중국어 “左右”와 시간상, 수량상의 대응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1) 한 시간 내외 걸린다. (需要1个小时左右)
- (2) 800자 내외로 썼다. (写了800字左右)

한국어에서 ‘좌우’는 단절된 공간으로 인지된다면 중국어에서 ‘左右’는 열린 시공간으로 인지됨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어는 밀폐된 공간인 “내외”로, 중국어는 열린 공간인 “좌우”로 같은 시공간상의 근접을 표시하고 있다.

어휘 교육에서 이런 불완전대응을 일대일(一対一)의 대응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 5. 문화 - 인지구조 비교로부터 본 문법 교육 방법

문법 교육은 문법구조에 나타난 인간의 사고방식과 인지방식에 대한 비교로부터 진행할 수 있다.

주어, 목적어, 동사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어순의 기본유형은 SOV, SVO, VSO가 대표적이다. 유형학적으로 볼 때, 중국어는 전형적인 SVO언어인데 반해 한국어는 전형적인 SOV언어이다.

한국어에서 목적어가 술어의 앞에 놓인다는 그 자체가 바로 객체중심의 언어문화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주체가 어떻게 행동한다기에 앞서 그 행동이 미치는 객체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각광을 보냄으로써 주의를 환기시킨 후 결정적인 행동판단을 내린다. 그와 반대로 중국어는 객체 선정에 앞서 행동판단이 먼저 앞섬으로써 그 행동판단에 대한 강한 주체의식이 돋보인다. 또 다른 시각으로 볼 때, 동사가 항상 문말에 온다는 것은 한국어가 상황판단에 따라 주체의 행동이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가변성이 좋다. 청자의 반응을 보아 화자의 태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한국어는 중국어보다도 객관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어 어순은 사고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생활양식과 사고방식 그리고 인지방식의 차이가 언어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어는 끝까지 청자를 잡아 놓는 장점이 있다면 중국어, 영어는 청자가 비판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한국어는 비판적으로 사고할 기회를 빼앗길 수 있고, 중국어, 영어는 청자

를 끝까지 붙들어 두는 긴장감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한국어의 이런 특징으로 말미암아 한국어는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많은 이차적 성분이 확대, 배열되면서 장문이 되기 쉽다. 그런 까닭으로 한국어는 접속어미가 풍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형학적으로 중국어를 자기중심적인 설득형(說服型) 언어라면 한국어는 상대중심적인 이해형(領會型) 언어라고 한다.

수량구조 어순을 현대시각으로 보면, 중국어에서는 수사가 명사에 전치한 구조인 [Q+(Cl)+N]형이 전형적이고 한국어에서는 수사가 후치한 구조인 [N+Q+(Cl)]형이 전형적이다. 15세기 문헌고찰에 의하면 한국어도 원래는 중국어와 같은 수사전치구조가 절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수량사란 바로 명사 앞에서 그 명사의 개념을 한정해 주는 기능을 하는데, 수사후치구조에서는 명사가 수사의 앞에 놓이기 때문에 인지구조로 볼 때, 수량사의 개입이 그 의미를 잃게 된다. 따라서 수량사가 발달한 중국어에서는 원래 어순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수량사가 그다지 발달하지 못한 한국어에서는 결국 수사후치구조로 어순을 바꾸지 않았나 짐작해 본다.

언어 표현방식은 주관적인 표현방식과 객관적인 표현방식으로 갈라볼 수 있는데, 한국어는 객관적 표현방식을 선호하고 중국어는 주관적 표현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한국어에서는 주관형용사 구문이 경험주의 현재의 심리상태를 나타낼 때, 인칭의 제약을 받으면서 주관적 표현방식과 객관적 표현방식으로 나뉘어 진다. 경험주가 1인칭일 때에는 주관형용사 구문으로써 주관적 표현방식을 취하지만 경험주가 3인칭일 때에는 주관형용사 구문이 “-어 하다” 동사 구문의 대응을 통해서 객관적 표현방식을 취한다. 한국어에서는 화자가 제3자의 심리상태를 주관적으로 인지할 수 없고 다만 객관적인 입장에서만 가능함을 보여준다. 경험주가 2인칭일 때에는 감탄문이나 의문문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한국어에서는 상대방이나 제3자의 심리를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않는다. 한국어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의 심리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지하고

서술하는 표현방식이 바로 “-어 하다” 동사구문이다.

(3) ㄱ. 나는 아주 기쁘다.

ㄴ. \*너는 아주 기쁘다. / 너는 아주 기쁘구나. / 너는 아주 기쁘지?

ㄷ. \*그는 아주 기쁘다. / 그는 아주 기뻐한다. / 그 날 그는 아주 기뻐다.

그러나 예문 (4, ㄷ)에서 보면 중국어는 인칭제약에 관계없이 경험주가 3인칭인데도 여전히 주관적 표현방식을 취한다. 이렇게 중국어에서는 화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판단하는 자기중심의 주관적 표현방식을 선호한다.

(4) ㄱ. 我很高兴.

ㄴ. 看来, 你很高兴.

ㄷ. 他很高兴.

한국어에서는 흔히 대화 속에 1인칭 “나”가 쓰이지 않지만 중국어에서는 아래 예문에서 보드시피 “我(나)”의 사용빈도가 유난히 높다.

(5) 我的天啊(하느님 맙소사 / 세상에)

(6) 我的妈呀(어머니 / 아이고머니)

(7) 我说啊(여보세요) / 我告诉你(내가 너한테 말하니 너 잘 들어)

(8) 跟我来(잡시다 / 따라오세요)

(9) 给我滚开!(씩 물러가!) / 给我吃(어서 먹어)

이상 예문에서 보면 표현구조상 “我(나)”를 특별히 내세우는데, 예문 (9)에서의 “给我”는 “나를 위해서”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자기중심적인 의식의 돌출(突出)로 인한 주관적 표현방식으로 평가할 만 하다.

(10) 你好?(안녕하세요?) / 你看.(저 봐요.)

중국어에서는 예문 (10)에서처럼 상대방을 가리키는 “你”를 흔히 쓴다. 이는 중국어에 계칭범주가 없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한국어는 문화적으로 경어법이 발달한 관계로 인칭대명사 생략이 보다 자연스럽다.

아래 예문 (11)에서 보면 한국어에서는 또 주관적 표현방식으로 충분한 것 까지도 객관적인 표현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 (11) ㄱ. 나는 호랑이가 안 무섭다.
- ㄴ. 나는 호랑이를 안 무서워한다.

한국어에서는 객관적 표현방식은 또 피동형으로 나타내는데, 중국어에서는 능동형으로 나타난다. 피동문 자체가 바로 각광을 주체가 아닌 객체에 보낸다는 데 가치가 있는 것이다.

- (12) 산이 보인다(看见了山).
- (13) 대문이 닫혔다(大门关上了).
- (14) 할아버님 대리 고향으로 내려갔다.

예문 (14)에서 보드시피 객체존칭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동사 “뵙다/뵈다”의 용법에서 보아도 화자는 항상 피동적인 위치에 서서 객관적 표현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남을 직접 찾아가 보는 “拜访(방문)”형으로 화자는 항상 주동적인 위치에 서서 주관적 표현방식을 취한다.

객관적 표현방식과 주관적 표현방식이 겹쳐 쓰일 때, 순서적으로 한국어는 [객관적 표현방식+주관적 표현방식]을 취하지만 중국어는 [주관적 표현방식+객관적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데서 엄연한 차이를 두고 있다. 이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주관적 판단을 내리는 한국어의 상대중심의 언어표현과 관계되고 주관적인 판단을 먼저 해버리는 중국어의 자기중심적인 언어표현과 무관하지 않다.

논리적 사고와 판단에서 순서적으로 한국어는 긍정과 부정, 의지, 양태 등 표현이 동사술어 뒤에 놓이지만 중국어는 동사술어 앞에 놓이는 것이 보통이다.

(15) 비가 왔는가 봐요. (好象下雨了)

(16) 나는 그가 없는가 했다. (我以为他不在)

(17) 밥을 먹고 싶지 않아요. (不想吃饭)

예문 (15), (16), (17)에서 보면, 한국어에서는 “비가 오다”, “그가 없다”, “밥을 먹다”는 객관적 표현을 앞에 놓고 “-는가 봐요”, “-는가 했다”, “-고 싶지 않다”와 같은 추측이나 판단 그리고 부정을 나타내는 주관적 표현은 문장의 맨 마지막에 배치해 놓고 있다. 중국어는 한국어와 정반대로 주관적 표현을 문장 맨 앞 혹은 동사술어 앞에 배치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어표현방식에서 이렇게 한국어는 객관적 표현방식을 선호하고 중국어는 주관적 표현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언어가 사고방식 그리고 인지 방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한국어의 문화-인지적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문법범주의 하나가 바로 경어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의 경어법은 주체경어법, 객체경어법, 청자경어법의 세 종류로 나뉘어 진다. 주체경어법과 객체경어법은 통사구조 속에는 있지만 대화의 장면에는 없을 수도 있는 인물에 대한 존대여부를 나타낸다면, 청자경어법은 대화의 장면에는 있지만 통사구조 속에는 없을 수도 있는 인물에 대한 존대여부를 나타낸다. 이렇게 화맥에서 단순히 화자와 청자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화자와 청자 사이를 오가는 제3자인 객자(客者)까지 염두에 두었다는 것이 한국어 경어법의 특징이다.

한국어의 이런 경어법은 자기(주체, 화자)를 제외한 상대방(객체, 청자)을 이야기 구심점(중심)에 놓고 대우하는 것으로서 한국어가 객체중심의 언어임을 입증하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교착어로서의 한국어는 문법형태 표출의 특징의 하나로서 문장의 접속형식인 연결어미가 다양하다. 한국어 연결어미는 조건, 양보, 대립, 목적, 결과, 인과 등 관계에 따라 분류되어 통사구조에 표출되지만 중국어는 연결어미가 양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통사구조에 표출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한국어에서의 이런 문법형태의 표출은 객관사실과 그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려는 객체 의식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한국어는 사물의 관계가 통사구조 속에 표출됨으로써 객관적이지만 중국어는 표출되지 않음으로써 주관적이다.

언어유형학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어는 [주제어-서술어] 구조 중심의 언어이고 한국어는 [주어-술어] 구조와 [주제어-서술어] 구조를 두루 갖춘 언어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어에서 흔히 주어는 주격조사 “-이/-가”에 의해 나타나고 주제어는 보조사 “-은/-는”에 의해 나타난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주제어-서술어] 구조에 버릇되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움에 있어서 안긴 문장(从句)에서의 주어까지 주제어로 인지하면서 예문 (18, ㄴ)에서처럼 흔히 ‘-은/-는’을 쓰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18) ㄱ. 그가 하는 것을 나는 찬성한다.

ㄴ. \*그는 하는 것을 나는 찬성한다.

주격조사 “-이/-가”와 보조사 “-은/-는”의 변별적 사용은 중국인 학습자에 대한 한국어문법 교육 현장에서 깨우쳐주기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인데, 그에 대한 화용론적인 접근과 문화-인지학적인 접근이 절실히 필요하다.

화용론적으로 주격조사 “-이/-가”의 의미는 [+주체화], [+강조화]로 정리할 수 있고 보조사 “-은/-는”의 의미는 [+대조화], [+주제화], [+강조화]로 정리할 수 있는데, 주격조사 “-이/-가”의 기본적 의미는 [+주체화]이고 보조사 “-은/-는”의 기본의미는 [+대조화]이다. 그런데 [주제화], [대조화], [강조화]는 엄밀히 따지면 통사구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주체화]만이 문장구조상의

의미이고 [강조화]는 문맥적인 맥락상의 의미이다. [대조화]와 [주제화]는 화용론적인 맥락상의 의미라 할 수 있다.

인지언어학적 시각에서 볼 때, 주격조사 “-이/-가”의 의미자질은 [+주제화]와 [+객관성]이고 의미기능은 미지(未知)로서 신정보를 나타냄으로써 객관적 표현방식에 적절하다. 보조사 “-은/-는”의 의미자질은 [+주제화]와 [+주관성]이고 의미기능은 기지(既知)로서 구정보를 나타냄으로써 주관적 표현방식에 적절하다.

사실 기지, 강조, 대조의 의미기능은 주관적 입장에서 판단되는 것이어서 주관적 표현방식에 편입시킬 수 있는 개념들이다.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것은 위치상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주관적인 것은 위치 변화가 심하다. 때문에 문법적으로 주격조사 “-이/-가”는 주어의 위치에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보조사 “-은/-는”은 그 위치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문화 교육에서 주격조사 “-이/-가”는 객관적 표현구조에 쓰이고 보조사 “-은/-는”은 주관적 표현구조에 쓰이는 것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가장 무난한 교육 방법이다.

한국어에서 ‘병나다(生病)’는 발병 원인을 주관에서 찾을 수 있고 ‘병들다(得病)’는 객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예문 (19), (20)에서처럼 한국어에서는 사람에게 한해서는 ‘병나다’와 ‘병들다’가 모두 가능하고 객관에 의존하는 동물이나 식물에 한해서는 ‘병나다’보다 ‘병들다’가 더 가능한지도 모른다.

(19) ㄱ. 상한 음식을 먹으면 병난다.

ㄴ. 전쟁 때문에 병들고 굶주린 백성들.

(20) 병든 돼지/병든 나무

똑같은 현대문명 기기에 대한 인지표현에 있어서도 한국어와 중국어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1)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를 검색하다. (上网查资料)

(22)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上電視)

예문 (21), (22)에서 보면, 한국어에서는 ‘인터넷에 들어가다’라고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上网(인터넷에 오르다)’이라 하고, 한국어에서는 텔레비전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텔레비전에 나오다’라고 표현한다면 중국어에서는 ‘上電視(텔레비전에 오르다)’라고 한다.

한국어에서는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을 닫힌 공간인 집(박스)으로 인지한다면 중국어에서는 열린 공간인 무대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중국어와의 비교 속에서 한국어에 투영된 문화-인지구조를 기교 있게 가르친다면 보다 낫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6. 결말

문화언어학과 인지언어학을 접목한 학문적 시각에서 한국어를 조명한다면 한국어구조 속에 투영된 문화인자를 더 많이 찾아낼 수 있어서 한국어 연구와 교육의 세계화에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원문화와 음식문화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본다면, 중국문화는 인공적인 멋과 맛을 즐기는 주관성이 돋보이는 문화이고 한국문화는 자연적인 멋과 맛을 그대로 살리는 객관성이 돋보이는 문화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사고방식과 인지방식이 언어에 투영되면서 언어구조는 문화인자로 네트워크화된다.

주관성이 돋보이는 중국문화는 주체의식이 강한 ‘자기중심의 중국어’를 만들어냈고 객관성이 돋보이는 한국문화는 객체의식이 강한 ‘상대중심의 한국어’를 만들어냈다.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의 중국어’는 주체와 객체를 융합된 하나로 보는 중국인의 “天人合一”의 整體性思惟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상대

중심의 한국어는 주체와 객체를 분리시키면서도 객체에 더 많은 각광을 보내는 한국인의 “重客體, 輕主體, 依据自然”, “天地人三才”의 客體性思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어를 자기중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와 비교해 볼 때, 중국어는 언어표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기중심적이어서 언제나 화자가 이야기 구심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를 상대중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중국어와 비교해 볼 때, 한국어는 언어표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객체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화자(주체)보다 상대방(객체)에 항상 이야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상대방(객체)이 이야기 구심점에서 각광을 받는다.

단계 높은 한국어 교육은 반드시 문화언어학과 인지언어학 이론이 함께 조망된 한국어문화 교육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가 기대하는 바로, 그간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발음 교육은 음절의 문화-인지구조 해부로부터 진행할 수 있다.

음절구조상 한국어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3등분되고 음절구성에서 제약이 적어 음절수가 많고 폐음절이 많다. 중국어는 聲母와 韻母로 양분되고 음절구성에서 제약이 많아 음절수가 적고 폐음절이 없다. 그러므로 발음단위로 볼 때, 낱말중심(詞中心)의 한국어는 음운변화가 특별히 많고 글자중심(字中心)의 중국어는 음운변화가 별로 없다.

(2) 어휘 교육은 어휘의 문화-인지구조의 대응관계로 진행할 수 있다.

한국어가 어휘구성에서 상징어가 그 언어보다 풍부하다는 것은 한국인의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자연의 맛과 소리, 모양을 그대로 살리려는 객체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어휘구성에서 한국어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되었지만 중국어는 고유어와 외래어로 되어 있다. 한국어에서 형용사 어휘장을 살펴보면, 감각형용사, 심리형용사, 성상형용사 대부분이 고유어로 구성되었다면 판단형용사, 태도형용사와 같은 주관형용사들은 흔히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어에서 한자어로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이것은 표의문자로서의 한자의 우수성으로 평가할 만도 하지만 문화-인지학적으로 본다면 추상적 개념을 고유어로 표기하기 이전에 벌써 한문화(漢文化)가 밀물처럼 수입된 것 과도 관련된다.

객관세계를 등분할 때에도 한국어는 각광을 주체보다 객체에 더 많이 보내는 관계로 지시대명사 분류체계에서 중국어와 불완전대응 현상이 나타난다.

(3) 문법 교육은 문법의 문화-인지구조에 나타난 인간의 사고방식과 인지방식에 대한 비교로부터 진행할 수 있다.

어순상 사고의 흐름을 반영하는 한국어는 중국어보다도 객관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언어임을 알 수 있었다.

언어 표현방식은 주관적인 표현방식과 객관적 표현방식으로 갈라볼 수 있는데, 한국어는 흔히 객관적 표현방식을 선호하고 중국어는 흔히 주관적 표현방식을 선호하고 있었다.

같은 사물에 대한 인지방식에서도 한국어와 중국어가 서로 다른 점이 많았다.

한국어에서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를 검색한다.”라고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上網查資料(인터넷에 올라 자료를 검색한다)”라고 한다. 한국어에서는 텔레비전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텔레비전에 나오다”라고 표현한다면 중국어에서는 “上電視(텔레비전에 오르다)”라고 한다. 즉 한국어 인지구조에서는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을 닫힌 공간인 ‘집(박스)’으로 인지한다면 중국어에서는 열린 공간인 ‘무대’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고방식으로 볼 때, 한국어는 상대 중심적이고 중국어는 자기중심적이다. 인지방식으로 볼 때, 한국어는 객체에 각광을 많이 보냄으로써 객관적이고 중국어는 주체에 각광을 많이 보냄으로써 주관적이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이나 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중국어교육에서 이 점을 시시각각 명기시킨다면 더욱 효과적인 언어문화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강보유(2002ㄱ) 「문화언어학 시각으로 본 한국어문법교육」,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III』, 태학사, 93-105.
- (2002ㄴ) 「중국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교수법」, 『한국어 교육』 제13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19.
- (2005ㄱ) 「사유방식으로부터 본 한국어의 문화적 특징」, 『조선-한국언어문학 연구』 제2집, 연변대학 조선언어문학학과, 19-31.
- (2005ㄴ) 「한국어 교육의 문화적 접근방법-문화투영교수법」, 『韓國(朝鮮)語 教育研究』 제3호, 中國 韓國(朝鮮)語 教育研究學會, 143-157.
- (2007)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연구』 제2호, 배재대학교 한국어교육연구소, 121-138.
- 김진우(2004) 『言語와 認知-츨스키의 內在理論 分析』, 한국문화사.
- 데이비드 리 지음, 임지룡 김동환 옮김(2003) 『인지언어학 입문』, 한국문화사.
- 베른트 하이네 저, 이성하 구현정 번역(2004) 『문법의 인지적 기초』, 도서출판 박이정.
- 박종갑(2003) 『토론식 강의를 위한 국어의미론』(개정판), 도서출판 박이정.
- 박철우(2003) 『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도서출판 역락.
- 윤평현(2006) 『현대국어 접속어미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 (2008) 『국어의미론』, 도서출판 역락.
- 이기동 편저(2000) 『인지언어학』, 한국문화사.
- 이수련(2001) 『한국어와 인지』, 도서출판 박이정.
- 이종철(2004) 『국어 표현의 화용론적 연구』, 도서출판 역락.
- 임지룡(1999)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 (2006) 『말하는 몸-감정 표현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 임혜원(2004) 『공간 개념의 은유적 확장』, 한국문화사.
- 최길시(199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실제』, 태학사.
- 戴昭銘(1996) 『文化語言學導論』, 語文出版社.
- 藍純(2005) 『認知語言學與隱喻研究』,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 盧植 編著(2006) 『認知與語言-認知語言學引論』, 上海外語教育出版社.
- 馬清華(2000) 『文化語義學』, 江西人民出版社.
- 潘文國(2002) 『字本位與漢語研究』, 華東師範大學出版社.
- 孫亞 編著(2008) 『語用和認知概論』, 北京大學出版社.
- 熊學亮(2000) 『認知語用學概論』, 上海外語教育出版社.
- 許余龍 編著(2002) 『對比語言學』, 上海外語教育出版社.

- 申小龙(1996) 『文化语言学论纲』, 广西教育出版社.
- (2003) 『汉语与中国文化』, 复旦大学出版社.
- 沈家煊(2006) 『认知与汉语语法研究』, 商务印书馆.
- 石毓智(2008) 『认知能力与语言学理论』, 学林出版社.
- 伍铁平(1997) 『语言和文化评论集』, 北京语言文化大学出版社.
- 姚小平(1995) 『洪堡特-人文研究和语言研究』,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 王寅 编著(2006) 『认知语法概论』, 上海外语教育出版社.
- 王作新(1999) 『汉字结构系统与传统思维方式』, 武汉出版社.
- 游汝杰(2003) 『中国文化语言学引论(修订版)』, 上海辞书出版社.
- 赵爱国 姜雅明(2003) 『应用语言文化学概论』, 上海外语教育出版社.
- 赵艳芳(2005) 『认知语言学概论』, 上海外语教育出版社.
- 朱文俊(1994) 『现代英语语言与文化研究』, 北京语言学院出版社.
- 陈建生(2008) 『认知词汇学概论』, 复旦大学出版社.
- 程琪龙(2007) 『概念框架和认知』, 上海外语教育出版社.
- 邢福义 主编(2000) 『文化语言学』, 湖北教育出版社.
- 何自然 主编(2006) 『认知语用学』, 上海外语教育出版社.

# 접촉언어학으로 본 동북아시아 세 민족언어의 혼종어

장 흥 권

중국 중앙민족대학

## 1. 접촉언어학과 혼종어에 대한 국내외 학자들의 논술

지난 세기 80년대부터 영국, 미국, 소련(로씨야) 등 나라들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저서들에 “접촉언어학” 또는 “언어접촉학”이라는 언어학의 새로운 학과명칭이 쓰이였다. 유럽의 언어학자들이 발표한 논문들에 의하면 언어학분야의 신흥분과의 하나인 “접촉언어학(Contact Linguistics)”이라는 이 새로운 학술용어는 1979년 벨지끄의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제1회 국제언어접촉및언어충돌대회에서 처음으로 씌였다고 한다.<sup>1</sup>

본래 사회언어학에서 “언어접촉”연구라는 제목으로 다루어져오던 연구과제가 언어과학의 급속한 발달과 사회적 언어현상에 대한 언어학자들의 인지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그 연구내용이 증대되고 연구범위가 확대되며 그 학과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언어접촉”에 관한 종합적 연구는 사회언어

---

1 P. Sture Ureland(1990), 'Contact linguistics: Research on Linguistic Areas, Strata, and Interference in Europe'(ed. C. Polomé), *Research Guide on Language Change*, Mouton de Gruyter, p.472 ; Vladimir Ivir(1991), 'Contrastive Methods in Contact Linguistics'(ed. Vladimir Ivir, Damir Kalogjere), *Language in Contact and Contrasts*(Essays in Contact Linguistics), Mouton de Gruyter, pp.237-238.

학에서 갈라져 나와 언어학의 신흥분과의 하나로서 “접촉언어학”이라는 새로운 자립적학과를 이루었다.

“접촉언어학”이라는 술어는 영어를 번역한 말이고 로씨야어에서는 그 대응어를 “언어접촉학(Лингвистическая контактология, 『언어학문제』로 문관, 1997: 147)”이라고 이른다. 접촉언어학에서는 언어들사이의 접촉에 의하여 생성되는 언어요소의 차용, 이언어사용(이중언어), 코드전환, 언어환용, 언어간섭, 언어동맹, 언어혼합, 언어보존, 언어소실 및 다언어점용 등 여러가지 언어적 현상들을 그 연구대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 고찰하고 검토하게 되는 혼종어(hybrid word)도 상이한 언어들간의 접촉에 의하여 형성된 복합형(합성형)말마디를 일컫는 용어이다. 말하자면 혼종어는 언어들간의 접촉에 의하여 한 언어에 차용된 외래적 요소와 본 민족언어의 기존적 요소가 어울려 새로 이루어진 혼합적인 말마디(단어, 단어결합을 망라하여)를 가리켜 이른다. 따라서 혼종어도 언어접촉론의 시점에서 고찰하고 연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신흥학과인 접촉언어학의 시점에서 동북아시아 세 민족언어의 혼종어를 대조하고 연구한 실례는 없다 싶이 되어있다.

### 1.1.1. 혼종어에 대한 아메리카와 유럽 학자들의 론술

세계 여러 나라 언어학자들의 논저를 더듬어보면 혼종어의 술어와 정의 및 사용실태 등에 대하여 이미 미국과 유럽의 언어학자들이 적지 않게 론술하였음을 알수 있다.

미국의 유대인출신의 언어접촉연구학자이며 언어접촉에 관한 유명한 저서 『접촉중의 언어(Language in Contact)』<sup>2</sup>를 일찍 1953년에 집필하여낸 유리엘

---

2 Uriel Weinreich, 1996, *Languages in Contact—Findings and Problems*, The Hague: MOUTON & CO, p.52.

와인라이흐(Uriel Weinreich, 1926-1967, 컬럼비아대학교수)는 그 영문판 저서 제52페이지에 영문술어 “혼종복합어(hybrid compound)”를 무려 다섯차례나 사용하였다. 그는 그 저서에서 “혼종복합어”라는 술어를 적용하여 영어단어와 노르웨이어단어가 어울려 조성된 미국식 노르웨이어혼종어, 영어요소와 독일어요소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미국식 독일어혼종어 등을 그 실례로 들어 서술하였다. 그 “혼종복합어”라는 용어는 간략하여 “혼종어”라고 쓸수 있다.

미국의 다른 한 언어접촉연구학자이며 일찍 미국에 정착한 노르웨이출신의 이민가정에서 출생한 아이너 호근(Einar Haugen, 1906-1994, 위스컨신대학교수)은 1950년대에 언어차용과 이언어사용 등 언어접촉에 관하여 저술하였다. 그는 1950년에 미국의 영문잡지 『언어(Language)』에 발표한 논문 「언어차용에 대한 분석」에 술어 “차용혼성어(loan blend)”를 쓰고 “외래어”와 “차용혼성어”를 갈라 보았다. 그는 “차용혼성어”는 전통적 의미에서 쓰인 “혼종어”와 “비슷하다”고 하고 이 두 용어는 “외래어”와 다르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는 차용혼성어(loan blend, 외래적요소와 본국의 요소로써 조성된 복합어)는 “전통적의미의 혼합어(hybrid)와 비슷하다”<sup>3</sup>고 하였다. 여기에 쓰인 번역어 “혼합어”의 영어원말은 바로 우리가 지금 옮겨 쓰고 있는 용어 “혼종어”의 원어와 똑같은 말이다. 영어로는 “hybrid”라고 한다. 이와 같이 호근은 “차용혼성어”와 “혼종어”의 류사성을 지적하고 이 두 용어와 “외래어”는 전혀 다른 개념과 특징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하였다.

미국사람으로서 일찍 한어(중국어)와 일본어를 잘 파악하고 한어교수를 맡아본 리력을 갖고 있는 언어학자 찰즈 프란시스 호케트(Charles F. Hockett, 1916-2000, 코넬대학교수)도 저서 『현대언어학교정』(1958)에서 조선어와 일본어는 쉽게 한어로부터 단어를 차용하는데 한어의 동사를 차용하여 본 민족어의 요소를 덧붙여 겸용하는 방식으로 새 동사를 만들어 쓴다고 하였다.

3 方欣欣, 2007, 「語言接觸研究方法論的探索—Haugen對借詞類型學及雙語研究的貢獻」, 『首都外語論壇』第2輯, 中央編譯出版社, 549.

즉 “차용한 동사를 복합어의 첫 요소로 하고 두번째 요소는 의미가 아주 일반적인 본 민족어의 동사이간(일본어 suru ‘する’, 조선어 ha ‘하-’)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한어의 sanbu ‘散步’를 일본어에서 sanpōsuru ‘散歩する’로 만들어 쓴다. 본 민족어의 동사이간을 사용하는것은 일본어와 조선어의 굴절요소를 순조롭게 첨가하기 위하여서이다. 이는 한어의 원형에 없는것이다.”<sup>4</sup>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호케트는 이와 같은 차용혼성어(loan blend)는 외래어(loan word)와 다르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두 언어의 요소가 어울려 이루어진 단어는 혼종어인 것이다. 요컨대 “혼종어”와 “외래어”는 그 개념과 특징이 다른 학술용어이다.

썰런시대로부터 조선어 교수와 연구에서 그 이름이 잘 알려져있는 로씨야 언어학자 유리이 니콜라예위치 마주르(Юрий Николаевич Мазур, 1924-1998, 모스크바대학교수)는 1961년에 발표한 논문 「조선어단어구조」<sup>5</sup>에서 조선어는 동사와 형용사 만들기에서 “접미사적단어” “-하다”를 단어조성의 수단으로 적용한다고 서술하였다. 그는 또 단어 “하다”를 응용하여 새 단어를 조합에 있어서 동사조성에 열여섯가지 혼합적 유형이 있고 형용사조성에 열일곱가지 혼합적 유형이 있다고 하였다. 그중에 동사조성에는 “고유어요소+하다”형이 아홉가지가 있고 “한자어요소+하다”형이 일곱가지가 있으며 “외래어요소+하다”형이 한가지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주르는 조선말의 “하다”는 단어만들기에서 생산성이 아주 강하다고 서술하고 계속하여 고유어요소, 한자어요소, 외래어요소들과 “하다”가 결합되어 조성된 단어는 “혼합형단어(Слова смешанного типа)”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교원질, 반방어리”, “식빵, 엑스선, 필립창(고)” 등 조선어의 한자어와 고유어, 한자어와 외래어, 외래어와 한자어 등이 어울려 이루어진 합

4 霍凱特, 1958, 『現代語言學教程』(下), 索振羽, 葉蜚聲譯, 北京大學出版社, 1988, 131.

5 Ю.Н.Мазур, 1961, 「Структура слова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Восточной Литературы, Стр.129-132.

성어를 그 용례로 들었다. 또 마주르는 조선어에서 “새말이 접미사적 단어의 수단으로 끊임없이 조성된다”고 하고 ‘하다’의 도움을 받아 타동사, 자동사, 형용사가 이루어진다”고 론술하였다(1961: 131). 그 “혼합형단어”라는 용어를 오늘날 우리가 쓰는 술어로 바꾸어 이른다면 “혼종어”라고 할수 있다.

이탈리아의 한어학자 마시니(Masini, 로마대학 동방연구소 연구사)는 1993년에 미국에서 발행되는 『중국언어학보』(영문판)의 전문적 총서의 제6권으로 출판한 저서 『현대한어어휘의 형성-19세기 한어외래어연구』에서 “음역어와 혼합어(즉 “음차어와 혼종어”)를 하나의 소제목으로 설정하고 근대한어의 혼종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혼합어의 창조는 적어도 외래어흡수에 있어서 한어가 겪는 어려움을 완화시켰다. 혼합어는 차용어에 본민족어의 성분을 가침하여 조성한것이다. 이 본 민족어의 성분은 보통 음역어의 의미의 류형과 소속을 표시한다.……본 민족어의 성분은 일반적으로 음역어의 뒤에 가침한다. 본 민족어의 성분의 기능은 2음절어의 뒤에 가침하는 접미사적 단어조성요소와 류사하다. 한어에 이와 같은 혼합어는 일찍 19세기 이전에 있었다. 특히 ‘종교’를 가리키는 본 민족어 성분인 ‘교’자는 외국의 종교명칭과 어울려 혼합어를 조성하였다.”<sup>6</sup> 그는 계속하여 이와 같은 혼합어는 한어에 이미 일찍 19세기 이전에 씌었다고 지적하고 한어의 단어조성요소 “교”가 어근적요소 “기독교”에 가침되어 “기독교+교”라는 새말이 이루어진것을 그 용례로 들고 이 말은 영어의 “Christianity”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석하였다.

마시니는 그 책의 주해에서, 근대에 출판된 한어저서들에 쓰인 혼종어들을 용례로 들었다. 그 혼종어 용례를 원어와 대조하고 현대한어의 용법과 대비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6 Federico Masini, 1993, *The Formation of Modern Chinese Lexicon and its Evolution toward a National Language—The Period from 1840 to 1898*, Translated by Huang Heqing ; 馬西尼, 1997, 『現代漢語詞彙的形成—十九世紀漢語外來詞研究』, 黃河清譯, 漢語大詞典出版社, 167-168.

근대혼종어	단어조성	원어	현대한어 표기
必耳酒	必耳+酒	beer	啤+酒
來夫大炮	來夫+大炮	rifle	來复+槍
巴里滿衙門	巴里滿+衙門	parliament	議會, 国会
冰積凌	冰+積凌	ice cream	冰+激凌, 冰+淇淋

보는바와 같이 “맥주”, “라이플”, “팔러먼트”를 나타내는 외래적 요소에 한어의 기존적 요소 “酒(주)”, “大炮(대포)”, “衙門(아문)” 등이 가침되어 새로운 혼종적 단어를 이루었다. “아이스크림”은 절반(앞부분)을 의역하고 절반(뒤부분)을 음차한 것이다. 외래적 요소와 한어의 기존적 요소가 결합되어 새 혼종어를 이루어놓았다.

로씨야 한어학자 올라지미르 이와노위치 고렐로브(Владимир Иванович Горелов)는 저서 『중국어어휘론』(1984)에서 “현대한어에는 어음적 및 의미적 차용어 이외에 혼합적 조성어(смешанные образования)도 존재한다”고 서술하고 또 “어음-의미적 차용어는 각이한 저작에서 같지 않게 표현되는데 반(半)모조어, 반(半)음차어, 혼종어(гибридные слова), 혼종적 차용어(смешанные заимствования)라고 한다”<sup>7</sup>고 지적하였다. 고렐로브는 여기에서 로어술어 “혼종어”와 “혼종적 차용어” 등을 동의어라고 간주한 것으로 된다. 그리고 그 용례로는 “摩托车, 喇嘛教, 芭蕾舞, 卡宾槍, 沙丁魚, 霓虹灯, 啤酒” 등을 들었다.

우의 여러 번역문에서 쓰인 “혼합어”와 “음역어”는 본 논문에서 쓰는 말로 고쳐 이르면 “혼종어”와 “음차어”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유럽과 아메리카의 언어학자들은 언어접촉리론의 시점에서 동북아시아의 언어들에서 쓰이는 외래어와 혼종어를 갈라보았다.

상술한바와 같이 호케트와 마주르 그리고 마시니와 고렐로브 등 외국학자

7 В.И.Горелов, 1984, 『Лексикология китайского языка』, Москва: Просвещени е, стр.149.

들은 일찍 동북아시아의 언어들에 실재하는 혼종어에 대하여 론술하였다. 사실인즉 외국의 언어학자들은 각기 특수한 “관중 또는 방관자”로서 다른 언어들에 내재해있는 특징을 옳게 보아낼 수도 있는 것이다. 주리언 로스 폴 킹은 런던대학 재직시절에 이 면에서의 외국학자들의 독특하고도 유리한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는바 여기에서 그 표현을 새삼스럽게 상기하여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어학연구를 할 때 서양학자들은 국내학자는 가질수 없는 적어도 한가지 유리한 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할수 있다. The spectator has a better view of the game[즉 관중(‘방관자’라고 번역할수도 있음-인용자)에게는 시합이 더 잘 보인다]. 숙련된 외국학자는 국내학자가 혹 볼수 없는 문제나 해결책을 볼수 있는 점이다. 이는 영어학자가 자신의 모국어를 연구하는데 맹점이 있는것과 마찬가지로이다.”<sup>8</sup>

## 1.2. 혼종어에 대한 동북아시아 언어학자들의 론술

일본어휘론학자 다나카 아끼오는 1978년에 출판한 저서 『국어어휘론』<sup>9</sup>의 제6장 “어휘의 분류”의 제2절 “어종에 의한 분류”에서 일본말어휘를 고유어(和語), 한자어(漢語), 외래어(外來語), 혼종어(混種語) 등 네가지로 분류하였다. 그중 혼종어는 “어종이 상이한 요소로 이루어진 단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그 유형은 “고유어+한자어, 한자어+외래어, 외래어+고유어”로 구성된 단어 등 세가지가 있다고 서술하였다.

21세기 초에 이르러 일본에서 나온 언어학저서들에서도 여전히 혼종어를 일종 자립적인 어휘류형으로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저서 『현대일본어강좌』 제4권 어휘편<sup>10</sup>에 실린 논문 「(단)어와 어휘구조」(필자: 사토 다께요시)에서

8 J. R. P. King, 1992, 「북미의 한국어연구」, 고영근 외 편, 『국어학연구백년사』, 일조각, 893.

9 田中章夫, 1978, 『国語語彙』, 明治書院, 137-139.

는, 일본국립국어연구소에서 1964년에 펴낸 『현대잡지 90종의 용어용자분석』에 수록된 어휘자료를 인용하여 일본말어휘체계에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책에 실린 다른 한편의 논문 「현대일본어의 기원」(필자: 히다 요시후미)에서는, “일본어 새말의 어종구조”라는 제목으로 도표를 그려놓고 일본말혼종어는 외국어에서 차용한 “서양어, 양어(즉 외래어)”가 아니라 일본사람에 의하여 조성된 “일본인의 조어(日本人の造語)”<sup>11</sup>라고 하였다. 일본말 혼종어는 “일본말 고유어, 일본제 한자어, 일본제 서양어” 등과 함께 일본인들이 만든 일본말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혼종어는 서양어(즉 외래어)가 아니고 일본제 단어라는 것이다.

일본에서 1996년에 출판된 『언어학대사전』 제6권 술어편<sup>12</sup>에서는 영어술어 “hybrid”를 “혼혈어”라고 직역하였다. 그리고 영어단어 “beautiful(아름다운, 고운, 멋진)”은 프랑스어와 영어 두 언어요소의 혼합으로 조성되었고 또 영어단어 “bear-able(참을수 있는, 견딜수 있는)”은 영어와 프랑스어 두 언어의 요소의 혼성으로 이루어졌다고 서술하였다(제6권, 1996: 594). 그후 1998년에 일본에서 간행된 종합사전 『광사원』(제5판, 1998: 1022)에서는 그 영문술어 “hybrid”를 “혼종어”라고 옮겨놓고 그 올림말의 뜻풀이에서 혼종어는 각기 다른 언어에 그 기원을 둔 둘 이상의 요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였다.

서울에서 출판된 김종택 저 『국어어휘론』<sup>13</sup> 제3장에는 어종에 의한 어휘분류표가 실렸는데 고유어는 44.48%, 한자어는 45.41%, 외래어는 3.03%, 혼종어는 7.08%로 나타났다. 김종택은 “혼종어란 고유어와 한자어 혹은 고유어와 외래어, 혹은 한자어 등이 둘 이상 모여 이루어진 경우를 이르는 것이다.”라고

10 佐藤武義, 2002, 「語と語彙構造」, 『現代日本語講座』 第4巻〈語彙〉, 明治書院, 6.

11 飛田良文, 2002, 「現代日本語の起源」, 同上書, 72.

12 亀井孝 外, 1996, 『言語学大辞典』 第6巻, 三省堂, 594.

13 김종택, 1993, 『국어어휘론』, 탑출판사, 124.

서술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가령 ‘젓산박테리아’ 경우는 삼중혼성을 이루고 있으며 ‘스무드하다’는 이중혼성을 이루고 있다.”고 혼종어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김종택은 여기에서 외래적 요소 “스무드(원만하다, 원활하다, 유연하다, 류창하다, 순조롭다)”와 우리말의 동사 및 형용사 조성의 활약적 요소인 “하다”가 어울려 이루어진 단어를 혼종어라고 설명하였다.

서울에서 간행된 리석주와 리주행 저 『국어학개론』(합저)의 〈문법론편〉<sup>14</sup>에서 혼종어는 “어원이 다른 단어들에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다. 국어의 혼종어는 고유어와 외래어, 외래어와 외래어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져있다(2000: 85).”고 해석하고 단어 “고무신, 나일론 옷, 우승컵, 잉크병, 버터빵(즉 빵)” 등을 그 용례로 들었다.

2005년 초에 평양에서 출판된 언어학자 최완호의 저서 『조선어어휘론』<sup>15</sup>에는 혼종어라는 용어가 무려 여섯차례나 쓰였다. 최완호는 ‘혼종어’란 ‘고유어와 한자어’, ‘고유어와 외래어’, ‘한자어와 외래어’ 요소가 섞여있는 단어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그는 또 “단어조성에서 고유어말뿌리와 한자어 및 외래어 말뿌리들이 서로 어울려 이루어지는 혼종어조성상태를 분석”하였다. 그가 분석한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한자어요소+고유어요소(병마개)
- 2) 외래어요소+고유어요소(펜대)
- 3) 외래어요소+한자어요소(잉크병)

최완호는 그밖에도 이 세 유형에 속하는 용례를 스무개나 더 들었다. 그는 오늘날 혼종어연구의 실태와 금후 연구방향에 대하여 논급하면서 “오늘날 대부분 특히 일반어에서는 고유어말뿌리와 한자말말뿌리의 결합이 매우 생산적

14 이석주·이주행, 2000, 『국어학개론』, 대한교과서주식회사, 85.

15 최완호, 2005, 『조선어어휘론』, 사회과학출판사, 102-106.

으로 이루어지면서 두 요소들이 섞여서 조성된 혼종어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또한 “고유어와 한자어, 외래어의 말뿌리들이 어울려 결합된 혼종어에서 어느 요소와 어느 요소가 가장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어느 요소들의 어울림이 생산적인가 하는것을 과학적으로 계량한 조사자료는 아직 없다.”고 하였으며 혼종어에 대한 정밀한 계량적 연구의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조선언어학자 문영호는 2005년에 펴낸 저서 『조선어어휘통계학』에서 조선어의 혼종어적현상을 다음과 같이 론술하였다. 조선어를 “품사별로 고찰하여 보면 형용사, 동사, 부사, 감동사, 대명사에는 원칙적으로 한자말과 외래어가 없다. 다만 ‘-하다’, ‘-되다’, ‘-시키다’, ‘-히’, ‘-이’ 등의 보조적 단위나 뒤붙이가 붙은 명사적인 형용사, 동사, 부사들이 일부 있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한자어나 외래어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은 자립적인 명사에 보조적 단어나 뒤붙이가 붙어서 이루어진 ‘건설하다’, ‘용맹하다’, ‘리용되다’, ‘발전시키다’, ‘조용히’ 등과 같은 단어들에서 한자말말뿌리는 철저히 명사이며 새 품사파생의 단위는 고유어인 만큼 단어전체를 놓고 한자말이라고 보기 곤란하기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의 외래어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sup>16</sup>라고 하였다. 문영호는 외래적 요소에 “하다” 등 고유어요소가 붙어 이루어진 단어를 한자어 또는 외래어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하여보면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학자들은 언어접촉에 의하여 생성된 혼종어에 관하여 그 개념을 바르게 해석하고 정의를 옹계 규명하였으며 동북아시아의 여러 언어들에 혼종어가 실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혼종어와 외래어를 혼동시하지 말고 갈라 보아야 한다고 론술하였다. 외래어는 다른 언어에서 들어온 말이지만 혼종어는 해당 민족의 사람들이 외래적 요소와 자민족어의 요소들을 적용하여 이루어놓은 자민족어의 말마디로서 확실히 외래어와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동북아사

---

16 문영호, 2005, 『조선어어휘통계학』, 사회과학출판사, 70.

아의 세 언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공통적인 언어현상이라고 할수 있는 이와 같은 혼종어에 대하여 이 세 언어의 실제적 어례를 들어 서로 대조하고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싶이 되어있다.

## 2. 세 민족언어의 혼종어 용례들에 대한 대조와 분석

상술한 언어학자들의 논술에 의하면 동북아시아에서 쓰이는 일본어, 조선어/한국어, 한어(중국어)에는 모두 혼종어라고 명명할수 있는 언어적 현상이 존재한다. 이는 이 세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세 민족의 인민들이 오랜 시기를 지내오는 행정에 문화, 경제, 외교, 군사, 정치 등 여러 면에서 각종 형태로 교류와 접촉이 빈번히 진행됨과 더불어 세 언어간에 접촉이 잦았던 사실과 관련된다. 그밖에 근대에 이르러 서양의 문화와 신형적문물이 동북아시아에 전파되어온 까닭에 이 세 언어는 유럽의 여러 언어들과 접촉하고 그 영향을 받은 실정과도 관계된다. 이 세 언어에서 쓰이는 혼종어의 실태를 고찰하고 검토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 2.1. 일본어

일본어는 일찍 동북아시아의 언어 그리고 유럽의 언어들과 접촉이 잦았다. 같지 않은 력사적 시기에 전후하여 조선과 중국 그리고 뽀르뚜갈, 화란, 에스빠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미국, 로씨야 등 여러 나라의 언어요소들이 일본어에 영향을 미치였다. 따라서 일본어에는 한자어와 외래어가 차용되었을 뿐 아니라 외래적 요소와 일본말요소가 어울려 이루어진 합성형단어들이 나타났다. 일본말혼종어는 다음과 같은 류형으로 갈라 분석할수 있다.

1) 외래어+고유어:

일본말혼종어	조선말뜻	일본말혼종어	조선말뜻
ゴム+ぐつ(靴)	고무신	ペン+さき(先)	철필촉
トタン+やね(屋根)	함석(백철)지붕	デート+する	데(이)트하다

2) 고유어+외래어:

なま(生)+ビール	맥주	きつて(切手)+ブーム	우표열
あめ(雨)+ガツパ	비웃	ハイカラ+な	하이칼라적인

3) 외래어+한자어:

マイカー+ぞく(族)	마이카족(자가용차족)	アルカリ+せい(性)	알카리성
ツンドラ+ちたい(地帯)	동토지대	ガス+ 燈	가스등

4) 한자어+외래어:

せいよう(西洋)+パン	서양빵	はん(半)+ドン	반날휴식(명치시대 말)
しん(新)+きやべツ	새 양배추	郵便+ポスト	우체통, 우편함

5) 고유어+한자어

みはり(見張り)+役	파수구역, 경계감시직	てない(手内)+職	가내소부업
しはらい(支払い)+額	지불액	うす+ 茶	물은차

6) 한자어+고유어:

代表(だいひょう)+がわ(側)	대표측	運動+する	운동하다
検討(けんとう)+する	검토하다	客+ひき	손님끌어들이기

7) 외래어+외래어:

テーマ+ソング(독일어+영어) 주제가   カフス+ボタン(영어+뽀르뚜갈어) 소매단추

일본어에는 외래어가 많을뿐만 아니라 혼종어도 비교적 많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일본 언어학자들은 많이 논급하였다. 레를 들면 언어학자 미야지마 다쓰오(1977: 25)와 이시와다 도시오(1982: 123) 등이 그와 같이 논하였다. 그밖에 언어학자 긴다이찌 하루히코(1913-2004)는 저서 『일본어』<sup>17</sup>에 설정한 소제목 “혼종어”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화어(和語, 즉 일본말고유어), 한어(漢語, 즉 일본말한자어), 양어(洋語, 즉 일본말외래어)는 일본어의 어휘를 구성하는 세 요소들로서 가끔 이 요소들이 어울려 하나의 단어를 만드는

17 金田一春彦, 1990, 『日本語』(上), 岩波書店, 152.

경우도 있다. 화어와 한어의 어울림은 특히 많고 “花形スター”(“명인”의 의미)는 화어와 양어의 복합어이고 “シャンソン歌手”(“민가가수”의 의미)는 양어와 한어의 복합어이며 “貸しポート業”(“빚트전세업”의 의미)는 화어, 양어, 한어의 복합어이다(1990: 152).

이와 같이 일본어에는 이중혼종어와 삼중혼종어 등이 있고 외래어와 외래어가 결합되어 조성된 새 형의 혼종어도 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일본말혼종어는 일본사람들이 여러가지 상이한 언어들의 요소를 적용하여 만든 혼종적인 말마디이다.

## 2.2. 조선어/한국어

조선어/한국어의 어휘구성에는 고유어를 위주로 하고 한자어와 외래어 그리고 혼종어가 있다. 조선어의 혼종어도 몇 가지 유형으로 갈라 고찰할수 있다. 다음에 분석하는 용례는 평양에서 2004년에 출판한 새로운 규범적중사전인 『조선말사전』<sup>18</sup>에서 인용하였다.

### 1) 고유어+한자어:

따발+총    몸+보신    접이+우산    갑작+부자    고개+인사    목+운동

### 2) 고유어+외래어:

속+샤쯔    오목+렌즈    옷+뺨    피리+필립    앓은+레스링    군+고구마

### 3) 외래어+고유어:

발레+춤    구두+술    디스코+춤    노다지+관    삼광+술    가스+구멍

### 4) 한자어+고유어:

강+추위    방언+섬    창+가림    인삼+술    강녕+하다    약간+하다

### 5) 한자어+외래어:

수중+발레    이심+케블    전자+피아노    탐식+이파트    현관+홀    유선+텔레비존

18 조선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2004, 『조선말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6) 외래어+한자어:

빈+침    짚+차(찌프+차)    삼광+주    꼴+문    이슬람+교    레닌+주의  
보링+경기    샤프+연필    까츄샤+포    인터넷+우편    텔렉스+방송망  
로만+어군    메카+성지    메타+언어    오세안+주    로보트+화    콩클+대회

7) 외래어+외래어:

비닐+가방\* ←vinyl(영어)+카バン(일본어), 또는 vinyl+cabas[kabal(프랑스어)  
기포+구두 ←kid(영어)+kut(일본어, 일본말규슈방언)

8) 외래어+한자어+고유어:

리트머스+시험+종이(litmus[영어]+試驗+종이) 등

우의 용례와 비슷한 내용으로서, 조선학자 정태순은 최근에 발표한 논문 「언어의 분절성과 우리 말 단어의 유형에 대한 몇 가지 고찰」에서 조선어의 말뿌리는 기원적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곱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고 하였다.<sup>19</sup>

1) 고유어(례: 올리뛰기), 2) 한자어(례: 군민일치), 3) 외래어(례: 비닐테프), 4) 고유어+한자어(손수건, 학습하다), 5) 고유어+외래어(례: 속빵, 담배종이), 6) 한자어+외래어(례: 정보센터, 케블선), 7) 고유어+한자어+외래어(례: 컴퓨터조작솜씨, 안테나선늘이기)

이상의 일곱가지 유형 가운데서 4), 5), 6), 7) 부류에 용례로 쓰인 합성어들은 각기 상이한 어종에 그 기원을 둔 어근적 요소들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말마디들이다. 말하자면 기원이 다른 어종의 어근적 단어들 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혼종어인 것이다.

한국학자 리주행은 2008년 10월에 북경에서 있는 한 학술토론회에서 발표한 논문 「한국어 문장구성양상의 통시적고찰」<sup>20</sup>에서 우리말의 어휘구성을 통

19 정태순, 2006, 「언어의 분절성과 우리 말 단어의 유형에 대한 몇 가지 고찰」, 『조선어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 21.

시적으로 고찰하고 혼종어조성의 시대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940년 이전에 쓰인 혼종어는 ‘공부하다, 운동하다’와 같이 한자어와 한국어 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최근에는 한국어어휘 가운데 ‘디스카운트하다, 심플하다, 와일드하다’ 등과 같이 영어와 한국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혼종어가 많이 쓰인다.”

서울에서 나온 김혜숙 저 『현대국어의 사회언어학적연구』<sup>21</sup>에서는 서울지역의 간판언어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어휘사용양상을 계량적 방법으로 통계내었으며 외래어와 혼합어(즉 혼종어)를 갈라보고 혼합어를 “고유어+한자어, 고유어+외래어, 한자어+외래어”로 분류하여 그 통계물을 보여주었다. 또한 간판에 쓰인 혼종어의 용례로서 “추억만들기, 작은세상” 등 고유어와 한자어의 결합으로 된 단어가 32.32%, 그리고 고유어와 외래어의 결합으로 조성된 단어 “빨강립스틱, 노란리본” 등이 27.24%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중국의 조선족언어학자 류은중도 저서 『조선어어휘론』에서, “외래어감이 없을 정도로 조선어에 침투된 단어들은 고유어 또는 한자어와 어울리어 혼합적 단어를 이룬다.”<sup>22</sup>고 지적하였고 또 “노크하다”, “싸인하다”에서와 같이 “하다”가 어울리어 명사를 동사로 품사의 성격을 바꾸어 놓은 것도 있다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조선어학계에서 발표된 한편의 논문에서는 “차용어와 혼종어를 갈라볼 필요가 있다”고 하고 혼종어는 외래어도 한자어도 아니며 외래적 요소와 고유적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혼종적인 말마디라고 정의하였다. 그밖에 연길에서 「우리말의 혼종어에 대하여」라는 전문적 논문도 발표되었다.<sup>23</sup>

20 이주행, 2008, 「한국어 문장구성양상의 통시적 고찰」, 『세계속의 한국(조선)학연구 국제학술 토론회언어·문학논문집』, 중앙민족대학교 조선-한국학연구소, 타자본, 10월 25-26일, (즉) 44.

21 김혜숙, 1991, 『현대국어의 사회언어학적연구-국어의 운용실태와 방향』, 태학사, 225-227.

22 류은중, 1991, 『조선어어휘론』, 연변대학출판사, 135-136.

이와 같이 반도 남북의 학자들과 중국의 일부 조선족학자들은 우리 말 어휘 구성에 들어있는 혼종어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와 병렬되는 하나의 독특한 유형으로 간주하고 있다.

### 2.3. 한어(중국어)

현대한어(중국어)에도 혼종어라고 명명할수 있는 말마디가 적지 않게 있다. 그 용례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수 있다.

1) 외래음차요소+한어의역요소(반음차+반의역):

因特网	Internet	霓虹灯	neon lamp
迷你裙	miniskirt	霹雳舞	break dance
色拉油	salad oil	摩托車	motorcycle
冰淇淋	ice cream	道林紙	dowling paper
浪漫主義	romanticism	沙文主義	chauvinisme(프)
列寧主義	ленинизм(로)	社會主義	социализм(로)

2) 외래음차요소+한어고유어의미요소(즉 음차요소+한어류형표시요소):

卡 車	car+車	卡 片	card+片
芭蕾舞	ballet+舞	拉力賽	rally+賽
艾滋病	AIDS+病	漢堡包	hamburger+包
沙丁魚	sardine+魚	皮欵語	pidgin+語
卡賓槍	carbine+槍	爵士樂	jazz+樂
保齡球	bowling+球	吉普車	jeep+車
比薩餅	pizza+餅	桑拿浴	sauna+浴
烏龍球	wrong+球	啤 酒	beer+酒
頂克族	dinks+族	拖拉機	трактор(로)+機

23 줄문, 2003, 「어휘구성의 이해와 대비연구」, 『세계속의 조선어(한국어)어휘구성의 특징과 어휘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민족출판사, 286 ; 줄문, 2005, 「우리말의 혼종어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1).

이상의 용례들에서 1)의 단어들은 반음차+반의역의 방도로 혼종어가 되었고 2)의 말들은 외래적 요소에 한어의 기존적 요소가 첨가되어 혼종어가 되었다. 이와 같은 한어의 혼종어에 대하여 이미 여러 나라의 언어학자들이 저서 또는 논문에서 언급하였다. 우에서 이미 본바와 같이 이탈리아의 한어학자 마시니(Masini)는 1993년에 출판한 저서 『현대한어어휘의 형성』에서 이미 한어의 혼종어와 외래어를 두가지로 갈라서 논술했다.

조선학자 김영황은 저서 『민족문화와 언어』<sup>24</sup>에서, “중국어”는 외래적인 요소를 받아들여 “한어화” 하는데서 몇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반소리 옮김, 반뜻 옮김”의 방법은 “원어의 음을 옮기면서도 그 어느 한 부분에서 그 뜻에 해당하는 한자를 첨부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중국에서 흔히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한어학자 아라카와 기요히데는 1982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중국어(한어)에 “혼종어”가 있다고 논하였다. 그는 논문 「중국어의 어휘」<sup>25</sup>에서, “중국어에는 沙发, 巧克力라고 하는 음역어”와 “啤酒, 卡車와 같은 혼종어가 있다”고 썼다.

중국학자 대소명은 저서 『문화언어학도론』<sup>26</sup>에서 “반음차반의역”과 “반음차에 류형의미를 첨가”한 상술한 용례와 같은 “두가지 단어는 음차부분이 이미 한어화되었고 또한 한어의 어휘소가 들어있는 까닭에 이미 엄격한 의미로는 음차어라고 할수 없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와 같은 단어들은 “실지는 중국어와 서양어 요소의 결합으로 된 ‘한외혼합사(漢外混合詞)’이다. 마치 한 혼혈아와 아주 같다. 그 외래적 특징도 전혀 선명하지 않다.”고 서술했다.

중국에서 출판된 『중국언어학대사전』<sup>27</sup>에서도 한어에서 쓰이는 芭蕾+舞

24 김영황, 2006, 『민족문화와 언어』,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78.

25 荒川清秀, 1982, 「中国語の語彙」, 『講座日本語学(12)』, 外国語との対照.

26 戴昭銘, 1996, 『文化語言学導論』, 語文出版社, 67.

27 陳海洋主 編, 1992, 『中国語言学大辞典』, 江西教育出版社, 273.

등과 같이 음차한 성분에 그 류형소속을 표시하는 한어의 고유적 요소를 가침하여 이루어진 단어와 冰+激淋 등과 같이 반음차반의역으로 구성된 단어는 다 “혼합어(즉 혼종어)”라고 뜻풀이하였다. 그리고 1982년도에 출판된 장영언의 저서 『어휘학간론』<sup>28</sup>에서도 “일부분 외국어성분과 일부분 본 언어성분으로 구성된 단어는 ‘혼합어(hybrid)’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여기에 쓰인 술어 “혼합어(hybrid)”는 바로 “혼종어”라고 번역할수 있다.

상술한바와 같이 동북아시아의 세 민족언어에는 다 혼종어라고 명명할수 있는 어휘부류가 있음을 여러 나라의 언어학자들이 긍정하고 규명하였다.

### 3. 혼종어와 관련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분석과 검토

외래어와 혼종어 등 언어현상과 관련되는 문제를 취급한 동북아시아 일부 학자들의 저서나 논문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여보면 마땅히 깊이 토론하고 옳게 시정하여야 할 문제점들이 있음을 쉽게 보아낼수 있다.

중국의 한 학자는 “한어사”라는 저서에서, 한어는 외국어의 영향을 받아 새 단어를 생성할 경우 순전히 음차적인 방법 이외에 또 두가지 방법을 적용할수 있다고 하면서, “음차한 요소에 고유어요소를 첨가하는 방법”과 “반음차+반의역의 방법” 등 두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 단어들을 “의연히 차용어로 간주하고 따로 독립적인 류형으로 설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 영향이 아주 크다. 우에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중국의 언어학계에서, 현재 흑룡강대학교수 대소명과 같이 그 외래적 요소와 한어고유적 요소가 어울려 구성된 단어를 “실지는 중국어와 서양어 요소의 결합으로 된 ‘한외혼합사’, 즉 “혼종어”라고 공개적으로 견해를 발표한 학자는 아주 적다.

28 張永言, 1982, 『詞彙學簡論』, 華中工學院, 95.

중국의 한어학계에서 외래어를 전문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 한 언어학자도 외래어와 관련한 저서에서 “절반은 음차하고 절반은 본미족어 요소를 가침하여 조성한 단어”를 “hybrid word”라고 이른다 하고 한어로 “혼합어”, “혼성어” 또는 “혼혈어”라고 의역할수 있다고 하였으나 뒤이어 태도를 개변하여 “개괄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그것들을 “외래어중의 한 유형으로” 처리할수도 있다고 하였다. 결국 그는 절충적방도로 혼종어를 외래어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다른 한 중국 언어학자도 한 언어학저서에서, 절반을 음차하고 절반을 의역한 단어들을 “의역어”도 아니고 “음역어”도 아니며 마치 잡종과도 같은것이라고 하고는 또 뒤이어 그 단어들은 배에 실려 온 “외국의것”이고 “본국의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단어들을 분류함에 있어서는 죄다 차용어(즉 외래어)부류에 포함시키고 혼종어로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혼종어를 혼합어라고 번역하여도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언어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크레올(Creole)을 혼합어라고 한다. 크레올은 “혼성적인어(hybrid language, 와인라이흐의 용어)”, 『言語間の接觸』 일문번역본, 1976: 140)이다. 혼성적 언어인 “크레올”은 이미 한 언어공동체가 모어로 쓰는 자립적인 “언어”인것이다. 크레올을 쓰는 언어공동체의 어린이들은 크레올어를 모어로 배우고 그 공동체의 자란이들은 그 언어를 일상적공용어로 사용한다. 그러나 혼종어(hybrid word)는 자립적 언어인것이 아니라 한 언어 가운데 있는 언어요소로서의 단어(word), 즉 낱말에 불과하다. 그와 같은 단어들은 각이한 어종의 요소들이 어울려 조성된것이므로 혼종어라고 한다. 혼종어는 어휘와 관련한 개념이고 혼합어는 언어와 직결되는 개념이다. 혼종어와 혼합어는 그 개념이 전적으로 판이하다. 두가지 전혀 상이한 뜻을 나타내는 이 두 술어를 혼동시하지 말고 옳게 갈라 보며 다르게 명명하여야 한다. 와인라이흐의 저서에는 혼종어와 “혼성적 언어”인 혼합어가 엄연히 구별되어 있다.

외국에서 발행되는 한 언어학전문지에 발표된 한편의 논문에서도 혼종어와 한자어를 옳게 갈라보지 않고 마땅히 혼종어로 다루어야 할 단어들을 모두

한자어로 취급하고 조선어/한국어의 한자어사용에 대한 통계를 발표한 실례가 있다. 예를 들면 그 논문에서 단어 “화장-하다, 리발-하다” 등을 “한자어에 동사화소(verbaler) [-하다]가 융합된 한자어”라고 하고 그 수효는 “86개(69.35%)로 과반수가 훨씬 넘으며, 고유어는 25개(20.16%)에 불과하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그 논문에서 한자어와 동사화요소 “-하다”가 어울려 이루어진 말을 “한자어”라고 하였다. 기실 이 부류의 단어들은 한자어요소와 조선어/한국어의 동사 및 형용사 조성의 고유어요소인 “-하다”가 어울려 이루어진 혼종어이다.

또 다른 한편의 논문에서도 불교와 관련한 어휘들을 다루면서 “수행-하다, 수도-하다”와 같이 “한자어에 동사화소(verbaler) ‘-하다’가 첨가된 한자어가 621개(96.42%)이고 한자어에 피동화소 ‘-되다’가 첨가되어 형성된 한자어 4개(0.64%)를 더하면 한자어는 모두 625개(97.05%)이므로 한자어가 거의 전부이며 고유어는 ‘중노릇하다, 중질하다, 저쭈다, 구름모입하다, 하청치다, 짓소리하다’ 등 6개(0.93%)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자어와 고유어가 융합된 혼종어는 13개(2.02%)로 오히려 고유어보다 더 많은 형편이다”라고 통계를 내고 있다. 기실 여기에서 “한자어”라고 표시한 말들은 한자어가 아니라 한자어요소와 고유어요소 “-하다”가 어울려 이루어진 합성어적 혼종어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혼종어동사”인 것이다. 결국 그 논문에서 다룬 어휘 가운데 혼종어동사가 625개, 혼종어가 13개, 도합 638개로서 97.05%+2.02%(즉 99.07%)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한국학자 김종택은 “스무드-하다”를 혼종어의 예로 들었고 한국학자 리주행도 한 편의 논문<sup>29</sup>에서 “노크-하는”, “썬슈얼-한” 등을 고유어요소 “-하다”와 외래적 요소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혼종어로 다루었다.

최근 중국에서 외래어를 전문 취급한 논문 한편이 한 조선문헌문집에 게재

29 이주행, 2002, 「김유정의 ‘동백꽃’과 이상의 ‘날개’의 문체 비교 연구」, 『세계속의 한국(조선) 문학 비교연구』, 민족출판사, 330.

되었다. 그 논문에서 “노크하다, 오픈하다, 리드하다, 쇼핑하다” 등 “명사+하다”형의 단어와 “섹시하다, 타이트하다, 터프하다” 등 형용사형의 단어를 모두 외래어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고 취급하였다. 이 논문에서도 외래어와 혼종어를 두가지 전혀 상이한 개념과 유형으로 갈라 보지 못하였고 또 합성어조성에서 노는 고유어 “하다”의 역할을 옳게 평하지 못하였다.

기실 조선말의 자립적동사 “하다”는 조선민족의 언어행위에서 사용빈도수가 가장 큰 단어이다.<sup>30</sup> 동사 “하다”는 자립적으로 쓰이면서 “운동을 하다, 생각을 하다”와 같이 타동사로서 잘 쓰일 뿐만 아니라 “(명사나 부사 말뿌리와 어울려서) ‘하다’형의 동사나 형용사가 되게 한다.”<sup>31</sup> 따라서 “운동하다, 정직하다” 등 단어를 많이 만들기도 한다. 단어 “운동하다”와 “정직하다”는 한자어 어근과 고유어어근이 어울려 이루어진 혼종어이다. 여기에서 고유어 “하다”는 당당한 새 단어조성의 어근으로서 명사를 동사로 바꾸어놓았다. 그 품사전환은 고유어요소인 “하다”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한자어의 어근적명사와 고유어의 단어조성요소 “하다”가 어울려서 이루어진 합성 동사와 형용사를 “한자어동사, 한자어형용사”라고 부르고 다루는 것이 상례로 되어있었다. 이와 같이 부르거나 다루는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사려하게 된다.

사실상 이와 같은 처사는 고유어요소 “하다”의 중대한 역할을 품사론과 형태론, 단어조성론과 문장론 등 여러 분과의 시각으로부터 종합적으로 고찰하지 못한 구체적 표현으로 된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그것은 첫째, 품사전환에 있어서 한자어명사를 동사로 바꾸어주는 고유어요소 “하다”의 중요한 “품사전성”의 역할을 차요시한 결과라고 보게 된다. 둘째, 한자어명사 “운동”이 “하다”와 결합하여 합성어로 됨에 따라 “운동”이 “운동한다, 운동하는, 운동하

30 문영호·권종성·리정용·최병수·박예순 외, 1993, 『조선어빈도수사전』,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407.

31 정순기·최완호 외, 1992, 『조선말대사전』 제2권, 사회과학출판사, 875.

던, 운동할, 운동한”과 같은 활용형태를 갖추에 있어서 “하다”가 일으키는 형태론적작용과 그 특징을 증대시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게 된다. 셋째, 어근적 명사 “운동”의 동사화와 관련하여 의미론적 시점에서 그 한자어의 어휘적의미만을 선차시하거나 과대시하고 사전적 단어로서 존재하는 그 “제로형태/미정 형태”인 한자어명사가 오직 “하다”의 도움밑에 자립적동사의 자격을 지니고 활용형태를 갖추어야만 문장속에 들어가서 일정한 문장성분으로 되어 언어행위적인것으로서 쓰일수 있는 특성을 간과한 결과라고도 보게 된다. 결국 문장론적 시각에서 그 고유어 “하다”가 일으키는 동사화의 역할과 의의를 옳게 긍정하지 못한것으로 된다.

따라서 “하다”형의 합성단어에 대하여 의미론적 측면으로부터 그 한자어의 어휘적의미만을 강조할것이 아니라 단어조성론, 품사론, 형태론, 문장론 등 여러 측면으로부터 그 동사화과정에 노는 “하다”의 역할을 옳게 긍정하며 새 합성어조성에서 일으키는 두 상이한 어근의 어휘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 등의 중요성을 동등하게 평하면서 그 특징을 옳게 정립하며 명명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한자어어근과 고유어어근 “하다”가 어울려 이루어진 합성 동사나 형용사를 논할 경우 그 합성어조성에서 수행하는 “하다”의 역할과 기능을 다른 한 어근과 동등시하고 중요시하여야 한다. 또한 그와 같이 상이한 어종의 어근으로 구성된 합성어를 “한자어동사”나 “한자어형용사” 또는 “외래어명사”라고 이르지 말고 새 용어 “혼종어동사”, “혼종어형용사”, “혼종어명사”라고 규명하고 명명하며 다루어야 합당하다.

앞에서 이미 보았지만 조선학자 문영호는 “건설하다”, “용맹하다” 등과 같은 단어들에서 “한자말말뿌리는 철저히 명사이며 새 품사과생의 단위는 고유어인만큼 단어전체를 놓고 한자말이라고 보기 곤난하”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것은 원칙적으로 한자어나 외래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유어와 결합한 한자어명사에 대한 문제”에서도 ‘학생옷’, ‘여름작물’, ‘나무채상’ 등과 같은 고유어명사와 결합한 단어는 한자말명사로 볼수 없다”<sup>32</sup>고 단적으로 지

적하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일본어의 형태론적 특징은 조선어와 비슷한 점이 아주 많다. 일본학자 모리오가 겐지는 논문 「외래어의 파생어휘」에서, 조선어의 동사조성요소 “하다”와 비슷한 일본말의 단어조성요소 “する”를 레로 들어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명사를 “용언으로 파생시킬 경우 일반적으로 준접사라고 하여야 할 보조용언 ‘-する’를 쓰는것은 한어(漢語, 즉 일본말한자어-인용자), 외래어에 다 공통적이다.”<sup>33</sup> 모리오가는 이와 같이 해설하고 단어 “旅行する, 運動する, 実験する, 称赞する” “アルバイトする, アドバイスする, アプローチする” 등을 한자어나 외래어로 다루지 않고 죄다 혼종어로 취급하였다.

결하여 말하거니와 동북아시아 세 민족어에만 혼종어가 있는것이 아니라 유럽의 일부 언어에도 혼종어적현상이 존재한다. 레를 들면 일본의 특수한 사물과 현상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받아들인 영어의 특별한 말마디들인 adzuki+bean, karate+chop, koi+carp, soy+sauce, sumo+wrestling 등은 일본말기원의 단어들인 adzuki(あずき, 팥), karate(からて, 당수=가라테), koi(こい, 잉어), soy(しょうゆ, 간장), sumo(すもう, 씨름=레슬링) 등에 영어의 기존적 단어들인 bean(콩), chop(타격), carp(잉어), sauce(간장), wrestling(씨름) 등이 각기 단어조성의 요소로서 첨가되어 이루어진 혼종어이다.<sup>34</sup> 이와 같이 영어에서 일본어기원의 외래적 요소에 그 의미가 같거나 비슷한 영어의 기존적 요소가 첨가되어 있는 까닭에 영어혼종어로서는 그 새말들의 뜻이 “(일본)팥, (일본)가라테, (일본)잉어, (일본)간장, (일본)씨름 즉 (일본)레슬링” 등으로 아주 명확히 잘 나타났다.

상술한바와 같이 여러 가지 같지 않은 언어들사이의 접촉으로 인하여 상이한 어종의 요소들이 결합되어 생성된 단어들을 혼종어로 보아야 한다. 더우기

32 우의 “주 16”과 같은 저서, 96-97.

33 森岡健二, 1985, 「外来語の派生語彙」, 『日本語学』(9), 50.

34 早川 勇, 「日本語と英語の接点」, 『愛知大学文学論叢』, 130(04,7), 228-244.

조선어/한국어의 어휘구성에 혼종어명사, 혼종어동사, 혼종어형용사, 혼종어부사 등의 존재함을 옳게 직시하여야 한다. 그렇게 보거나 처리하지 않고 혼종어나 혼종어명사 또는 혼종어동사 등을 죄다 한자어에 밀어 넣어 어휘통계를 낸다면 그 통계 수는 정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그와 같은 연구결과와 처사는 과학성에 어긋나고 편파성에 기울어지게 된다.

서울에서 나온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주표제어에 대한 국립국어원 연구사 정호성의 논문의 분류통계<sup>35</sup>에 의하면 그 사전에 실린 주표제어중에서 외래어는 5.26%를 차지하고 혼종어(한자어+고유어, 외래어+고유어, 한자어+외래어, 한자어+외래어+고유어)는 도합 12.28%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리고 평양에서 나온 김동찬 저 『조선어단어조성론』<sup>36</sup>에 따르면 『현대조선말사전』(제2판)에 “하다”형 합성동사가 총 약 1만 180개로서 동사총수의 49.86%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중 한자어+하다형 합성동사는 약 5,198개(약 25.4%)이고 고유어+한자어+하다형 합성동사는 586개(약 2.9%)로서 도합 5,784이며 28.3%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반도 남북의 언어학자들이 수적 통계로 잘 보여준 이와 같이 많은 혼종어들을 옳게 분별하여 따로 설정하지 않고 죄다 한자어 또는 외래어 등 부류에 넣어 통계를 낸다면 결국 그 어휘통계는 과학성을 잃고 일면성을 띠게 될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상의 대조연구를 통하여 동북아시아 세 언어의 어휘구성에는 확실히 혼종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언어적 현상이 현실적으로 존재함을 알수 있다. 따라서 세 언어에서는 고유어, 외래적 어휘(외래적 한자어, 외래어) 이외에 혼종어를 어휘구성의 한 갈래로 설정하여야 한다. 혼종어의 존재를 직시하고 어휘구성속에 그 자리를 정립해주어야 한다.

35 정호성, 2000, 「표준국어대사전 수록 정보의 통계적 분석」, 『새국어생활』, 국립국어연구원 (1), 63.

36 김동찬, 2005, 『조선어단어조성론』, 사회과학출판사, 342.

시대의 발전,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의 인식수준은 향상되기 마련이다. 혼종어에 대한 언어학자들의 인지능력도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전례없이 향상되고 강화되었다. 혼종어는 세 언어의 어휘구성에 내재하는 어휘적 보편성과 유사성의 한 특징을 나타낸다고 간주할수 있다. 그 존재를 간과하지 말고 혼종어와 한자어 및 외래어와의 차이성을 옹계 갈라서 규명하여야 한다.

기실 조선말/한국말 사전들에서는 이미 외래어와 혼종어를 갈라보고 다르게 처리하기도 하였다. 례를 들면 같은 해인 1992년도에 출판된 평양의 『조선말대사전』과 서울의 『우리말큰사전』에서는 외래어와 혼종어를 다음과 같이 갈라 처리하였다.

『조선말대사전』:

외래어: 빵[←pāo ㅍㅐ]	잉크[ink 영]	아스팔트[asphalt 영]
혼종어: 빵떡	잉크병	아스팔트길

『우리말큰사전』:

외래어: 빵[<포, pāo]	잉크[영, ink]	아스팔트[도, Asphalt]
혼종어: 빵떡[<포, pāo-]	잉크병[영, ink瓶]	아스팔트길[도, Asphalt-]

우의 용례들을 보면 두 사전은 다 외래어올림말에 대하여 그 기원어를 밝히고 원어를 받쳐주었다. 그러나 혼종어올림말에 대해서는 원어를 받쳐주지 않으므로써 외래어가 아님을 보여주었거나 외래적 요소 뒤에 빈 줄을 치어 다른 요소(례: “떡”)와 결합되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다른 요소(례: “瓶”)를 가해 주어 혼종적 단어가 되었음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사전들에서는 이미 외래어와 혼종어를 의식적으로 갈라서 다루었다.

상술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귀납하며 가일층 해석할수 있다.

첫째, 동북아시아 세 언어의 혼종어는 다 언어들간의 접촉의 결과로 자민족어에 외래적 요소를 받아들인 까닭에 그 요소들이 해당 민족어의 기존적 요소

들과 결합되어 형성된 새 형의 합성어 또는 파생어인 것이다.<sup>37</sup> 이와 같은 혼종어는 세 민족의 화자들이 같지 않은 시기에 외래적 요소와 자민족어의 요소들을 적용하여 조성한 것이므로 외래어 또는 한자어로 치부하지 말고 자민족의 화자들이 창조한 새 형의 말마디로 다루어야 합당하다.

요컨대 혼종어는 한 언어에 들어온 외래적 단어, 즉 “외래어”가 아니라 해당 언어를 구사하는 민족사람들 자신이 외래적요소와 자민족어 요소를 활용하여 만들어낸 어휘부류로서 그 민족자체의 “창조물”이다. 학계에서는 이와 같이 “혼종어는 본 민족 자체의 창조물”이라고 보아야 적당하다.

둘째, 어휘론과 단어조성론에서 그리고 접촉언어학의 한 분과로서의 외래어/차용어연구에서 “건설하다, 용맹하다” 등 자민족화자들이 한자말어근과 고유어근으로 조성한 합성어와 “노크하다, 체크하다” 등 본 민족사람들이 외래어근과 고유어근으로 창조해놓은 합성어를 각각 “한자말단어” 또는 “외래어단어”라고 하지 말고 혼종어단어라고, 즉 혼종어명사 또는 혼종어동사, 혼종어형용사, 혼종어부사라고 하여야 적당하다.

셋째, 지난 세기에 조선어/한국어 언어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선어/한국

37 조선어/한국어의 혼종어를 단어조성론의 시각에서 분석하여보면 우선 합성어적 혼종어와 파생어적 혼종어로 분류할 수 있고 또 합성어적 혼종어는 혼종어명사, 혼종어동사, 혼종어형용사, 혼종어부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어례는 다음과 같다.

1. 합성어: 어근적 명사+어근적 명사 → 혼종어명사:  
 예: 디스코+춤, 보링+경기, 수중+발레, 전자+피아노  
 어근적 명사+어근적 동사 → 혼종어동사:  
 예: 운동+하다, 리발+하다, 싸인+하다, 노크+하다  
 어근적 명사(또는 어근적 단어)+형용사조성어근 → 혼종어형용사:  
 예: 용감+하다, 린색+하다, 정직+하다, 약간+하다
2. 파생어: 어근적 명사+접미사 “-화” → 혼종어명사:  
 예: 인테리+화, 로봇트+화, 현대+화  
 어근적 명사+접미사 “-성” → 혼종어명사:  
 예: 아메바+성, 알카리+성, 인내+성  
 어근적 단어(또는 어근적 명사)+접미사 “-히” → 혼종어부사  
 예: 용감+히, 의연+히, 우연+히

어의 어휘는 그 어종의 기원적 측면으로부터 보면 대체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등 세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나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 이제는 조선어/한국어의 어휘구성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등 네가지 부류로 구성되었다고 보아야 적절하다.

### ■ 해설

이 글의 조선어용례부분에 쓰인 일부 단어(또는 어간)의 기원과 용법에 대하여 우리 말 학계에는 상이한 견해가 있는 까닭에 그 일부 단어(또는 어간)에 대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됨.

1) 외래어 “고구마”에 대하여: 단어 “고구마”는 일본말 공통어의 “さつまいも”의 뜻을 나타내는 대마도방언의 단어 “こうこう(孝行)いも”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보게 됨. 1897년에 나온 게일의 『한영사전』에는 “고구마”로 수록되었음. “고구마”가 지난날 대마도의 로인들을 기아에서 건져내주었다고 하여 한자어 “孝行芋”를 썼음(谷本尚 편, 『日本方言辞典』, 중문번역본, 1990: 315)에 “こ-こ- いも”는 “さつまいも”의 대마도방언이라고 풀이되어 있음).

2) 혼종어 “약간하다”에 대하여: 평양에서 40여년 사이에 전후하여 나온 사전들인 『조선말사전』(제6권, 1962: 91), 『조선문화어사전』(1973: 952), 『현대조선말사전』(제2판, 1981: 2674), 『조선말대사전』(제2권, 1992: 1399), 『조선말사전』(2004: 1532) 등 규범적 사전에는 다 혼종적형용사 “약간하다”가 올림말로 수록되고 “주로 ‘약간한’형으로 쓰인다”고 풀이되어 있으며 그 용례로서 “약간한 과자, 약간한 차이, 약간한 변동, 약간한 간식, 약간한 충돌” 등 말마디들이 실렸음.

3) 외래어 “콩쿨”에 대하여: 지금까지 반도의 남북에서 나온 우리 말과 관련한 대형사전들(레하면 『조선말대사전』 제2권, 평양, 1992: 671 ; 『우리말큰사전』 제3권, 서울, 1992: 4239)에서, 프랑스말의 단어인 “concour”가 우리말에 들어와 쓰이는 외래어를 “콩쿠르”라고 표기하여 올림말로 수록하여왔으나 최

근에 평양에서 나온 규범적중사전인 『조선말사전』(2004)에서는 그 외래어를 “콩클”이라고 표기하여 올람말로 수록하고 뜻풀이를 가하였으며 그 용례로 “콩클대회”를 들었음. 우리 민족의 화자들은 일상생활에서 확실히 “콩클”이라고 오래동안 써왔고 또 오늘날에도 그와 같이 쓰고 있는 까닭에 단어 “콩클”이 이미 관습화되었다고 보게 됨.

4) 외래어 “가방”에 대하여: “가방”의 원어는 일본어, 프랑스어, 화란어라고 하는 상이한 설이 있음. 일본에서 출판한 종합적사전인 『広辞苑』에서는 일본 말외래어 “カバン”이 한어(중어)의 “夹板[きゃばん]에서 왔다고 하였음(『広辞苑』 일본문판, 1998: 542).

5) 외래어 “구두”에 대하여: “구두”의 기원적 단어는 일본말 공통어의 “く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실지는 “くつ”가 그 기원적 단어인것이 아니라 일본 말 규슈방언의 입말형단어 “kut”가 그 기원어라고 보아야 옳다고 할수 있음. 일본말 규슈방언에서 단어 “kut”의 뜻은 우리말의 “신, 신발”인것임(『言語学大辞典』 제2권, 일본문판, 1989: 761).

## 참고문헌

- 矢崎源九郎(1964) 『日本の外来語』, 東京: 岩波書店.  
 石綿敏雄(1985) 『日本語のなかの外来語』, 東京: 岩波書店.  
 田中建彦(2002) 『外来語とは何か』, 東京: 鳥影社.  
 小池生夫(編集主幹, 2003) 『応用言語学事典』, 東京: 研究社.  
 陣内正敬(2007) 『外来語の社会言語学』, 京都: 世界思想社.  
 韓国日本学会 編(1998) 『新日本語学の理解』, 서울: 시사일본어사.  
 史有為(2000) 『漢語外来詞』, 北京: 商務印書館.  
 \_\_\_\_\_(2006) 『外来詞—異文化的使者』, 上海: 上海辞書出版社.  
 王力(1980) 『漢語史稿』 下册, 北京: 中華書局.  
 伍鉄平 主編(2006) 『普通語言学概要』 第二版,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 김응모(1995) 「몸치장에 관련된 자동사어휘의 낱말발연구」, 『한글』 229호.
- (1995) 「불교에 관련된 자동사의 의미 연구」, 『우리말내용연구』 제2호, 국학자료원.
- 이민(2007) 「한중 외래어 유형에 대한 비교-영어 외래어를 중심으로」, 『조선-한국언어 문학연구』 4, 북경: 민족출판사.
- 졸저(2005) 『어문학에 대한 21세기 초의 연구』, 북경: 민족출판사.
- Peter Hans Nelde (1997) 'Language Conflict'(ed. Florian Coulmas), *The Handbook of Sociolinguistics*, Blackwell Publishers LTD.
- Peter Hans Nelde (2002) 'Language Contact'(ed. Robert B. Kaplan), *The Oxford Handbook of Applied Linguis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Donald Winford (2003) *An Introduction to Contact Linguistics*, Blackwell Publishing.



# 중재협력을 통한 남·북한·중국 3국간의 상사분쟁 해결촉진 방안\*

김 상 호

부산외국어대학교

## 1. 서론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8년 '7·7선언' 이후이며 이어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적 뒷받침이 이루어지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남북 경제교류와 협력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남북 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왔는데 이는 남한 정부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는 남북한간에 제도적인 분쟁해결장치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 교역과 투자에 종사하는 남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6·15공동선언의 가시적 성과로는 남북경협 4대 합의서이다. 즉,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분쟁해결합의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투자보장합의서)」, 「남북 사이의 소득에

---

\* 이 논문은 필자가 「남북한 및 중국 간의 상사분쟁 해결촉진을 위한 중재협력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국제고려학회가 중국 복단대학과 공동으로 주최한 '제9차 코리아학국제학술토론회'(2009.8.27-30, 중국 상해복단대학)에서 발표한 것으로 논문 제목과 본문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였음.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이중과세방지합의서)»,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청산결제합의서)」이다.

현재 남북한간에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긴장이 크게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나 분쟁해결합의서를 포함하여 이들 4대 경협합의서는 2003년 8월 20일에 발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분쟁해결합의서의 후속 합의서인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중재위원회합의서)」도 2006년 8월 1일자로 남북한간에 발효 중에 있어 외견상으로는 남북한간의 교역과 투자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남북한이 직접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김상호, 2008: 253-260).

한편, 한국과 중국 양국은 1992년 8월 수교 이후 산업구조의 상호 보완성, 지리적 근접성 및 문화적 유사성 등을 바탕으로 이제는 양국이 전면적인 경제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한·중 양국간 무역, 투자 등 경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해 양국간에 체결된 무역협정<sup>1</sup>에서는 양국간 무역분쟁의 해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실무적 차원의 분쟁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의 중재기관은 중재협정을 체결하였다. 한-중 양국은 수교 직전 양국간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보장협정도 체결하였는데 동 협정에서도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sup>2</sup>

이 논문에서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한 당국이 상사중재제도의 기반구축을 위해 성사시킨 관련 합의서의 내용과 한국과 중국간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고찰한 후 분쟁해결 촉진을 위해 남북한과 중국이 협력해야

---

1 한국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중국의 중국국제상회 간에 체결되어 1992년 2월 1일자로 발효된 한·중 무역협정은 동년 8월 양국 수교 이후 정부차원의 조약으로 격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1992년 7월 26일 발효된 한·중 투자보장협정의 당사자도 한국의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와 중국의 중국국제상회이다. 이 협정도 양국 수교 이후 정부차원의 조약으로 격상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2007년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할 중재협력의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 2. 남북한 중재 협력

### 2.1. 분쟁해결합의서

남북한 당국은 2000년 12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분쟁해결합의서」라 한다)에 서명하였다.

그간 남북한간에는 경제제도와 상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사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서로의 상사중재 제도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통행과 통신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재판정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상대방의 상사중재기관 이용을 기피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1988년 남북 경험이 개시된 이래 남북한간에 발생한 상사분쟁에 대해서는 남북의 중재기관에서 해결한 선례가 없다. 이는 남북한 거래당사자간에 상사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양측의 중재기구를 이용하여 해결하기보다는 전적으로 손실을 감수하거나 적당히 합의에 의해 해결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남한 측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교역활성화에 있어 최대장애요인의 하나였다. 따라서 본 분쟁해결합의서가 가지는 의의는 크다고 하겠다.<sup>3</sup>

### 2.2. 중재위원회합의서

남과 북은 2003년 10월 12일 분쟁해결합의서의 후속 합의로 중재위원회합

---

3 분쟁해결합의서는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발효통지문을 교환함으로써 2003년 8월 20일자로 남북한간에 발효되었다.

의서<sup>4</sup>를 체결하였는데 이 합의서는 2006년 8월 1일자로 남북한간에 발효 중에 있다.

중재위원회합의서 체결의 목적은 남북한간의 교역과 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 해결을 전담하는 중재기관인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창설하여 운영하는 데에 있다.

원칙적으로 중재위원회합의서 발효일로부터 6개월 내에 남과 북은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재규정에 대한 쌍방의 초안을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sup>5</sup> 2007년 1월 말까지는 중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나 북한 측의 사정으로 아직까지 위원회가 구성되어 업무를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동 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할 것을 서면으로 합의한 분쟁사건과 투자보장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상사분쟁사건을 관할한다.<sup>6</sup>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하겠다.

첫째, 상사분쟁 해결기구이다.

중재위원회는 상사분쟁해결합의서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독자적인 법인능력을 갖는 상사분쟁 해결기구이며 각자 남과 북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소송제기의 능력을 가진다.<sup>7</sup>

---

4 정식명칭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이다. 전문, 14조 및 부록으로 구성된 이 합의서의 남측 서명자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 위원장 김광림(재정경제부 차관)이며, 북측 서명자는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위원장 최영건(건설산업부 상)이다.

5 중재위원회합의서 제14조 제4항: 이 합의서의 발효된 날부터 6개월 내에 남과 북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중재규정에 대한 쌍방의 초안을 교환한다.

6 분쟁해결합의서 제8조.

상사분쟁해결합의서와 중재위원회합의서에서는 남북경제교류와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남과 북이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하여 총 10명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sup>8</sup> 중재위원회와 그 재산은 분쟁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당국인 경우 그에 대한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범위 내에서 남과 북의 재판기관에 의한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중재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sup>9</sup>

남과 북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공동대표하며, 남과 북은 중재위원회의 관할하에 있는 분쟁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위원장, 위원 및 양측 위원장이 사전에 지정하고 상대방 위원장에게 통지한 사건해결 관계자에 대하여 신변의 안전과 출입 및 통신을 포함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업조건을 보장하며, 이들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행위는 남과 북의 재판기관에 제기된 소송으로부터 면제되도록 하였다.<sup>10</sup> 중재위원회가 상사분쟁해결기구로서 갖는 주요 업무는 분쟁해결의 최종수단인 중재관련 업무로서 중재의 개시, 진행 및 종료절차를 공정·신속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중재위원회는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투자에 따른 권리의 침해로 발생하는 투자분쟁의 해결을 주관한다. 중재위원회는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중재인단을 유지하기 위하여 남과 북에서 선정된 중재인들을 확정하고 등록한다. 이를 위해 남북의 각 중재위원회는 30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명부를 작성하고 상호 교환한다. 그리고 각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측 중재인 중에 변동이 있으면 이를 상대방 중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

7 중재위원회합의서 제1조 제1항 및 제2항.

8 분쟁해결합의서 제2조, 중재위원회합의서 제2조 제1항.

9 중재위원회합의서 제9조 제3항.

10 중재위원회합의서 제2조 제3항, 제9조 제2항 및 제4항.

또한 중재위원회는 중재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인·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 중재인 권한의 존재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중재관정부의 권한범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방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관정의 취소에 대한 결정을 비롯하여 사건수속 및 처리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에 관하여 신속히 협의하여 결정한다.<sup>11</sup>

중재관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관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해당 지역 재판기관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되도록 하며 특별한 사정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2</sup>

둘째, 상사분쟁 해결의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다.

중재위원회는 남북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부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중재위원회는 상사분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는 점에서 남북한간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sup>13</sup>

그렇다면 정책수립의 내용이 되는 업무영역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 제7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국가는 중재활동에서 국제조약과 관례를 존중하며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관련시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UN회원국으로서 북한이 뉴욕협약이나 워싱턴협약에 가입하는 문제, 남북 중재위원회와 남북한의 상설중재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중재협정의 체결문제 등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정책적 문제들을 상호 협의하고 실무에 도입하는 문제들을 정책수립의 현안과제로 협의해야 할 것이다.

11 분쟁해결합의서 제3조 및 제5조, 중재위원회합의서 제3조.

12 분쟁해결합의서 제16조 제3항.

13 분쟁해결합의서 제3조 제6항, 중재위원회합의서 제3조 제4항.

이와 관련하여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단기적으로는 남북 당사자간의 교역 및 투자분쟁을 해결하는 중재기관으로 발전할 것이나 장기적으로 통일한국의 중재중심센터로 발전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운영해야하며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미 및 북일간 수교에 따른 경제교류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적 상사분쟁해결 기구로 성장해야 하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 대비하는 분쟁해결기구로서도 그 기능을 담당하도록 육성·발전 시켜야 할 것이다.

### 3. 한·중 중재 협력

#### 3.1. 현황

한·중 양국은 1992년 8월 수교 이후 산업구조의 상호 보완성, 지리적 근접성 및 문화적 유사성 등을 바탕으로 이제는 전면적인 경제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2002년 홍콩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처음으로 대미수출을 초과한 이래 이제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 겸 최대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한·중간 무역, 투자 등 경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해 양국간에 체결된 무역협정에서는 상사분쟁의 해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실무적 차원의 분쟁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의 중재기관은 중재협정을 체결하였다. 한·중 양국은 수교 직전 양국간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보장협정도 체결하였는데 동 협정에서도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3.2. 한·중 무역협정

한·중 무역협정 제6조에서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상사분쟁 해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6조의 규정을 보면 먼저 양국의 거래당사자간에 상사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우호적인 협의로 해결하는 것을 장려한다. 그러나 분쟁을 당사자간의 우호적인 협의에 의해 해결할 수 없으면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계약과 관련된 별도의 중재약정에 따라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중재의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양국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도록 장려하며 한·중 양국은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협정에서 중요성을 가지는 중재 전 분쟁해결 수단으로는 우호적 협상과 조정을 들 수 있다. 이는 분쟁의 처리에 있어서 우호협상이나 타협을 중시하여온 중국의 관습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sup>14</sup> 중재합의의 방식으로는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삽입하거나 아니면 당사자간에 별도로 중재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과 중국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위해 가입하고 있는 뉴욕협약에서는, 당사자간의 서면합의에 의해 현존분쟁과 장래분쟁 모두 중재에 부탁할 수 있다. 여기서 '서면합의'란 계약서상의 중재조항 또는 당사자간에 서명되었거나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의 합의를 포함한다.<sup>15</sup> 한·중 무역협정에서는 양국 상거래당사자간의 사적 분쟁해결을 위해 양국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도록 장려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관중재(institutional arbitration)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발생시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과 중국의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에서 해결되기를 희망하는 것이 양국 정부의 의도이다.

무역협정에서 한·중 양국은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중재

---

14 1979년 중국이 미국과 체결한 미·중 무역협정에서도 “through friendly consultation, conciliation or other mutually acceptable means”라고 규정함으로써 중재 전 분쟁해결수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1항).

15 뉴욕협약 제2조 제2항.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과 중국 CIETAC의 중재규칙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판정의 집행을 보장한다고 규정한 것은 중재판정의 집행을 보장키 위한 양국 정부의 국가적 의무를 선언하는 동시에 양국의 거래 당사자들이 마음 놓고 상거래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의 거래 당사자들은 중재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한·중 무역협정상의 규정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하거나 아니면 뉴욕협약에 의거하여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 3.3. 한·중 투자보장협정

1992년에 한국과 중국간에 체결된 한·중 투자보장협정은 그동안 양국간의 교역과 투자 증대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투자의 지속적 확대 추세와 투자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투자관련 법적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어 한·중 양국은 2003년 협정 개정에 합의하고 개정협상을 시작하여 2007년 3월 27일 북경에서 개최된 제7차 협정 개정회의에서 문안을 타결하였다.<sup>16</sup>

개정 협정문에서는 투자자-국가간 분쟁(Investor-State Dispute: ISD) 해결 제도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특히 1992년 협정의 '투자의 정의'에서 규정하지 않던 부분을 포함시켰다. 즉, 국제연합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과 ICSID 협약 및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sup>17</sup> 다음으로 개정 협정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sup>18</sup>에서는 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분쟁대상을 종전의 보상금 분쟁에서 전체 투자분쟁으로 확대함으로써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강화시켰다. 또한 국제중재 제소 전 사전협의 기간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 또한 투자자가 국제중재를 선택하는 경우 분쟁을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16 외교통상부(국제경제국 경제협력과) 보도자료(2007.9.7) 참조.

17 개정 협정 제1조 제4-6항.

18 개정 협정 제9조.

있는 방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즉 국제중재의 경우, 투자자는 분쟁을 ① ICSID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나 ② UNCITRAL 중재 규칙, 혹은 ③ 분쟁당사자간에 합의된 그 밖의 중재규칙에 따라 설립되는 특별중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또한 “각 계약당사자는 당해 투자자에 의하여 투자분쟁의 해결을 구속력 있는 국제중재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한·중 양국이 정부차원에서 투자분쟁의 사전 동의조항을 명문화하였다. 개정 협정에 따라 투자자-국가간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여 내려진 중재판정은 양 분쟁당사자에게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고 각 계약당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정을 집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부차원의 판정집행을 보장하고 있다.

1992년의 한·중 투자보장협정은 개정 협정이 발효(2007년 12월 1일 발효)하는 때에 종료되고 개정 협정에 의하여 대체된다.<sup>19</sup>

### 3.4. 한·중 중재협정

한·중 양국의 중재기관은 1992년 12월 15일 북경에서 양국간 무역협정과 투자보장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상사중재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의 한국 측 당사자는 대한상사중재원이고 중국 측 당사자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이다. 협정의 주된 내용은 양국간 무역에 종사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에 대하여 협정에서 권고하는 중재조항을 자신들의 상거래계약서에 삽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당사자간에 중재합의가 안 되면 중재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sup>20</sup>

19 개정 협정 제14조 제4항.

20 한·중 상사중재협정에서 이용을 권고하는 중재조항: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arising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out of, relating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pursuant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한·중 상사중재협정에서는 당사자간에 특별약정이 없으면 중재지를 결정함에 있어 피신청인주의를 채택한다는 것도 합의하였다. 예컨대 분쟁이 발생되었고 분쟁해결기관에 대해 당사자간에 약정이 따로 없으면 중재신청인이 한국인이라면 중국 측 중재기관에 의해 중재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중국 측이 중재신청인이라면 중재사건은 피신청인 측인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다루어진다.

## 4. 상사분쟁의 해결촉진을 위한 협력의 과제

### 4.1. 남북한 중재협력의 과제

#### 4.1.1. 중재위원회합의서 실행을 위한 조치이행

남북한 당국은 분쟁해결합의서의 후속 합의로 중재위원회합의서를 체결하여 2006년 8월 1일부터 남북한간에 발효 중에 있다. 남한의 경우 동 합의서에 의거하여 정부(통일부)는 2007년 4월 16일자로 대한상사중재원을 남북상사중재위원회 남측 중재사무처리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sup>21</sup>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 측의 사정으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남북한 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중재규정을 공동 제정하고 중재인명부를 교환하여 공식 업무를 개시해야 한다.

중재위원회가 설립되어 운영된다는 것은 남북한간의 교역과 투자 등 상사

---

Arbitration Commission, The arbitration award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contracting parties(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간의 중재협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계약의 양 당사자를 구속한다).”

21 이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은 2007년 5월 2일자로 남북상사분쟁 중재사무를 전담하는 내부조직으로 남북상사중재실을 설치하였다.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제도적인 틀 속에서 해결됨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의 일회성, 이벤트성 교류 관계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로 남북한 관계가 질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재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은 그 자체로 남북한간의 교류에 해당될 뿐 아니라 남북한간의 법률적, 사회문화적 차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북한이 국제적인 고립상태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재등장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4.1.2. 남북한 중재사건과 제3국 중재

북한은 분쟁발생시 북한의 중재기관에서 분쟁이 해결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최대 경협사업인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로가 확대됨에 따라 중재지를 제3국으로 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의 개발이 예정대로 진척이 되고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북한에서의 중재를 기피하는 경우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개성공단에서 외국계 회사들의 본격적인 제품생산 및 생산된 제품의 외국수출과 판로확대를 위한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 촉진에 대비하여 제3국 중재에 대처하는 중재협정체결을 남북한 중재기관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북한은 제한적으로 제3국 중재를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법인 외국인투자법에서는 “다른 나라의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를 허용하고 있다. 합영법과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서도 “제3국의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를 규정하고 있다.<sup>22</sup> 합작법에서는 제3국 중재에 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분쟁을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실패하면 북한의 중재기관이나 재판기관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기업법에도 제3국 중재에 관한 언급이 없

22 “다른 나라의 중재기관”이라는 표현이나 “제3국의 중재기관”이라는 표현은 의미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 이는 외국인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외국인 단독출자이므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외국인투자자와 북한 내 해당기업 내지는 북한 당국과의 분쟁이기 때문에 제3국 중재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1995년 2월에 제정·공포된 대외경제계약법은 중국의 섭외경제계약법을 모범으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법원행정처, 1995: 135). 이 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에는 투자관련 법령 및 민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대외경제계약이 규율되어 계약체결의 방식이나 효력, 계약불이행시의 손해배상, 계약강제이행수단, 분쟁해결절차 및 방법 등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 법의 제정·공포로 인해 대부분의 법적 문제들이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게 되었다. 대외경제계약법에서는 북한의 재판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을 규정하지 않고 당사자의 협의, 북한의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 제3국의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냉전시대 동서 양 진영의 대표적 국가였던 미국과 소련의 중재기관 간에 체결된 중재협정은 앞으로 개성공단 분쟁을 포함한 남북한 중재사건의 제3국 중재에 대비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미국중재협회와 소련연방상공회의소는 1977년 1월 미국과 소련간의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미-소 무역계약에 사용할 선택적 중재조항」(Optional Arbitration Clause for Use in Contracts in USA-USSR Trade)에 관한 중재협정을 체결하였다(ICC, 1983: 299-303).

이 중재협정은 그 제목이 나타내듯이 그 채택 여부가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특수사정에 적합한 다른 방식의 중재도 물론 가능하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서는 소련연방상공회의소 부설 대외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는 물론이고 미국중재협회의 규칙에 의거한 중재나, 아니면 피신청인 국가에서의 중재도 가능하다.

협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중재절차는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서 행해지며, ②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하며, ③ 중재지는 스웨덴의

스톡홀름이며, ④ 스톡홀름 상업회의소가 중재인 선정권자가 되며, ⑤ 공용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단일 언어에 합의하지 못하면 진술, 구두심문 및 중재판정은 영어와 러시아어로 하되 기타 증거서류들은 중재판정부가 요구하지 않는 한 번역이 필요 없도록 하였다.

앞으로 남북 중재사건의 제3국 중재를 고려함에 있어 남북한이 모두 UN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UN차원에서 제정한 UNCITRAL 중재규칙의 적용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재지는 북경으로 하고 중재인선정기관 및 중재기관으로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로 하거나 개성공단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중국 청도에서 청도중재위원회(Qingdao Arbitration Commission)에 의한 중재진행에 합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23</sup>

#### 4.1.3. 북한의 중재관련 국제협약 가입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제간 무역의 증대를 가져왔고 이에 따른 국제적 경제거래가 일반화됨에 따라 이들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종래의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부적당하게 되었고 대신 상사중재에 의한 해결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각국은 상사중재제도를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상사중재에 의거하여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해 주는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간의 중재법제는 근본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범세계적 차원에 있어서의 상사중재제도의 원활한 운영, 특히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UN차원에서 행해졌는데 그 대표적 결실이 뉴욕협약이다.<sup>24</sup>

---

23 협정체결의 당사자는 3국의 중재기관(대한상사중재원,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혹은 청도중재위원회)이 관여하는 3자간 중재협정(tripartite arbitration agreement)의 형식이 될 것이다.

한편, 국제간 투자의 활성화에 따라 세계은행(World Bank) 주도로 ‘일방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이 탄생하게 되었다(Hans Smit, Vratislav Pechota, 1991: 70-72). 이 협약을 워싱턴협약 또는 ICSID협약이라고 하는데 1965년 3월 18일 미국의 워싱턴에서 채택되었고 1966년 10월 18일 발효되었다. 이 협약에서는 투자분쟁에 관한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구가 투자분쟁국제해결본부(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이다.

남북 교역에서 발생하는 통상의 상사분쟁과 투자에 따른 투자분쟁의 해결과 관련된 국제협약으로는 뉴욕협약과 워싱턴협약이 있으나 현재 북한은 두 협약에 모두 미가입국이다.

우리나라는 1973년 뉴욕협약에 가입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해 이 협약 가입국간 그 승인과 집행을 보장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뉴욕협약 가입시 동 협약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① 외국중재판정일지라도 그 외국이 이 협약의 가입국인 경우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하며 ② 한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하기로 유보선언을 하였다. 전자를 ‘상호주의 유보선언’이라고 하며 후자를 ‘상사한정 유보선언’이라고 한다(목영준, 2000: 253-254).

남북한 경제교류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 국가들의 뉴욕협약 가입 현황을 보면 러시아는 1960년에, 중국은 1987년에, 일본은 1961년에, 그리고 미국은 1970년에 각각 뉴욕협약에 가입하였다.<sup>25</sup>

---

24 뉴욕협약은 1958년 6월 10일 미국의 뉴욕시에서 채택되었는데 정식명칭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이다.

25 러시아(소련 붕괴 후 러시아로 승계)와 일본은 상호주의 유보선언을, 중국과 미국은 상호주의 및 상사한정 유보선언을 하였다.

한편, 워싱턴협약에서는 국제간 투자분쟁에 관한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기 위한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구가 ‘투자분쟁국제해결본부(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이다.

무역 등 국제상거래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중재는 분쟁해결에 있어 통상적으로 특정 국가의 법을 준거하고 그 관할을 인정함으로써 국가가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공정성·독립성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혀 독립된 별개의 중재에 관한 준거법을 제정한 것이 워싱턴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워싱턴협약에 1966년 4월 18일에 서명한 후 1967년 2월 21일 비준서를 기탁하여 동년 3월 23일에 발효하였다.

대북 무역과 투자, 특히 개성공단 진출에 관심을 가진 외국 당사자의 입장에서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중재판정의 국제적 승인과 집행을 담보하는 뉴욕협약과 워싱턴협약에 가입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는 대북 경제교류 증대 및 그에 따른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확고한 제도적 장치이며 북한의 대외 이미지도 제고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다.<sup>26</sup>

## 4.2. 남북한 및 중국의 3국간 중재협력 강화

### 4.2.1. 문제의 제기

국제상거래에서 거래당사자들이 계약조건을 협상함에 있어 자기 측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거래당사자가 분쟁해결에 대비하여 계약서

---

26 분쟁해결합의서는 제16조에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중재판정 불이행시 관할 재판기관에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의 구속력을 승인하고 해당지역 재판기관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여부를 중재위원회가 판단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자의적 판단이 개재될 여지가 있으므로 뉴욕협약과 워싱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를 준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 삽입하는 중재조항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중재조항의 요소 중 당사자간에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부분은 중재지(place of arbitration)에 관한 합의이다.

중재지<sup>27</sup>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증거제출, 심리에의 출석, 비용절감 등의 측면에서 당사자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로 선호하는 중재지를 고집하다 보면 본 계약 자체의 체결이 지연되는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가 계약을 순조롭게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중재지를 사전에 확정해두는 대신 양 당사자 소재국의 중재기관간에 체결되어 있는 중재협정(arbitration agreement)상의 중재조항을 이용하는 것이 피차 유리하게 된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중재지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양국의 중재기관이 중립적인 지위에서 중재지를 결정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 중재협정의 주된 내용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중·북한 3국의 중재기관이 협력하여 동북아 역내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의 해결에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지금 세계 경제권은 동북아를 포함하는 아시아경제권, EU경제권, 북미경제권의 3대 경제권으로 재편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의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이 위치하는 동북아 역내권의 경제교류는 앞으로 지역경제권의 통합음직임과 흐름을 같이하면서 역내의 경제교류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역내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확대되면서 등장하는 주요 문제 중의 하나는 역내 간 상사분쟁의 공정·신속한 해결이다. 특히 멀지 않은 장래 역내 경제교류가 FTA로 결속되면서 기존의 무역장벽이 무너지는 한편으로 물품, 서비스 및 자본의 거래가 급증하기 때문에 사적 분쟁의 해결촉진을 위해 종래의 중재협정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을 뛰어넘는 새로운 중재협력의 구축을 심도

---

27 중재지란 중재절차 및 중재판정이 행하여지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중재지 내에서 중재심리가 행해지는 특정장소(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실 등)는 이를 심리장소(place of hearing)라고 하는데 중재지와 심리장소를 모두 '중재장소'라고 부르기도 한다.

있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남북한과 중국의 중재기관이 협력하는 것은 이 지역의 경제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4.2.2. 협력의 방향

첫째, 3국간 분쟁해결에 적용할 중재규칙이다.

남북한 및 중국은 UN의 회원국이다. 따라서 UN 차원에서 제정한 UNCITRAL 중재규칙을 3국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준거규칙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UNCITRAL 중재규칙을 이용한다는 것은 UNCITRAL의 정신인 중재제도의 범세계적 통일화와 조화를 지향함으로써 국제무역의 활성화와 인류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가진다.<sup>28</sup>

국제간의 경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해 UNCITRAL 중재규칙이 최초로 언급된 중재협정은 “미·소 무역계약에 사용하기 위한 선택적 중재조항(Optional Arbitration Clause for Use in Contracts in USA-USSR Trade)”으로 알려지고 있다. 1977년에 체결된 이 협정의 체결 당사자는 미국중재협회와 소련연방상공회의소이다. 또한 1984년 미국중재협회와 헝가리상업회의소간에 체결된 같은 명칭의 중재협정에서도 중재절차에 관하여 UNCITRAL 중재규칙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와 소련간에 체결된 후 러시아로 승계된 한·러 투자보장협정에서도 일방 계약당사국과 타방 계약당사국 투자자간의 분쟁은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해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UNCITRAL 중재규칙은 보편적인 국제적 중재규칙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UNCITRAL 중재규칙은 초안 작업시 뉴욕협약, 워싱턴협약, 모스크바

---

28 UNCITRAL 중재규칙은 1976년 4월 28일 UNCITRAL 제9차 회기에서 채택된 41개조로 구성된 중재규칙이다. 동 규칙은 법체계적 이용을 위해 제정되었는데 원래 임시적 중재(ad hoc arbitration)를 지향하고 있었으나 제도적 중재(institutional arbitration)를 배타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협약과 같은 중재에 관한 국제협약을 고려하였다. 또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중재규칙인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규칙, 미국중재협회 중재규칙, 소련상공회의소 중재규칙도 고려하였다(Piter Sanders, 1977: 173-174).

둘째, 3국간 협력의 모델 검토이다.

먼저,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이 오스트리아의 중재기관과 체결한 한·오스트리아 중재협정의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협정은 대한상사중재원이 1995년 오스트리아 연방경제회의소(Austrian Federal Economic Chamber) 및 동 경제회의소의 국제중재센터(International Arbitral Centre)와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서 특별히 돋보이는 것은 협정체결의 당사자들 간에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인 선정권자로서 상호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제3국 중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된다.<sup>29</sup>

오스트리아는 중립국으로서 국제연합의 기관들이 많이 소재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동서국간의 중재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세계 최대의 중재기관의 하나인 미국중재협회는 1984년 「미-헝가리 무역계약에 사용하기 위한 선택적 중재조항」을, 1985년 「미-불가리아 무역계약에 사용하기 위한 선택적 중재조항」을, 1988년 「미-폴란드 무역계약에 사용하기 위한 선택적 중재조항」을, 그리고 1989년에는 「미-체코 무역계약에 사용하기 위한 선택적 중재조항」을 각각 해당 국가의 중재기관과 중재협정 형식으로 체결한 바 있다.

이상 4개의 협정 모두 미국중재협회와 해당국가의 중재기관<sup>30</sup> 및 중재인 선

---

29 이 협정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중국의 CIETAC과 체결한 중재협정의 내용, 즉 중재지 결정에 있어 피신청인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중재가 진행되는 방식(피신청인주의)을 도입한 형태의 중재협정과 비교가 된다. 통상의 경우 중재의 당사자는 모두 자국에서 자국의 중재기관에 의해, 그리고 자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중재절차가 진행될 것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자국주의를 너무 고집하다 보면 본계약 자체의 체결이 지연되거나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중재의 당사자는 제3국에서 중재가 진행되는 경우를 선호할 수도 있다. 특히 제3국 중재는 자본주의국가와 사회주의국가의 거래당사자간의 상거래분쟁의 해결을 위해 빈번하게 요청되곤 하였다.

정권자로서의 오스트리아 연방경제회의소간의 3자 협정(tripartite agreement)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헝가리 및 불가리아와의 협정에서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를 중재지로 고정시켜 놓은 반면<sup>31</sup> 폴란드 및 체코와의 협정에서는 중재지를 원칙적으로 비엔나로 하되 당사자합의로 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협정에서는 공히 UNCITRAL 중재규칙을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절차적 준거규칙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하에서의 중재기관인 CAMCA 모델의 검토이다.

CAMCA(Commer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for the Americas: 아메리카 상사중재·조정센터)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의거하여 창설된 사적분쟁 해결기구이다. 이 기구는 NAFTA 역내에서 발생하는 사적 상사분쟁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NAFTA 회원국인 캐나다·미국·멕시코 3국의 대표적 중재기관의 공동노력이 결실을 맺어 1995년 12월에 창설되었다. NAFTA는 역내 국가간 사적 상사거래(무역, 투자 등)에서 발생하는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인 ADR의 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는 NAFTA 제2022조이다.<sup>32</sup>

---

30 헝가리에는 헝가리상업회의소(Hungarian Chamber of Commerce), 불가리아에는 불가리아상공회의소(Bulgar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폴란드에는 폴란드대외무역회의소(Polish Chamber of Foreign Trade) 그리고 체코에는 체코상공회의소(Czechoslovak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가 중재기관으로서의 협정체결의 당사자이다.

31 「미-소 무역계약에 사용하기 위한 선택적 중재조항」에서도 스웨덴의 스톡홀름을 중재지로 고정시켜 놓고 있다.

32 NAFTA 제2022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1항: Each Party shall,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encourage and facilitate the use of arbitration and other mean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or th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between private parties in the free trade area(각 회원국은 자유무역지대 내의 사적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해 중재, 기타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이 이용되도록 최대한 촉진한다).

제2항: To this end, each Party shall provide appropriate procedures to ensure observance

CAMCA 창설의 법적 근거는 제공되었지만 그 창설을 누가 맡아서 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NAFTA 회원국들은 그 창설의 주역을 역내 회원국의 대표적 중재기관으로 하고 이들 기관이 공동으로 CAMCA를 창설하도록 하였다. CAMCA 창설을 주도한 역내의 중재기관은 미국의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미국중재협회), 캐나다의 British Columbia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entre(British Columbia 국제상사중재센터) 및 Quebec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entre(퀘벡상사중재센터), 멕시코의 Mexico City National Chamber of Commerce(멕시코시상업회의소)의 4개 중재기관이다. CAMCA는 NAFTA 역내의 사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창설된 다국적 성격을 가진 상설기관으로 통일된 규칙과 정책 및 행정절차를 가지고 운영된다. 역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사건은 CAMCA 창설을 주도한 상기 중재기관의 어느 사무소에서도 접수될 수 있다.

---

of agreements to arbitrate and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such disputes(이를 위해 각 회원국은 분쟁사건에서 중재합의가 준수되도록 하며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되도록 적절한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제3항: A Party shall be deemed to be in compliance with paragraph 2 if it is a party to and is in compliance with the 1958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or the 1975 Inter-America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어느 회원국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1958)'이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미주협약(1975)'의 가입국으로 이를 준수하고 있다면 상기 2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항: The Commission shall establish an Advisory Committee on Private Commercial Disputes comprising persons with expertise or experience in the resolution of private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The Committee shall report and provide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general issues referred to it by the Commission respecting the availability, use and effectiveness of arbitration and other procedures for the resolution of such disputes in the free trade area(자유무역위원회는 사적 상사분쟁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며, 동 자문위원회는 사적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자문위원회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자유무역지역에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 기타 절차의 이용가능성, 이용 및 효과에 관하여 자유무역위원회로부터 의뢰 받은 일반적 사항에 관하여 자유무역위원회에게 보고하고 권고해야 한다).

## 5. 결어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해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중국의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와 체결한 한·중 중재협정은 한·중 양국간의 무역, 투자 등 경제교류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의 해결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정은 쌍무적 차원의 협정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의 당사자만 이용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남북한간의 상사분쟁해결을 위한 남북한 중재협력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발사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경제문제에 관한 한 남북 당국은 냉정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합의된 분쟁해결합의서와 중재위원회합의서에 따라 남북 당국이 공동으로 창설한 역사적인 중재기관인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의 중재관련 국제협약에의 가입이 요청되고 있다. 북한은 현재까지 뉴욕협약과 워싱턴협약(ICSID협약)에 모두 미가입국으로 남아있다. 대북 무역과 투자, 특히 개성공단 진출에 관심을 가진 한국기업이나 외국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중재관정의 국제적 승인과 집행을 담보하는 뉴욕협약과 워싱턴협약에 가입하기를 원한다. 이는 대북 경제교류 증대 및 그에 따른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확고한 제도적 장치이며 북한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다.

남북한 및 중국 3국은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 대비한 중재협정 체결 및 공동 분쟁해결기구의 창설 등 역내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차원의 분쟁해결방식을 심도 있게 연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남북한 및 중국의 3국 중재기관이 중재협정을 체결하여 분쟁해결에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또한 NAFTA하에서 사적분쟁의 해결촉진을 위해 창설된 CAMCA의 분쟁해결구조를 분석하여 3국의 중재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분쟁해결의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은

남북한 및 중국 3국의 대표적 중재기관의 주도하에 공동분쟁해결기구가 설립되어야 하며 이들 중재기관이 공동으로 제정한 중재규칙과 중재인단 및 통일된 행정절차에 의해 조직과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분쟁은 역내간의 무역·투자 및 모든 사적 상사분쟁이 대상이 되어야 하며 분쟁사건은 3국의 어느 중재기관에도 접수되어 처리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단행본 및 논문〉

- 김상호(2008)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서울: 두남, 253-260.  
목영준(2000) 『상사중재법론』, 서울: 박영사, 253-254.  
법원행정처(1995) 『북한의 중재제도』, 서울: 135-140.  
ICCA(1983) 'Commercial Arbitration', in *Year Book* Vol.VIII, Deventer: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299-303.  
Piter Sanders(1977) 'Commentary on UNCITRAL Arbitration Rules', in *ICCA Yearbook* Vol. II, Deventer: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73-174.  
Hans Smit, Vratislav Pechota(1991) *The World Arbitration Reporter* Vol.1, New York: Transnational Juris Publications, Inc., 70-72.  
외교통상부(국제경제국 경제협력과) 보도자료(2007.9.7).

〈중재관련 협정 및 법규〉

-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2003).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2003).  
남북사이의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서(2003).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2003).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2006).  
UNCITRAL 중재규칙(1976).  
UNCITRAL 모델중재법(1985).  
워싱턴(ICSID) 협약문(1966).  
뉴욕 협약문(1958).

- 한·중 무역협정문(1990).
- 한·중 투자보장협정문(1990/2007).
- CAMCA 조정규칙.
- CAMCA 중재규칙.
- 한국중재법(법률 제6083호, 1999.12.31).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2000.4.27 대법원 승인).
- 한·오스트리아 중재협정(1996).
- Arbitration Agreements entered into by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with the arbitral institutions in socialist states, including Hungary(1984), Bulgaria(1985), Poland(1988) and Czechoslovakia(198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의 기본내용과 특징

홍 철 화

조선사회과학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공화국정권은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관계를 맺거나 정치, 경제, 문화적 련계를 맺고 그것을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강성대국건설사상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는 것과 함께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경제교류관계를 맺고 대외경제사업을 힘 있게 벌리고 있다. 외국적요소를 가지는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거래는 그 과정에 각이한 형태의 분쟁들을 필수적으로 동반한다.

공화국에서는 대외경제거래과정에 발생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담보로서 주체88(1999)년 7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75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을 채택하였으며 그 후 10년간의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제기되는 실천적 요구를 고려하여 주체97(2008)년 7월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6호로 그것을 수정 보충하였다.

새로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은 7개장 65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대외경제중재법의 기본》에서는 대외경제중재법의 사명과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함께 대외경제중재는 외국적요소와 함께 당사자들 사이의 중재합의가 있는 대외경제거래과정에 발생한 분쟁문제와 국가가 대외경제중재절차로 해결하도록 위임한 분쟁들을 해결한데서 객관성, 과학성, 공정성, 신속성을 보장하며 허물 있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원칙에서 진행한다는데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제2장 《중재합의》에서는 당사자들이 대외경제거래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할 데 대하여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하며 당사자일방의 중재합의제기에 상대방당사자가 부인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원고의 중재제기를 부인하지 않고 항변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다고 인정한다는데 대하여 규제하고 중재제기 조건, 중재제기방법과 접수 및 부결통지 등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제3장 《중재부》에서는 중재원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 중재위원회가 중재원수를 정하며 중재원이 자격이 없거나 공정성과 독자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재원을 배제할 수 있다는데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제4장 《중재절차》에서는 중재장소, 중재인어, 청구와 항변, 감정인과 증인, 증거조사의 의뢰 및 증거조사결과와 통지 등과 함께 중재수속의 매 단계에서 중재부의 활동내용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제5장 《재결》에서는 재결의 준거법, 재결문의 형식과 내용, 중재의 종결 및 재결문의 정정, 해석 및 추가재결 등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제6장 《재결의 효력 및 취소제기》에서는 재결의 효력은 재결문을 작성한 날부터 발생하며 재결에 의견이 있는 자는 그것을 취소시켜줄데 대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결의 취소제기사유 및 재판기관의 조치 등에 대하여 규제

하고 있다.

제7장 《재결의 집행》에서는 재결의 집행신청 및 집행, 다른 나라의 재판 기관에 집행신청, 다른 나라 중재부가 내린 재결의 집행거부사유 등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이번에 수정보충 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은 공화국의 대외경제분쟁해결을 위한 활동과정에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을 고려하여 내용상으로도 립법기술적으로 더욱더 완성함으로써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분쟁사건을 정확히 심리해결하고 분쟁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새로 수정보충 된 대외경제중재법은 형식상의 측면에서 이전의 대외경제중재법과는 다른 구성체계를 가지고 있다.

중전의 대외경제중재법은 제1장 “대외경제중재법의 기본”, 제2장 “중재제기”, 제3장 “중재심리”, 제4장 “재결과 그 집행”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정보충 된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이전 중재법의 “중재제기”, “중재심리”를 장제목에서 없앴으며 “중재합의”, “중재부”, “중재절차”, “재결의 효력 및 취소제기”를 독자적인 장들로 새롭게 설정하였고 한개 장으로 되어있던 “재결과 그 집행”을 두개의 장으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수정보충 된 대외경제중재법이 분쟁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구성체계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 수정보충 된 대외경제중재법은 중전의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일련의 특징을 가진다.

특징은 첫째로,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당사자의사존중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의 합의를 우선시하고 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은 대외경제중재의 본질과 원리로부터 출발하는 원칙적요구이다.

현 시기 재산분쟁에 관한 국제기구들의 중재규칙들에서는 물론 모든 개별

적 국가들의 국내법들에서도 당사자의사존중의 원칙을 중재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원칙을 인정하여왔다.

그러나 이전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중재사건을 취급처리하는 중재원의 수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만 당사자들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을 뿐 기타 문제들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우선시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수정보충 된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중재합의, 중재원수의 결정, 중재원의 선정절차, 중재원의 배제절차, 중재의 시작날자, 중재장소, 중재절차, 재결의 준거법 등 전반적인 문제들을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며 그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만 중재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제하였다.

대외경제중재법 제14조에서는 “당사자 일방의 중재합의제기에 상대방당사자가 부인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원고의 중재제기를 부인하지 않고 항변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서면합의가 없어도 중재합의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당사자일방이 중재합의를 제기하는데 대하여 상대방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거나 원고의 중재제기에 대하여 그에 따르는 항변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중재에 대하여 합의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당사자의사존중의 원칙을 구현한 대표적인 실례라고 볼 수 있다.

대외경제중재법 제47조에서는 “당사자들은 중재사건취급처리의 임의의 단계에서 언제든지 서로 화해할 수 있다. 중재부는 당사자들이 화해하였을 경우 사건처리를 결속하고 화해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당사자들이 중재를 제기하고 중재절차에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서로 합의하여 분쟁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면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전처리를 결속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당

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중재부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로 된다.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당사자의사존중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표현들은 이외에도 중재장소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하며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만 중재부가 당사자들의 편의, 사전해결의 전반 상황을 고려하여 중재장소를 정한다고 규제한 제35조, 당사자들은 중재언어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없을 경우 중재부가 중재언어를 결정한다고 규제한 제37조, 원고가 중재제기를 취소하거나 원고와 피고가 중재를 끝내는데 합의하였을 경우 중재가 중재부의 결정으로 끝난다고 규제한 제52조 등을 통하여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징은 둘째로,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객관성, 과학성, 공정성, 신속성을 보장하며 허물 있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객관성, 과학성, 공정성, 신속성을 보장하며 허물 있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하는 것은 대외경제중재의 특성과 관련된다.

대외경제거래과정에 발생하는 분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들에는 화해나 조정, 민사소송과 같은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다. 이러한 분쟁해결수단들 중에서 중재는 자기의 특성으로부터 분쟁문제를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객관성, 과학성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의 합법적 리익을 원만하게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되고 있다.

대외경제중재법 제6조에서는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는 객관성, 과학성, 공정성, 신속성을 보장하며 허물 있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한다.”고 명확히 규제함으로써 이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객관성, 과학성, 공정성, 신속성을 보장하며 허물 있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원칙은 이 법의 여러 조문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외경제중재법 제8조에서는 “당사자가 중재와 관련한 합의 또는 이 법에 어긋나게 중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즉시 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을 제기하지 않아 중재사건의 취급이 계속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의견제 기권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고 규제함으로써 당사자의 허물로 중재사건의 취급이 계속되는 것으로 하여 차례지는 불이익은 자기의 옹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당사자가 지도록 하고 있다.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객관성, 과학성, 공정성, 신속성을 보장하며 허물 있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원칙은 이외에도 국가는 대외경제중재사건의 취급과 처리에서 중재부의 독자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고 규제한 제10조,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중재원수를 1명 또는 3명으로 정한다고 규제한 제20조 후단, 중재위원회는 중재원을 선정할 경우 당사자들의 요구 또는 이 법에 규정한 중재원의 자격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독자적인 중재원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제22조, 배제신청을 받은 중재원이 사임하지 않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배제신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재부는 배제신청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한 제25조 후단, 원고가 정당한 리유없이 청구문건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취급을 중지하고 결속을 하며 피고가 충분한 리유없이 항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고와 피고 가운데서 어느 일방이 정당한 리유없이 중재심리에 참가하지 않거나 증거문건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건심리를 하고 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재결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제한 제40조, 중재부는 원고가 중재제기를 취소하였으나 피고가 동의하지 않으며 분쟁을 끝까지 해결하는 것이 피고에게 정당한 리익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재사건의 취급을 끝내지 말아야 한다고 규제한 제52조의 조항들은 모두 분쟁해결에서 과학성, 공정성, 신속성을 보장하며 허물 있는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원칙들을 반영한 조항들이라고 볼 수 있다.

특징은 셋째로, 일부 내용들이 폭넓고 구체적으로 규제되고 이전 대외경제중재법에서 규제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이 보충되었다는 데 있다.

그것은 우선 중재합의와 관련한 조항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재합의는 분쟁문제를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중재리론과 실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중재는 분쟁당사자들이 해당 분쟁을 자기들이 선정한 제3자인 중재원에게 부탁하여 해결할 것을 약속한 합의가 있어야 중재수속이 개시될 수 있는 활동이다.

중재합의를 하지 않은 당사자들은 분쟁을 중재에 제기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만일 당사자들 사이에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편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에 제기한데 대하여 상대방이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 그 제기는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하며 설사 재결이 내려 졌다고 해도 해당 재결은 승인집행을 거절당하게 된다. 이로부터 중재합의는 중재와 관련한 법률관계의 발생 및 성립의 필수적요소로 된다고 할 수 있다.

중재의 진행과 재결의 집행도 유효한 중재합의에 의하여 담보된다. 일단 중재합의를 한 분쟁당사자들에게는 해당 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소송제기가 금지되어 있다. 만일 중재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제기는 재판소에 의해 기각 또는 보류된다.

분쟁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하는 목적도 바로 해당 분쟁을 중재에 제기하여 해결할 것을 바라는 동시에 동일한 분쟁에 대한 소송제기를 방지하고 중재를 통한 분쟁의 해결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지난시기 우리나라의 중재실무에서는 중재합의와 관련한 복잡한 분쟁문제가 적지 않게 제기되었다. 새 법에서는 실천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고려하여 중재합의와 관련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전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중재합의와 관련하여 “대외경제중재는 분쟁당사자들의 서면합의에 따라 분쟁당사자 일방이 낸 중제제기문건에 의하여 한다. 서면합의에는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조항이나 분쟁발생 후 당사자들

이 맺은 중재계약이 속한다.”고 규정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새로 수정 보충 된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할 데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는 것, 중재합의는 해당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포함시키거나 계약서와 별도로 합의문건을 만드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중재합의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는 물론 분쟁이 발생한 후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들은 중재합의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수표한 문건이나 당사들 사이에 주고받은 서신, 팩스, 전자우편 같은데 중재의사와 관련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을 경우와 중재합의가 구두 또는 행동 그밖의 수단이나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나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서면중재합의로 인정한다.

그것은 다음으로 분쟁사건을 취급처리하는데서 중재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한 조항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재는 원래 당사자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중재원들은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증거물이나 증거문서에 기초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 재결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이로부터 중재원들은 증거의 수집, 조사와 같은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규정위반으로까지 인정된다. 이것은 국제경제중재실무에서 하나의 공인된 원칙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새로 수정보충된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중재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항들을 설정하고 있다.

그것은 중재부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중재 장소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중재원들의 협의, 증인이나 감정인 기타 사건관련자들과 사실확증, 재산이나 문건의 조사 같은 것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35조의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규정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중재원들은 증인이나 감정인을 비롯한 필요

한 사람들을 만나 사실을 확증하고 재산이나 문건을 조사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중재원들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법적의무는 아니다.

중재원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 것은 중재실무의 실천적요구에 비추어 볼 때 사건을 빠른 기간 내에 정확히 해결할 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조치라고 말할 수 있다.

분쟁사건을 취급처리하는데서 중재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제하고 있는 조항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중재부는 감정을 위하여 감정인을 지정하고 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당사자들이 감정과 관련한 문서, 물건 등을 감정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의 요구 또는 중재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정인, 증인을 중재심리에 참가시켜 답변하게 할 수도 있다고 규제한 제41조, 중재부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필요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거나 재판기관이나 해당 기관에 증거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제한 제42조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또한 구두심리와 함께 문건심리를 할 것을 규제한 조항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건심리를 한다는 것은 당사자들의 참가 없이 제출되었거나 조사확증한 문건들에 기초하여 문건상의 심리를 한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중재법 제39조에서는 “중재부는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중재심리를 구두로 할 것인가 또는 문건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당사자들 사이에 구두심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일방의 요구에 따라 사건취급의 필요한 단계에서 구두심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보는바와 같이 심리방법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르고 합의하지 않았다면 중재부의 결정에 따라 구두로 할 수도 있고 문건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당사자들의 말보다 증거문서를 위주로 하는 대외경제 중재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중재심리를 문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외경제중재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이외에도 이전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규제하지 않았던 일련의 문제들도 새롭게 규제하고 있다.

우선 제1장에서는 이전 중재법에서는 볼 수 없었던 “용어의 정의”를 제2조로 설정하고 여기서 “대외경제중재”, “중재합의”, “중재부”, “재결”, “외국적요소”, “중재위원회”, “재판기관”, “해당기관”, “조정”에 대한 정의를 주고있다. 이러한 정의를 줌으로 하여 이 법에서 쓰이는 용어들의 통속적인 의미가 조항들에서 반복되지 않게 되었으며 그러한 개념들이 명백한 의미를 가지고 해당 조항들에 규제되게 되었다.

중전의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대외경제중재절차로 심리해결하는 분쟁을 ①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기업소사이에 생긴 분쟁 ②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인투자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③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④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⑤ 외국기업과 외국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⑥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과 해외조선동포, 외국인사이에 생긴 분쟁을 대외경제중재절차로 해결하는 분쟁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새로 수정 보충 된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외국적 요소》의 개념을 “당사자들 가운데서 어느 일방이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이거나 업무장소, 거주지, 주소지 또는 분쟁재산이나 중재장소가 다른 나라에 있는 것 같은 다른 나라와 련관되는 조건들”이라고 정의하고 제4조에서 대외경제중재로 해결하는 분쟁을 조항별로 규정하지 않고도 외국적요소와 함께 당사자들 사이의 중재합의가 있는 대외경제거래과정에 발생한 분쟁이라고 통속적으로 규제하였다.

다음으로 이전의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재결의 집행과 관련한 제재, 다른 나라 중재부가 내린 재결의 승인과 집행, 다른 나라 중재부가 내린 재결의 집행거부사유 등에 대하여 새롭게 규제하고 있다.

대외경제중재법에 의하면 당사자가 집행문에 따라 재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거나 경제활동중지, 벌금부과, 몰수, 출입국 중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른 나라 중재부가 내린 재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문제는 중재재결의 강제집행과 관련된 문제이다.

다른 나라 중재부가 내린 재결의 승인이란 해당 나라의 권한 있는 기관이 다른 나라 중재부가 내린 재결을 자기 나라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확인하는 것이며 집행이란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거하여 행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른 나라의 중재부가 내린 재결의 승인과 집행은 공화국의 해당법규에 따른다.

다음의 사실이 증명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중재부가 내린 재결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① 당사자가 중재합의당시 준거법에 따라 무능력자이거나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 또는 당사자들이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재심리를 한 나라의 법에 따라 효력이 없다는 사실

② 당사자가 중재원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항변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

③ 재결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실

④ 중재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에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르지 않았거나 합의가 없었을 경우 중재심리를 한 나라의 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

⑤ 재결이 아직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재결을 내린 나라의 재

관기관 또는 그 나라의 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집행정지 되었다는 사실

⑥ 해당 분쟁이 재결을 내린 나라의 법에 의하여 중재절차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⑦ 재결의 집행이 공화국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는 사실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이외에도 중재원의 배제사유, 배제절차 등 많은 면에서 새로운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보는바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은 지난 기간 대외경제거래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분쟁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얻은 경험들에 기초하여 대외경제중재사업을 보다 원만히 벌려나갈 수 있는 원칙과 수속절차들을 규제한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 나가고 있는 조선경제

리 기 성

조선사회과학원

오늘 조선에서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을 다 그치기 위한 총진군이 힘 있게 벌어지고 있다.

조선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경제강국 건설구상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에 의하여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과 시련이 닥쳐왔던 1990년대에 제시되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정세발전의 추이와 시대적 요구를 천 리혜안의 예지로 통찰하시고 펼치신 선군정치를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조성된 엄혹한 난국을 뚫고 6년간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여 강성대국건설의 돌파구를 열고 그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새 세기에 들어와 우리의 자립적 경제토대와 우리 식의 경제구조에 의거하여 선군시대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에서 력사적인 전환을 이룩하고 부강조국건설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새 세기 초에 우리나라에서는 제국주의 반동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의하여 복잡하고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고 경제적난관도 지속되었다. 이에 대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나라의 정치사상진지를 굳건히 다지고 군력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로, 사활적인 요구로 나섰다.

우리는 인민대중 속에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기초한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하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굳건히 다졌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정치사상의 대국으로 되었다. 특히 선군혁명로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나라와 민족,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국방력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어 강력한 핵 억제력을 가진 세계적인 군사강국을 일떠세움으로써 경제건설의 안정되고 평화적인 경제로선과 정책들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나라의 경제가 활기를 띠고 하나하나 일떠서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의 새로운 양상을 위한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었으며 경제가 활성화의 길, 상승의 길에 확고히 들어서게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세련되고 탁월한 선군령도 밑에 정치사상전선, 반제군사전선, 경제문화전선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에 시련과 난관의 어둠을 밀어내고 강성대국의 려명이 밝아왔으며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경제적 비약을 일으킬 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었다.

우리는 강성대국의 려명이 밝아온 새로운 환경에서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는 역사적 시기에 들어서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2012년은 위대한 수령님탄생 100돛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경제강국 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수령님탄생 100돛이 되는 해에는 맑고 푸른 이 하늘아래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건설하는 강성대국은 보통의 경제대국이 아니라 주체의 사회주의 사상을 사상적 기초로 하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며 그것은 국력이 강하고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없이 잘사는 나라이다.

오늘 우리나라는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돛이 되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것은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리정표이며 우리 인민의 확

고한 의지이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데서 해결하여야 할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는 경제건설에 힘을 넣어 경제강국의 요새를 점령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사상적면에서나 군사적면에서 세계적인 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조건에서 경제강국만 건설하면 강성대국의 면모를 전면적으로 갖추게 된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데서 기본은 경제강국의 대문을 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제면에서 강국이 되면 나라의 정치사상적, 군사적 위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 사회주의의 우월성도 높이 발양시킬 수 있게 된다.

선군의 위력으로 이룩한 자랑찬 승리와 성과로 하여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섰지만 제국주의 반동들의 침략책동과 유엔기구까지 도용한 경제제재 책동이 계속되는 조선에서 그것도 불과 몇 해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자면 경제건설에서 비상한 열의와 견인불발의 투쟁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에는 1950년대 조국해방전쟁 이후 사회주의 건설의 어려운 시기에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전설속의 천리마와 같이 온갖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여 사회주의 공업국가에로 비약한 천리마대 고조시기가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천리마대고조의 위대한 전통을 계승하여 다시 한 번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 강성대국건설에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을 담대한 결심을 하시고 지난해 12월 24일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찾으시어 로동계급을 경제전선의 주력부대로 내세우시고 혁명적대고조의 봉화, 강선의 봉화를 지펴주시었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는 전체 인민이 필승의 신념을 안고 전후 천리마대고조를 일으키던 그 정신, 그 투지로 경제전선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2012년까지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거창한 창조와 혁신

의 봉화이다.

오늘의 혁명적대고조는 전후 사회주의 건설시기에 창조된 천리마대고조의 계승발전이며 강성대국건설, 경제강국 건설의 힘 있는 추동력으로 되고 있다.

경제강국 건설에서는 물질경제적요인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사람들의 정신력, 사상의 힘을 높이 발양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우리 인민이 준엄한 혁명투쟁 속에서 키워온 무한대의 정신력을 총발동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자체의 자원고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남김 없이 동원함으로써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대고조속도가 창조되는 거창한 비약의 시대, 21세기 혁명적대고조의 력사가 펼쳐지고 있다.

조선에서는 전 인민적인 총공세로 경제강국 건설의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기를 열어 나가고 있다.

인민대중이 지향하는 새 사회건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대적 요구와 현실적 조건에 맞게 투쟁목표를 바로 정하고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지난 시기의 최고생산수준을 돌파하는 것을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경제강국 건설의 당면한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적 조건에서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의 총적목표, 최종목표를 단번에 점령할 수는 없다.

우리는 짧은 력사적 기간에 나라의 자립적 민족경제를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우는 것을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의 총적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은 위대한 주체사상이 밝힌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을 구현한 자주시대 경제건설의 진로이며 우리가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전략적인 경제 건설로선이다.

사회주의 경제강국의 본질적 면모는 바로 자립적 민족 경제강국이라는데 있으며 나라의 경제를 자립경제강국으로 만드는 것이 경제강국 건설목표의 핵심적 내용이다. 자립경제강국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리익을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하는 가장 인민적이고 자주적인 경제강국이다.

〈고난의 행군〉을 한 우리나라의 현실적 조건에서 나라의 자립적 민족 경제를 세계적 수준에 올라선 자립경제강국으로 건설하려면 먼저 지난시기 자립적 경제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에 도달하였던 최고 생산 수준을 돌파하고 다음에 더 높은 고지점령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최고 생산 수준을 이룩하였던 시기는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80년대 속도〉 창조운동이 힘 있게 벌어진 1980년대이다. 이 시기 나라의 공업생산은 매우 높은 수준에 오르고 농업도 발전하여 식량을 완전히 자급자족하였으며 중요제품의 인구 한 사람당 생산량에서 발전된 나라들의 수준에 이르거나 륭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2012년까지 지난 시기의 최고생산수준을 돌파하는 것을 경제강국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당면한 목표로 내세우고 전체 인민이 분발하여 경제전선에서 총공격전, 총동원전을 벌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전선이 현 시기 강성대국건설의 주공전선으로 되고 있다.

경제전선에서는 무엇보다 전력공업과 금속공업, 농업부문을 추켜세우는데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 있다.

전력과 철강재,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 시기 나라의 전반적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 있다.

우리는 전력과 철강재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자체의 풍부한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전력공업과 금속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그 발전전략을 세우고 실현해나가고 있다.

전기는 현대 산업의 기본동력이다. 우리는 강하천이 많아 수력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력발전소건설을 기본으로 하면서 풍력과 원자력을 비롯한 다른 에네르기자원의 리용을 배합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 수많은 대규모수력발전소들과 중소규모발전소들이 건설되며 나라의 동력기지가 강화되고 전력생산이 빨리 늘어났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인 투자를 집중하여 많은 대규모수력발전소들의 건설을 다그침으로써 긴장한 전력문제해결의 밝은 전망이 열려지고 있다.

금속공업은 인민경제에서 기초적인 공업부문이며 우리나라 자립적 민족경제의 기둥이다. 우리나라는 많은 철광석 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кок스탄이 없어 지난 시기에는 주로 세계사회주의 시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кок스탄을 들여다가 금속공업을 발전시켜왔다.

우리나라의 금속공업을 전망성 있게 확고히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담보는 금속공업을 주체화하는데 있다. 우리는 금속공업부문에서 우리나라 원료, 연료에 의거하는 우리식의 철생산체계, 주체철생산체계를 확립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몇 해 사이에 이미 있던 주체철생산기지들이 정비 보장되고 새로 더 건설되어 주체철생산비중이 훨씬 늘어났다.

우리는 주체철생산기지들을 더욱 확대강화하고 주체철의 경제기술적 효과성을 높이면서 금속공장들의 개건현대화를 다그쳐 철 생산능력을 높여나가게 된다.

인민들이 생활상걱정을 모르고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강국 건설의 중요한 과업이며 여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것이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90년대 중엽에 현대농업과학기술발전추세와 나라의 농업실태로부터 출발하여 농업생산과 기술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새로운 농업혁명전략을 내놓고 그것을 적극 실현하여 농업생산을 빨리 높일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우리는 오늘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형편에서 식량문제를 외부세계에 의존하지 않고 농사를 잘 지어 자체로 해결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2012년까지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목표

로 내세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업혁명전략의 요구대로 알곡생산을 늘이는데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하고 있으며 농업과학기술을 혁신하는 것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종자혁명을 다그치고 선진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힘 있게 밀고나가고 있다.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경제전선에서는 또한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인민경제의 개건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은 경제발전의 기초이며 강성대국건설의 힘 있는 추동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혁명을 다그쳐 과학기술발전을 다른 모든 분야에 확고히 앞세우고 있다. 우리는 첨단과학기술분야를 과학기술발전의 주공방향으로 정하고 자체의 연구개발과 다른 나라의 선진기술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을 배합하는 방법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비약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 신소재, 새에너지, 우주기술, 핵기술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최근시기 두 차례(1998, 2009년)의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인 발사와 두 차례(2006, 2009년)의 핵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강국의 요새가 점령되었다는 것을 뚜렷이 증시하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새로운 국가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2008-2012년)을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의 총적목표는 경제발전에서 과학기술발전의 기여율을 30%로 높이는 것이다.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인민경제를 개건현대화하는 것은 새 세기자립경제강국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나서고 있다.

우리는 짧은 기간에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과학기술의 첨단에 오른 최신설비와 기술로 장비하는 것을 개건현대화의 목표로 내세우고 중요하고

긴절한 대상 그 가운데서도 실리가 나는 대상부터 먼저 하는 방법으로 나라의 경제를 기술집약형 경제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기계공업, 화학공업, 금속공업, 전자공업, 경공업을 비롯하여 전반적 경제를 현대화, 정보화하기 위한 투쟁이 적극 추진됨으로써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산의 기술적 기초가 빠른 속도로 변혁되고 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대외경제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우리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만큼 경제분야에서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자주의 원칙, 자력갱생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

경제분야에서 자주의 대를 튼튼히 세우고 경제의 자립성과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기초 위에서 대외경제관계를 우리나라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주동적으로 당당하게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이것은 외부의 투자나 원조를 바라지 않고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를 강화 발전시켜 자체의 경제력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주체적립장의 발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외에 진출할 수 있는 자체의 경제적 밑천을 튼튼히 마련 하는데 큰 힘을 넣고 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수출생산기지들을 확대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연, 아연, 마그네사이트, 흑연자원을 세계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독점지표로 정하고 현대적 기술로 채굴하고 질적으로 가공하여 대대적으로 수출할 전망을 열어나가고 있다.

우리는 혁명적대고조로 경제강국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경제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정치사상사업을 앞세워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하고 집단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 경제건설에서는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 우리 조국력사에 일찍이 있어 본 적이 없는 혁명적대고조, 일대비약의 폭풍이 일어나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로속하고 세련된 선군령도가 있고 천만군민의 일심단결된 힘이 있으며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잠재력과 믿음직한 과학기술력량이 마련되어 있기에 우리나라는 멀지 않아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일어 설 것이며 2012년에는 반드시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게 될 것이다.



# Perspectives and Obstacles of Russia – Republic of Korea FTA Conclusion\*

Dr. Denis V. Suslov

Russian Academy of Science Far Eastern Branch

## 1. Introduction

Korea's trade policy in general and free trade policy in particular (in modern times) has traditionally been focused on multilateral negotiations and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Korea has been consistently advocating that an open and strong multilateral trading system is fundamental to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Since its accession to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in 1967, Korea's gross national income per capita and exports have risen from a mere 142 USD and 0,3 bln USD to 20,045 USD and 371,5 bln USD in 2007, respectively. The global liberalization of trade under the transparent and rules-bas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 helped Korea transform itself from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40 years ago to a successfully industrializing

---

\* The research was conducted under support of Far Eastern Branch Russian Academy of Sciences, Project №09-1-OOH-02 and Russian Foundation for Basic Research, Project № 09-06-00309-a.

economy.

As one of the greatest beneficiaries of the open multilateral trading system, Korea has been fully committed to the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 (DDA) negotiations. The slow progress made in the current DDA negotiations was a cause of worry for Korea. Giving primary priority of its trade policy to the DDA negotiations, Korea has been playing an active and constructive role in the DDA negotiations in an effort to promote further liberalization and strengthen the rules and disciplines of the WTO system. It has so far tabled over 140 proposals and submissions. Korea will continue to make efforts to help move the multilateral trade agenda forward.

In parallel with these efforts for trade liberalization on the multilateral front, Korea has been making efforts to nurture more future-oriented and mutually beneficial bilateral trade relations with its trading partners. As part of these efforts, Korea has been engaged in several WTO-consistent regional free trade agreements (FTAs). To Korea, the objective of pursuing FTAs is to manage its bilateral trade relations in a more systematic manner and secure better access in trade and investment to foreign markets which may be unavailable under the multilateral setting. Moreover, it is expected that FTAs will prompt the domestic restructuring of less competitive sectors and thus raise the level of efficiency within the economy. In this light, Korea believes that these FTAs will complement, not replace, efforts for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Apart from the DDA negotiations and FTAs, Korea is also participating in regional cooperation mechanisms, including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the Asia-Europe Meeting (ASEM), and the ASEAN+3

processes. In 2005, Korea was the host economy of APEC, taking a leading role, inter alia, in issuing a political statement of support for the DDA negotiations on the occasion of the Economic Leaders' Meeting, held in November 2005. Through these regional cooperation mechanisms, Korea continues to contribute to making progress in achieving free and open trade and investment regimes in these regions and thus to moving toward global trade liberalization.

The beginning of official political contacts between Russia and Republic of Korea (ROK) was put with bilateral meeting at the summit in San Francisco in June, 1990. During the meeting of Ministers for Foreign Affairs of two countries in New York in the September of the same year diplomatic relations are established. By present time the necessary legal base of bilateral cooperation is created. It includes agreements on trade, about guarantees of investments, on fishery, on prevention of the double taxation, about cooperation in military-technical sphere, about cooperation in the field of atomic energy peace use, about a cultural exchange and other areas are concluded.

The important place in bilateral relations belongs to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It develops accruing rates. In 2007 the trade turnover between Russia and ROK has increased on 54,5% and amounted to 15,065 bln USD (in 2006 - 9,8 bln USD). The Russian export has reached 6,977 bln USD (growth on 52,6%), and import - 8,088 bln USD (growth on 56,1%). Russia stands on tenth place among main trading partners of ROK. In 2007 Russia has risen from 12-th to 8-th place in the list of the main buyers of Korean production, remaining thus the most dynamically developing market for ROK. The relative share of Russia in foreign trade turnover of ROK

remained insignificant - about 2%, continued to decrease, and a share of machine-technical production in the Russian export fall from 4,7% in the first half 2006 up to 2% for the same period of 2007. At the same time the share of machine-technical production in the Russian import from ROK has reached 80%. Increasing import of Korean drilling equipment for oil-and-gas projects in Sakhalin, tankers, cars, mobile phones and accessories became the major factor in bilateral trade growth. On preliminary estimations, in 11 months of 2008 the trade turnover between Russia and ROK amounted to 17.3 bln USD (growth on 29% in comparison with the same period of 2007). Thus russian export amounted to 7.4 bln USD (growth on 36% in comparison with the same period of 2007), and import - 9.9 bln USD (growth on 24%).

The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belongs to Russia-Korean Joint Commission on the Economic and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including ten branch committees and subcommittees. In the economic view the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ROK are characterized by distinct complementarities. Russia possesses oil and other energy reserves and various mineral resources deposits, including various nonmetallic metals which are the basic raw materials for the newest industries. The ROK has achieved high level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in the infrastructure creation,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the petrochemical industry, i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a number of other fields. Besides, Russia deservedly is proud of a world level of fundamental sciences development and technologies of creation of new materials and optics, and ROK possesses high technologies and experience in its commercialization, highly educated human resources

in such areas, as manufacture of semiconductors, computers and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In 2005 the governments of two countries have accepted the Russian-Korean Joint Plan of action in the field of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which realization will promote active expansion and deepening of economic relations and interactions between two states. This Plan is considered on long-term and strategic cooperation of two countries not only in economy (trade and investments), but also in scientific and technical area, in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exploration and development. Cooperation of two countries actively extends in such basic directions, as a fuel and energy complex, transport, science and technologies, ocean researches, the space industry, natural resources development, a science and techniques, information technologies, communication, fishery, regional cooperation. Thanks to it today's bilateral relations leave on level of many-sided confidential partnership.

Further we will stop on issues of FTAs formation in Asia-Pacific region. Section 2 presents current Korean FTAs policy. Section 3 in more details covers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Republic of Korea in trade and investments. By the end we will show perspectives and obstacle of the Russia - Republic of Korea FTA conclusion.

## 2. FTAs in Asia-Pacific region

The Asia-Pacific may be the world's largest economic trans-region, accounting for around half of world trade and output, but up until the late 1990s it was host to a relatively few FTAs by regional comparison. In 1997

it accounted for only seven of the 72 free trade agreements that had been signed globally by that date with only a handful of other FTA projects under consideration. Moreover, there was no operational FTA in East Asia at this time. Matters changed dramatically after the 1997/98 East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WTO's Seattle Ministerial Meeting debacle of 1999.

By the end of 2002 a total of 19 new free trade agreements had been signed within the Asia-Pacific and another 26 FTA projects were in different stages of development, i.e. officially proposed, feasibility studied or being negotiated. By the beginning of 2006 the total number of Asia-Pacific FTAs had doubled to 38 with another 29 projects in development. The most notable agreements signed in the new Millennium have been:

- ASEAN - China FTA (ACFTA)
- United States - Singapore FTA (USSFTA)
- Australia - United States FTA (AUSFTA)
- Chile - United States FTA (CUSFTA)
- Japan - Singapor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JSEPA)
- Japan - Malaysia FTA (JMFTA)
- Japan - Mexico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JMEPA)
- The Philippines - Japan FTA (PJFTA)
- South Korea - Chile FTA (KCFTA)
- Thailand - Australia FTA (TAFTA)
- China's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CEPAs) with Hong Kong and Macau which looks like the embryo of the "Greater China" concept
- China-Chile FTA (CCFTA)
-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PSEPA, a

quadrilateral FTA between Singapore, New Zealand, Chile and Brunei)

Perhaps even more significant FTAs are to come. The United States announced the commencement of negotiating agreements with Republic of Korea (already signed) and Malaysia. Japan has a number of FTAs lined up to sign with Thailand and Indonesia, and is trying – with great pains – to negotiate an FTA with South Korea. China is currently negotiating agreements with Australia and New Zealand. These are largely bilateral FTAs but there are ideas and plans for larger regional arrangements, such as the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project being championed by the United States, as well a long discussed idea for creating an East Asia Free Trade Agreement which is traced back to Mahathir Mohamad's proposal of East Asia Economic Group (EAEG) in 1991. The ASEAN member states continue to implement their ASEAN Free Trade Agreement (AFTA), and within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forum the 'Bogor Goals' of establishing a free trade and investment zone across the whole trans-region remains, at least verbally, a core objective of the organization.

The intensification of FTA activity in the Asia-Pacific is significant both in regional and global terms. Whereas the region only accounted for a tenth of all FTAs around the world in 1997, by 2005 it accounted for a quarter of the global total (38 out of 153 agreements worldwide). The new FTA trend in the Asia-Pacific has also brought about important changes to the macro-structure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in the region.

FTAs have become a centerpiece of trade policy for most key Asia-Pacific states, and in many cases have further exposed the linkages between domestic politics and international trade, especially concerning sensitive industry issues such as agriculture. Furthermore, FTAs have the

potential to significantly affect trade and investment flows within the Asia-Pacific not only by removing economic barriers between nations but also through how these agreements can shape the region's commercial regulatory environment. The intensification of FTA activity in the Asia-Pacific can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other regions. Other regions and regional powers (e.g. the EU, Mercosur) would be concerned if the Asia-Pacific FTA trend disadvantages their commercial interests, through trade diversion and other adverse effects. But it is the impact of the Asia-Pacific FTA trend upon the WTO and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that deserves particular attention.

### 3. Korean FTAs Policy Issues

Since 2004 Korea has actively engaged in FTA negotiations. It has pursued comprehensive FTAs, covering all sectors and substantially all aspects of trade, in line with Article XXIV of GATT 1994, Article V of GATS and in certain areas beyond the WTO commitment. The main objective of pursuing FTAs is to secure better access to foreign markets, while at the same time creating growth momentum through accelerated trade liberalization in the domestic market. In Table 1 Korea's FTA arrangement is presented.

Table 1. Korea's FTA Arrangement

Progress	Number of FTAs and states	Nations(Regions)
Implementation & Conclusion of Negotiations	5 FTAs, 16 states	Chile (Apr. 2004), Singapore (Mar, 2006), EFTA (Sept, 2006)1), ASEAN

		(June 2007, Goods), U.S.A. (June 2007, signed)
Under Negotiation	7 FTAs, 47 states	Canada, India, ASEAN (Investment), EU, Mexico, Japan, GCC
Preliminary Consultation & Joint Study	2 FTAs, 5 states	China, MERCOSUR
Under Consideration	5 FTAs, 5 states	Russia, Australia, New Zealand, Peru, Turkey

Another important objective is to facilitate domestic reform and deregulation and thereby raise efficiency in the overall economy. FTAs not only result in trade liberalization but can also lead to substantial improvement in the domestic regulatory framework. More importantly, benefits from certain reform measures brought about by FTAs can be shared by all countries, not just by the FTA partners, as negotiations in such areas as competition, services, and customs procedures often relate to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example, in the case of many services sectors, as it is difficult to differentiate standards and conditions between FTA partners and third party countries, countries that are not involved in a bilateral FTA with Korea may also reap the benefits of liberalization in services. Another example is transparency measures. In one recently signed FTA, Korea agreed that it would extend the prior comment period required for new legislations. When this FTA comes into force, all countries will be able to enjoy the benefits of the extended comment period. In Table 2 comparative tariff concessions in Korean FTAs are presented.

Table 2. Tariff Concessions (Goods) in Korean FTAs

FTAs	Nations	Overall (fishery and forestry included)	Manufacturers	Agricultural products
Korea-Chile	Korea	Total: 96,4 immediate: 87,2	Total: 100 immediate: 99,9	Total: 71,2 immediate: 15,6
	Chile	Total: 99,0 immediate: 41,8	Total: 99,8 immediate: 30,6	Total: 94,2 immediate: 92,9
Korea-Singapore	Korea	Total: 91,6 immediate: 59,7	Total: 97,4 immediate: 68,8	Total: 66,6 immediate: 16,0
	Singapore	Immediate elimination on all the goods traded (100%)		
Korea-US	Korea	Total: 99,7 immediate: 80,4	Total: 100 immediate: 91,6	Total: 98 immediate: 38,1
	US	Total: 100 immediate: 82,1	Total: 100 immediate: 87,7	Total: 100 immediate: 58,7

### 3.1. FTAs under Implementation or Recently Concluded

FTA between Korea and Chile was the first FTA signed by Korea, entered into force on 1 April 2004. For the liberalization of trade in goods, the immediate elimination of tariffs granted by Korea to imports from Chile covers 87.2% of the total tariff line. Tariff elimination is further expanded to the remaining products in stages over a timeframe of five, seven, nine, ten, and sixteen years. The only exceptions are rice, apples and pears. During the last four years after the Agreement came into force, Korea's exports to Chile increased at an annual rate of 61.1% and its imports from Chile increased at an annual rate of 35.9%. Korea's exports to Chile recorded 3.5 bln USD in the fourth year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FTA, from April 2007 to March 2008, an 89.7% increase from the third year, from April 2006 to March 2007. Korea's imports from Chile increased by 5.8% to 4.3 bln USD in the fourth year.

FTA between Korea and Singapore was signed in August 2005, entered

into force on 2 March 2006. The FTA features a high level of liberalization. The scope of the agreement goes beyond tariff elimination, covering a wide range of areas including trade in services, investme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mpetition, government procurement, electronic commerce, SPS, TBT, MRA, and dispute settlement. Under this FTA, Korea is to eliminate tariffs on 91,6% of all goods within ten years, while Singapore is to eliminate tariffs on 100% of all goods immediately up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The trade volume between Korea and Singapore increased by 51% from the pre-FTA levels to 20,2 bln USD in the second year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FTA. In addition, Korea's trade surplus with Singapore increased by 151% from the pre-FTA levels to 5,8 bln USD in the second year. Korea's investment in Singapore recorded 0,84 bln USD during the post-FTA period of 22 months from March 2006 to December 2007, a 61,5% increase from the pre-FTA period of 22 months from May 2004 to February 2006. Singapore's investment in Korea rose by 57,4% to 0,96 bln USD during the same period.

FTA between Korea and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ntered into force on 1 September 2006. Under this FTA, Korea will remove tariffs on 99,1% of products originating from EFTA over a period of up to seven years. Imports tariffs on som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will be phased out over a maximum period of ten years. The agreement covers not only the elimination of tariffs and non-tariff barriers to trade in goods, but also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investment, government procureme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mpetition, and cooperative measures in broadcasting services.

Bilateral trade between Korea and EFTA climbed by 13,1% to 3,7 bln

USD in the first 11 month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FTA compared to the same time period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FTA. During this period, Korea's exports to EFTA decreased from 1.5 bln USD to 969 mln USD, while Korea's imports from EFTA increased from 1.8 bln USD to 2.7 bln USD. Excluding a few products such as gold, ships, and paintings, however, for which exports dropped sharply due to irregular demand, Korea's exports to EFTA appear to have increased slightly from 671 mln USD to 717 mln USD.

FTA between Korea and ASEAN is the first pact Korea concluded with one of its five largest export markets. In December 2005, Korea and ASEAN signed the Framework Agreement that forms the basis of the Korea-ASEAN FTA. Under this framework, Korea and the ASEAN member countries, except Thailand, signed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that took effect on 1 June 2007. For the liberalization of trade in goods, Korea and ASEAN are to eliminate tariffs on products constituting 90% of their respective imports until 2010. Tariffs on the other 7% of imports will be lowered to 05% until 2016. In addition to trade in goods, the Korea-ASEAN FTA negotiation also covers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The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was concluded in November 2007.

By establishing an FTA with the United States, Korea aims to upgrade its current economic structure and improve the nation's competitiveness. After 14 months of negotiations, the Korea-US (KORUS) FTA was concluded in April 2007 but has yet to come into force.

This agreement is comprehensive in scope, covering a full range of trade-related areas from goods and services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overnment procurement, competition, labor, the environment, SPS, TBT,

and dispute settlement. About 94% of Korea-U.S. trade in consumer and industrial products will be duty-free within three years of the agreement's effective date. In addition, the agreement will immediately eliminate duties on 56% of Korea's agricultural imports from the United States. When implemented, the KORUS FTA will build on a long-standing and robust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 3.2. FTAs under Negotiation

In July 2005, Korea and Canada agreed to launch official negotiations for an FTA. Both sides have held fourteen rounds of negotiations so far. In September 2005, Korea and Mexico agreed to launch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SECA) negotiations. Since then, three rounds of negotiations have been held, but the talks stalled in June 2006 due to wide gaps in positions regarding the level of tariff elimination. In August 2007, Korea and Mexico officially agreed to resume their negotiations for a high-level and comprehensive FTA. The first round of FTA negotiations was held in December 2007 and the second round took place in June 2008. In February 2006, Korea and India agreed to pursue 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A partnership agreement is technically the equivalent of an FTA, and the Korea-India CEPA is the first FTA that Korea is pursuing with one of the BRICs nations. The tenth round of negotiations was held in May 2008.

Negotiations on the Korea-EU FTA commenced in May 2007. Korea and the EU have held seven rounds of negotiations so far, and the seventh round took place in May 2008. The Korea-EU FTA, if concluded, is likely

to contribute greatly to promoting trade and investment with EU members.

FTA between Korea and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Following a preliminary meeting in November 2007, Korea and the GCC held the first round of negotiations in July 2008.

Korea and Japan launched FTA negotiations in December 2003. Since the conclusion of the sixth round of negotiations on the Korea-Japan FTA held in Tokyo in November 2004, the talks have been stalled due to differences over such issues as the level of market access in agriculture and fisheries, public procurement, non-tariff measures (NTMs), and industrial cooperation. Both countries agreed to consider a resumption of FTA negotiations and create a favorable environment for the resumption, in working level consultations that were held in June 2008.

### 3.3. Other Bilateral Trade Negotiations under Joint Studies

Korea and China have continued to make efforts to strengthen their bilater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In October 2006, the two countries completed a non-governmental joint research on the prospect for a Korea-China FTA. In March 2007, Korea and China launched a joint study for a possible bilateral FTA at the governmental, industrial, and academic levels. This study is scheduled to be completed by the end of 2008. The final decision regarding the launch of Korea-China FTA negotiations will be made after the result of the study is reviewed and opinions from industries and relevant experts are received in public hearings.

The Southern Common Market (MERCOSUR)

Korea and MERCOSUR believe that there is great potential to be

exploited for furthe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MERCOSUR members. In November 2004, an agreement was reached to conduct a joint study on the feasibility of a trade agreement (TA) between Korea and MERCOSUR. The joint study on the Korea-MERCOSUR TA was officially completed in November 2007, and both parties agreed to discuss the future plan at the next Korea-MERCOSUR consultative meeting.

Korea has been conducting joint studies in various formats on the feasibility of FTAs with Russia, Turkey and Peru. A joint study with Russia at the governmental, industrial, and academic levels was launched in November 2007. In July 2008 it was held second round of this joint study. A joint study between Korea and Turkey was recently launched in June 2008 with participation from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and the Foreign Trade of the Republic of Turkey. Furthermore, Korea and Peru completed a non-governmental joint study in May 2008.

#### 4. The Russian-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trade and investments

Last years the trade turnover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Russia grows fast rates (Table 3). In 2007 the trade turnover between our two countries has grown on 54,5% and amounted to 15,065 bln USD (in 2006 – 9,8 bln USD).

Table 3. Trade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Russia (bln USD)

Indicator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Export	0,94	1,07	1,66	2,34	3,86	5,18	8,088

	(19,0)	(13,6)	(55,7)	(41,0)	(65,2)	(34,0)	(56,1)
Import	1,93 (-6,3)	2,22 (14,9)	2,52 (13,7)	3,67 (45,6)	3,94 (7,2)	4,57 (162)	6,977 (52,6)
Trade turnover	2,87 (0,7)	3,28 (14,5)	4,18 (27,3)	6,01 (43,8)	7,8 (29,8)	9,75 (25,0)	15,065 (54,5)
The foreign trade balance	-0,99	-1,15	-0,86	-1,33	-0,08	+0,61	+1,111

Source: compiled from the Korean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data,

Notice: growth rates in per cent indicates in parentheses.

According to the data published by KOTRA the volume of ROK's export to Russia in 2007 has exceeded 8 bln USD, that more in one and a half time (on 56.1%) higher than indicator in 2006. The comparable indicator on 52.6% characterizes growth of Russian import to ROK which has amounted to 7 bln USD. The main items of ROK's export to Russia are cars (40%), chisel platforms, synthetic pitches, wireless communication equipment, automotive spare parts, electronics, and synthetic materials from plastic fibers. The main items of ROK's import from Russia are crude oil, petrochemical products, aluminum, alloys and a breakage of ferrous metals, coal, nickel, fish and seafood, timber, uranium. In 2008 the trade turnover between Russia and ROK amounted to 18,3 bln USD (growth on 22% in comparison with 2007). Thus Russian export amounted to 7,8 bln USD (growth on 30% in comparison with 2007), and import - 10,5 bln USD (growth on 19%). According to the Russian statistics the amount of Korean investments in Russia in 2007 has increased to 131,9 mln USD against 52 mln USD in 2006. By the end of 2008 the cumulative amount of Korean investments into Russian economy has reached 895,7 mln USD in 883 projects. The cumulative volume of Russian investments in Republic of Korea by present time amounts only about 22 mln USD in 302 projects.

According to Eximbank of Korea data (differing from the Russian data in greater degree) we can see that investment activity of Korean companies in Russia has been growing last years, that while it is impossible to say about their Russian partners (Table 4).

Table 4. The Russian-Korean investment cooperation (mln USD)

Year		Investments into Korean economy (by June, 2007)	Investments into Russia (by the end of 2008)
2004	Number of projects	39	72
	Amount	1,8	25,34
2005	Number of projects	34	85
	Amount	2,5	34,717
2006	Number of projects	35	76
	Amount	2,4	102,533
2007	Number of projects	15	136
	Amount	1	227,858
2008	Number of projects	-	155
	Amount	-	298,187
Total	Number of projects	302	883
	Amount	21,8	895,727

Source: Export-import Bank of Korea.

Table 5 data shows us the investment preferences of the Korean investors in Russia. Substantial amounts of Korean investments into a manufacturing industry of Russia are connected basically with realization of projects in automotive, food and electronic industries and construction. Last years Korean automotive and other companies were actively carried on negotiations for participation in creation of co-productions in Russia.

Table 5. The cumulative amount of Korean investments into Russian economy by sector (by the end of March 2008)

	Number of projects	Amount (mln USD)
Agriculture and forestry	191	39,043
Fishing	24	4,108
Mining and quarrying	25	89,589
Manufacturing	248	249,474
Construction	24	10,814
Wholesale and retail trade	111	103,917
Hotels and restaurants	42	46,689
Transport	8	4,395
Post and telecommunications	21	28,103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surance	1	20,879
Real estate and renting and leasing	42	44,365
Business activities	13	7,53
Recreational, cultural and sporting activities	4	1,234
Other community, repair and personal service activities	8	0,71
Total	762	650,85

The realization of joint investment projects in energy sector, petrochemical industry, automotive industry and other sectors will allow increasing amounts of bilateral trade and investments substantially.

## 5. The perspectives and obstacles of FTA conclusion between Russia and Republic of Korea

As we mentioned earlier Korea has been conducting joint studies in various formats on the feasibility of FTAs with Russia and other countries. A joint study with Russia at the governmental, industrial, and academic levels was launched in November 2007. In July 2008 it was held second round of this joint study. But we must say that we have no yet any official

estimation about economic impacts of Russia – Republic of Korea FTA conclusion.

Recently Russia has become an active player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relations. Accession into WTO, concluding a new Agreement on Partnership and Cooperation with the European Union are the issues which are at the top of the Russian international trade agenda. Besides, Russia often gets the offers from its foreign partners (India, China, Korea, and others) to sign agreements on free trade with them. At the same time there are no adequate model instruments which would allow estimating the consequences of such actions at the federal and regional levels.

Russian scholars from CEFIR (Centre for Economic and Financial Research) at NES (New Economic School) in 2007 conducted the project entitled as ‘Developing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for Estimating Sectoral and Regional Consequences of Concluding International Trade Treaties between Russia and Other Countries’. The project goal was to develop the model on the ground of the GTAP model (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that would estimate the consequences of signing trade agreements with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consequences at the level of Russian federal districts. GTAP model is an adequate instrument for analyzing trade policy. Provided it is «tuned» properly for the relevant purposes, this instrument could be used for supporting decisions in the field of Russian international trade.

Analyzing quantitative results of FTA consequences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Republic of Korea it is possible to note some important points:

- 1) The branches (sectoral) response is even less expressed, than at

Russia-India FTA creation. It is impossible to allocate any one or group of branches which test negative influence.

2) The increase in export volumes in this case is less, than in case of Russia-India FTA creation.

3) Considerable sizes of percentage changes of bilateral trade are caused by that base value of an indicator for many branches were very small.

4) Consequences of signing of the agreement with Republic of Korea are given various, but by very insignificant effect on regional consumption in Russia.

From this project results it is possible to draw a conclusion that if in the Russian trade policy agenda there are negotiations about the conclusion of the free trade agreements with such countries, as China, India and Korea from the point of view of economic efficiency it is necessary to give a priority to the agreement with China or India.

Korean researchers mostly from KIEP (Backhoon Song and others) conducted research of economic effects (on GDP, welfare and trade) of Russia-Korea FTA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presented in Khabarovsk<sup>1</sup> (Russia) in August, 2008. They also used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Simulations were based on capital accumulation model. They showed that the higher degree of liberalization, the better effect of FTA. These estimations were based on three scenarios tariff cut under FTA (Table 6).

---

<sup>1</sup> Russia-Korean Seminar "New Political and Economical Conditions of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Russian Far East", August 11, 2008, Khabarovsk.

Table 6. Economic Impact of Russia-Korea FTA conclusion by simulation scenarios

	Tariff cut	Korea	Russia
Scenario 1	50%	Fishery, mining, wood products	Agricultural products
	70%	Other agricultural, manufacturing products	Fishery, mining, wood products
Scenario 2	70%	Fishery, mining, wood products	Agricultural product
	90%	Other agricultural, manufacturing products	Fishery, mining, wood products
Scenario 3	90%	All products (except rice, crops)	

In table 7 we can see the simulation results. Conclusions from their study were:

- both Korea and Russia will enjoy the benefit from bilateral FTA, but “economic pluses” from this FTA are not so big in terms of GDP and trade volumes growth for both countries;
- industry structures of Korea and Russia are complementary;
- Korea exports manufacturing products while Russia exports fishery and natural resources.

Table 7. Simulation Results by scenarios

	Scenario 1		Scenario 2		Scenario 3	
	Korea	Russia	Korea	Russia	Korea	Russia
GDP: per cent	0.19	0.01	0.29	0.13	0.29	0.13
million USD	807	807	1225	1056	1234	1051
Welfare	946	570	1447	686	1456	684
Export	0.66	0.61	1.00	0.96	1.01	0.97
Import	0.71	0.81	1.09	1.29	1.09	1.30

The obstacle areas against Russia-Korea FTA conclusion may be interpreted as scope and direction of this agreement (Table 8).

Table 8. Scope and directions of Russia-Korea FTA

	Scope	Directions (negotiate an obstacle)
Liberalization	Goods and services Investment Rules of origins	- negotiation will be after Russia's accession to the WTO - joint research study on FTA feasibility must be done soon
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 Trade rules harmonization	Non-tariff barrier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Customs procedure Phytosanitation control Dispute settlement Migration Investment promotion	- under the decision of both countries the negotiation about these could be started before Russia's accession to the WTO
Economic cooper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griculture, forestry, fishery Energy Transport Finance, foreign exchange Russian Far East Development	- integrating existing cooperation areas and implementing actors under FTA's umbrella in order to preserve consistency between them - connecting cooperation projects with regional development in order to maximize synergy effects

The main obstacles against Russia-Korea FTA conclusion may be follows:

- uncertainty about Russia's WTO accession;
- rising protectionism in the world amid financial crisis;
- Russian and Korean internal opposition against FTA.
- market access negotiation on tariffs (mostly for Korean companies) especially for sensitive agricultural products and so on (because Russia already had MFN status or better with virtually all its trading partners and Korea particularly) and Russian export duties (taxes) for raw timber and so on,

So, institutional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in from of FTA) is needed to set up a closer and securer economic ties between Korea and Russia. Considering strong complementarity between two countries'

economic and trade structure, a Korea-Russia Free Trade Agreement (FTA) is desirable which could also be interpreted as a strategic alliance between two countries in terms of economic cooperation.

## 6. Conclusion

It is unlikely that in the near future Korea will change the general direction of its trade policy, which is based on, and working under, an open and rules-bas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 in spite of various challenges presented by deepened globalization. From its own experiences, Korea continues to believe in the primacy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s a country with a total value of trade equivalent to two-thirds of its GDP, Korea believes that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is one of the best means to achieve balanced development and sustainable growth. In this respect, Korea will continue to be firmly committed to the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DDA negotiations, and make utmost efforts to contribute constructively in the DDA negotiations to bring great benefits to the global community.

In addition to the efforts for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Korea also considers FTAs to be a complementary tool to accelerate trade liberalization, and will seek comprehensive, WTO-consistent FTAs. Korea believes that the FTAs it pursues will serve as building blocks for multilateral efforts toward greater global trade liberalization. By incorporating far-reaching transparency and liberalization measures in various areas, it is also expected that these FTAs will spark domestic restructuring in less competitive sectors.

For economic cooperation on a regional level, Korea will continue to support APEC's work on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Furthermore, Korea will continue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ollective efforts of ASEAN+3 and ASEM to promote freer trade and greater economic cooperation at both the regional and inter-regional levels. Korea will utilize these regional and inter-regional cooperation opportunities to support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In order to foster mutually beneficial bilateral trade relations with its trading partners, Korea will continue to proactively address any trade issues through bilateral consultation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rules. Economic cooperation with least-developed countries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is another key priority for Korea's bilateral economic relations. Expanded trading opportunities and strengthened investment relations will be accompanied by technical assistance, capacity building, and sharing of development experiences, particularly for least-developed partners.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Korean government's trade policy is to move Korea toward an advanced market economy. In order to accomplish this task, Korea will continue to vigorously pursue liberalization and domestic reforms in a mutually reinforcing manner. Domestic reform will be undertaken to enhance greater efficiency, market discipline, transparency, and fair competition in the Korean economy. Simultaneously, Korea will continue to engage in a greater opening of the economy through combined efforts on the multilateral, regional, and bilateral fronts. For example, the situation developing in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Republic of Korea is ambiguous. Whether still in the late 1980s Lee

Myung-bak has acted as one of trailblazers of realization of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wo states. Then, being the mayor of Seoul, he visited Moscow and actively worked for development of two-way communications. Seoul today realizes that Russia quickly restores the economic and political presence in Asia Pacific region and becomes the country capable to influence condi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round it) more actively.

Author of this article feel even though Russia and Republic of Korea Free Trade Agreement conclusion will not provide great economic gains for both countries. However, when Russia and unified Korea will conclude FTA in future both countries will enjoy enormous economic advantage in Far Eastern Region as well as ensuring national interest for both countries.

## References

- Chang-Soo Lee, Backhoon Song (2008) 'Economic Effects of Russia's Trade Liberalization: Russia's WTO Accession and FTAs with EU and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Vol.12, No.1, June.
- Feridhanusetyawan, T. (2005)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in the Asia-Pacific Region', *IMF Working Paper Series*, WP/05/149,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 Jae-Young Lee et al (2007) 'Korea's Mid- to Long-Term Economic Strategy for Russia', *Policy References* 07-23, KIEP. (in Korean).
- Erlinda M. Medalla, Dorothea C. Lazaro (2004) 'Exploring the Philippine FTA Policy Options', *Philippine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 (PIDS), Philippines, Issue 2004-19.
- The Vision of Economic Development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2007)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Niigata, Japan.

- Toloraya G. (2007) 'Russian Strategy towards East Asia and the Korean Challenge', *Russia in Global Policy*, No.6. (in Russian).
- Vorontsov A.V., Revenko O.P. (2008) 'Korea are seeking balance', *Russia in Global Policy*, No.6. (in Russian)
- World Bank (2005) 'Global Economic Prospects 2005: Trade, Regionalism and Development', World Bank, Washington DC.
- 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2005) 'The Future of the WTO: Addressing Institutional Challenges in the New Millennium', WTO Secretariat, Geneva.

#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가족복지정책

나 병 균  
한림대학교

## 1. 서론: 문제 제기와 접근방법

한국 사회는 유교주의적 가족 관념의 영향으로, 주민 의식구조 속에서 항상 가족이 국가를 우선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한국인에게 가족은 불가침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국가 등 외부 세력이 가족의 일에 개입하는 것을 금기시해 왔다. 이러한 전통은 산업화된 한국에서도 그대로 계속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와 1980년대 들어 상황은 급격히 변화되었다.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에 의해 도입되고 추진된 출산억제 목적의 가족계획 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러나 이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의 보편주의적이고 적극적인 가족복지 정책은 최근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1980년대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국가 가족정책의 대상은 오직 빈곤가정, 취약가정, 문제가정만을 대상으로 한 소극적이고 선별주의적인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6년에는 정부의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발표로 가족과 가족정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기대한 만큼의 획기적인 성과가 없어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서구의 경험을 살펴보면 프랑스, 벨기에 등 많은 나라에서 현대 가족복지정책은 인구정책과의 결합을 통해 획기적인 발전이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저출산 문제와 가족복지 정책의 발전을 결부시켜 논의하는 것은 하나의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 해체, 다문화 가정의 문제, 여성노동의 증가와 여권 신장, 노약자와 장애인의 돌봄 문제 등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복지정책의 발전을 생각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정부와 여성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 중 하나는 가족복지정책의 정착과 확대에 관한 논의로서 이들은 한국 사회복지 정책발달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의 경우, 4대 보험의 기초가 확립된 이외에 가족수당의 도입은 여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수당의 도입은 한국의 사회보장의 발달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글에서는 첫째, 저출산 문제와 대책을 『새로 마지 플랜 2006-2010』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둘째,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건강가정 기본법(의 내용)과 여성(가족)부의 정책(목표와 방향)의 분석을 기초로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내용과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어서 셋째, 한국의 출산율 저하에 대한 국가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

한국 사회의 경우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 이하로 하락한 이후 20여 년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01년부터 합계출산율이 1.3 이하로 떨어져 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였고, 2005년 합계 출산율은 1.08로

OECD 국가들 중 최하 수준이다.

전체 인구는 2020년 인구 정점(4,996만 명)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전체인구는 4,728만 명에서 2050년에는 4,235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다. 생산 가능인구는 2016년 3,650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후 매년 42만 명씩 감소하여, 2050년에는 약 1,400만 명 감소한 2,276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5년 437만 명(인구대비 9.3%)에서 2020년에는 782만 명(15.7%), 2050년에는 1,579만 명(전체인구의 37.3%)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인하여 예상되는 파급효과는, 첫째, 생산연령층 인구의 감소, 노령화로 인하여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5% 수준에서 2020년대에는 3.04%, 2040년에는 1.53%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2005). 둘째로 정부 재정수지의 위기로서, 성장 잠재력 둔화는 정부 재정적자 누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사회보장 재원이 고갈되고, 공공지출의 증대로 국민조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GDP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2004년 현재 35.5% 수준에서 2050년에는 51.6%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노인부양비 부담의 증가로 인하여 생산 층 인구의 노인부양비 부담이 한계 수준을 넘어서 세대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미래지향적인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 2.1.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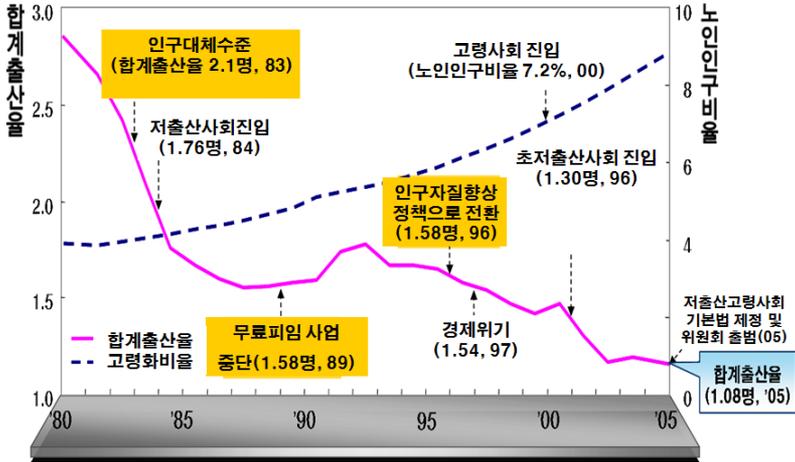
### 2.1.1. 한국의 인구 문제와 정책의 변화

한국 사회의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1980년에 3.8이던 합계 출산율은 불과 4년 후인 1984년에 1.76명으로 급락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 감소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0년대 초부터 정부

가 추진하던 가족계획 사업 중 무료피임사업이 중단되었고(1989년 합계 출산율 1.59이던 시점) 1996년 마침내 한국 정부는 “가족계획 사업을 인구자질 향상 정책으로 전환 한다”고 공식 선언하였다. 그러나 국가수준에서 출산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의 제정 이후이다. 2005년의 합계 출산율은 1.08로서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경우 국가개입은 합계출산율이 1.30이었던 2001년(초 저출산 사회로 진입한 시점)으로부터 4년이 경과한 2005년의 일로서, 이는 매우 늦은 것이다.

2005년 5월 18일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발표하였다.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저출산 대책을 위한 기본법적인 성격의 법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의 수립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기초하여 대통령 산하에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이전부터 조직되어 활동 중이던 (대통령 소속의)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서, 기존의 목표에 저출산의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가 추가된 셈이다. 그리고 정책 집행 기구로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본부가 보건복지부 안에 설치되었다. 이 기구는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노동부·예산기획처 등 정부 내의 저출산대책관련 부서들에서 관료들로 구성되어 부서들 간의 의사소통과 정책 수행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 저출산 고령화 추이 및 관련 정책방향 변화



자료: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2005: 17.

#### 2.1.2. 『새로마지플랜 2006-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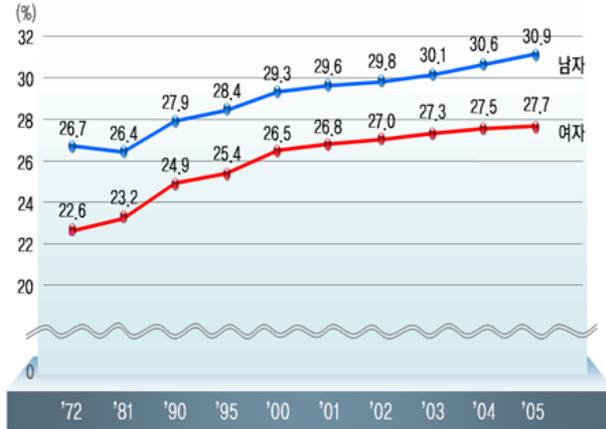
이것은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의 이름으로 발표된 것으로서, 현재까지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관한 국가정책의 기본이 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사회의 출산율 목표치를 경제개발 협력기구(OECD) 평균인 1.7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수준의 인구 규모 유지에 요구되는 합계출산율 2.1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고서는, 출산율 저하로 초래되는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여성 노동력과 고령노동자 집단의 노동력의 활용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과 관련하여 이 보고서는 그 원인을 네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결혼관, 자녀관의 약화: 미혼여성의 결혼에 대한 소극적 태도 증가 및 전통적 자녀관 약화.

둘째, 소득, 고용 불안정: 청년층 실업률은 남성의 경우 4.9%(90)에서 7.5%(05)로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1.9%(90)에서 4.4%로 각각 상승함.

## 우리나라 결혼 연령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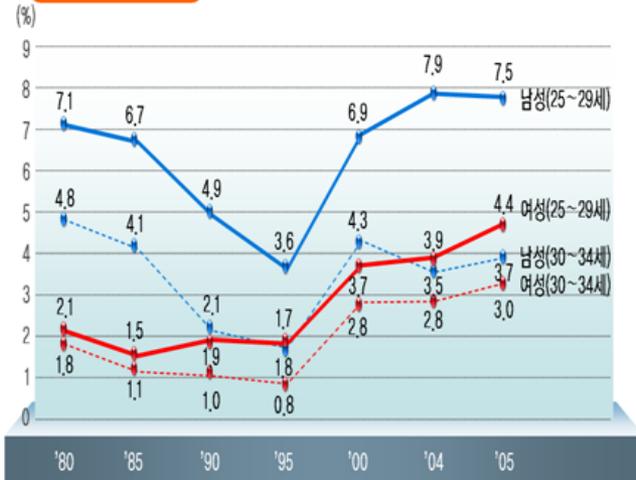
### → 초혼연령 변동추이(1972-2004)



자료: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2005: 14.

## 우리나라 실업률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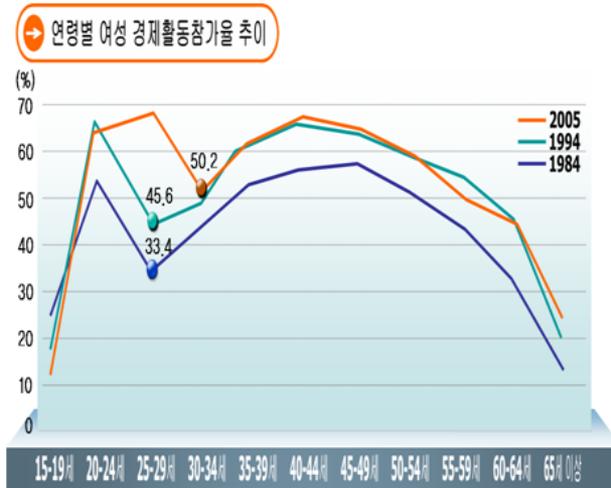
### → 청년층 실업률 추이



자료: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2005: 13.

셋째,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곤란: 25-29세 여성 경제 활동율은 42.6%에서 63.7%로 증가되었으며 취업여성의 66.2%가 가사일을 전담하거나 가사일 대부분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의 M curve



자료: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2005: 15.

넷째. 자녀양육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자녀 양육 및 교육비용 과다와 가족 내 육아 지원 망 약화.

### 2.1.3. 정부 정책의 방향

2005년 정부가 제시한 정책의 방향은 2020년까지 기간을 제1차 계획, 제2차 계획, 제3차 계획으로 구분하고 제1차 기간 동안에는 출산, 양육에 필요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제2차 기간의 점진적 출산율 회복에 이어 제3차 기간에는 2020년까지 출산율을 경제개발 협력기구(OECD) 평균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마지플랜에는 다음 세 가지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응 전략과 프로그램들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출산 및 아동 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여기에 해당되는 구체적 프로그램들은 0-4세 미만 아동 보육비, 교육비 지원, 아동수당제도 도입, 조세감면 및 사회보장 혜택 확대, 방과 후 학교, 다자녀가구에 대한 국민주택 우선 분양,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아 아동수당 실시 직장여성들의 아동을 위한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모성 및 영유아들의 건강관리, 시험관 아기 건강관리 지원, 산후 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등이다.

둘째, 가족친화, 양성 평등 사회문화 조성

여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로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산 전후 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출산여성 직장 복귀 인센티브로서 출산여성 재취업 장려금 지원, 가족친화적 기업 인증제 등이다.

셋째,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여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로는 아동 안전사고 예방, 아동방임 및 학대 방지, 학교 폭력의 근절 등이 있다.

#### 2.1.4. 한국 저출산 대책의 의미와 특성

새로 마지 플랜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성립된 출산 장려형 국가정책이란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비록 소극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정권교체 이후 여당인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분야 사업도 별도의 마스터플랜 없이 이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훌륭한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새로 마지 플랜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저출산 문제와 고령사회의 문제의 상호 연관성

저출산의 문제와 인구 노령화 및 고령사회 문제를 인구정책의 차원에서 상호 연관된 문제로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서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출산율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목표와 함께 여성 노동력과 노인 노동력을 활용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재원조달 문제를 지나치게 의식한 소극적 현금급여 정책

출산율 제고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현금 급여 대신 육아 시설 및 기타 아동양육 및 교육관련 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 또한 아동수당 등 제반 급여 제공에 있어서 보편주의 원칙을 포기하거나 등한시하고 선별주의 원칙을 선호하고 있다.

### 3. 최근 3년간 실천 현황

#### 3.1. 추진실적 평가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2006-2010년간 3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장기적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범정부적 정책 추진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 교육비 지원 확대, 보육시설 확대, 불임부부 지원 등 가정과 직장의 양립환경 조성을 출산 확대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투입 규모는 2006년과 2007년 모두 계획대비 초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치원, 보육시설 등 육아관련 모든 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인 육아지원 예산은 2002년 국민의 정부시기의 2,461억 원에 비해 2006년 10,574억 원으로 약 4배가 증가하였으며, 육아지원예산의 GDP 대비 비율도 2002년 0.118에서 2006년 0.396으로 증가하였다.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를 통해 시설의수가 2004년 대비 2,330개소 증가하여 8%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육아지원시설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 육아지원 시설에의 의존도는 매우 높고, 국공립시설비율 16.3%,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 수는 15.1%에 불과하여 공공보육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 3.2. 급여수준의 적절성 평가

참여정부 기간 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13.2%의 지원율을 보이고 있다. 저소득층 대상 보육료 지원은 2003년 까지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하였으나 2004년 이후 점차 그 대상과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보육료 지원 확충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2003년 210,613명(24.5%)에서 2006년 602,898명(56.1%)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004년부터 유치원 교육비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만 5세에서 만 3, 4세로 확대하여 보육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저소득층에게 교육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유치원 무상교육 지원대상이 2004년 전체 아동의 25.7%인 6만 3천 명으로 2006년 약 47%가 넘는 29만 7천 명으로 확대되었다.

농어민 자녀에 대한 지원으로 2004년부터 소유규모 1.5ha 미만의 농·어업인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사업 대상 농지 소유 규모 기준을 2.0ha 미만으로 확대하고, 2006년부터는 5.0 미만 ha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에 대한 사회적 비용지출과 가족지원수준은 2001년 GDP 대비 0.1%에서 2006년 0.56%로 크게 신장되었다. 그러나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가족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1년 기준 2-3%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경우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보육 유아교육 예산의 GDP 대비 비율은 2002년 0.118%, 2005년 0.258%, 2006년 0.396%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OECD 국가의 0.4-0.6%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산전 후 휴가기간은 90일(약 12주)로 대부분의 OECD 국가의 휴가기간에 비해 짧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최근 약 54%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

며 이는 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향후 생산 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여성인구의 활용을 통한 성장여력 확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3.3.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행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

현재 지방수준의 정책은 정형화된 것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분담도 불분명하다. 지방자치단체의 프로그램들은 지역마다 매우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양한 급여(셋째 아이부터 아동수당, 장애인 임신부 출산시 축하금 지급, 정관복원 수술비용 지원), 보건·사회적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출산준비교실, 신생아 모유 수유 시도우미 파견, 위기 임신부 특별관리, 임신부 체조교실 운영), 의약품 및 기타 물품지원(신생아 용품, 산모 용품 지원) 등이 제공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자체별로 서비스의 격차는 매우 심하다. 또한 모든 급여와 서비스는 선별적이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부족으로 일정소득 수준 미만의 저소득 가정들에 국한하여 지급되고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현재의 선별주의적 급여정책을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적인 급여 형태로의 정책 방향의 전환이 요구된다.

## 4.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가족복지정책의 관계

출산을 제고를 위한 국가 정책은 가족복지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획되고 추진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출산율은 가정이 얼마나 많은 아이를 가지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수의 아동을 낳아 기르는데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의 대책과 가족복지정책의 조화와 협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보면 다

소 미흡한 점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 이들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의 성립과 저출산 대책과의 관계를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가족복지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였다. 그러나 노무현정부로 바뀌면서 이 업무는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다. 그런데 2005년 노무현정부가 출범시킨 새로마지플랜 사업은 대통령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에서 논의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업의 집행기구로서 관련 부서들의 담당 관료들로 구성된 바 있는 저출산·고령사회대책 본부는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됨으로써 가족복지정책으로서의 새로마지 사업의 정책주도권은 여성 가족부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또한 저출산 대책이 여성 가족부 가족복지 정책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여성 가족부 정책 우선 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주장은 2005년 말 발간된 『가족(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이 연구에 나타난 가족(복지)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4.1.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확립

저소득층에 대한 아동수당제도 도입 검토, 이혼 후 양육비 부담 합의 의무화, 불이행 시 처벌 강화, 한 부모 가족, 조손 가족, 결혼 이민자 가족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와 지원 방안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4.2. 안전한 가족생활의 보장

여기서는 주로 임신, 출산의 사회적 보호기반 확립, 생애 주기별 가족안녕의 도모, 가족 내 폭력의 예방, 가족환경의 조성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 4.3. 열린 가족문화의 조성

여기서는 주로 호주제 폐지 이후 민주적이고 평등한 인간관계를 기초로 한 가족문화의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 4.4. 돌봄 노동의 사회분담체계 구축

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다양한 가족문화 수용을 정책과제로 양육에 대한 부담 완화, 가족의 노인 돌봄에 대해 가족 안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부담을 공유하며, 사회와 국가가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돌봄에 대한 분담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4.5.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국가, 기업, 지역사회가 가족기능 보완의 역할을 수행한다(일레로서 시차 출퇴근제 운영과 시간 근로 등 탄력 근무제 실시 등).

### 4.6. 가족정책 인프라 확대

가족정책 주무부처로서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역할 강화, 가족정책 집행에 있어 조정기능 강화 및 가족서비스 인프라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가정 기본법은 2004년 2월에 제정, 공포된 법으로 가족복지정책의 기본법의 성격을 띤 것이다. 이 법은 가족(복지)정책 업무가 여성 가족부로 이관되기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서 여성가족부가 추구하는 양성 평등적 가족(복지)정책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법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가족의 정의 및 건강가정의 개념

이 법은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 기본 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의 핵심개념인 ‘건강가정’에 대해서는 “가족” 모두의 요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이라고 정의하고 있고(법 3조 3항), “건강가정 사업”이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의 가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한다.

### 둘째, 건강 가정 사업

이 법의 제3장에는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가정에 대한 지원, 자녀 양육 지원 강화, 가족단위 복지증진, 가족 부양지원,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가족단위 시민역할, 가정 생활 문화발전, 가정의례, 가정봉사원, 가정문제 발생 및 예방사업, 이혼 예방 및 지원, 건강 교육, 자원봉사 활동지원 등이다.

이 법의 제4장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일선기관으로서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설치, 전담인력으로서 건강가정사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 4.6.1. 이 법의 주요 쟁점 및 한계

### ① 건강가정의 문제

‘건강가정’의 규정은 ‘건강하지 않은 가정’도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임의적인 가치관 주입에 의하여 가정을 이분화하는 문제를 낳는다. 예컨대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하여 귀결되는 한 부모 가족, 자녀가 없는 부부, 동거가구 또는 독신가구 등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낙인 되는 결과를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가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 우리 사회의 실제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나병균·양진운, 2007: 4). 한국 사회에서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되는 소위 건강가정이라 할 수 있는

세대 수는 2005년 기준으로 전체의 53.7%에 불과하였다. 반면 부부만 있고 자녀가 없는 가정은 1975년 전체 세대의 5.0%이던 것이 2005년에는 18.1%로 증가하였다.

가족구조 변화의 현실과 동떨어진 건강가정 정책은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이나 건강가정사의 가정문제 개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 ② 국가의 역할

이 법은 가족의 변화 또는 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다른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이유로 선언적인 의미 이외에 실제로 가정에 대한 법의 지원은 실천적 차원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결국 건강가정 기본법은 가족의 변화 또는 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 ③ 서비스 전달체계와 전문인력

법 제35조에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으로서 건강가정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건강가정사의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 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되어 있다. 이들이 맡은 업무는 통합적 복지서비스의 전달, 위기가족을 위한 상담,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가정사들은 가족과 지역사회 관계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내면서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인력은 종사자 중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대도시들에 비해 인력자원이 많지 않은 군 단위 지역은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법은 가족복지정책이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되어 있었던 2004년에 만들

어진 법으로, 2005년 가족복지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된 이후 이 부처의 행정가와 전문 인력들을 중심으로 개혁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바 있다. 소위 '가족정책기본법'으로의 법 개정이 그 핵심적 쟁점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면서 여성복지부는 한때 부처의 폐쇄를 고려하는 사태에 까지 갔다가 여성부 존치 쪽으로 기울었고, 동시에 가족복지 업무는 다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환원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향후 가족복지 정책과 출산 대책의 주도권은 여성부보다는 보건복지부 주도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노동수행의 중요성 강조, 근로동기 저하 예방을 위한 동기에서 출발한 예산 절약형, 정부 역할 축소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 어느 정도 정책적 우선순위를 둘 것이며, 예산 배정을 할 것인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참여정부에서 인구문제의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새로마지 사업이 새 정부로 바뀌면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저출산의 문제의 해법은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해결되기 힘든 문제이다.

## 5. 결론: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방향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복지)정책의 목표도 출산지향적인 것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첫째, 출산을 제고 목표의 강조

인구 문제는 곧 가족의 문제이므로 저출산 문제를 가족복지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가족복지정책의 당면 목표도 출산 지향적 가족복지정책이 되어야 한다.

둘째, 가족수당제도 도입

출산 지향적 가족복지정책은 보편주의적 가족수당 제도 도입을 통하여 다

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다자녀 가정과 무자녀 가정, 다자녀 가정과 독신 가정간의 소득의 재분배를 통하여 사회정의에 구현할 수 있다.

셋째, 경제적 지원과 제반 서비스간의 균형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크게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돌봄 노동의 사회화, 직장에서의 가족친화적 노동정책 등을 통하여 가임 여성들의 출산 의욕을 회복하고, 출산을 여성의 축복인 동시에 특권으로 생각하도록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요컨대 국가의 개입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일, 가정 양립을 도모하는 제반 (사회복지)서비스와 (노동)정책들이 균형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도 출산지향적 가족복지정책은 가족복지정책의 정착과 가족정책에 대한 사회여론의 환기를 위한 전략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꼬마이(Comaille, J.)는 유럽국가들의 가족복지정책을 5가지 유형들로 분류하였다. 이 중에서 북구국가군과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국가들의 출산율은 타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으므로 한국의 출산지향적 가족(복지)정책은 이들 두 정책 유형들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중요하다. 그러나 스웨덴을 비롯한 북구국가들의 가족복지정책은 돌봄 노동의 사회화, 육아책임의 남녀간 공동부담 등등 주로 양성 평등 이념에 기초한 (가족복지)정책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북구형 가족 복지정책 모델은 그동안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모델로서 전문가집단의 일차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국가들의 가족복지 정책의 특성은 출산장려형인 동시에 양육중심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유형은 모성의 권리와 일하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의 조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강조하고 보편주의적 가족수당 급여의 실시, 탁아소 등 보육 인프라의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필자의 판단으로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은 중간적, 절충적 입장을 취하는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의 정책 유형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강한 유교주의적 가족 전통으로 인하여 가정에서의 여성의 과중한 업무와 불평등한 부부관계가 문제시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양성 평등적인 것으로 개혁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3년에 48.9%로서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정재훈 외, 2005: 10). 일하는 여성의 노동권의 보호 및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야말로 이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출산, 양육과 직장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려면 나머지 절반의 여성들(가정주부들)의 모성권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지원과 서비스 프로그램들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 출산 지향적 가족복지정책의 확립을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권 요구, 즉 가족 친화적 노동시장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모성권의 요구 즉, 여성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노력이 정책적 배려차원에서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 넷째, 개방적 가족 개념의 도입

가족복지정책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건강가정 기본법은 가족의 개념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법 제2조)”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는 이와 같은 좁은 의미의 가족 이외에도 한 부모 가족, 동거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존재하고 있다. 출산 지향적 가족복지정책은 이러한 다양한 모든 형태의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가족의 개념도 상기한 것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의 모든 가족을 포함하는 개방적인 가족개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출산율의 제고를 위해서도 이 법이 정하는 ‘건강가정’의 아동집단 외에 한 부모가족, 동거가족 등 모든 형태의 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개방적이고 보편주의적인 급여정책의 실시가 요구된다.

#### 다섯째, 출산 및 육아지원 인프라의 보강 및 사회적 인식의 개선

한국의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주 출산 연령층(20-35세)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현격히 낮은 현상(M커브 현상)이 두드러진다. 정부의 계획에는 육아시설의 확충과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의 개선, 탄력적인 노동시간제의 도입운영 등이 빠짐없이 고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 취업에 대한 가정, 기업, 사회의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보편주의적인 가족수당 제도의 신설

새로마지플랜은 빈곤가정 아동만을 위한 선별주의적 가족수당(아동수당)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출산을 제고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보편주의 가족수당제도 도입을 통한 아동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또한 가족수당은 단순히 출산과 아동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보상해 주는 차원을 넘어서 가족들 간의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형평과 정의구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보편주의적 성격의 가족수당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 재원확보가 가장 큰 과제이겠지만 이 문제는 저출산 문제의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기업, 사회, 국가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를 기초로 연대계약을 맺어 정면 돌파해 나아간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럽 국가들의 정책이 주는 시사점은 전력투구적 노력이 아니면 출산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의 경우처럼 가족수당 공단을 만들고 출산 장려 목적의 수당들을 지급하는 일 이외에 다양한 가족복지 서비스의 개발도 겸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2005) 『가족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2005) 『새로마지플랜 2006-2010』.  
정재훈·송다영·강창현(2005) 『건강가정 지원센터 발전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나병균(2006) 「한국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저출산 문제를 중심으로」, 『2007년 일본 사회복지학회 발표논문집』.

- 나병균·권중희(2008)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현재와 미래: 새로마지플랜 2006-2010을 중심으로」, 『2008년 일본사회복지 학회 발표논문집』.
- 나병균·양진운(2007) 「한국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건강가정기본법을 중심으로」, 『2007년 일본 사회복지학회 발표논문집』.
- 송다영(2006) 「핀란드의 가족정책-가정양육수당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춘계학술대회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 채구묵(2005) 「가족복지정책과 출산율」, 『한국사회복지학』 57(3), 한국사회복지학회.
- Comaille, Jacques · Strobel, Pierre · Villac, Michel(2000) *La Politique de la Famille*, Paris: La D'ecouverte.

#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박 지 선 · 곤도리에 · 진제 · 나카지마 카즈오

일본 오카야마현립대학 대학원 박사후기과정 · 준교수 · 준교수 · 교수

## 1. 서론

최근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는 구미와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에게서 초혼연령이 상승하는 만혼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여성에게서는 미혼화 현상으로 상징되는 「결혼의향의 저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다시 저출산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는 1)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일수록 결혼의향이 낮다 2) 자유를 중시하는 풍조와 함께 결혼에 따른 자유 상실에 대한 영향이 결혼 기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결혼하지 않는 것에 따른 제재 약화 4) 인구 불균형 5) 개인주의 경향 6) 성역할관 약화 7) 결혼에 대한 매력 저하 등이 복잡하게 관련하고 있음(Waite, L. J. 외, 1981 ; Bumpass, L. L., 2004 ; 水落正明, 2006 ; 이삼식, 2006 ; 野崎裕子, 2007 ; Raymo, J. M., 2003)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의향에 대해 특정 이론에 따라 가설을 도출하여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과 관련한 연구(伊東秀章, 1997)를 제외하면 그다지 많지 않다.

\* 본 연구는 2007-2009년도 과학연구비 보조금 기반연구(A)-초소자고령/인구감소사회에 대응한 가족복지모델의 구축에 관한 연구-(대표: 나카지마 카즈오)에 의해 진행된 것임.

TPB는 Ajzen&Fishbein(1980)의 합리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을 발전시킨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Ajzen, I., 1991). TRA(Ajzen& Fishbein, 1980)에 착목하면, 우선 행동의 직접적 결정요인은 인간이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향(intention)」이라고 가정한다. 이 행동의향은 그 사람이 행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 즉 「행동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behavior)」로 측정된다. 그러한 태도의 결정요인에는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끌고자 하는 신념(outcome belief)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outcome evaluation)라는 2가지 측면이 관계하여 양자의 합이 태도를 결정한다. 행동의향의 두 번째 결정요소로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을 중시하고 있다. 이는 타인이 자신의 행동 수행에 대해 타인이 바라고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된다. 주관적 규범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신과 관련된 타인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에 관한 신념인 「규범적 신념(normative belief)」과 그러한 기대에 「동조하고자 하는 동기(motivation to comply)」가 합쳐져 결정된다. 이러한 TRA는 투표행동, 마약행동, 임신중절 등 폭넓은 행동에 적용되어 실증적 지지를 얻어 왔으나 직접적으로 결혼행동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 연구는 거의 없다. 한편, TRA에 「지각된 행동의 통제력(perceived behavioral control)」을 포함시킨 이론이 Ajzen(1991)의 TPB이다. 이 「지각된 행동의 통제력(perceived behavioral control)」은 만약 자신이 바라면 주어진 행위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있어 얼마나 용이한가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伊東秀章, 1997: 165). 이러한 입장에서 결혼의향을 검토한 연구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伊東秀章(1997)의 연구와 한국의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희은 외(2006)의 연구를 제외하면,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또한 伊東秀章(1997)의 연구에서는 TPB를 기초로,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통제력을 규정된 요인으로 개인주의 및 전통적 가치관을 추가한 결혼의향의 TPB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자들은 이 모델의 배경에 가정할 수 있는 이론을 확대계획행동이론(Expa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이하 ETPB)이라고 명명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들은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미국 5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결혼의향에 관한 Ajzen&Fishbein(1980)의 합리적 행위이론, 그리고 이를 발전시킨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과 伊東秀章(1997)의 확대계획행동이론을 기초로 포괄적인 인과관계 모델(가설)을 구축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미국 대학생 5,500명(한국 2,000명, 중국 1,000명, 일본 1,500명, 독일 500명, 미국 500명)을 대상으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법에 의해 진행하였고, 각국의 공동연구자(조사원)를 통해 동의를 구한 대학생에 한정하여 실시되었다. 설문지 회수는 대상자가 기입을 마친 후 설문지를 밀봉하여 소정의 회수상자에 넣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회수상자는 일정기간(10-14일간)이 지난 후 공동연구자의 책임하에 회수·개봉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4,466명(한국 1,554명, 중국 681명, 일본 1,359명, 독일 446명, 미국 426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81.2%).

조사내용은 대상자 속성(성별, 연령), 결혼의향, 전통적 가치관, 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에 대한 주관적 규범, 결혼 가능성에 대한 인식으로 하였다.

종속변수로 설정한 결혼의향은 결혼의향의 유무에 대해 질문하였고, 응답은 「0점: 평생 결혼할 생각이 없다」, 「1점: 언젠가는 결혼할 생각이다」의 2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득점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도록 수량화하였다.

전통적 가치관은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2007: 84)의 결혼·가족에 관한 의식 10문항 중 전통적 가치관과 관련 있다고 판단된 5문항을 임의로 발췌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결혼하면 가정을 위해서는 자

신의 개성과 삶의 방식을 어느 정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2. 결혼 후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 「3. 결혼하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 「4. 최소한 아이가 어린 경우에 엄마는 일을 갖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일단 결혼하면 성격이 맞지 않는 것으로 헤어지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이다. 응답은 「1점: 전적으로 반대», 「2점: 어느 정도 반대», 「3점: 어느 정도 찬성», 「4점: 전적으로 찬성」의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결혼에 대한 태도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4문항»,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정신적인 안식처를 얻을 수 있다», 「2. 애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과 지낼 수 있다», 「3. 내 아이와 가족을 가질 수 있다», 「4. 성적인 충족을 얻을 수 있다», 「5. 나만의 자유로운 시간이 적어진다», 「6. 배우자의 부모나 친척 등 인간관계가 복잡해진다», 「7. 부모 곁을 떠날 수밖에 없어진», 「8. 스트레스가 쌓인다」이다. 응답은 「1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2점: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3점: 조금 그렇게 생각한다», 「4점: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의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또한 태도 측정에 사용한 문항은 선행연구(伊東秀章, 1997: 166 ; 小田切紀子, 2003: 250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2007: 28, 45)를 참고로 독자적으로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결혼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伊東秀章(1997: 166)의 연구를 참고로 결혼에 대한 주관적 규범 형성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모, 형제자매와 친척, 친구, 사회 등 4가지 대상을 설정하여 그들이 자신의 결혼에 대해 바라고 있다고 생각되는 정도 즉, 「○○는, 내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 「1점: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다», 「2점: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다», 「3점: 조금 기대하고 있다», 「4점: 매우 기대하고 있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조로의 동기(motivation to comply)」를 측정하기 위해 4가지 대상이 기대하는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따를 의향이 있는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나는 내 ○○가 기대하는 것을», 「1점: 전혀 하고 싶지 않다», 「2점: 별로 하고 싶

지 않다», 「3점: 조금 하고 싶다», 「4점: 매우 하고 싶다」의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주관적 규범에 대한 4문항과 동조로의 동기에 대한 4문항을 각각 같은 대상이 속한 문항끼리의 평정치를 곱한 후 이를 합한 것이 「결혼에 대한 주관적 규범」특점으로, 이는 특점이 높을수록 주관적 규범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伊東秀章(1997: 166)의 연구를 참고로 「나에게 있어서 결혼하는 것은 ○○」이라는 1문항을 설정하여, 응답은 「1점: 매우 어렵다», 「2점: 어렵다», 「3점: 어느 쪽도 아니다», 「4점: 쉽다», 「5점: 매우 쉽다」의 5점 척도로 하였다. 특점이 높을수록, 결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료 분석에 있어서는 국가별, 성별로 분류한 10집단의 데이터를 기초로, 전통적 가치관이 결혼에 대한 태도(긍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 결혼에 대한 주관적 규범, 결혼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고, 다시 이 변수들이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인과관계모형을 구축, 데이터로의 적합성을 구조방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 SEM)로 검토하였다. 이 인과관계모형에 포함된 결혼에 대한 태도(긍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와 결혼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결혼의향에 관계한다고 하는 가설(TRA모형)은 Ajzen&Fishbein (1980)의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에서, 그리고 이 가설에 결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추가된 가설(TPB모형)은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서, 더불어 이 가설에 본 연구에서 확대계획행동이론으로 명명한 전통적 가치관이 추가된 伊東秀章(1997)의 ETPB모형이 조합된 것이다. 이 인과관계모형의 통계학적 분석에 앞서 전통적 가치관, 결혼에 대한 태도(긍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 결혼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관한 4가지 측정척도의 구성개념타당성을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확인적 인자분석으로 검토하였다. 추정법에는 ML(Maximum-likelihood method)과 WLSMV(Weighted Least-Squares with Mean and Variance adjustment)를

사용하였다.

이상의 분석에 사용한 적합도 지표는 CFI(Comparative Fit Index)와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로 판단하였다. CFI는 1에 가까울수록, RMSEA는 0.08 이하일 경우, 적합도가 좋은 모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山本嘉日郎 외, 1999: 40). 또한 본 연구에서는 2점에서 5점 척도가 혼재되어 있어 다분상관계수(polychoric correlation coefficient)로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분석모델의 표준화계수(경로계수)에 대한 유의성은 비표준화계수를 표준오차로 뺀 값(이하 t값)의 절대치가 1.96 이상(5% 유의수준)을 나타낸 것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Peek, M.K., 2000: 306).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는 SPSS12.0J, AMOS5.0, M-plus2.01을 사용하였다. 또한 회수된 4,466명 가운데 성별, 연령, 전통적 가치관, 결혼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결혼 가능성에 대한 인식, 결혼의향에 관한 모든 문항에 응답한 3,286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 3. 결과

#### 3.1. 대상자의 속성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표 1>과 같다. 남녀모두에서 한국과 독일 학생의 평균연령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 대상자의 속성

국가명	남성 (1,295명)			여성 (1,991명)		
	명	평균±표준편차	범위	명	평균±표준편차	범위
한국 (1,112명)	450	23.7±2.1	18-31	662	20.9±1.7	18-34
중국 (380명)	185	20.1±1.1	18-24	195	20.2±1.3	18-23
일본 (1,165명)	416	19.6±1.4	18-28	749	19.5±1.2	18-27
독일 (315명)	122	23.0±2.7	20-34	193	21.8±1.8	19-28
미국 (314명)	122	20.1±2.0	18-30	192	19.7±1.5	18-26

### 3.2. 결혼의향

결혼의향에 대한 응답분포는 <표 2>와 같다. 모든 집단에서 「언젠가는 결혼할 생각이다」가 9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결혼의향에 대한 응답분포

		<단위 : 명(%)>			
문항	국가명	남성		여성	
		평생 결혼할 생각이 없다	언젠가는 결혼할 생각이다	평생 결혼할 생각이 없다	언젠가는 결혼할 생각이다
결혼의향	한국	15 ( 3.3 )	435 ( 96.7 )	35 ( 5.3 )	627 ( 94.7 )
	중국	3 ( 1.6 )	182 ( 98.4 )	12 ( 6.2 )	183 ( 93.8 )
	일본	34 ( 8.2 )	382 ( 91.8 )	48 ( 6.4 )	701 ( 93.6 )
	독일	7 ( 5.7 )	115 ( 94.3 )	16 ( 8.3 )	177 ( 91.7 )
	미국	11 ( 9.0 )	111 ( 91.0 )	12 ( 6.3 )	180 ( 93.8 )

### 3.3. 각 측정척도의 구성개념타당성 및 신뢰성계수 검토

#### 3.3.1. 전통적 가치관

성별, 국가별로 구분한 10집단에 있어 전통적 가치관 측정척도의 1인자 모델에 대한 데이터로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인자모델의 데이터로의 적합성은 대체로 통계학적인 허용 수준치를 충족시켰다(<표 3>). 크론바하  $\alpha$  신뢰성계수는 남성집단에서 전체 0.659, 여성집단에서 전체 0.648이었다. 전통적 가치관에 관한 총 득점은 남성집단의 평균치가 13.4점, 표준편차는 2.72, 여성집단의 평균치가 12.2점, 표준편차는 2.69였다.

〈표 3〉 전통적 가치관의 인자모델에 대한 적합도와 신뢰성계수

국가명	남성			여성			
	CFI	RMSEA	Cronbach $\alpha$ 신뢰성계수	CFI	RMSEA	Cronbach $\alpha$ 신뢰성계수	
한국	0.905	0.087	0.573	0.955	0.057	0.559	
중국	0.869	0.123	0.640	0.910	0.116	0.684	
전통적 가치관	일본	0.955	0.092	0.711	0.940	0.091	0.673
	독일	0.876	0.103	0.580	0.780	0.107	0.487
	미국	0.972	0.066	0.654	0.905	0.114	0.632
	전체	0.950	0.079	0.659	0.964	0.066	0.648

### 3.3.2. 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2가지로 나누어 성별 및 국가별로 구분한 10집단에 대해 1인자 모델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였다(〈표 4〉). 그 결과, 인자모델의 데이터로의 적합성은 통계학적인 허용 수준치를 충족시켰다. 크론바하  $\alpha$  신뢰성계수의 경우,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서 남성집단에서는 전체 0.756, 여성집단에서는 전체 0.739였고,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서 남성집단에서는 전체 0.629, 여성집단에서는 전체 0.638이었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총 득점은 남성집단 평균치가 12.9점, 표준편차가 2.45, 여성집단 평균치가 12.5점, 표준편차가 2.32였다.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의 총 득점은 남성집단의 평균치가 10.0점, 표준편차가 2.42, 여성집단의 평균치가 10.7점, 표준편차가 2.37이었다.

### 3.3.3. 결혼에 대한 주관적 규범

#### ① 결혼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인자모델에 대한 적합도와 신뢰성계수

성별 및 국가별로 구분한 10집단에 대해 결혼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그 결과, 적합도 지표는 통계학적으로 허용수준을 대체로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론바하  $\alpha$  신뢰성계수

는 남성집단에서는 전체 0.859, 여성집단에서는 전체 0.846이었다. 결혼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총 득점은 남성집단 평균치가 13.4점, 표준편차가 2.72, 여성집단 평균치가 12.2점, 표준편차가 2.69이었다.

〈표 4〉 결혼에 대한 태도의 인자모델에 대한 적합도와 신뢰성계수

국가명	남성			여성			
	CFI	RMSEA	Cronbach $\alpha$ 신뢰성계수	CFI	RMSEA	Cronbach $\alpha$ 신뢰성계수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한국	1.000	0.000	0.794	0.989	0.074	0.747
	중국	0.975	0.129	0.639	0.950	0.164	0.765
	일본	0.994	0.061	0.779	1.000	0.000	0.751
	독일	1.000	0.000	0.687	0.978	0.081	0.668
	미국	0.988	0.080	0.764	0.993	0.058	0.739
전체	1.000	0.000	0.756	0.997	0.041	0.739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한국	1.000	0.000	0.679	0.977	0.070	0.614
	중국	0.986	0.048	0.572	0.999	0.020	0.647
	일본	1.000	0.000	0.626	1.000	0.000	0.654
	독일	1.000	0.000	0.483	1.000	0.000	0.554
	미국	1.000	0.000	0.663	0.978	0.054	0.527
전체	1.000	0.000	0.629	0.987	0.059	0.638	

〈표 5〉 결혼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인자모델에 대한 적합도와 신뢰성계수

국가명	남성			여성			
	CFI	RMSEA	Cronbach $\alpha$ 신뢰성계수	CFI	RMSEA	Cronbach $\alpha$ 신뢰성계수	
주관적 규범	한국	0.891	0.148	0.809	0.978	0.102	0.811
	중국	0.991	0.079	0.901	0.992	0.104	0.885
	일본	0.949	0.172	0.862	0.949	0.172	0.849
	독일	0.958	0.088	0.782	0.986	0.107	0.713
	미국	0.995	0.029	0.848	0.988	0.091	0.867
	전체	0.953	0.106	0.859	0.978	0.125	0.846

### 3.3.4. 결혼 가능성에 대한 인식

결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응답분포는 〈표 6〉과 같다. 결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경우, 1문항만으로 측정된 관계로 인자모델의 적합도와 다모집단인자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표 6〉 결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응답분포

		<단위 : 명(%)>					
문항	국가명	남성					
		매우 어렵다	어렵다	어느 쪽도 아니다	쉽다	매우 쉽다	
나에게 있어서 결혼하는 것은	한국	22 ( 4.9 )	147 ( 32.7 )	179 ( 39.8 )	86 ( 19.1 )	16 ( 3.6 )	
	중국	13 ( 7.0 )	26 ( 14.1 )	92 ( 49.7 )	37 ( 20.0 )	17 ( 9.2 )	
	일본	64 ( 15.4 )	128 ( 30.8 )	175 ( 42.1 )	34 ( 8.2 )	15 ( 3.6 )	
	독일	3 ( 2.5 )	14 ( 11.5 )	76 ( 62.3 )	29 ( 23.8 )	0 ( 0.0 )	
	미국	13 ( 1.4 )	24 ( 19.7 )	49 ( 40.2 )	26 ( 21.3 )	10 ( 8.2 )	
			여성				
		국가명	매우 어렵다	어렵다	어느 쪽도 아니다	쉽다	매우 쉽다
		한국	36 ( 5.4 )	219 ( 33.1 )	288 ( 43.5 )	107 ( 16.2 )	107 ( 16.2 )
		중국	12 ( 6.2 )	37 ( 19.0 )	109 ( 55.9 )	30 ( 15.4 )	7 ( 3.6 )
		일본	75 ( 10.0 )	245 ( 32.7 )	356 ( 47.5 )	55 ( 7.3 )	18 ( 2.4 )
	독일	1 ( 0.5 )	11 ( 5.7 )	120 ( 62.2 )	52 ( 26.9 )	9 ( 4.7 )	
	미국	11 ( 5.7 )	31 ( 16.1 )	86 ( 44.8 )	52 ( 27.1 )	12 ( 6.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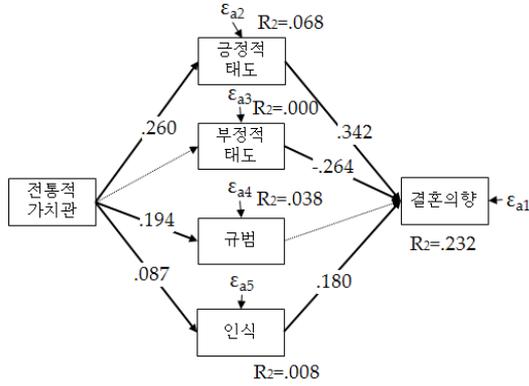
### 3.4.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4.1. 한국 대학생에 대한 인과관계모델의 적합성과 변수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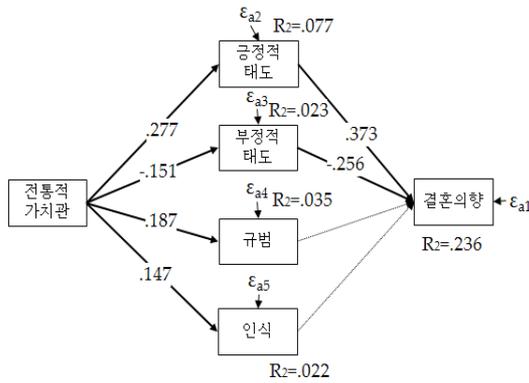
① 한국 남학생: 본 연구에서 가정한 인과모델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은 CFI=0.992, RMSEA=0.044로 통계학적으로 허용수준을 충족시켰다(그림1-위). 결혼의향에 대한 4개 변수의 설명력인  $R^2 = .232$ 이고,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결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었다. 또한 전통적 가치관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결혼에 대한 주관적 규범, 결혼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② 한국 여학생: 본 연구에서 가정한 인과모델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은 CFI=0.942, RMSEA=0.140으로 대체로 통계학적으로 허용수준을 충족시키고 있다(그림1-아래). 결혼의향에 대한 4개 변수의 설명력인  $R^2 = .236$ 이고,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였다. 또한 전통적 가치관은 4개의 이론변수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림 1)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위: 한국 남학생, 아래: 한국 여학생)



n=450, CFI=0.992, RMSEA=0.044



n=662, CFI=0.942, RMSEA=0.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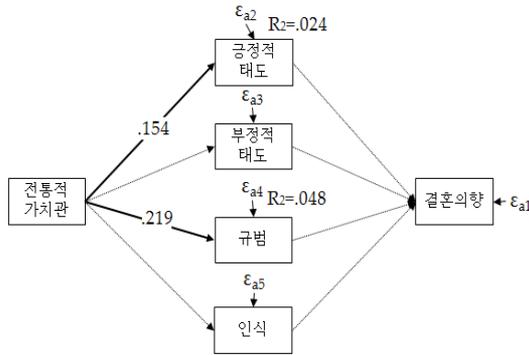
### 3.4.2. 중국 대학생에 대한 인과관계모델의 적합성과 변수간의 관계

① 중국 남학생: 본 연구에서 가정한 인과모델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은 CFI=0.993, RMSEA=0.041로 통계학적으로 허용수준을 충족시켰으나(〈그림 2〉-위), 어느 변수도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전통적 가치관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결혼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유의한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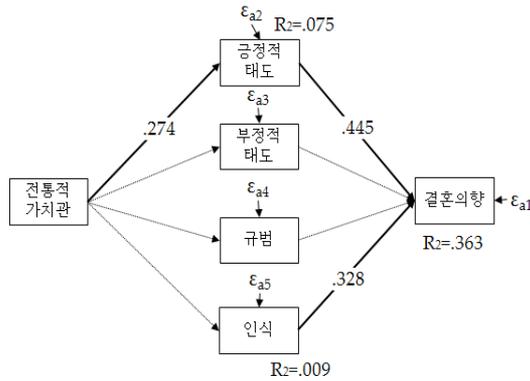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중국 여학생: 본 연구에서 가정한 인과모델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은 CFI=0.969, RMSEA=0.107로 대체로 통계학적으로 허용수준을 충족시키고 있다(〈그림 2〉-아래). 결혼의향에 대한 4개 변수의 설명력인  $R^2 = .363$ 이고,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결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었다. 또한 전통적 가치관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위: 중국 남학생, 아래: 중국 여학생)



n=185, CFI=0.993, RMSEA=0.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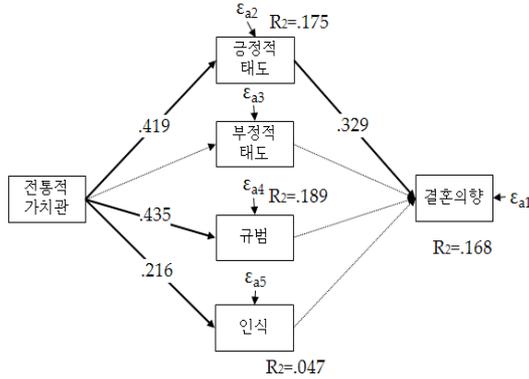
n=195, CFI=0.969, RMSEA=0.107

### 3.4.3. 일본 대학생에 대한 인과관계모델의 적합성과 변수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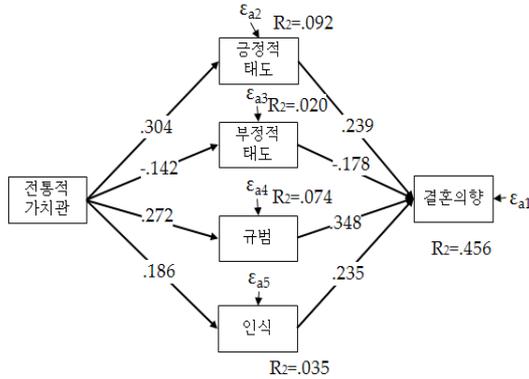
① 일본 남학생: 본 연구에서 가정한 인과모델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은 CFI=1.000, RMSEA=0.000으로 통계학적으로 허용수준을 충족시켰다(〈그림 3〉- 위). 결혼의향에 대한 4개 변수의 설명력인  $R^2 = .168$ 이었고,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였다. 또한 전통적 가치관은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제외한 3개의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일본 여학생: 본 연구에서 가정한 인과모델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은 CFI=0.963, RMSEA=0.156으로 대체로 통계학적으로 허용수준을 충족시키고 있다(〈그림 3〉-아래). 결혼의향에 대한 4개 변수의 설명력인  $R^2 = .456$ 이었고, 4개의 변수 모두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통적 가치관은 4개의 변수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림 3〉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위: 일본 남학생, 아래: 일본 여학생)



n=416, CFI=1.000, RMSEA=0.000



n=749, CFI=0.963, RMSEA=0.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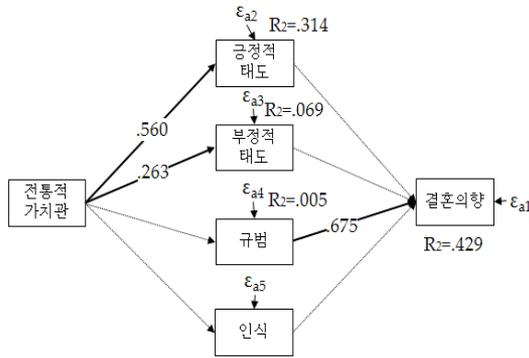
### 3.4.4. 독일 대학생에 대한 인과관계모델의 적합성과 변수간의 관계

① 독일 남학생: 본 연구에서 가정한 인과모델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은 CFI = 1.000, RMSEA = 0.000으로 통계학적으로 허용수준을 충족시켰다(〈그림 4〉 - 위). 결혼의향에 대한 4개 변수의 설명력인  $R^2 = .429$ 였고,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는 결혼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었다. 또한 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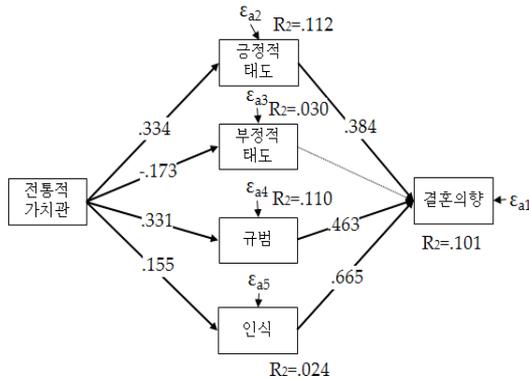
적 가치관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독일 여학생: 본 연구에서 가정한 인과모델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은 CFI=1.000, RMSEA=0.000으로 대체로 통계학적으로 허용수준을 충족시키고 있다(그림 4) -아래). 결혼의향에 대한 4개 변수의 설명력인  $R^2 = .101$ 이었고,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제외한 3개의 이론변수가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통적 가치관은 4개의 이론변수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림 4〉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위: 독일 남학생, 아래: 독일 여학생)



n=122, CFI=1.000, RMSEA=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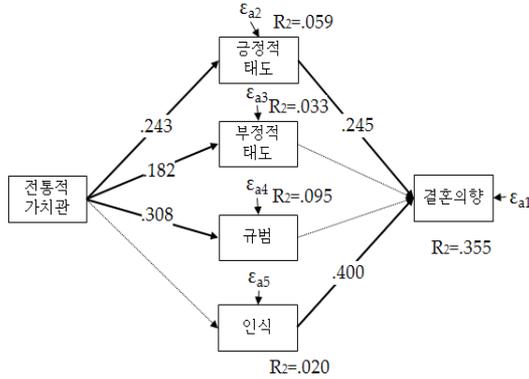
n=193, CFI=1.000, RMSEA=0.000

### 3.4.5. 미국 대학생에 대한 인과관계모델의 적합성과 변수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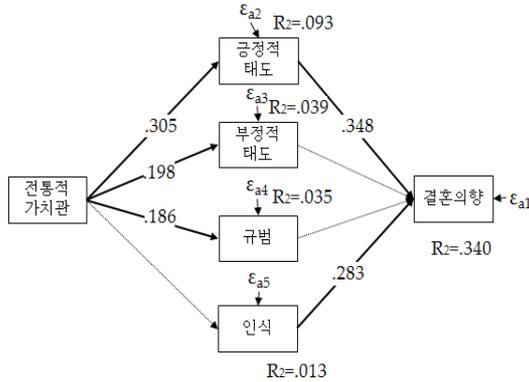
① 미국 남학생: 본 연구에서 가정한 인과모델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은 CFI=1.000, RMSEA=0.000으로 통계학적으로 허용수준을 충족시켰다(〈그림 5〉- 위). 결혼의향에 대한 4개 변수의 설명력인  $R^2 = .355$ 였고,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결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었다. 또한 전통적 가치관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 결혼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미국 여학생: 본 연구에서 가정한 인과모델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은 CFI=1.000, RMSEA=0.000으로 대체로 통계학적으로 허용수준을 충족시키고 있다(〈그림 5〉- 아래). 결혼의향에 대한 4개 변수의 설명력인  $R^2 = .340$ 이었고,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결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었다. 또한 전통적 가치관은 결혼 가능성에 대한 인식 이외의 3개의 이론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위: 미국 남학생, 아래: 미국 여학생)



n=122, CFI=1.000, RMSEA=0.000



n=192, CFI=1.000, RMSEA=0.000

####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미국 5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혼의향에 관한 Ajzen&Fishbein(1980)의 합리적 행위이론, 이 이론을 발전시킨 Ajzen (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 및 伊東秀章(1997)의 확대계획행동이론을 반영시

킨 인과관계모델(가설)을 구축하여 모델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첫째, 본 연구의 인과관계모델(TRA모델과 TRA모델을 포함한 TPB 모델 및 TPB모델에 전통적 가치관이 추가된 ETPB모델을 포함한 포괄적인 인과관계모델)은 본 연구의 10개 집단 중 일본 여성집단을 제외한 9개 집단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기각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가정한 인과관계모델의 변수 간 경로계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수를 살펴보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중국과 독일의 남성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결혼의향에 관계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일수록, 결혼에 대한 의향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행동에 대한 태도가 의향과 가장 강한 관련이 있다고 한 Ajzen&Fishbein(1980)의 합리적 행위이론이 엄밀하게는 부정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과 독일 남성 집단의 경우,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그들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든가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배경에는 1)본 연구에 있어서 본래 잠재변수인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관측변수로 처리함에 따른 인과관계의 희박화 현상 2)다른 군에 비해 사례수가 적기 때문으로 짐작되나 이 점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인 10개 집단에 있어, 전통적 가치관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든가 가설이 실증적으로 지지되었다. 즉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학생일수록,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높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와 첫 번째 결과를 종합하면, 전통적 가치관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통해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가 10개 집단 중 8개 집단에서 성립되었다. 이 인과관계와 관련해서 성역할관이 약화되면서 결혼 프리미엄(marriage premium, 결혼에 의한 특전)이 감소하여 남녀모두에 결혼시기를 늦추는 효과를 가지고(Oppenheimer, V.K.

외, 1997), 또한 전통적 가치관이 근대화할수록 결혼에 대한 기대는 낮아진다 (이성희, 2008: 129)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본 연구의 데이터에 있어서는 한국 남녀집단과 일본 여성집단 등 이 3개 집단을 제외하고, 결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결혼 프리미엄(marriage premium)효과는 밖으로 나타날 때까지 시간을 필요로 하여 자유를 원하면서도 결혼의 자유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상실을 각오하고 있다(筒井陵志, 2007: 76)는 이유에서 본 연구에 있어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결혼의향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결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처음부터 「행동에 대한 태도가 의도와 가장 강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이론 검증에 사용하는 것 자체에 무리가 있지 않은가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규범적 신념(normative belief)으로 위치한 결혼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독일 남녀집단과 일본 여성집단 3개 집단을 제외하고,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결혼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압력의 저하, 결혼을 둘러싼 사회적 규범의 희박화에 수반하여 결혼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의식,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식이 확대되어 왔다(筒井陵志, 2007: 76 ; 武石惠美子, 1998: 2)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변수가 결혼의향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즉, 이번 조사결과에서 전통적 가치관이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강하게 부정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주관적 규범을 결혼의향의 인과관계모델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Ajzen(1991: 184)은 지각된 통제력을 Bandura의 자기효능감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결혼하는 것의 용이함과 어려움에 대한 개개인의 지각, 신념으로 파악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결혼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독일 남성집단과 한국·미국 여성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결혼의향 모델에 있어

서는 TRA보다 지각된 통제력을 포함하여 확장시킨 TPB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지만 그 변수가 앞으로도 결혼의향의 중요한 변수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관해 伊東秀章(1997: 169)는 결혼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라는 심리학적인 면에서의 통제력뿐만 아니라 결혼에 있어서의 실제적 통제력(학력, 수입 등과 같은 객관적 지표)도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의향에는 전통적 가치관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변수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전통적 가치관에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서 결혼의향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한다면, 새로운 행동에 관련한 이론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시사된다. 즉 가설의 차원에서 사용된 전통적 가치관,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 결혼의향의 3가지 변수는 이론상으로 보면, 「이데올로기」, 「태도」, 「의향 및 행동의 표현」으로 치환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의향이나 행동에는 자신의 이데올로기가 태도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론, 즉 기존의 행동에 관한 Ajzen&Fishbein(1980)의 합리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과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이데올로기-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by Ideology)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추후 결혼의향뿐만 아니라 취업, 출산 및 육아, 가사, 선거, 마약과 같은 인간의 다양한 행동발현에 있어서 앞서 말한 3가지 이론에서 도출되어진 가설을 통해 어느 이론이 보편적인 이론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이삼식(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95-140.

- 이성희(2008) 「대학생의 결혼기대와 영향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4(2), 124-130.
- 조희은·윤영·이해인(2005) 「계획된 행동이론을 통한 미혼여성들의 결혼지연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논문집』, 294-295.
- Ajzen, I. & Fishbein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J.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 Bumpass, L.L. (2004) *Social change and the American family*, Ann N Y Acad Sci, 1038, 213-219.
- Oppenheimer, V.K., M. Kalmijin., & N. Lim,(1997) 'Men's career development and marriage timing during a period of rising inequality,' *Demography*, 34(3), 311-330.
- Peek, M.K. (200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rehabilitation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79(3), 301-309.
- Raymo, James M. (2003) 'Educational attainment and the Transition to First Marriage among Japanese Women,' *Demography*, 40(1), 83-103.
- Waite, L. J. & Glenna D. Spitz. (1981) 'Young woman's transition to marriage,' *Demography*, 18, 681-694.
-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編(2007) 「わが國獨身層の結婚觀と家族觀－第13回出生動向基本調査(結婚と出産に關する全國調査)第二報告書－」, 『厚生統計協會』.
- 野崎裕子(2007) 「雇用不安時代における女性の高學力化と結婚タイミング-JGSSデータによる検証－」, 『大阪商業大學比較地域研究所・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編』, 131-146.
- 水落正明(2006) 「學卒直後の雇用狀態が結婚タイミングに與える影響」, 『生活經濟學研究』 22・23, 167-176.
- 筒井陵志(2007) 「男性に結婚を促すために一少子化對策を殘された政策課題－」, 『立法と調査』 269, 74-80.
- 山本嘉日郎 & 小野寺孝義(1999) 「Amosによる共分散構造分析和解析事例」, 『ナカニシヤ出版 京都』.
- 小田切紀子(2003) 「離婚に對する否定的意識の形成過程: 大學生を對象として」, 『發達心理學研究』 14(3), 245-256.
- 伊東秀章(1997) 「未婚化に影響する心理學的諸要因－計劃行動理論を用いて－」, 『社會心理學研究』 12(3), 163-171.
- 武石惠美子(1998) 「現代における結婚の意味－非婚化の要因を探る－」, 『ニッセイ基本研究所』 1-6.



#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와 과제

-일본의 경험을 통하여

전 광 현

서울 신학대학교

## 1. 서론

초고령사회로 진전되는 한국사회의 특질에 걸 맞는 사회시스템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보호하여야 하는 노인의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테마이다. 이러한 화두를 해결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준비해 온 노인장기요양가 2007년 2월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되었고,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행되고 있다. 이로써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과 그 가족들이 '케어의 사회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빈곤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중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만 극히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던 노인 장기요양서비스가 이제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라면 소득계층에 관계 없이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보편적 제도로의 변화는 노인장기요양 위험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으며, 그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경우 그 노인 및 가족이 겪게 되는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고통이 심각하므로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연대에 입각하여 함께 대응해

야만 하는 사회적 위험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인장기요양 욕구에 대한 정책이 조세에 기반을 둔 선별적, 단편적 대응에서 사회보험에 기반을 둔 보편적 제도화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단순히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수혜자가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넘어서 재원조달방식, 서비스비용 지불방식, 서비스공급자의 구성, 서비스이용의 결정방식 등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가 수반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궁극적인 지원내용이 제공자와 이용자가 직접 대면하여 인적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므로, 재원을 조달하여 욕구에 따라 재분배하는 ‘재원조달 및 재정운영체계’, 서비스를 전달하는 ‘서비스제공자’,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의 삼각 관계화에서 제도 운영이 이루어진다. 노인장기요양과 같은 사회서비스 경우에는 재원조달 및 재정운영체계와 함께 서비스 전달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때 서비스 전달체계는 서비스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 욕구를 사정하여 수급자격자를 선정하고, 욕구 충족에 필요한 적절한 서비스를 계획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결, 선정하는 등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를 어떤 기관에서 어떤 인력이 제공하도록 할 것인지에 관련되는 일체의 과정을 포괄하는 것이다(석재은, 2007).

특히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에 따라 재원조달 및 재정운영체계와 서비스 전달체계는 매우 다르게 구성되고 상이하게 작동할 수 있다. 예컨대, 지금까지 국고지원에 기반을 두어 빈곤층을 주 대상으로 잔여적으로 이루어지던 서비스 제공행태가 사회보험에 기반을 두어 보편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혁신적인 변화를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내용 및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과 계약 제도의 도입은 서비스 공급체계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장기요양에서의 제도적 변화가 가져오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것에 언급하려고

한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지금까지 위탁서비스 제공체계에서 서비스제공기관의 다원화 및 양적증가에 기반을 둔 서비스 제공 경쟁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시장을 형성시키게 되었다. 이는 노인복지 분야의 시장기능을 형성하여 서비스공급자들의 경쟁, 서비스이용자의 선택으로 하여 결국은 서비스 질 제고로 이어진다고 하는 시장의 기능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시장 기능의 특성상 경영여건의 판단에 따른 지역별 서비스인프라의 편중, 정보 비대칭에 의한 소비자 선택권 제한, 마케팅 및 경영위험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 등의 시장의 실패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 2. 신자유주의에 의한 서비스의 시장화에 대한 논의

### - 일본의 경험을 중심으로

#### 2.1. 서비스의 이용

지금까지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은 조세제도에 의해 일반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이는 바와 같이 조세제도는 서비스의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의 판단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복지서비스가 국민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경우 또는 국민의 복지 수요가 다양화되는 가운데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즉 조세제도에서는 특히 서비스 이용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용자와 제공자 사이에 법적 권리의무 관계가 불분명하고, 대등한 관계가 성립될 수 없었다. 따라서 바람직한 방향은 이용자와 제공자와의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 개인으로서의 존엄을 중요시하는 구조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이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를 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용하는 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그 비용에 대하여서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이용자의 입장에 있는 공적조성(公的助成)을 할 필요가 있다. 공적조성은 이용자에 있어서 편리성이 높고 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이용 절차나 지불 방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 계약에 의한 이용은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이용자의 만족을 높임과 동시에 서비스의 향상은 물론 사업의 효율화에도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공적비용에 의해 대상이 되는 서비스와 더불어 보다 쾌적한 환경이나 부가적인 서비스를 이용자 자신의 부담에 의해 구입할 수 있는 형태로 할 필요도 있다고 한다.

## 2.2. 질과 효율성의 확보

### 2.2.1. 서비스의 질

일반적으로 이용자의 수요에 정확히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일체적 제공이 중요하고, 복지서비스 전반에 걸쳐서 요양지원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제공 수법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또 요양기술이나 복지원조기술 등 장애의 중증화를 예방하고, 서비스의 향상과 관련된 수법의 연구·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복지서비스의 질에 대하여서도 서비스를 담당하는 자가 중요하기에 적절한 인재의 양성·확보와 더불어 서비스 제공에서의 전문직의 역할 및 위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전문직에 의한 서비스와 더불어 자원봉사, 가족에 등에 의한 정신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또 시설장 등 복지시설의 관리자는 그것에 알맞은 능력을 소유한 인재의 양성·확보를 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서비스의 제공과정, 평가 등 서비스의 내용과 관련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시설, 설비나 인력배치 등의 외형적인 기준도 질의 저하를 가져오지 않도록 유의하고 탄력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또 서비스 내용의 평가도 서비스 제공자가 스스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러한 평가는 이용자의 의견도 수렴된 형태에서 객관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전문적인 제3자 기관에 의한 실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이용자의 선택에 의한 제공자간의 경쟁을 통하여 실제적인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하여서는 사업운영의 이념, 서비스의 실시체제, 제3자 평가의 결과, 재무제표 등 이용자에 의한 적절한 선택을 위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시할 필요가 있고, 또 이용자가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또 계약에 의한 이용에 대비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체험입소 등의 기회를 제공, 계약서의 기재사항, 계약을 할 때에 사전설명, 해약사유, 광고내용의 정확성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 이용자나 시설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제3자 기관에게 불만을 토로할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원봉사자나 실습생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과, 또 이용자의 의한 선택, 사업자간의 경쟁, 투명성의 향상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실제로 실시하는 서비스를 평가하여 구체적인 문제점을 찾아내서 개선을 지도하는 것도 중하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에 의한 감사는 외부감사의 도입, 행정정보의 개시, 제3자 평가의 도입, 고충처리체제의 정비 등을 하고 이를 활용하여 중점화, 효율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

### 2.2.2. 효율성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비용이 증대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서비스질의 확보를 전제로 하여 한정된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납득을 얻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현행의 제도로서는 제공자의

경영 노력의 성과가 경영 상태의 개선이나 사업의 확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사업자의 경영 조직을 육성할 수 없고 효율성의 향상이 경영목표와도 연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행정 측에서도 사업자를 효율적인 경영 주체로서 육성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지 못하다. 따라서 앞으로 효율성을 향상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의 의욕을 높이며, 또한 그러한 노력에 대한 대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비하여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의 회계, 경리, 경영관리체제의 개혁과 더불어 경영관리지표의 설정, 직원의 전임, 상근규제 및 업무의 외부위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복지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인재육성이나 전문적인 경영진단, 지도가 활발하게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2.2.3. 인재양성·확보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고 향상하기 위하여서는 질 높은 인재를 양성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일할 매력이 있고 안정된 직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또 사명감과 열의를 갖고 일하는 복지사업 종사자들의 임금이나 사회적 평가가 높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임금에 대한 제약을 풀어 각사업자가 사회복지관계자들의 수준에 알맞은 급여체제를 도입하고 그 직원의 능력 등에 따른 처우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직원들의 처우의 충실을 꾀하여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재의 양성면에 있어서도 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취득뿐만 아니라 권리 옹호에 관한 높은 의식을 갖고, 풍부한 감성을 소지하여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며,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 상대방부터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문직의 양성에 있어서도 보건·의료·복지와의 연계의 필요성, 요양지원서비스의 실시 등에 대응한 교과과정의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한다. 특히 실습교육이나 연구를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전문직에 있어서도 자격의 취득

이 종착점이 아니라 취득 후 지속적인 자질을 향상할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서는 직능단체 등에 의한 계속교육의 충실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 2.2.4. 권리옹호

조세제도로의 이행에 의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결정력이 떨어지는 사람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으로 이를 위하여 권리옹호의 시스템 등을 보완하여 적절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도 병행되어야 한다고도 하고 있다. 즉 치매의 고령자, 지적장애자, 정신장애자 등 자기결정력이 떨어진 분들이라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이와 유사한 제도인 금치산·준금치산제도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용하기 불편한 제도라고 지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결정의 존중, 장애가 있는 사람도 가정이나 지역에서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 만들기를 생각하여 유연하며 탄력적이고 이용하기 편리한 권리옹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일본은 법무성에서 소위 말하는 「성년후견제도」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각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있어서도 치매 노인, 지적장애자, 정신장애자 등에 대하여 일상생활의 상담원조, 재산관리 등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은 재산관리는 말할 필요도 없고 생활지원의 면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1999년 10월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실시 주체 가되어 지역복지 권리옹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거나 주민참가에 위한 서비스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의 조직체계를 형성하고 있다(佐藤豊道, 2001)고 한다.

### 3. 신자유주의에 의한 서비스의 시장화에 대한 문제점

#### 3.1. 복지 시장화의 문제점

일본의 기초구조개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사회복지의 기초구조’의 핵심인 조세제도의 일방적인 평가가 문제라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제반 법률에서 정하는 행정에 의한 처리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요구에 대응하여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체의 책임과 의무로서의 사회복지시설서비스든가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등을 실시한다고 하는 공적인 의사의 결정하고, 이를 표명하는 행위라는 것”이며, “법령에 의거한 행정행위로서 결정하는 절차”인 것이다. 따라서 행정 처리는 ‘행정처분’이라는 행정절차상의 용어이며 행정의 공식적인 개별결정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허인가 나 급부의 결정 등 국민으로부터 “신청”으로 요구하는 이익적인 조치결정도 역시 “행정처분”으로서 권리보장행위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관료들이 갖는 조치제도에 대한 의식은 단편적이라는 것이다. 즉 후생성 사회·원호국장은 “현재의 행정주도의 의한 제도 하에서는 제공자가 위에 위치하고 있고 이용자는 밑에 있는 상하관계의 상태에 있다. 이러한 시스템 아래에서는 이용자는 권리로서 서비스를 선택한다던가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평가이고, 지금까지 구축하여온 역사적 활동까지도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방적인 평가보다는 행정에 의한 제도를 법·제도, 재정보장, 실천현장의 구체적인 기능, 선택권을 포함한 이용자 입장에서의 권리보장의 실태 등의 수준에서 검증하여 운영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과제를 명확히 하는 가운데 그것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적확히 판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 다음의 문제점으로 시장원리의 도입을 전제로 한 다원적 복지공급체제

의 확립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민간기업의 참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영 주체의 범위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까지도 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공적사회복지에 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원리에 따라 복지가 침투되면 될수록 우선적으로 권리보장을 받아야 하는 계층이 배제되거나 저 수준의 복지에 만족하여야 하는 등 사회복지의 기본원칙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경험 즉 규제완화에 따라 손해를 보는 계층은 저소득자와 지방의 주민이라고 하는 데에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3번째의 문제점으로 사회복지의 비용부담체계에 있어서, 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에서부터 이익에 따른 부담 원칙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평 또한 공정”기준은 누구와 누구와의 비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즉 이용자간인가, 이용자와 비이용자 사이에서도 비용부담 형태가 다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이야말로 이용자의 경제능력을 배려한 민주주주적인 비용징수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사회복지 이념을 반영한 비용징수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익에 따른 부담 원칙(정액제)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계약제도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계약제도는 능력에 따른 부담원칙과는 양립할 수 없는 제도이다. 즉 계약제도는 이용자의 부담 능력을 무시하고, 동질·동양(量)의 복지서비스를 정액에서 구입하여야 하는 원칙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4번째의 문제점으로 국고부담에서 ‘공적 조성(助成)’로의 재정보장 형태를 전환하려고 하는 형태이다. 조성이란 ‘사업·연구의 완성을 돕는 것’으로서 국가책임에서 ‘개인의 자립지원’으로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보조금의 일반 호칭은 국가 지불금이지만 그 내용은 부담금(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부담금, 생활보호비 부담금 등), 격려적 보조금, 위탁비·교부금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래 국고보조금이란 “국가가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일정한 사무 사

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실시를 강제하거나 혹은 필요한 조정과 더불어 행정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액"이다. "계약제도로의 이행에 의하여, 공적부담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제시하고는 있지만 새로운 명칭인 "공적 조성"이 어느 정도의 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

### 3.2. 복지시장화서의 변화

이와 같은 복지 시장화를 앞서 실시한 일본의 사회복지를 어떻게 변화되었나에 대한 과제가 등장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변화의 처음은 요양이나 보육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분야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으로 우등열패의 철칙이 관철하게 되었으며, 지역밀착형의 복지사업체는 밀려나가고 기업이 활보하는 사태가 될 것이다(선우덕 외, 2007). 현재 제시되어 있는 자치체의 단독 보조금 삭감 방침을 개혁과 더불어 표명하여 기업과 공립·사회복지법인과의 경쟁을 실현하는 터를 마련하였다. 그 다음으로 인기가 있는 사업체는 생활실태가 곤란하며 경제적인 빈곤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역선별하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일본의 개호보험의 경우 이용료의 1할 부담과 생활비의 실비를 지불하는 것이 곤란한 계층과의 계약을 꺼리는 경향을 나타낼 수도 있다(淺井春夫, 2002). 제3으로 조치제도에서 민법상의 계약제도로의 전환은 이용료를 앙등시키는 것이 될 것이며, 서비스의 질이 높은 사업체와의 계약은 높은 이용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계약사회의 원칙으로서 저소득계층의 사람들은 저복지 수준에서 참아야 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제4로서 경쟁이 격화되면 될수록 지역에서의 네트워크의 시점이 결여되는 상태가 될 것으로서 이는 지자체의 주민의 사회복지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상태가 될 것이다. 제5로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하여서 각사업체는 경영 효율을 증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이는 업적주의의 강화, 복지 실천의 매뉴얼화를 추진하게 되어 복지노동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 경영자도 피고용자도 살아남기 위한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합리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복지노동의 특징인 커뮤니케이션 노동으로서의 측면이 후퇴하고, 구체적인 당연 과제가 눈에 보이는 노동 내용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 제6으로 소외지역, 돈을 벌 수 없는 지역은 저복지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러한 지역은 공적인 책임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며, 이윤이 높은 지역은 민간영리기업만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윤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리기업은 인원삭감 정책을 대담히 전개할 것이고 결국에는 도산 상태까지도 이를 가능성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淺井春夫, 2001). 이러한 때에 주민의 사회복지 권리를 지키는 것은 영리기업의 책임이 아니라 주민의 자기책임으로 하여 이에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인 것이다.

#### 4. 서비스의 시장화에 의한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 문제점

##### 4.1.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 제도의 문제

2000년도부터 시작된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서비스이용자가 시작 당시에 비교해 2배 이상으로 부풀어 올라 보험료수입이나 세금으로 조달하는 급부비도 2배가 되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의 분들이 부담하는 한 달의 보험료도 평균 약 2,900엔에서 약 4,100엔으로 뛰어 올랐으며, 일본정부는 계속 증가하는 급부비를 억제하려고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개호수가를 과거 두 번에 걸쳐서 인하했다. 이후에도 인하는 있어도 인상은 기대할 수 없었다고 한다. 특히 2005년의 개호보험법의 대 개정은 개호 총비용의 억제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개호도의 세분화를 도모하였다. 요 개호도에 '요지원'이라는, 개호보수가

한 단계 낮은 랭크를 신설했다(森詩惠, 2008).

#### 4.2. 개호현장은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

일본에 개호보험이 도입되어 7년이 경과했다. 개호보험은 '개호의 사회화'를 목표로 만들어졌지만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은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하고 있다. 사업경영자들이 서로 만나면 최근의 인사는 '사람이 없다'로 시작된다. 공설의 공공직업안정소에서는 구인 수에 대해 응모자수가 지극히 적다. '개호의 시대'라고도 불리는 오늘, 개호복지사 양성 전문학교도 입학자가 모집정원을 밑도는 곳이 나와 폐교에 몰린 학교도 있다. 특히 재가간호를 담당하는 방문개호원(홈 헬퍼)은 만성적인 인재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 양성기관은 개강할 수 없을 정도로 수강생이 적은 것이 현 실상이다. 또 방문개호원(홈 헬퍼)의 자격을 취득해도 저임금과 장래생활에 대한 불안으로 취업하지 않는 유자격자가 증가하고 있다. 개호보험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다. 게다가 최근의 특징으로서 개호복지사 양성전문학교에의 구인내용이, 호텔, 여행 회사, 버스 가이드 등으로 퍼지고 있다. 이러한 일도 지금까지는 생각할 수 없었던 현상이다. 개호관계 복지대학 등에서도 이 1-2년 사이에 "복지에서 떨어져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일본 사회는 경기회복의 경향이 보이는 반면, 개호보험제도하에서는 개호 보수 단가가 절하된 영향으로 개호직에 장래의 생활설계를 찾아낼 수 없는 젊은이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개호노동안정센터가 금년 7월 말에 발표한 전국조사에 의하면 개호직의 이직률은 약 20.3%로 전 노동자 평균의 약 17.5%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게다가 1년간의 이직자 약 36,000명 가운데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의 사람은 40% 이상에 이르며 3년 미만은 80%에 달한다는 놀랄 만한 실태가 분명해졌다(申村大藏, 2008). 2007년 6월 26일, 일본의 대표적 신문 중 하나인 『아사히 신문』의 "저임금에 복지 비평"에 의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즉 "가열하는 개호비즈니스

스쟁탈전. 그 발밑에서는 개호보험이나 장애복지를 짊어지는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대우가 열악한 실정이다. 급증하는 사회 보장 지출의 역제가 배경에 있어 도시지역 등에서는 저임금 때문에 일손이 모이지 않는다. 이대로는 복지가 인재난으로 붕괴한다.”라고 말이다.

#### 4.3. 열악한 노동환경, 저임금과 높은 이직률

일본 후생노동성의 조사에서도 “개호보험제도의 요개호인정자와 요지원인정자가 2004년의 약 410만 명부터 2014년에는 최대 640만 명에까지 증가해 개호보험 서비스의 수요는 한층 확대할 전망이다. 필요한 개호종사 직원 수는 현재의 약 100만 명(2004년)으로부터 140-160만 명이 될 것이다.”라고 추계하고 있어 이에 인하면 매년 4-6만 명씩 개호직원이 증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개호 직원의 급여수준(2005년)은 남성의 복지시설개호직원이 연수 315만 엔 여성의 홈 헬퍼는 262만 엔이며 전 노동자의 평균 453만 엔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아사히신문』의 보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복지시설직원의 월급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4년간에 약 2만 엔 적게 되었다. 전 노동자 평균과 비교한 수준도 70%부터 64%로 감소했다. 전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개호직원의 저임금화는 분명하게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개호보험이 도입된 2000년도에 3.6조 엔이었던 개호보험의 총비용은 급격한 고령화에 인한 개호서비스의 보편화, 시장화로 급증했다. 개호보험의 총비용은 2007년도 예산으로 7.4조 엔에 이르렀다. 또한 당연히 국민이 납부하는 개호보험료도 상승했다. 일본정부는 ‘지속가능한 제도’의 구축을 목표로 개호보험금부 역제를 최대 중요 과제로 두었다. 개호보험의 보험자인 지방자치제도 소득세 등 다른 세율인상에 아울러 개호보험료의 인상은 주민의 지지를 얻기가 힘들다. 재정난은 개호보험제도의 기둥인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체의 독자성의 발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도 의 개호보수는 2.3% 인하여 시설에 관해서는 4.3%로 인하여졌다. 게다가 2006년도는 전체로 2.4% 인하여 시설에서는 그것을 웃도는 4%나 인하여졌다. 또한 시설에 관해서는 전년의 2005년 10월, 연도 도중에 이례의 개정이 있어 식비 및 주거비(호텔 코스트)가 새롭게 자기 부담이 되었다. 이에 의해 소득자에게 있어서 시설 생활은 한층 어려운 것이 되었다. 개호서비스의 가격은 개호보수라는 공정가격이다. 직원의 배치기준도 법적으로 결정되어있어 일정 수준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대폭적인 인원 삭감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개호보수가 크게 내려가면 사업자가 이익을 확보하는 방법은 인건비의 삭감 밖에 없다. 구체적으로는 정규직원의 채용을 유보해 임시직원이나 계약직원을 고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24시간의 계속적인 개호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은 개호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인원확보가 아무래도 필요하다. 개호보수인하의 결과 전년과 비교해 수입이 밀둔 사업체는 47.3%나 되었다. 비정규직원의 비율이 제일 높은 직종은 방문개호직(홈헬퍼)이다. 개호직원 전체 속에 차지하는 정규직원의 비율은 약 60%이지만 방문개호직원 중에 차지하는 정규직원의 비율은 20% 이하이다(장세철 외 역, 2008).

#### 4.4. 외국인노동자도입으로 문제는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정부는 2006년 9월, 필리핀인의 개호노동자 600명을 들이기로 정식으로 결정해서 민간의 복지시설이 필리핀에 시찰단을 파견했다. 일본에서 국적이 다른 노동자가 모든 분야에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개호자와 역사적으로 정신평토가 다른 생활체험을 가지는 고령자에게 단순한 노동력으로 해서 외국인을 도입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의 동남

아시아제국으로부터의 개호노동자의 도입은 개호노동을 낮은 위치에 그대로 두는 것을 의미하므로 역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 4.5. ‘지역밀착형서비스’는 어려운 사태를 해결할 것인가

일본정부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위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개호보험제도도 나라에서 현, 시읍면에 권한위양이 진행되고 있다. 2006년의 개호보험법의 개정으로 개호예방개념이 도입되어 이와 함께 ‘지역 밀착형 서비스’가 제도화되었다. 지역밀착형서비스란, 소규모로 많은 기능을 가진 서비스를 제공해서 재가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개호보험제도의 발족 이래 지금까지 시설에로의 입주희망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개호보험이 목표로 하는 것의 하나에 재가, 지역 중심의 개호로의 전환이 있었지만 현실은 이에 역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시스템을 바꾸어 가지 않으면 지역밀착형서비스는 시설의 소규모화라는 하드면의 개선에 만 끝나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게다가 2006년의 개정으로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창설되어 시읍면에 새로운 “일상생활권역”이 설정되었다. 그리고 이 권역을 단위로 개호지원 전문원(케어 매니저), 사회복지사, 보건사 또는 간호사의 3 전문직을 배치해서 지역의 고령자 학대상담 등에 대응하는 고령자 종합상담창구로 두었다.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시작되고 1년 남짓 밖에 경과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체의 재정 능력의 유무에 의한 위탁비의 지역격차, 전문지식을 가진 인재확보의 어려움, 개호예방 케어플랜의 작성건수 증가 등을 비추어보고 본격적인 활동실적을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장세철 외 역, 2008). 또 일상생활권역의 설정도 예전의 행정구를 그대로 이행시킨 것이 많아 지역 주민이 실감하는 생활권역과 동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 5.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문제와 과제

### 5.1.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

정부는 요양시설, 재가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등 모든 물적, 인적 인프라가 당초 예상과 달리 충분히 공급되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과잉공급에 따른 문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당초 요양보호사 필요인력을 5만 명으로 추계했으나 실체는 45만 명이 배출되었으며, 1,600여 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추계했던 재가 요양기관은 13,000개가 넘게 설립되었다. 요양보호사 및 재가요양기관의 7-8배가 넘는 과잉공급은 모두 정부의 수요공급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교육기관의 난립문제이다. 최근 불법자격증 문제로 900여 명이 넘는 교육원과 교육생이 입건되었고, 이 중 7명은 구속되었다. 이한 불법자격증 문제 역시 정부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교육기관의 난립은 요양보호사 교육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무시했다. 결국 전국에 1,000여 개 넘는 교육기관이 세워졌고, 교육기관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종 불법 및 편법을 동원해 교육생 모집에 열을 올렸다. 그 결과 요양보호사의 교육은 부실해 졌고, 요양보호사는 당초 필요 인력의 8배가 넘는 인원이 배출되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실업자 자격증으로 전락했다. 또 요양기관의 난립으로 한 문제이다. 정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은 물론 개인사업자까지 요양기관 설립을 허용했다. 일정한 시설요건과 요양보호사 3인만 고용하면 누구나 재가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전국에 13,000여 개의 재가요양기관이 난립했고, 재가요양기관의 과당경쟁과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과 편법이 만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의 난립은 정부에 의한 관리감독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요양기관들의 불법, 편법 행위가 더욱 용이하도록 만드는

조건이 되고 있다. 이는 부당청구, 부정수급 등 보험재정 누수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및 올해 요양기관 204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164개 기관에서 부정행위가 적발 되었다. 조사기관의 80% 이상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부정한 기관운영이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정부의 통제기능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부정행위의 일반화는 대상자 사례관리 및 요양보호사 교육에 힘쓰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요양기관들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요양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요양기관들이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인정신청, 재신청 등을 반복하고 있어 인정조사량이 무한정 늘어나고 있다. 인정조사의 폭주로 인하여 공단 요양 직원들은 2인 1조로 인정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대부분 1인이 인정조사를 하고 있다. 이는 인정조사의 전문성, 객관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제도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공단 요양 직원들은 1인 출장 조사로 인하여 성추행 및 신변위협으로 불안에 떨고 있으며, 과중한 업무는 유산 및 입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상자에 대한 이용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대부분의 이용지원은 재가 민간기관에게 일임되어 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는 노인인구의 3.9%이다.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 중 약 22%가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소득이 전무하다시피 한 노인들에게는 여전히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등 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현행법에 명시되어 진작부터 이행했어야 하는 차상위 계층 본인부담 50% 경감을 주요한 성과인양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금을 50% 경감한다고 하더라도 대상자가 2만 명에 불과하며 요양시설 이용시 비급여를 포함하여 한 달에 35-40만 원(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인용) 정도를 부담하여야 한다. 경제위기를 온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게 한 달 35-40만 원의 본인부담금은 여전히 요양시설 이용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다. 또한 차상위 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던 방문목욕이나 방문간병 서비스(지자체 제공)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이후에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요양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이 더욱 높아진 실정이다. 또한 여전히 4, 5등급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노인복지서비스와 예방서비스에서 대부분 제외되어 있다. 정부는 4등급과 5등급 노인은 복지에방등급으로 분류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예방적 서비스를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예방 서비스의 실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실질적인 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노인들은 증세가 악화되어 등급 내로 진입하여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상식 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노동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 2009).

결론적으로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정부는 없고 시장질서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체 요양기관 중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요양시설은 2.9%, 공공재가기관은 1%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법인 및 개인 등이 운영하는 민간기관이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시장의 질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원리의 핵심은 공급구조의 이윤추구에 있다. 이는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반을 시장화 하는 근거로 자리 잡을 것이며, 정부는 국민이 낸 보험료를 동원하여 이러한 시장이 형성되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긍정적 반응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정착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도 시행 초기에 없던 제도가 생겨남에 따른 당연한 현상이다. 국민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을 요양기관들의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어 요양기관이 필요한 서비스를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받는 것이 아니다. 노인이라면 누구나 지역, 소득의 차이와 상관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 5.2.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화의 쟁점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화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분석이 필요하다. (1) 전반적으로 이용자 측면에서 소비자 선택의 실질적 자유가 확대되고 이용자 결정권/통제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었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서비스이용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가, (2) 지역별 서비스 인프라 환경 등에 따라 지역별로 서비스이용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이용자부담 등의 제도적요소가 소득계층별 서비스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가 담보되고 있는가, (5) 노동 시장 및 서비스인력 노동공급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서비스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보상수준은 어떠한가, (6) 전체 정책목표 충족 및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면서 비용 효율적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석재은, 2006).

## 5.3. 복지시장화에서의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노인복지에 대한 과제

현재 우리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관련 행정체계 및 전달체계에 대한 심대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그 하나는 노인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사업의 운영 및 재정책임이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른 영향이다. 두 번째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변화의 맥락이긴 하지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의 형성에 따른 변화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야 할 것이다(석재은, 2006). 그러나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역할은 상당히 미미하게 설정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1) 노인수발시설의 설립 및 민간수발시설의 신고, 지정업무 등 시설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러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알아서 필요한 수발시설을 설립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시설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수발시설의 구축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시장성이 낮아 민간 시설의 신규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실패에의 대응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사회연대적 기금을 통하여 시설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는 현재와 같이 신규 진입시설의 신고업무 처리와 지정을 맡게 되는데, 더 나아가 지역의 수발서비스 규모를 고려하여 신규진입을 어느 선상에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역할도 맡는 것이 필요하다. (2) 지자체는 중앙정부에서 보험급여 대상에게만 수발급여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지역복지계획하에 연속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예방급여에서부터 비수급대상인 경증대상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석재은, 2007).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사회연대적인 지원 없이 지자체의 자력으로 예방 및 경증대상 서비스 제공 책임을 수행하라는 이 부분은 포기해도 좋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문의 사회연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요구된다.

## 6. 결론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는 실패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프라의 충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 선택의 가능성이 제약될 가능성이 크며, 또한 서비스이용자가 본인의 서비스 내용을 결정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는 데 있어 충분한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공유체계의 구축이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 만약 정확한 정보의 충분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시장의 실패는 재연될 것이고 이는 정부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것보다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와 같이 빈약한 자원으로 제기되는 자원을 완전히 가동해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말까하는 상황에서 서비스공급의 의도적 중복과 경쟁이라는 정책선택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아직은 우려가 크다.

시장화가 관료화, 경직적 대응이라는 정부실패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서비스 인프라의 편중 등 서비스자원 할당의 비형평성 문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이용자 선택권 제한, 서비스 질 및 가격 차별화에 따른 계층화 문제 등의 시장실패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과제로 등장할 것이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가 전망을 이야기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박용순·엄기욱·석재은(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미칠 영향』, 보건복지부,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 선우덕·이건직·이서영·김정남·김병환·김윤미(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경영전략개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석재은(1999) 「노인 장기요양보호 공급주체간 역할분담 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05) 「장기요양보호 정책의 한국적 모형에 관한 탐색적 논의: 국가, 시장, 가족의 역할분담과 정책설계」,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17-246.
- \_\_\_\_\_ (2006) 「장기요양 현금급여 정책의 국가간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2).
- 석재은·김수정·여유진·남찬섭(2006) 「사회서비스 제도화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석재은(2008)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시장의 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42호.

- 석재은·임정기·이태화·이현식(2007)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시설 유형별 경영수지 분석연구』, 보건복지부·한림대 산학협력단.
- 엄기욱(2005) 「지방화시대의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모색」, 한국노년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토우 슈헤이 저, 장세철·권순희·김윤진·박현정·이서영·조문기 역(2008) 「개정」 개호보험과 사회보장개혁, 교육과학사.
- 정경희·석재은·선우덕·김찬우·이태화·이태진·이윤경·김희경·김순환(2005)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평가관정체계 및 급여수가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개발 연구(I)(II)』.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2005)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 개발연구』.
- 노인장기요양보험 1년 평가 및 제도개선 요구(2009)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広井良田(1999) 『日本の社会保障』, 岩波新書, no.598.
- 蟻塚昌克(1998) 『社会福祉行政論—基礎構造の解明と改革の課題』, 中央法規出版.
- 阿部 実(1993) 『福祉改革研究』, 第一法規.
- 浅井春夫(1999) 『社会福祉基礎構造改革でどうなる日本の福祉』, 日本評論社.
- (2001) 『新自由主義と非福祉国家への道』, あげび書房.
- (2002) 『市場原理と弱肉強食の福祉への道』, あげび書房.
- 厚生省 社会·援護局企劃課 監修(1998) 『社会福祉の基礎構造改革を考える』, 中央法規.
- 本間正明, 跡田直澄 編(1998) 『21世紀 日本形福祉社会の構成』, 有斐閣選書.
- 渡辺治(2001) 『“構造改革”で日本は幸せになるのか?』, 萌文社.
- 大橋謙策, 宮城 孝編(1998) 『社会福祉構造改革と地域福祉の実践』, 東洋堂企劃出版社.
- 山懸文治 編(2001) 『社会福祉法の成立と21世紀の社会福祉』, ミネルヴァ書房.
- 佐藤豊道(2001) 『ジェネラリスト・ソーシャルワーク研究』, 川島書店.
- 平野隆之, 宮城 孝, 山口 稔編(2001) 『コミュニティとソーシャルワーク』, 有斐閣.
- 蟻塚昌克(1998) 『社会福祉行政論—基礎構造の解明と改革の課題』, 太洋社.
- 森 詩恵(2008) 『現代日本の介護保険改革』, 法律文化史.
- 東京市町村自治調査會(1998) 『介護保険と市町村の役割』, 中央法規.

## 서흥 탈놀이에 대한 고찰

리 영 호

조선사회과학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화와 예술이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로동당시대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민족예술작품들을 모두 발굴하고 개화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옹당한 의무입니다.”

우리 인민이 창조한 우수한 민족예술유산 가운데서 일명 가면극이라고도 하는 탈놀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원시사회에서 동물의 탈을 쓰고 추었던 원시인들의 수렵무용에 시원을 두고 있는 탈놀이는 고대, 중세에 걸치는 오랜 역사적 과정에 여러 가지 민족행사과 각 지방의 민속놀이와 결부되어 지방적색채를 띤 민간가면극으로 발전하여왔다. 하여 리조 후반기에 와서는 황해도, 경기도, 경상도 등지에서 해당 지방특색의 탈놀이들이 성행하게 되었다.

서흥탈놀이는 그중의 하나로서 황해북도 서흥지방인민들에 의하여 창조되고 널리 추어진 황해도탈놀이의 한 유형이다.

황해도지방의 여러 탈놀이들과 마찬가지로 서흥탈놀이도 해마다 5월 초에 한번씩 진행되군 하였다.

서흥탈놀이는 리조 말엽에 이르러 점차 쇠퇴되기 시작하여 근대에 이르러서는 당시의 서흥군 도하면 룡리(현재 황해북도 연탄군 문화리)에서 그 명맥

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마저 일제식민지 통치시기에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 후 1950년대 중엽에 진행된 공화국북반부 민속학자들의 황해도탈놀이에 대한 현지조사과정에 서흥탈놀이대본이 발굴됨으로써 서흥탈놀이는 다시 세상에 자기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당시 발굴된 서흥탈놀이의 극적내용과 그 예술형상적 특징에 대하여 편의상 황해도탈놀이의 전형적인 형태로 되고 있는 봉산탈놀이와의 대비 속에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먼저 서흥탈놀이의 극적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보기로 하겠다.

서흥탈놀이는 모두 10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제1과장 헛탈, 제2과장 팔목춤, 제3과장 사상좌춤, 제4과장 줄랑반, 제5과장 로승, 제6과장 신장사, 제7과장 취발이, 제8과장 사자춤, 제9과장 미알, 제10과장 거사사당.

제1과장에서는 헛탈<sup>2</sup>이 등장하여 탈판을 떼구루루 군 다음 벌렁 누워 여러 가지 동작을 진행하다가 화장춤을 춘다. 탈놀이 전체의 서막에 해당한 부분으로서 대사는 없다.

제2과장에서는 첫목과 둘째목이 차례로 나와 헛탈과 같은 동작의 춤을 춘 다음 셋째목이 나와서 춤과 재담, 땅재주의 기교를 보여준다. 그 다음 넷째목이 나와 불립을 한마디하고 춤을 춘다. 서흥팔목춤은 봉산팔목춤에서처럼 팔목이 다 등장하지 않고 대체로 넷째목에서 그치는 것이 보통이다.

제3과장에서는 네 명의 먹중이 사인교에 태워가지고 등장한 소무, 그리고 먹중의 등에 업혀 나온 네 명의 상좌와 함께 춤을 춘다. 이 부분은 봉산의 사당춤과 상좌춤을 합쳐놓은 것과 같으며 대사가 없다.

---

<sup>2</sup> 탈군이 탈을 쓰지않고 등장한다는 의미에서 헛탈 혹은 헛탈이라고 한다.

제4과장에서는 만량반 로진사가 하인인 말뚝이를 시켜 둘째 량반 반이, 셋째 량반 쩌기, 넷째 량반 증가집 도령을 차례로 초청하는데 말뚝이가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옥설과 매로 량반들을 끌려주다가 데려온다. 네 량반이 모여앉아 풍월을 읊은 다음 로진사가 길 떠날 차비를 할 때 비비탈(봉산탈놀이의 포도비장에 해당하는 인물)이 등장하여 그들을 내쫓는다.

말뚝이가 량반들을 야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이 부분에는 봉산의 량반과는 달리 소무가 등장하지 않는다.

제5과장에서는 로승이 중의 체면을 췌버리고 회유와 비굴한 몰골로 소무를 얼려 춤을 추는 내용을 보여준다. 로승의 과거모습의 일면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제6과장은 신장사가 등장하여 로승과 신발을 흥정하다가 자기의 보집에서 뛰어나온 원승이와 함께 춤을 추는 내용이다.

제7과장에서는 술에 취해 등장한 취발이가 로승에게 매를 맞다가 정신을 차려 그를 내쫓고 소무와 가정을 두어 아이를 낳아 행복한 생활을 하는 내용을 보여준다.

제8과장에서는 마부와 사자를 끌고 탈판에 나와 사자와 함께 화장춤을 춘다.

제9과장에서는 헤여졌던 미알령감과 미알할멈이 만나 초췌한 행색(령감차림새)으로 인해 다투다가 함께 춤을 추는 내용을 보여준다.

제10과장은 거사와 사당이 탈판 가운데 서있을 때 5명의 먹중이 나와 거사를 내쫓고 소무와 함께 놀량사거리, 산타령 등의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다. 소리가 끝나면 탈놀이 전 과장이 끝난다.

보는바와 같이 서흥탈놀이의 극적내용은 봉산탈놀이와 마찬가지로 중과 량반들을 풍자조소하고 봉건사회의 몰락상을 폭로 비판하는 것으로 일관되어있다. 즉 서흥탈놀이는 봉산탈놀이와 마찬가지로 피착취근로대중의 반봉건적 사상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형상에서는 자기의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 특징은 첫째로, 사상 주제적 내용에서 불합리한 착취사회와 량반지배계급에 대한 근로인민대중의 반봉건적립장과 태도가 더 한층 격렬하고 날카롭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작품의 네 번째 과장인 줄량반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줄량반춤은 봉산탈놀이의 <량반>과 같이 봉건사회의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모순과 대립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 춤과장에 나온 네 명의 량반들은 봉산의 량반 삼형제보다 한층 더 개성적인 인물들로 형상되었다.

봉산탈놀이의 <량반>에서는 량반삼형제가 부화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일삼는 패륜패덕한, 위선자로 야유조소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만량반이 풍자조소의 중심인물로 되고 그의 부패한 생활리면이 주로 소무와의 관계에서 폭로되고 있다. 즉 인물형상에서 만량반을 제외한 둘째량반과 종가집 도령의 성격적 면모가 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볼 때 서흥탈놀이의 <줄량반>에 나오는 네 명의 량반들은 성격적 면모가 뚜렷하고 또 풍자 조소되는 측면이 봉산탈놀이와 차이점을 가진다.

부패타락한 생활로 하여 병든 쌍언청이 로진사,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은 듣지 않는 귀머거리 반이, 불시에 간질발작을 일으키면서도 량반의 <권위>만 찾는 반신불수 제기, 경솔하고 철이 없는 종가집 도령과 같은 네 인물은 량반사회의 네 종류의 전형적인 인물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형상되고 있다.

그들은 주로 위선자처럼 행세하는 봉산탈놀이의 량반들과 달리 태여날 때부터 정신적 기형아, 육체적 불구자, 도덕적 위선자들인 것으로 하여 량반의 체모는 고사하고 인간적으로 부실한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다. 즉 그들은 외형적 면모에서부터 한층 더 강한 풍자조소의 대상으로 락인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언행과 행동, 몸가짐 하나하나가 풍자조소를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줄량반과장에서는 네 명의 량반과 함께 기본중심인물인 말뚝이의 형상을 통해서도 반봉건적인 사상이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

말뚝이는 쌍언청이 로진사에게 비록 하인의 몸이지만 도고한 자세로 <량반의 새끼, 개새끼>, 둘째 량반 반이에게는 <함경도에서…쫓겨나온 먹적골 생원님>, 셋째 량반 쟈기에게는 <생피 불다가 쫓겨나온 짹짹골 생원택>, 종가집 도령에게는 <아홉 살 먹었을 때 경자년 흉년에 맹물을 끊여주니간 건대기 없다고 밥투정을 하다가 뛰어나온 놈의 새끼>라고 야유 조소한다.

말뚝이의 해학에 충만된 야유와 조소는 봉산말뚝이의 그것과 비슷하면서도 매우 참신한 맛을 주고 있다.

채적으로 량반들을 때리다 못해 뺏다뺏는 말뚝이의 량반들에 대한 모욕과 공격은 봉산말뚝이의 행동보다 한층 더 용감하고 통쾌한 것으로서 지배계급에 대한 증오와 반항의 감정을 보다 직선적으로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로 된다.

이와 같이 서흥탈놀이에서의 말뚝이는 봉산탈놀이의 말뚝이보다 건전하고 지혜로우며, 용감한 근로인민의 대표적 인물로 형상되었다.

특징은 둘째로, 근로인민대중의 반봉건적인 사상이 강하게 표현되도록 극 구성조직을 보다 간결하게 한 것이다.

극 구성조직에서의 간결성은 우선 줄량반과장의 인물설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줄량반과장에서는 봉산탈놀이에서와 같이 소무와 포도비장이 등장하지 않는다.

량반과 소무, 포도비장과 소무, 말뚝이와 소무등의 인관관계를 대담하게 없애고 그 대신 병신량반을 한명 더 설정하여 지배계급에 대한 직선적인 비판과 공격의 화살을 집중시키고 있다.

극 조직에서 여러 계층의 인물들과의 번거로운 인간관계를 피하고 량반만을 대상으로 하여 긴 말보다도 속 시원한 욕과 매질로 량반들을 드세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 줄량반춤의 특징적인 면모이다.

극 구성조직에서의 간결성은 다음으로 전반적인 과장구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흥탈놀이는 10개 과장으로서는 비교적 큰 작품이지만 반봉건적인 사상이 보다 강하게 표현되도록 해당과장들을 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탈놀이는 일반적으로 반종교적, 반봉건적인 내용을 기본주제로 하고 있다.

반종교적인 내용은 주로 중들의 파계모습을 폭로비판하는 것으로, 반봉건적인 내용은 양반 통치배들의 부화방탕한 생활을 풍자조소하는 것으로 형상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여기에 비추어 볼 때, 서흥탈놀이의 춤구성에서는 중들의 파계모습을 형상한 춤들이 간략화되고 함축되어있는 반면에 봉건양반들을 풍자 조소하는 춤(줄랑반춤)은 탈놀이의 전반적구성에서 보다 전개되고 한결 부각되어 있다.

이것은 사상좌춤, 팔목춤, 법고춤, 상좌춤, 로승춤 등 중들의 생활을 폭로비판하고 야유한 춤과장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봉산탈놀이와 구별되는 서흥탈놀이의 또 하나의 특징적인 면모이다.

특징은 셋째로, 춤 구도전개가 시원하고 동작수행이 소박하면서도 건드려진 것이다.

현지 조사자료에 의하면 서흥팔목춤은 “정삼소매를 너울거리며 탈판을 두루 돌아가면서 춤춘다.”<sup>3</sup>고 하였으며 봉산팔목은 “장삼소매를 후려잡고 팔을 경쾌하게 놀리는 동작을 위주로 한다.”<sup>4</sup>고 하였다.

이것은 같은 내용을 형상한 춤이라도 그 춤 구도 및 춤가락에서 고유한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인 동시에 그 특징을 규정짓는 반증자료로 된다.

---

3 『조선민속탈놀이 연구』, 159페이지.

4 『조선민속탈놀이 연구』, 159페이지.

봉산탈놀이에서는 상좌춤, 팔목춤에 출현하는 춤꾼들의 춤기교가 가장 볼 만하다. 타령장단에 맞추어 추는 춤동작은 시원시원하고 활달하다.

이에 비해 서흥탈놀이의 춤동작은 건드러지고 흥겹다.

실례와 같은 팔목춤이라도 탈꾼들이 봉산탈놀이에서와 같이 탈판중심에 자리잡고 기백있고, 시원스러운 팔 동작을 위주로 추는 것(괘기춤)이 아니라 무대를 짹싸게 돌아가면서 화장춤을 춘다.

화장춤은 탈꾼이 범위를 넓게 잡고 원구도로 돌아가면서 장삼소매를 너울거리며 추는 춤인데 그 동작은 서흥탈놀이의 고유한 춤가락으로 되고 있다.

서흥탈놀이에서 춤꾼들의 동작수행이 상대적으로 소박한 것은 춤형상에서 함축과 비약이 있으면서도 보다 통속적이고 대중적인 것과 관련된다.

서흥탈놀이는 봉산탈놀이에 비하면 춤가락이 다양하지 못하고 춤동작들의 대조가 크지 않으며 그 춤형상이 일정한 부분에서만 부각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실례로 팔목춤은 명칭이 팔목춤일뿐 탈춤에 네 명의 상좌들이 등장하여 춤기교와 장끼들을 보여주며 량반과장에는 포도비장이, 미알과장에는 령감의 첩이 등장하지 않는다. 한편 이 춤의 마감에도 남극로인이 등장하지 않고 사당들의 흥겨운 노래춤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것은 이 지방탈놀이가 탈꾼들의 부족으로 춤형상전반이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못한 데로부터 탈춤의 전반적형상이 함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춤형상 전반의 순차적 흐름보다도 주되는 부분들에 집중하면서 서흥지방인들의 사상정서적미감과 요구에 맞게 춤형상이 완성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서흥탈놀이는 이밖에 탈꾼들의 탈과 의상차림새에서도 일련의 특징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첫째과장인 〈헛탈〉에서의 헛탈과 넷째과장인 〈줄랑반〉에서 비비탈이 가면 을 쓰지 않고 흰장삼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와 춤을 추는 것이라든가, 아홉

짜과장인 〈미알〉에서 미알령감이 쌍언칭이 로진사탈에 개털관을 쓰고 로진사복식을 그대로 차리고 나오는 것, 또 팔목이 등거리를 입고 장삼소매를 후려잡고 춤을 추는 봉산에서와는 달리 등거리를 입지 않고 장삼소매를 너울거리면서 춤을 추는 것 등은 봉산탈놀이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서흥탈놀이는 전반적인 극적내용이 봉산탈놀이와 비슷하나 착취사회와 양반지배계급에 대한 풍자와 비판, 야유와 조소가 한층 격렬하고 예리하며 예술적 형상에서 자기의 지방적 색채를 뚜렷이 살리고 있다.

서흥지방인민들의 창조적 지혜와 예술적재능이 반영되어 있는 서흥탈놀이는 사상 주제적 내용의 진보성과 예술적형상의 독특성으로 하여 봉산, 해주, 강령탈놀이와 함께 황해도탈놀이의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로 되고 있으며 귀중한 민족예술유산의 한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다.

# 중국 조선족 전통유희의 역사적 변천과 그 교육적 효용성에 대한 연구

최영금

중국 할빈사범대학 교육과학학원

전통유희는 중국 조선족 사회문화 현상의 하나로서 초기 조선인의 이주와 함께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런 전통유희는 중국 조선족 사회생존과 발전과정에서 그 독특한 문화전승과 교육공능을 갖고 있다. 중국 조선족은 그 특수한 이주역사와 발전특점으로 인하여 주로 중국 동북3성에서 거주하고 있으며<sup>1</sup> 조선인으로부터 점차 중국의 56개 민족성원의 하나로 되었으며 또 장기적인 역사변천으로 인해 중국 다원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 독특한 문화심리구조와 발전특점을 형성하였다. 본문은 길림성 연변자치주를 조사지로 하여 참관, 설문조사, 면담 등 여러가지 조사방식으로 연길시, 룡정시, 훈춘시 등 지방의 시구(市区)와 향진(乡镇)의 유치원, 중소학교와 연변대학, 교육기구과 관계부문의 령도, 관리인원, 전문가, 여러학자들과 면담을 가졌고 일부의 학생과 가장, 사회인원, 로년학회 및 여러 사회기구를 찾아 보았다. 조사대상을 놓고볼때 그 성별, 연령, 신분, 지위와 층차에 차별을 주지 않고 있다.

본문에서 말하는 조선족 전통유희는 주로 씨름, 그네, 널뛰기, 장기, 화토, 윷놀이, 줄당기기 등 7개 항목인데 중국 조선족 유희 중에서 지금까지 상대적

1 사회변천과 생존수요에 따라 현재 중국 조선족은 새로운 거주특점을 띠고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전히 길림성연변자치주를 조사지로 한다.

으로 널리 보급되고 보전되고 있고 민족특색을 띠고 있는 항목들이다. 그중 많은 유희는 선명한 연령구분과 제한이 없고 중국 조선족 어린이나 성인들이 모두 즐기는 유희종목이다. 이주초기 조선반도인의 유희와 똑같은 특점을 띠고있었고 사회발전에 따라 점차 차이를 띠게 되었으며 지금에 와서 그중 어떤 항목은 점차 경기체육활동 항목으로도 발전되었는데 서술편리를 위해 본문에서 모두 유희라 부른다. 그리고 조사는 중복하는 형식을 취했고 2006년 2월부터 8월까지 세차로 근50여일간의 현실조사를 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중국 조선족 전통유희의 전개상황과 전승특점 및 그 원인에 대해 문화생태학의 시각에서 초보적인 해석을 가하고자 한다.

## 1. 현실조사와 분석

### 1.1. 유치원 유희 조사

유치원 조사를 위해 연길시 6.1유치원, 연길시 새싹 유치원, 연길시 무지개(蒙台梭利)유치원, 룡정시 조양천 소학교 부속유치원, 룡정시 제1유치원 등 5개 유치원을 조사하였고 100분의 설문지를 发放하여 93분을 회수하였다. 조사결과 5개유치원은 모두 <새강요>(『新纲要』)의 교육목표 실시를 중심으로 하는 기초우에서 자기유치원의 실제에서 출발하여 교학계획과 교제를 작성하였고 여러가지 유희과목을 설치하였다. 그중 조선족 전통유희의 비중은 크지 않고 늘 노는 유희로는 떡치기, 김치담그기, 줄당기기, 그네, 지게지기, 조선 춤추기, 팽이치기, 물동이이기이며 유치원 유희과목에서 벌럭(积木)놀이, 여러가지 유희각(예하면 시장놀이, 화장놀이) 등이 66%를 차지하였다. 조사결과 조선족 어린이들은 일부 전통유희를 매우 즐긴다는것을 알수 있었는데 예하면, 룡정시 조양천 조선족소학교 부속유치원의 어린이들은 그네를 아주 즐기며 이 유치원에서는 그네는 어린이들의 심신에 유리하다고 여기고 어린이

들의 나이에 맞게 크기와 높이가 부동한 여러가지 규칙의 그네를 설치하였다.

5개유치원은 국내외와의 교류를 중시하며 적극적으로 타 민족의 문화정화를 흡수하여 어린이들이 즐기는 여러가지 유희들을 개발하였는데 그중 어떤 유치원은 완구공장과 합작하여 새로운 기재(器材)와 새기상을 띤 조선족 전통 유희 예하면 유아의 심신특점에 맞는 그네와 철때원돌리기(滾铁圈) 유희를 개발하였다. 예하면 연길시6.1유치원에서는 바가지돌리기, 무지개유치원에서는 비석치기, 투호치기, 안전한 쌍그네 등이다. 이는 조선족 어린이들의 유희 흥취가 넓고 다양하며 그리 집중되지 않고있다는점을 알려준다.

## 1.2. 중소학교 유희 조사

연길시, 룡정시, 훈춘시에서 모두 14개 중소학교를 조사하였는데 그중 소학교는 연길시의 건공소학교, 연북소학교, 동산소학교, 신흥소학교, 룡정시의 조양천소학교, 룡정시실험소학교등 6개소학교를 조사하고 680분의 설문지를 发放하여 679분을 회수하였으며 그 비례가 99.9%이다. 중학교는 연길시제3중학교(초중부 학교), 연길시제10중학교(초중부 학교), 연길시제5중학교(초중부 학교), 조양천제1중학교, 룡정중학교, 연변제1중학교, 연변제2중학교, 연길시제1중학교(한족중학교)등 8개중학교의 초중1, 2학년, 고중1, 2학년의 4개년급에서 840분의 설문지를 发放하고 820분 회수하여 회수율이 97.6%를 차지하였다. 그중 연길시제1중학교(한족중학교)의 조사는 단 재학중에 있는 조선족 학생들에만 제한되었는데 자료 분석에서 비교의 의거로만 하였고 훈춘시제6중학교의 그네와 널뛰기 현장교학조사는 교원및 학생들과의 면담을 위주로 하였다.

### 1.2.1. 소학생유희

첫째로, 유희종류가 매우 풍부하다. 조사결과 줄뛰기, 배구, 룡구, 축구등

각종 구기종목, 전자유희, 열독, 텔레비보기, 소꿉놀이, 그림그리기, 춤 등유희는 소학생들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늘 노는 오락방식이며 그중 운동형 유희가 주요한 방식으로 되고 있다. 년급이 올라감에 따라 벌럭(积木)완구의 비례가 점차 낮아지고 이는 소학생의 심신 발전특점과 인식규률에 맞다고 본다. 단 연결시 연북소학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소학생들이 가정에서 제일 즐겨 노는 세가지 유희로는 운동류 유희(각종 구기종목, 줄뛰기, 숨박꼭질이고), 전통유희(화토, 윷놀이, 장기이며), 컴퓨터, 텔레비보기(그중 컴퓨터, 텔레비보기, 열독활동)등이다.

두번째로, 소학생들이 조선족유희를 료해하고자 하는 수요가 년급에 따라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며 연령, 년급과 정비례 되지만 그 비례가 그리 크지 않아 주요한 오락방식으로는 되지 못한다. 예하면 6개소학교의 4, 5, 6학년 중 随机로 한개 학년에 30명씩 뽑아서 ‘그네, 널뛰기, 씨름, 화토, 장기, 윷놀이, 줄당기기등 7개항목에서 제일 즐기는 항목은 어떤것인지?’를 조사한 결과 년급이 올라감에 따라 소학생들은 조선족 전통유희를 어느 정도 즐기는점을 보여주며 7개 항목에서 제일 즐기는 3개항목으로는 화토(101명), 장기(71명), 윷놀이(60명)이다. ‘어느유희가 조선족유희인가’의 조사결과 소학생은 기본상 전통유희를 가릴수가 있었고 그중 화토, 씨름, 물동이이기, 장기등에 대한 인식이 99%를 차지하였고 50%의 학생들이 윷놀이와 줄당기기가 전통유희인지를 구분할수 없었고 99.9%의 학생들이 마장을 전통놀 이로 오해하고 있었다. 이는 조선족 전통유희의 보급정도와 광범성이 소학생들의 문화 인식판단에 영향을 주고 또한 이는 현실생활과 교육과정에서 전통문화전승의 절박성과 필요성을 어느정도 반영해주고 있다.

세번째로, 소학생들의 유희 선택이 현대화 발전과 기본상 발맞는다. 다수의 소학생들은 현대유희는 자극적이고 재미나며 여러가지 리상과 만족감을 느끼고 현대지식을 얻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사결과를 80%의 소학생들이 텔레비나 인터넷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지식을 장악할수 있다고 보며 19.3%의 학

생들이 전통유회를 즐긴다고 하였고 68%의 소학생들이 자기민족의 전통유회를 배울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고 30%의 소학생들이 조선족 전통유회에 대해 배우든가 말든가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이로 알수 있는바 현대화 과학기술과 다원문화가 소학생들의 문화선택과 흥취취향에 영향주고 있으며 집거구 소학생들이 본 민족의 전통유회에 대한 인식과 문화 추향의 새 발전과 변화를 나타내며 비록 적극적으로 접수하는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지만 그리 낙관적으로는 볼수 없다.

### 1.2.2. 중학생 유회 특징

첫째로, 중학생들이 조선족 전통유회에 대한 인식정도는 소학생보다 조금 높다. 예하면 ‘조선족의 그네, 널뛰기, 씨름, 화토, 장기, 윷놀이, 줄당기기등 7개항목중에서 어느 항목을 높은적이 있는가’의 조사에 따르면 68%학생들이 이런 유회를 높은적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놀아보지 못했거나 이런 항목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두개 항목의 비율이 30%을 차지하고 있는데 총적으로 볼때 소학생보다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 폭도가 크지 않다. ‘윷놀이 이가 전통 유회인지?’ 항목의 조사 결과를 보면 소학교때의 50%로부터 97%로 높아졌고 이는 지식과 경험이 점차 풍부해짐에 따라 중학생들은 민족문화자료를 선택하고 가공하며 소학생들보다 더 성숙된 인식특점과 문화 선택심리 특점을 띠고있다고 볼수 있다. 조사에 의하면 다수의 중학생들은 제한된 조건 하에서라도 본 민족의 전통유회를 조속히 많이 료해하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그 수요가 그리 강하지 않고 배우기가 싫거나 배우든말든지 상관없다는 비례가 50%을 차지하고 있다.

두번째로, 중학생들의 유회선택이 현대화 발전과 기본상 발맞는다. 조사결과 중학생들이 현대 유회를 즐기는 비례는 82.2%에 달했다. 그러나 중학생들이 현대유회를 즐기는 원인은 단 자극적이고 호기심에만 그치는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것은 현대유회의 자주성, 탐구성, 호동성, 격려성등 특점과 사람

들로 하여금 정신적인 만족을 주고 학습동기를 격발시키며 진취심을 갖게 하는데 있고 이는 중학생들의 문화선택은 갈수록 자아체험과 자아인식을 돌출시킨다는 점을 알수 있다.

세번째로, 중학생들의 유희유형은 풍부하지 않고 단조로운 특점을 띠고 있다. 중학생들은 유희 내용이나 종류나 노는 방법등의 면에서 소학생들보다 그리 풍부하지 않고 유희는 체육시간활동에서 각종 구기종목, 줄뛰기, 제기차기(踢毬子)등 운동유형의 유희에만 제한되어 있고 중학교 입학시험과 대학교 입학시험등 압력으로 인해 년급이 올라감에 따라 유희종류가 점차 적어지며 유희와 년급, 연령기간에 반비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8개 중학교의 조사에 의하면 배구, 축구, 룽구등 각종 운동류의 구기종목, 연띠우기, 제기차기(踢毬子), 슝박꼭질하기등 유희는 중소학생들이 아주 즐기는 유희 활동이며 이런 체육과목을 설치한데 그 이유가 있다고 본다. 어떤 학교에서는 자기특점에 따라 과외활동이나 选修과목의 형식으로 민족전통문화과목을 전개하고 있으나 그 비례는 아주 작다. 예하면 연길시제5중학교의 널뛰기, 健美체조, 태권도등 과목이다.

총적으로 년령이 커짐에 따라 중소학교학생들이 본민족의 전통유희에 대한 료해와 장악정도가 점차 상승하는 추세이며 학교 체육과목을 통해 본민족의 전통유희를 배우고싶다는 비례가 소학교단계는 59.7%로 차지하고 중학교단계는 67.8%를 차지했다.

### 1.3. 대학생 유희조사

대학생유희조사는 현실조사, 면담과 설문지조사를 결합하였는데 연변대학교선족 학생들의 설문지조사는 132분이고 132분 회수하여 회수률이 100%이며 그 특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로, 대학생들은 조선족 전통유희에 대한 인식이 중소학생보다 높다. 조

사결과 93.9%의 학생들이 그네, 널뛰기, 씨름, 화토, 장기, 윷놀이, 줄당기기 등 항목을 높은척이 있고 단6.1%의 학생들이 전혀 높아본척이 없다고 했다. 이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조선족 전통유희에 대한 인척이 점차 높아지며 유희와 연령, 년급기간에 정비례를 이룬다. 제일 즐기는 전통유희 조사결과를 보면 대학생들이 제일 즐기는 세가지 유희로는 장기, 화토, 연뽕우기인데 그중 장기의 비율이 100%를 차지하였다. 또한 씨름, 그네등 전통유희와 축구, 전자유희등의 즐기는 정도가 기본같고 물동이이기 유희에 대한 즐기거나 즐기지 않는 정도가 각기 절반이며 마장(麻將)에 대해 기본상 排斥하는 태도이다. 또한 중소학교단계에 개별적유희에 대한 틀린인척이 여전히 이런유희에 대한 대학시절의 인척에 대해 영향을 주고 있고 60%의 학생들이 줄당기기는 조선족 전통유희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

두번째로, 본 민족의 전통문화에 주의를 돌리고 민족 문화 계승의 의척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조사결과 대학생들은 전통문화전승의척의 주요한 원인은 전승장소와 학습기회에 있다고 보며 차 원인은 자신이 배우고저 하는 적극성과 주동성에 그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그 비례가 60%를 차지한다. 많은 대학생들은 조선족 전통유희를 응당히 배워야 한다는 인식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조선족 전통유희에 대한 정확한 판단률이 60%을 차지했고 그중 씨름, 물동이이기 항목에 대한 판단은 100%인데 이는 대학생들은 이미 씨름, 물동이이기 항목을 조선족의 독특한 전통유희로 인식한다는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세번째로, 대학생들의 유희선택이 현대화 발전과 기본상 발맞는다. 대학생들은 이미 성년기에 들어서서 중소학생들보다 현대사회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기계적이고 맹목성을 떠나 사물인척이나 시비판단 방면에서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자기의 경험과 인척에 따라 더욱 객관적인 각도에서 정확한 판단을 갖기에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민족의 다원 문화를 합리하게 접수하여 문화 전승의 주관성과 능동성을 제고시킨다. 조사결과 대학생들은 여전히 전통유희보다 전자유희나 컴퓨터유희등 현대유희를 더욱 즐기며 중소학생들보

다 현대과학기술을 통해 자기의 생존능력을 높이는데 점차 주의를 돌리며 맹목성과 过热특점이 적어지고 있다. 이는 대학생들이 문화 선택에서 더욱 객관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각종 생존기능 장악에 힘을 기울이며 문화전승을 자신의 사회화 과정을 촉진하는 하나의 동력으로 보고있다는 점을 알수 있다.

#### 1.4. 기타 사회계층 조사

연변자치주기초교육처, 연변대학교, 연변자치주체육학교등 교육부문의 령도및 부분 전문가와 학자들은 조선족 전통유희전승은 우선 국가유관부문의 교육목적과 요구에 알맞게 실시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중소학교와 대학교에서 어떤형식의 유희 과목을 설치하든지간에 모두 상급의 유관부문의 유력한 지지, 허락과 협조를 희망하며 거시정책에서 출발하는 인식태도와 관리리념을 보여주고있다. 특히는 다년간 민족문화전승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전문가나 학자들은 국내외 문화 발전추세에 맞추어 사회여러면의 적극적인 협조하에서 중소학교에서 점차적으로 학생들의 심신발전에 알맞는 조선족 전통유희 항목을 전개하기를 희망하며 이는 조선족 문화보존만이 아니라 중국의 다원문화 나아가서 세계문화의 다양성등의 방면에도 그 현실적 의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어떤학자들은 이미 진귀한 교학자료를 편집하여 현재조건에서 민족문화전승에 힘을 기울이고 있고 전통유희 전승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표달하고 있다.

유치원과 중소학생의 가장들은 전통유희 전승에 대해 두가지 부동한 태도를 갖고 있다. 하나는 유치원과 중소학교에서 조선족 전통유희를 전개할 필요가 있고 본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절대 버리지 말아야한다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대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오늘 조선족 전통유희 본체의 우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어린이들의 큰 흥취를 끌지 못하기에 현대성과 시대성 특점을

띠고 지력발전에 유리한 전자유희나 컴퓨터유희등을 배우는것이 더욱 어린이들의 생존능력을 넓히고 시대에 발맞는다는 것이다. 중소학교 교장과 일부 교원 대표들은 목전 중소학교에서 비록 갖가지 민족유희활동을 많이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데는 주로 승학압력에 있으며 만일 이런 사회적 압력인소가 감소되거나 환제(延緩)하는 기초우에서 상응한 정책이 완성된다면 더욱 많은 민족전통유희활동을 전개할수가 있다고 인정했다. 조사결과 승학압력등 사회적인소에 의해 소학교의 적극성이 중학교보다 조금 더 높은 편이다.

사회인원과 로년활동기구의 조사결과 조선족성원의 연령구조와 전통유희에 대한 인식태도, 인동감과 접수등 외부행위시간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수 있다.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조선족성원이 전통유희에 대한 인식과 접수 정도는 갈수록 높아지며 유치원, 중소학교나 사회상응한 기구에서 이런 전통유희를 전개하기를 희망하며 반면에 나이가 젊어짐에 따라 조선족 전통유희를 거절하거나 심지어 상관없다는 인식과 감정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한개 민족의 문화생존과 문화 선택은 그 민족이 처해 있는 생존환경의 제약과 영향을 받고있으며 문화의 동화와 순응, 전파와 선택을 통해 사회 발전과 민족의 진보를 추동시킨다는것을 알수 있다.

중국의 조선족은 장기적으로 여러 민족과의 문화 교류과정에서 문화의 인동과 순응을 통해 여러민족의 문화 정화를 부단히 접수하고 인동(认同)하며 융합하여 본민족의 생존과 발전에 왕성한 문화생명력을 입력하여 여러민족의 다원문화의 화기롭고 공생하는 문화생존관념을 형성하기에 노력하고 있다. 중국 다원문화 생존환경의 시각에서 조선족 전통유희의 발전현황과 추세를 더욱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수 있다.

## 2. 사고와 분석

길림성연변자치주 연길시, 룡정시, 훈춘시는 현재 60% 좌우의 인구가 조선

죽인데 이런 객관적 생존환경은 중국 조선족 전통유희 발전에 일정한 문화 생존환경과 기초를 닦아주고 있다. 매년 8·15나 6·1절등 명절활동때나 여러류형의 운동회를 진행할때마다 씨름, 그네, 널뛰기, 줄당기기, 물동이이기, 담배불이기(点烟跑), 술병들기(挂酒瓶), 새기꼬기(搓绳子), 연띄우기, 조선춤 등 항목들을 진행하며 로년활동중심 등 조선족 사구(社区)와 가정오락활동에 서도 늘 조선족 장기, 화톳, 윷놀이 등 유희들을 볼수 있다. 이는 조선족성원들로 하여금 어릴적부터 이런 전통유희를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감화되고(潜移默化)료해하고 알수가 있지만 현대다원 문화의 큰 충격과 도전앞에서 조선족 전통유희전승상황은 역시 새로운 생존선택과 존속근경에 직면해있으며 특유한 발전추세를 갖고 있다.

## 2.1. 부분적유희는 이미 소실되었거나 새로운 생존도경에 처해있다

목전 중국조선족의 많은 전통유희는 초기의 사회공능을 잃고 새로운 문화 내함과 상징의의를 부각하고 있다. 원래 널리 보급되었던 유희 항목들도 사회 구조와 사람들의 생존관념의 변화에 따라 점차 생존공간을 상실하고 소실되는 변원(边缘)에 처해있거나 중단되거나 심지어 완전히 소실되었다. 반면에 일부의 유희는 사회발전 과정에서 생존수요와 필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새로이 되살아나거나 강성해지기 시작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많은 전통유희 예하면 소싸움, 닭싸움, 돌싸움, 적자유희(尺子游戏), 팔도기(八道棋)등은 이미 완전히 없어지고 이전 어린이들이 아주 즐기던 유리공놀이, 고무줄놀이, 종이접고피기(叠纸游戏), 전자기(田字棋), 정자기(井字棋)등 유희들도 종적을 찾을수가 없고 현재 남아있는 일부 유희들도 이미 소실상태에 처해있으며 물동이이기 같은 유희 항목은 이전처럼 보급되지 않고 단 운동회같은 활동에서만 가끔 볼수 있으며 얼음파리(冰爬犁)등 유희는 어쩌다 볼수는 있지만 수시로 소실될 위기에 처해 있고 농악유희(농악

무또는 농악소리)등은 그 종적을 찾기 어렵다. 원래 널리 보급되고 전개되고 있던 그네, 널뛰기, 줄당기기, 씨름등 전통유희도 지금에와서는 대형운동회나 명절놀이 활동때나 볼수가 있고 화토, 제기차기(踢毬子), 줄뛰기, 연띄우기등 유희 항목은 보편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종적을 감추었던 철사원 돌리기(滾鐵圈), 팽이돌리기등 아동유희는 점차 되살아나는 추세를 보여주고있다.

## 2.2. 유희의 제작, 규칙과 노는 방법의 변천

중국조선족 전통유희는 제작재료의 선택과 유희 규칙, 오락시간과 계절 인 원구성과 노는방법 등 여러면에서 새 변화를 가져왔다. 널뛰기를 놓고 볼때 이전에는 널판자의 평형을 유지하기위해 나무로 반혀놓거나 부녀 한 명이 널판자 중간에 앉아 그 평형을 잡았었는데 현재는 철적새로 널판자를 전목(墊木)에다 고정시켜 놓는다. 이전에는 보통 강가옆 큰나무 가지에다가 그네터를 달았었는데 지금에와서는 경기범위가 커지고 장소제한등의 원인으로 대부분 큰 광장이나 학교의 운동장에다 그네터를 달고 보통 목재를 쓰지 않고 땅에 묻는 설치하거나 거두기에 편리한 철관을 사용한다. 화토는 종이질 대신에 비닐질의 화토를 쓰며 꽃무늬나 색상이 종이질보다 더욱 깨끗하고 산뜻하다. 연을 만드는 재료는 단지 종이에만 그치지 않고 여러가지 絲織品과 첨단기술 재료를 과감히 사용하여 공중에서의 날림과 색채의 감관적효과를 뚜렷이 하고 있다.

많은 전통유희의 노는 방법도 변화를 가져왔다. 노는 시간과 계절을 볼때 이전처럼 어느 계절과 시간에 어떠한 유희를 놀아야 한다는 엄격한 규정이 없고 조건이 부합되는 기초우에서 어느때 어디서나 아무런 유희를 놀수 있게 되었다. 유치원이나 사회활동에서 가끔 원래 그네시설보다 기술성과 위험성을 낮추고 오락성과 안전성을 돌출시킨 개량한 그네 설비를 찾아볼수가 있었다. 단오절이나 추석날같은 명절날에 흔히 놀던 화토, 윷놀이나 줄당기기등

전통유희는 지금에와서는 일반 경축활동이나 야회활동에서도 늘 진행하며 더욱 한가함과 오락성을 띠게 되었고 어떤 전통유희의 오락단체의 연령구조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예하면 화토는 조선족 남녀로소 모두가 즐기는 유희인데 출국이나 인구가동등 사회적영향으로 점차 로년단체가 주요한 전과대상으로 되는 추세를 나타내고있으며 오락방법도 연령구조에 따라 같지 않고 젊은이들에 비해 로인들이 노는 방법이 더 간단하며 연피우기는 어린이들의 유희만이 아니라 청장년과 로년들도 심정을 풀고 즐기는 오락활동으로 되고 있고 장기, 줄당기기, 그네, 널뛰기등 유희 항목은 갈수록 청소년과 성인들이 즐기는 발전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2.3. 유희 종류가 점점 풍부해지고 다원화 발전추세를 형성한다

첫번째로, 유희 종류와 내용이 다원화되고 있다. 다민족이 공동히생존하는 문화환경은 중국조선족과 여러민족기간에 문화의 동화와 순응, 점수와 융합과정에서 자기민족의 유희구조를 점차 풍부히하고 있다. 트럼프, 마장, 门球, 보배찾기, 성어맞추기, 술병달기, 등산등 활동과 각종 어린이들이 즐기는유희 예하면 积木유희놀이, 각가지 유희각(游戏角), 양걸춤은 이미 조선족성원들이 즐기는 유희놀이로 되었고 동시에 조선족의 많은 유희들도 기타민족들이 즐기는 유희 항목으로 되었으며 어떤 항목은 중국소수민족 운동회경기항목으로 심지어 국제경기항목으로 되었는데 그중 그네가 전형적인 실례로 들수 있다

두번째로, 조선족은 한국이나 국외로부터 새 유희를 도입하여 자기민족의 유희 구조를 갱신하고 풍부히 하고 있다. 그중 사물놀이를 놓고보면 원래는 조선족이 근로한 개성을 상징으로 하여 생긴 하나의 새로운 예술형식인데 중국에 들어온 초기 한국에서 이놀이에 대한 전문가와 학자들을 연변지구에 파견하여 무료로 전파하였고 설비도 무료제공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길림성연변지구에서 사물놀이가 아주 널리 보급되고 있고 단 연결시만을 놓고 볼때

유치원 소반부터 먼저 실물로 악기를 대체하여 사물놀이를 배우며 대반과 학  
전반부터는 악기로 사물놀이를 하고 중소학교에 와서는 사물놀이가 이미 학  
교 예술절이나 경축활동에서 반드시 공연하는 절목으로 되어 있고 연변대학  
교 예술학원에는 사물놀이 전문악기대가 있어 학교 각종활동에서 사물놀이가  
우선 공연하는 절목으로 되고 있다. 이런유희 항목의 도입은 중국조선족의 사  
회생활을 풍부히하고 조선족유희 발전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세번째로, 원래 유희의 기초우에서 새로운 유희를 개발하였다. 예하면 연길  
시 새싹유치원의 锣鼓유희는 사물놀이와 조선족춤을 서로 융합하여 형성된  
새로운 예술형식이며 물동이춤은 조선족 물동이이기 유희의 예술화한 표현형  
식인데 조사한 5개유치원에서는 모두 물동이춤 과목을 설치하였고 매년 6.1  
절이나 유치원 민속문화활동절 때마다 물동이춤을 표현하며 민간에서는 늘  
대형 경축활동이나 민속활동때 가끔 물동이춤을 표현한다.

### 3. 조선족 전통유희의 교육효능성 분석

중국 조선족의 전통유희가 민족사회화와 민족성원의 심신발전과정에서 그  
어떤 교육가치와 기능을 갖고있는가? 본문은 사람들의 지력개발, 비지력양성,  
체능발전과 민족성격부각등 4개방면으로 부터 조선족의 전통유희의 독특한  
교육기능을 살펴보고저 한다.

#### 3.1. 지력을 발진시킨다

##### 3.1.1. 인간의 감각능력을 제고시킨다

한개 민족은 자기의 심리구조와 경험에 따라 객관 현실을 이해하며 이러한  
인식적차이는 바로 그 민족의 생존환경과 사회실천과정에서 접촉한 문화 영  
향에 따라 형성되었다. 인간의 감지력은 인식과정의 기초조건이다. 태여날때

부터 감지력이 높은 사람은 없으며 사물에 대한 양호한 감지능력은 현실속에서 부단히 강화하고 실천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초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목민은 풀을 씹어보면 인차 그 영양성분을 알수가 있는데 이런 특수한 감지력은 장기적인 초원의 방목생활과 갈라놓을수 없다. 인간의 유희활동을 볼때 단 한개의 감각이나 지능에 의해 완성할수있는 유희는 찾아볼수 없다. 예하면 아무리 숙련되고 이름난 씨름선수라 할지라도 반드시 각종 감각능력과 사지운동의 균형을 잘 조절해야 할뿐만아니라 상대방을 이겨낼수 있는 영민한 관찰력과 각종 곤란을 극복할수 있는 굳은 의지력을 갖고있어야 한다. 줄당기기 유희를 볼때 시각, 청각등 감각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할뿐만아니라 상하지의 협조와 신체의 평형, 힘의 조절, 특히는 팔의 힘조절등 여러면에서 잘 파악해야 하며 정서조절등 심리인소에도 주의를 돌려야 한다. 그네뛰기는 시각, 청각, 동작 등 기본적인 감각이 있어야 할뿐만아니라 또한 고도의 집중력과 사지운동의 균형과 힘의 강약을 잘 장악해야 한다. 또한 주의와 공간 위치를 잘 관찰하여 공중에 높이 뜬 그 순간 침착하고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 진공한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혼란이 생기고 실패를 한다. 동시에 경쟁대상의 정서과동등 심리상태를 료해해야 만이 지취획승(智取获胜) 할수 있다. 이로볼때 조선족 전통유희활동은 인간의 인식과정의 기초인 여러가지 감지능력(感知能力)을 발달시키며 지력개발과 지능제고를 촉진한다.

### 3.1.2. 사고력을 격발시킨다

사고력은 지력발전의 핵심이다. 인간의 감지력, 주의력, 상상력등은 사고력과 긴밀히 련계되어 있고 인간의 사유는 인간활동의 고급단계이지만 여전히 감성적자료를 기초로 하여 발생되고 인간실천활동의 이성(理性)적 표현이며 모든 인간생존활동은 사유를 떠날수 없다. 사유의 과단성, 기질성, 령활성, 림기응변등 양호한 품질은 바로 사회실천활동에서 점차 형성되고 발전한다. 조선족의 장기, 화토, 윷놀이 등 활동은 지력유희들로서 인간지능활동의 발전과

표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화도, 장기, 윗놀이등 유희활동 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찰력, 주의력, 사고능력을 결합하여 전체의 유희 진행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을 갖고 있어야 하며 장기놀이에서의 침착하고 명활한 사고방식과 과감한 지휘풍격, 화도놀이 과정에서 수와수지간의 운산과정이나 승부를 예민하게 파악하는 우수한 사고 능력과 방식, 그리고 유희과정에서의 인간관계, 경쟁성과 질서성등 여러면에서 민첩하고 예민한 사고능력과 량호한 사고품질을 키울수 있다. 또한 유희완구의 색채와 모형, 놀이의 다양성, 활동과정에서의 상하지, 여러감각기관지간의 협조력도 반드시 인간의 정확하고 량호한 사유결과와 반응과정이다. 모든 유희과정에서 여러인소는 반드시 그 핵심인 인간의 사유를 거쳐야만이 그 과정을 순리롭게 완성할수 있고 더욱 큰 매력과 왕성한 생명력을 유지할수 있다.

### 3.2. 비지력인소를 양성시킨다

비지력인소는 사회화 과정에서 지력인소와 함께 인간의 심신 발전을 촉진시킨다. 적극적인 감정색채, 정확한 성공 동기, 꾸준한 의지력, 다양하고 온정된 흥취등 비지력 인소는 인간사회와 개체 발전에서 매우 큰 잠재력을 갖고있다. 중국 조선족 전통유희전승과정은 바로 비지력인소와 지력인소가 유기적으로 발전되는 과정이다. 인간의 각종 개성인소는 표면으로 볼 때 유희활동과 아무런 관계를 갖고있지 않는것 같지만 기실 인간의 개성과 유희활동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예하면 실력이 비슷한 선수지간의 겨룸은 누가 더 침착하고 명활성이 있으며 심리적인소로서 상대방을 전승할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특히 적극적인 심리상태, 정서 조절능력, 굳건한 의지력등은 승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소로 된다. 대다수의 조선족 전통유희는 제조 재료를 쉽게 얻을수가 있고 그 제조과정을 통해 침착하고 쉼련되는 개성을 키울수 있으며 희로애락을 체험할수가 있으며 의지, 인식, 감정등 인간심리

과정과 개성을 양성할수 있다. 예하면 그네, 널뛰기 등 기능성적인 유희활동은 조선족여성들의 향상하는 기질을 키울수 있고 농악유희를 통해 사람들의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환락한 기분과 공명을 쉽게 불러일으켜 적극적인 감정 체험과 품질을 갖추게 하며 씨름, 제기차기(踢毬子), 연뛰우기, 딱찌치기등 유희활동을 통해 사람들의 의지력, 인내력, 성공과 실패의 정서와 감정체험, 흥취등을 키운다. 이로부터 의지, 동기, 흥취, 감정등 여러 비지력인소는 조선족 전통유희활동에서 점차 양성할수 있고 조선족의 생존과 생활질량을 추진하고 문화 내함을 더욱 풍부히 한다.

### 3.3. 체능을 발달시킨다

중국 조선족 전통유희는 예로볼때 부동한 종류의 유희는 각기 자신의 독특한 우세와 방식으로 사람들의 신체소질과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여러가지기능을 형성하는데 큰작용을 한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족의 전통유희는 사람들의 신체 발육을 촉진하고 운동기능을 형성하며 혈액순환과 심장, 폐, 소화기관등 기관의 기능을 촉진한다.<sup>2</sup> 단 조선족여성을 상징하는 그네뛰기를 놓고 보면 처음 장악할때 반드시 각 단계 요점을 익숙히 장악해야 한다. 예하면 줄잡기, 흔들기, 공중으로 날기등 각 단계의 몸의 부동한 위치와 힘조절 특히 팔과 다리 힘의 이용에서의 기교와 기술이 있어야 맹목성을 피면한다. 또한 체력상 너무 일찌기 힘이 빠지는 현상을 피면해야 한다. 동시에 허리, 어깨, 복부등 력량의 조화에도 주의해야 한다. 이과정은 순리롭게 실현하자면 이전에 보고 들은 여러가지 경험을 결합하여 주의력, 상상력, 과단성, 기지(机智), 령활성, 림기응변등 량호한 사위방식과 품질이 있어야 만이 순리롭게 완성할수 있다. 널뛰기는 신체의 공중올리뛰기운동을 통해 대소

---

2 [한국이진희, 2001, 아동민족유희의 체육적가치에 대한 분석,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Vol.20.96.

근육을 발달시키고 신체의 조절력과 민첩성을 키운다. 그리고 제한된 공간과 상하지의 반복적인 슛구침과 내려오기등 신체의 놀림에서 동작, 시각등 각종 감각기관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다리, 팔, 발목, 손목등 부위의 근육의 균형성, 전신동작의 협조성, 민첩성과 연속성을 촉진시키며 조절능력을 제고하고 상대방의 경쟁특점을 제때에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필자의 현재조사에서 많은 체육교원들은 그네, 널뛰기등 활동은 공고증(恐高症) 예방에도 아주 좋은 유희 활동이며 그네나 널뛰기 선수들은 공고증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다.<sup>3</sup> 또한 조선족 씨름은 전신 신체기능의 통합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유익하며 기초 운동능력을 배양하는데 유리로운 항목이다. 조선족 유희활동은 신체기능을 촉진하고 근육을 발달시키며 기능을 형성하는등의 면에서 현명한 외선적 특점을 갖고있어 사람들의 심신방면에서 조화로운 발전과 영향을 주며 인간의 심신발전과 감지능력,신체기능등 훈련방면에서 중요한 교육적가치를 갖고 있다.

### 3.4. 민족성격을 부각한다

문화는 부동한 성격을 부각한다. 민족성격이란 한개 민족단체의 개성이며 한 민족의 공동한 문화적 배경과 특정된 사회력사조건하에서 형성된 현실에 대해 온정하고 공동적인 태도와 습관화된 행동 방식이다. 예하면 파리인의 랑만적성격, 영국인의 신사풍도, 일본인의 세심한 성격, 몽골인의 호방성, 미국인의 솔직성과 실제성등은 문화가 민족개성을 부각하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준다.

문화는 단체와 개체 발전의 협조성을 특징으로 민족정수를 조각하고 민족의 사회화와 풍습의 태이를 문화속에 깊이 뿌리박으며 그 독특한 문화내함과

---

3 20여년간의 그네, 널뛰기 교חק경험을 갖고있는 연변자치주체육학교 박철호교수는 필자와의 현재면담에서 특히 이점을 강조했다.

특징으로 민족의 생존과 발전과정에서 민족성격을 완성화 한다. 또한 문화 교류와 전승과정에서 한개 민족의 독특한 민족개성 특점을 형성한다. 조선족그네는 공중운동으로서 일정한 위험성과 난도가 있다. 그네 선수는 건강한 의지력, 일정한 내력과 영원히 불굴복(不屈服)의 완강한 정신이 있어야 한다. 그네 뛰기는 일정한 기교와 여러가지 그네 뛰기 요령을 장악해야 할뿐만 아니라 보통이 넘는 인내력과 건강한 의지, 심리접수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조선족 여성들이 즐기는 건신오락방식의 하나로 되고 있다. 이는 바로 그네 문화는 이미 조선족 여성들의 심리과정에 깊이 박혀있다는 공동심리 추향을 나타내고 있고 바로 이를 통해 낙관적이고 날로 향상하며 진취적이고 인생곤난과 적극항쟁(抗爭)하는 조선족 여성들의 개성심리와 불요불굴의 민족성격을 뚜렷이 나타낸다. 또한 씨름은 조선족 남성들의 용감하고 강의한 개성특점을 나타내듯이 장기의 침착성, 웃놀이와 즐당기기의 단체정신도 조선족 전통유희 활동에서 엿볼수가 있고 인간의 유희기(游戏期) 특점을 이용하여 교육과정에서 심신발전규률과 특점에 맞는 전통유희 활동을 전개하고 꾸준하고 끈질기며 응집력이 매우 강한 우수한 민족개성을 점차 부각하여야 한다.

이상 논술한 중국 조선족 전통유희의 4가지 교육효능성 지간에는 호상 갈라놓을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을뿐만아니라 또한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각 분야에서 그 작용을 발휘하고 있고 계통적인 유희 구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연구가 심입됨에따라 교육효능성은 심도있게 밝혀 질것이며 인류의 문화전승과 사회발전을 위해 더욱 큰 공헌을 할 것이다.

#### 4. 맺는말

중국 조선족 전통유희 전승은 自始自終 여러민족 문화지간의 충격과 영향을 떠날수가 없으며 돌출한 력사성과 현실성 특점을 띠고있다. 중국의 <헌법>과 <민족구역자치법>등 여러가지 민족정책은 길림성 연변자치주 조선족

들이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사회적 범람을 보증해주었고 특히 개혁개방이래 여러가지 정책은 더욱 중국 조선족의 전통문화 전승에 새로운 발전기회와 동력을 마련해주었다. 세계 일체화와 全球化가 가극됨에 따라 중국 조선족의 전통유희 발전은 많은 현실문제와 곤난이 있지만 여러민족이 공동히 화애롭게 살아가는 문화 생존관념을 수립하고 문화 상대론의 발전관과 인식태도를 견지하며 기타민족의 문화 정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본 민족의 문화구조를 끊임없이 조절하고 창신하여 사회발전에 적응하는 것이 바로 중국 조선족 전통유희 전승의 필경도로(必经之路)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한국어, 조선어문헌〉

이진희(2001) 「아동민족유희의 체육적가치에 대한 분석」,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20, 96쪽.

윤학주·민영숙(1984) 『조선족민속운동』, 료녕인민출판사.

연변조선족민속학회(1992) 『조선족민속연구』(조문, 제1권), 연변대학출판사.

———(1996) 『조선족민속연구』(조문, 제2권), 연변대학출판사.

〈중국어문헌〉

金华编(2004) 『中国特色朝鲜族文化研究』, 延边人民出版社.

金东勋·金昌浩(1990) 『朝鲜族文化』, 吉林教育出版社.

朴永光(1997) 『朝鲜族舞蹈史』, 人民音乐出版社.

翟葆奎(1991) 『教育学文集·教育』, 人民教育出版社.

翟葆奎(1993) 『教育学文集·教育与教育学』, 人民教育出版社.

[德]博尔诺夫著, 李其龙译(1999) 『教育人类学』, 华东师范大学出版社.

任钟印选编, 任宝祥, 熊礼贵等六人译(2005) 『夸美纽斯教育论著选』, 人民教育出版社.



## Dokseong, Naban jonja or Pindola?

### The mysterious Buddhist hermit in Korea's monasteries

Beatrix Mecsi

ELTE University, Budapest

The *Dokseong* or “Lonely Saint” is a popular and frequently-worshipped deity in South Korea, whose representations can almost always be found in Korean Buddhist temples. However, this identity and characteristics of this figure remain obscure and little-understood by both Buddhist believers and scholars of Korean culture. His iconic representations are usually placed together with the popular Korean Shamanist/Daoist deities the Sanshin [Mountain-spirit] and the Chilseong [Seven Stars] and possibly other non-Buddhist representations in a special shrine for non-Buddhist deities within temple complexes, usually above and behind or next to the Main Halls. He may sometimes, however, be found in his own shrine.

*Dokseong* is regarded as a somewhat shamanistic deity and supplicated for real-world benefits in the Korean Shamanic fashion, but is generally accepted as more of a Buddhist figure than the others enshrined with him, creating a surprising mystery and controversy about his historical origins and religious identity. In an original attempt to resolve this quandary, we

have investigated the iconography of this lonely saint, and found that some aspects suggest that his origin goes back to one of the foremost Buddhist saints (arhats in Sanskrit), *Pindola Bharadvaja*, a mythical figure widely held by Northeast Asian Buddhists to be one of the sixteen original and primary disciples of Śākyamuni Buddha.

Aspects of this figure's mythology help explain his Shamanistic status and function in Korean temples.

We have analyzed these images together with the written sources in order to shed light on the origins of the representation of the Korean "Lonely Saint" and to place them into a wider context, and to rediscover his functional identity.<sup>1</sup>

---

1 The authors met in 2005 at a public talk by Dr. Beatrix Mecsi at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where they have discovered their common interest in Dokseong images and the mystery surrounding this popular deity's identity. Prof. Mason has been collecting photographs of the representations of Sanshin, Dokseong and other folk-deities in Korea for more than 20 years. Some of his photographs were scanned and organized and put together with the collection of Dr. Mecsi's photographs. The authors' photo-collection has grown to more than 350 direct representations of Dokseong, mostly formal paintings found at Korean Buddhist temples from 1986 to 2008. The photographs in this collection were taken in temples from many Buddhist temples and hermitages, some which could be called 'large and important', and others that are small, remote and obscure, and a few museums and private collections. This collection is therefore considered a sufficiently large, varied and balanced sampling of the full range of Dokseong representations extant in Korea, from which useful data and valid conclusions may be drawn. The authors have created a data-base of these elements sorted into a table and represented on an internet website (URL address: <http://picasaweb.google.com/bmecsi/Dokseong?authkey=9IIfT0kmfdg>)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varied iconographies, religious and folk-culture ideas and features they represent, and their frequency or rarity.

Concerning the textual sources, dr. Mecsi has made another database based on the studies by religious historians (especially on Strong: 1971, and de Visser: 1923 and Lee Ji-kwan 李智冠: 1999) and has compiled a detailed bibliography about the Sanskrit and Pali texts together with the Chinese, Japanese and Korean sources.

Dokseong is always depicted as an elderly man with a distinctly bald head (sometimes protruding a bit at the top) and no hat, with kind but sad eyes, with white hair on the sides of his head and long white eyebrows, usually with no beard or moustache (shaven face), but occasionally with an “unshaven” stubble of facial hair (never a long beard). He is always depicted seated (cross-legged or with one knee up), wearing Buddhist robes<sup>2</sup> and barefoot, and holding a yeom-ju [Buddhist rosary] and/or a wooden staff. In some cases he may be making a mudra [iconic gesture in Hindu / Buddhist art] with one hand.

He is almost always depicted as sitting on a rocky cliff-top beneath a pine-tree, and there is usually a rich background of mountains and forest, with clouds and a waterfall. Servants may be shown attending him (including brewing tea for him), and there may also be an incense-burner, books, mushrooms, flowers, deer, cranes and turtles nearby him. On many paintings we can find birds singing and flowers blooming around his figure, and possibly other natural symbols.

A statue of Dokseong is usually placed on the altar in front of his taenghwa, as with Sanshin, and it often shares iconographic motifs with the painted portrait, although a statue of a Buddha, Bodhisattva or Arhat is sometimes used instead.

When we ask that how and for what degree the textual sources

---

<sup>2</sup> Often in the “southern” style, with one shoulder bare. He is never painted wearing the gray and brown robes of a 20th-century Korean monk. This acknowledges his Indian origins (Mason 1999).

influenced his image, our way leads to another mysterious figure called “*Naban jonja*”, about whom we have discovered that he was intended to represent Pindola Bharadvaja (in Sanskrit), the arhat who was sentenced to stay in Earth, not entering Nirvana until the coming of the Future Buddha Maitreya.<sup>3</sup>

We can speculate that the reason for putting this Buddhist saint in the company of Daoist and shamanist deities can be connected to this certain arhat, whose legends indicate his connection with magic and immortality, concepts which play very important roles in East Asian folk religions. Therefore, placing this Buddhist figure into a landscape full of symbols of immortality can assist to explain the original identity of Dokseong as Pindola Bharadvaja. Reviewing the original texts about Pindola together with looking through the collected images can show a delicate relationship

---

3 The earliest dated evidence of the cult of Dokseong is from 1719, the ritual data collection of the Haein-monastery (Jebanmun 제반문(諸般文) where Dokseong is identified with an other mysterious figure, Naban jonja which name (Naban 那畔 means ‘that way’ and has opposite meaning with Jeoban 저반 這畔 means ‘this way’”) may refer to the arhat Pindola who was expelled from Nirvana to stay in the world between the time before Maitreya appears and after Śākyamuni had passed away.

The particular features of this deity mentioned in this text are the pine tree, a cottage, blooming flowers, singing birds and he is introduced in these texts as wearing white clothes with shoulders half-exposed, and he has snow white eyebrows covered his eyes. These features can often be seen in many Dokseong paintings, and therefore we can assume that it is a pictorial tradition which has followed the Jaebanmun texts, (Lee Ji-kwan 1999: 13 after Pak Se-min 朴世敏: Comprehensive Archive of Korean Buddhist Rituals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vol.2 pp. 646b-647bSeoul: Samseong-am, 1993 and about Pindola, see Daejongjang 2 p.169c4.)

The white eyebrows covered his eyes, is a feature which can be found in the sources about Pindola Bharadvaja, which characteristic has a deep religious-philosophical meaning(see for example Daejongjang 2 p.169c4. cf. Strong 1979: 50-88).

between religious texts and folk-art images.

The arhat Pindola Bharadvaja was worshipped as a separate figure from the very early times. Since he has associations with magic and longevity (he had to stay in Earth until the coming of the Future Buddha, Maitreya), he became surrounded by longevity symbols and placed together with Daoist and folk-deities in Korea.

This form of enshrinement is unique to Korea; in Japan he is conceived as a healing saint and his figure is usually represented in a sculpted form outside the halls of Buddhist temples from the Edo period onwards.

The common feature of these images in Korea and Japan that both are approachable and very human figures who are intermediators to the holier and more psychologically-distant Buddha-realms. This feature is supported by the background religious texts which discuss Pindola as not entering Nirvana, but living on Earth maintaining a unique direct living connection with the historical Buddha Sakyamuni, whom he used to see face-to-face.

This legend was reportedly influenced the 16th century European legend of the “Wandering Jew”, thus connecting not only the Buddhist traditions with the Daoist and folk religions in the case of Asian countries, but also reaching to the Western world and coloring those Christianity-related myths and legends.

Mihwangsa, Samseong Hall, colors on cotton, 82.5 x 96.5 cm, 1943.  
(photo: dr. Beatrix Meccsi).



Jirisan, Yeongoksa (photo: David A. Mason)



## References

- Catalogue for the Exhibition on Paintings of Lohans (1990) 羅漢書/國立故宮博物院編輯委員會編輯, 初版. 壺北市·故宮, 民79 面; 公分.
- Clark, Charles A. (1929) *Religions of Old Korea* (Published again in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61).
- Covell, Alan Carter (1986) *Folk Art and Magic: Shamanism in Korea*, Seoul: Hollym, 72-77.
- De Visser, Marinus Willem (1923) *The Arhats in China and Japan*, Oesterheld & co. Berlin: 69-78.
- Edkins, Joseph (1893) *Chinese Buddhism* (London: Kegan Paul, Trench, Trübner, and Co.), 242.
- Frédéric, Louis (1995) *Flammarion Iconographical Guides: BUDDHISM* (Original in French), English translation: N. Marshall, Paris, France: Flammarion Publishers.
- Grayson, James Huntley (1989) *Korea: A Religious History*, London: Oxford.
- Inoue, Hideo (1989) "The Reception of Buddhism in Korea and Its Impact on Indigenous Culture," Lewis Lancaster & C.S. Yu (eds.), *Introduction of Buddhism to Korea*, Berkeley: Asian Humanities Press.
- Iryeon (13th Century), *Samguk Yusa: Myths & Legends of the Three Kingdoms*, English translation by Ha, Tae-hung,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72).
- Jo Ji-hun (1962) "Han-guk-ui jong-gyo-wha keo bae-gyeong [Korean Religion and Its Background]," Sa-Sang-Kwa jong-gyo [Thought and Religion], (Seoul: Baek-U-Sa), Translation to English by Yoon Kil-sop.
- A Journey into the Buddhist Paintings of the Joseon Dynasty* (2003) Special Exhibition, National Museum of Korea, 영혼의 여정, 조선시대 불교화와의 만남, 국립중앙박물관.
- Jeon, Ho-ryeon (Ven, Haeju) (2007) *Elements of Hwa-eom Faith and Philosophy in Korean Buddhist Ritual Invocations: Emphasis on the Main Hall Liturgy*, in: International Journal Buddhist Thought&Culture, September, Vol.9, 33-59.
- Kent, Richard K. (1995) *The sixteen lohans in the pai-miao style: from Sung to Early Ch'ing*, Ph.D. Princeton University.
- Kendall and Dix (eds.) (1987) *Religion and Ritual in Korean Socie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ent, Richard K., *Latter Days of the Law: Images of Chinese Buddhism 850-1850*.
- Kim, Duk-Whang (1988) *A History of Religions in Korea*, Seoul: Daeji Moonhwa-sa.

- Lee, Bong-Choon (1993) "The Characteristics and Inclination of Korean Buddhism," section 4 of the Introduction to *The History and Culture of Buddhism in Korea*, Seoul: Dongguk University.
- Lee Ji-kwan 李智冠 (1999) A Study of Naban Shinang, 那畔信仰考, 伽山學報 KAZAN HAKBO Vol.8, April 1999, Published by the Kazan Institute of Buddhist Culture, Seoul, Korea, 12-17.
- Lee, Peter H. (ed.) (1993) *Sourcebook of Korean Civilization*, Volume 1, Donald Baker, Yongho Choe, H. Kang & Han-Kyo Kim (ed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ee, Peter H. (ed.) (1996) *Sourcebook of Korean Civilization*, Volume 2, Donald Baker, Yongho Choe, H. Kang & Han-Kyo Kim (ed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évi, Sylvain and Chavannes, Edouard (1916) "Les seize arhat protecteurs de la loi," *Journal Asiatique* 8 (1916): 205-75.
- Mason, David A. (1999) *Spirit of the Mountains: Korea's San-shin and Traditions of Mountain-Worship*, Seoul: Hollym, Elisabeth NJ.
- Minakata Kumagusu (1899) "The Wandering Jew," *Notes and Queries*, 9th. series, 4 (1899): 121-124.
- Mochizuki Shinkō, Bukkyō (Tokyo, 1954) *daijiten* s.v. "Binzuru Harada," p.4334.
- Mokuzai 木村 博 (1992) おビンズル信仰, 仏教民俗学大系8信仰と仏教, 名蔵出版, 299-311.
- Moriyama 森山 隆平 (1984) Rakan no Sekai 羅漢の世界 (The world of arhats).
- Nahan (The Arhats, the Holy Men of Truth and Enlightenment) (2003), Special Exhibition at the Chuncheon Natinal Museum, 구도와 깨달음의성자: 나한, 국립춘천박물관.
- Nihon no Bijutsu No.234 (Japanese Art), 日本美術 11, No.234 *Rakanzu* (Painting of Arhats) (1985) 羅漢図, 修文化庁, 東京国立博物館, 京都国立博物館/奈良国立博物館, 高崎富士彦, 至文堂.
- Rakan: Sono Bijutsu to Shinkō* (1995) (Arhats: Their Art and Cult) Shiga Prefectural Museum, Biwa Lake Cultural Center, 羅漢—その美術と信仰—, 平成六年十月, 編集・発行滋賀県立琵琶湖文化館.
- Rakanzu (Images of Arhats), Kyoto National Museum (1990) 羅漢図, 平成二年二月五日, 編集・発行京都国立博物館, 印刷株式会社便利堂, 出版協力社団法人清風会.
- Rakanzu* (1985) 『日本美術234: 羅漢図』, 至文堂.
- Strong, John S. (1979) "The Legend of the Lion-Roarer: A Study of the Buddhist Arhat

- Pindola Bharadvaja”, *Numen*, Vol,XXVI, Fasc.1,June 50-88.
- Walraven, Boudewijin (1998) “Interpretations and Reinterpretations of Popular Religion in the Last Decades of the Choson Dynasty,” *Korean Shamanism: Revivals, survivals, and change*, Keith Howard (ed.), Published for The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Seoul: Seoul Press, 55-72.
- Watters, Thomas (1898) “The Eighteen Lohan of Chinese Buddhist Temples,”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898, 329-347
- Wen Fong (1957) *The Lohans and a Bridge to Heaven*, Freer Gallery of Art Occasional Papers, Vol.3, No.1, Baltimore: The Lord Baltimore Press.
- Zo Zayong [Jo Ja-yong] (1982) *Guardians of Happiness: Shamanistic Tradition in Korean Folk Painting*, Seoul: Emileh Museum,



## ‘발해삼채’ 도기에 반영된 고구려적 성격

김 경 삼

조선사회과학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옛날부터 우리나라 도자기는 유명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훌륭한 도자기를 생산하였습니다.”

698년부터 926년까지 200여 년간 ‘해동성국’으로 융성하였던 우리나라의 중세봉건국가 발해의 력사와 문화를 잘 보여주는 유적유물들 가운데는 발해의 도자기들도 있다.

발해의 도자기는 발해 인민들의 자주의 력사, 창조의 력사와 함께 당대 사회의 발전된 문화적면모를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들 중의 하나로서 장식성이 간소하면서도 형태가 자연스럽고 세련되었으며 색깔이 밝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그릇살이 얇고 가벼우면서도 견고한 것이 특징이다.

발해도자기에는 채색도기, 유약 바른 도기, 자기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세 가지 색깔의 유약을 바른 발해의 도기는 ‘발해삼채’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발해의 유적들에서 발굴된 대표적인 ‘발해삼채’ 도기들을 통하여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고구려적 성격을 밝히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삼채란 세 가지 이상 되는 색깔의 유약을 입혀 다양한 색깔로 그릇겉면을 장식하고 구워낸 그릇을 말하는데 발해시기에는 보통 누런색, 밤

색, 남색과 풀색, 붉은색 그리고 감색, 보라색, 풀색 등을 배합하여 맑고 부드러운 감을 주는 삼채도기를 생산하였다.

지금까지 발굴된 '발해삼채' 도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도기들을 보면 음식기류에 속하는 종지, 저장 및 운반용 기류에 속하는 동이, 병과 세발그릇, 그릇뚜껑 등이 있다.

종지는 길림성 화룡현 북대 무덤떼에서 나왔는데 아구리가 해바라지고 배부른 몸체에 굽이 달려있어 날씬한 감을 준다. 크기는 아구리직경 11.6cm, 높이 5.4cm, 밑직경 6.1cm로서 몸체의 중간에 한 개의 볼록줄무늬가 돌려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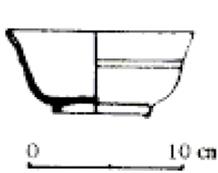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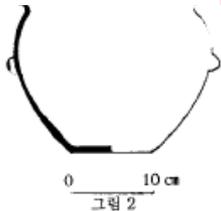


그림 2

그리고 그릇의 안팎에는 옥색, 황색, 흰색을 나타내는 3가지 유약이 발라져있다(〈그림 1〉).<sup>1</sup>

동이는 상경룡천부에서 나왔는데 아구리는 넓고 몸체는 아구리로부터 밑창으로 내려오면서 점차 좁아진 생김새를 가진 것이다. 배부른 몸체에는 한 쌍의 띠손잡이가 달려있다. 크기는 아구리직경 22.8cm, 높이 19cm, 바닥직경 10cm, 몸체직경 28.4cm, 그릇살의 두께 0.5cm이다. 겉면에는 황색과 연록색, 보라색을 띤 3가지 색깔의 유약이 발라져있다(〈그림 2〉).<sup>2</sup>

병은 길림성 화룡현 북대무덤떼에서 알려졌는데 아구리는 쟁반형이고 몸체는 동실하게 생긴 것으로서 아구리와 어깨부위에 하나씩의 선을 돌리었고 겉면에는 초록색과 갈색, 노란색, 흰색 등 네 가지 색깔의 유약이 발라져있는데 안쪽에는 아구리로부터 어깨부분까지 유약이 발라져 있다. 크기는 아구리직경 8.6cm, 높이 18cm, 바닥직경 7.8cm, 몸체직경 14.7cm, 그릇살의 두께 0.7cm 정도이다(〈그림 3〉).<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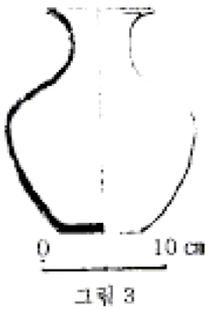
1 『발해사연구』 2권, 연변대학출판사, 1991, 5페이지.

2 『동북고고와 력사』(중문) 1982년 1호, 213-214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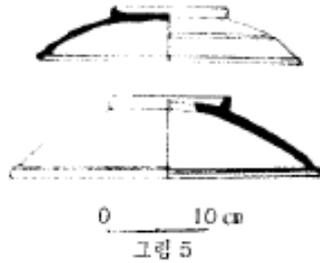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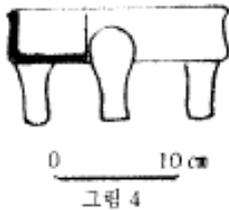
3 『중국동북지방의 유적발굴보고』, 1996, 사회과학원출판사, 214페이지.

세발그릇은 상경룡천부터에서 나왔는데 키가 낮은 몸체 밑에 짐승다리를  
 려상시키는 세 개의 다리가 달려있다.

그릇겉면에는 황색, 옥색, 보라색의 유약이 발라져있다. 크기는 아구리직경  
 18.5cm, 높이 9.5cm, 발의 높이 5cm, 그릇살의 두께  
 0.8cm이다(〈그림 4〉).<sup>4</sup>



그릇 두껍 역시 상경룡천부터에서 나왔는데 접시  
 를 꺼꾸로 놓은 것과 같은 생김새를 가진 것이다. 겉  
 면에 황색, 옥색, 보라색의 3가지 유약이 발라진 것도  
 있고 황색, 옥색, 적황색의 3가지 유약이 발라진 것도  
 있다. 크기는 직경 25-32.3cm, 높이 5.4-8.1cm, 그릇  
 살의 두께 0.7-0.8cm이다(〈그림 5〉).<sup>5</sup>



이상의 ‘발해삼채’에 속하는 도기들은 발해유적에서 나온 유약을 바르지 않  
 은 같은 종류의 도기들과 그 형태와 재질 만든 방법이 같다. 즉 ‘발해삼채’ 도  
 기들은 유약을 바르지 않은 같은 종류의 도기들과 형태와 크기에서 아무런  
 차이도 보이지 않으며 도기를 만드는데 리용한 바탕흙은 보드러운 회백색 또  
 는 회황색의 진흙이다.

‘발해삼채’ 도기들에는 다양한 색깔의 유약들이 사용되었는데 그것을 표로

4 『발해사연구』 2권, 1991, 연변대학출판사, 5페이지.

5 위의 책, 214페이지.

보면 다음과 같다.

No	유물명	유약색갈
1	손잡이 달린 단지(동이)	황색, 연록색, 보라색
2	세발그릇	황색, 옥색, 보라색
3	종지	황색, 옥색, 흰색
4	병	황색, 연록색, 갈색, 흰색
5	그릇뚜껑1	황색, 옥색, 보라색
6	그릇뚜껑2	황색, 옥색, 적황색

표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약의 색갈에는 황색, 옥색, 연록색, 보라색, 갈색, 흰색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쓰인 색갈은 황색과 옥색이다. 바로 황색과 옥색을 위주로 하여 여러 가지 색갈의 유약들이 배합되어 그릇의 겉면을 장식한 것이 유명한 ‘발해삼채’ 도기인 것이다.

‘발해삼채’ 도기에 올린 유약들은 연우계통의 유약들로서 도기의 소성온도 즉 1,000℃ 정도의 소성온도에서는 잘 녹는 것들이다.

발해에서 삼채도기가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발해도기는 바탕 우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갈을 띤 유리질의 피막이 덮여져 쓰기에도 편리하고 보기도 아름답게 더욱 견고하고 경제적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발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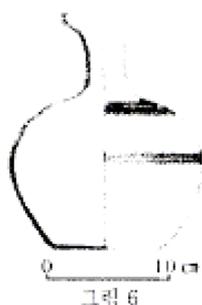
발해에서 ‘발해삼채’와 같은 실용성과 예술성이 결합된 우수한 도기들은 빈터 우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고구려의 것을 직접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발해삼채’ 도기가 고구려의 도기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결과에 나온 것이라는 것은 우선 도기의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북대무덤떼에서 나온 발해의 삼채병과 집안동대과유적에서 나온 유약을 바른 쟁반형 아구리병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집안일대의 고구려유적인 동대과유적에서 나온 병은 아구리가 쟁반모양으

로 생기고 목이 길고 몸체는 동실한 생김새를 가진 것이다. 어깨와 몸체에는 각각 4줄로 된 선무늬가 돌려져 있다. 그릇살은 굳고 치밀하여 겉면에는 약간 녹색이 도는 유약이 발라져있다. 크기는 아구리직경 6.3cm, 높이 25.5cm, 목의 길이 8cm, 밑직경 13.2cm로서 아구리와 목, 몸체의 균형이 잘 잡히어 세련되어 보인다(〈그림 6〉).



북대무덤에서 나온 병은 동대파유적에서 나온 것보다 크기가 좀 작지만 형태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다. 이 병의 아구리 부위에는 줄무늬가 한 줄 돌려져 있고 어깨부위에는 돌출선무늬가 한 줄 돌려져 있다. 그릇 겉면에는 초록색, 갈색, 흰색, 노란색유약이 발라져있고 안쪽에는 아구리로부터 어깨부위까지 유약이 발라져있다.

이 삼채병은 각이한 색깔을 나타내는 유약을 섞어서 바른 것이기 때문에 동대파유적에서 나온 쟁반아구리병보다 색깔이 더욱 아름다워 보이나 그릇의 형태와 장식수법에서는 서로 깊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두 병사이의 깊은 친연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발해삼채’ 도기가 고구려의 유약 바른 도기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결과 생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로 된다.

‘발해삼채’ 도기가 고구려의 도기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결과에 나온 것이라는 것은 다음의 유약 바른 도기제작수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구려의 유약 바른 도기들과 발해의 유약 바른 도기들은 모두 보드라운 흙을 잘 정선하여 돌림관을 리용하여 그릇의 형태를 만든 다음 유약을 바르고 구워내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것은 고구려유적들에서 나온 유약 바른 도기들과 길림성 화룡현 북대무덤에서 나온 ‘발해삼채’ 도기인 병가 종지 등이 잘 보여주고 있다.

집안일대의 고구려유적들인 만보정78호무덤, 칠성산96호무덤, 마선구1호무덤, 동대파유적 등과 태성리2호무덤, 고국원왕릉 등에서는 유약 바른 단지나 병들이 드러났는데 모두 보드라운 진흙을 바탕흙으로 리용하였으며 돌림판을 사용하여 그릇의 형태를 빚은 다음 몸체 겉면에 유약을 바르고 구워낸 것이었다. 이것은 발해 초기와 중기에 속하는 북대무덤떼에서 나온 삼채병과 종지 등 삼채도기의 제작수법과 아무런 차이가 보이지 않는 도기제작방법으로서 두 시기 도기제작방법에서의 강한 공통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발해삼채’ 도기가 고구려의 도기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결과에 나온 것이라는 것은 다음으로 두 시기에 도기에 쓰인 유약의 색깔에서도 잘 찾아볼 수 있다.

고구려시기의 유적인 칠성산96호무덤에서는 연갈색과 황록색을 나타내는 유약을 바른 단지가 나왔고 고국원왕릉과 우산밀41호무덤, 산성밀983호무덤, 세간무덤을 비롯한 여러 유적에서는 옥색과 황록색의 유약을 바른 단지가 나왔으며 토포리큰무덤에서는 황색유약을 바른 단지와 병이 나왔다.

이것들을 통하여 고구려시기에는 황색과 옥색계통의 유약을 도기제작에 많이 리용하였으며 그 외에 갈색계통의 유약도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도 본 것과 같이 발해시기의 유적들에서 드러난 ‘발해삼채’ 도기의 유약색깔을 보면 옥색, 황색, 보라색, 갈색, 흰색, 적황색, 연록색등의 유약들을 사용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옥색과 황색유약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고구려의 유약 바른 도기와 ‘발해삼채’ 도기에서 일반적으로 옥색과 황색의 유약이 많이 사용 되었다는 사실은 두시기 도기사이의 계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발해삼채’ 도기가 고구려의 도기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결과에 나온 것이라는 것은 다음으로 고구려의 유약 바른 도기로부터 ‘발해삼채’ 도기까지 이르는 도기발전의 합법칙과정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다.

‘발해삼채’ 도기는 고구려시기의 도기제작기술을 계승한 발해사람들이 꾸준

한 노력의 결과 창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유약을 바른 고구려도기와 발해도기, ‘발해삼채’ 도기와의 대비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고구려의 유약을 바른 도기를 보면 그릇의 종류에서 종지, 보시기, 잔과 같은 음식기류, 가마, 시루, 대야와 같은 음식가공기류, 병, 다반과 같은 운반용 기류, 단지와 같은 저장용 기류이다. 유약 바른 고구려도기에 쓰인 유약색갈을 보면 차록색, 황록색, 황색, 토황색, 황갈색, 옥색 등이며 극히 일부 검은색의 유약들이다. 유약 바른 고구려도기들에는 대체로 한색갈의 유약이 발라져 있다.

유약 바른 발해도기들에서의 그릇종류를 보면 종지와 같은 음식기류, 자배기와 버치와 같은 음식가공기류, 동이와 병과 같은 저장 및 운반용 기류 및 각종 그릇 뚜껑들이다. 유약 바른 발해도기에 쓰인 유약색갈을 보면 우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황색과 옥색, 연록색, 갈색, 보라색, 차록색, 흰색, 적황색 등이며 대체로 두 가지 색갈의 유약을 함께 쓰거나 ‘발해삼채’ 도기에서와 같이 세 가지 색갈의 유약을 함께 사용하였다.

유약 바른 고구려도기와 발해도기에 보이는 공통점과 차이점은 유약 바른 도기의 발전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시기 유약 바른 도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하여보면 두시기 유약 바른 도기에서의 공통점은 서로 같은 그릇종류를 가지고 있으며 황색과 옥색 계통의 유약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며 차이점은 발해시기에 와서 유약색갈에서 새로운 색갈의 유약이 나타나 색갈에서 더욱 다양해지며 도기들에 한 가지 색갈의 유약이 사용된 것은 물론이고, 두 가지, 세 가지 색갈의 유약을 함께 바른 도기들이 출현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발해의 유약 바른 도기는 고구려의 유약 바른 도기와 그릇의 종류나 형태, 유약의 색갈 등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색갈에서나 그 제작방법에서 보다 발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약 바른 도기에 보이는 공통점과 차이점은 발해의 유약 바른 도기 더 나아가서 ‘발해삼채’ 도기가 고구려의 유약 바른 도기제작 기술에 토대하여 그것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창조된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여주는 자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발해의 삼채도기는 세련된 형태에 어울리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색깔의 결합으로 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물론 당시 이웃나라에서도 ‘당삼채’로 불리우는 풀색과 누런색, 흰색계통과 풀색, 누런색, 남색계통의 유약을 올린 도기가 보급되었지만 발해의 것과는 여러 측면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

당나라의 삼채도기는 당나라가 존재한 전 기간에 걸쳐 넓은 지역에서 광범히 생산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부분적 지역에서 얼마간 생산되었다. 그것은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이나 랍양의 귀족들의 무덤에서만 삼채도기가 보이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무덤들은 대체로 755년 안록산과 사상명의란이 있기 전에 만들어진 무덤들이다. 이것은 당나라의 삼채도기가 8세기 전반기에는 생산되었으나 그 이후시기에는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그러나 발해의 삼채도기는 8세기 전반기뿐 아니라 그 이후시기에도 광범히 보급되었다. 그것은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룡천부의 궁전터들에서 나온 수많은 유약 바른 도기 조각, 삼채도기 조각들을 통하여서도 잘 알 수 있다.

‘발해삼채’ 도기는 당삼채도기와 그 리용분야에서도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발해의 유적들에서 나온 삼채도기들은 모두 쓰기에 편리하게 만들어진 실용 그릇들이지만 당삼채도기는 주로 남녀인물상, 말, 락타, 사자를 비롯한 동물들을 형상한 도용상들이다. 이것은 바로 발해의 삼채도기가 당나라의 문화적 영향에 의해서가 아니라 발해인민들이 고구려의 도기제작기술을 계승하여 발전시키는 과정에 이룩된 창조품이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발해삼채’ 도기와 당삼채도기와의 차이점은 장식수법과 색깔에서도 보인다.

발해의 삼채도기인 상경룡천부에서 나온 그릇뚜껑의 꼭지주변에는 들국

화꽃무늬를 뚫어새기고 몸체의 네 곳(서로 대칭되는 부분)에는 세 잎과 다섯 잎으로 된 꽃잎모양의 무늬를 뚫어 새겼으며 당삼채도기에 보이지 않는 보라색의 유약이 발라져있는 그릇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발해삼채’ 도기와 같은 유약 바른 도기들은 색깔에서 연하고 부드러운 감을 주는 색깔들이 유기적으로 잘 결합되어 있으나 당삼채를 비롯한 당나라의 유약 바른 도기들의 색깔은 진하여 색대조가 강하게 안겨온다.

‘발해삼채’ 도기에 보이는 장식수법과 색깔에서의 이러한 독특성은 그 후 더욱 발전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경탄을 금치 못해하는 발해자기를 출현하게 하였다.

그것은 831년 당나라에 수출한 『자지분』(보라색자배기)에 대하여 쓴 글에서 “자지분은 크기가 반섬들이나 되며 안팎이 투명하고 색깔은 순 보라색으로서 두께가 한 치 정도이지만 그 무게는 새털과 같이 가볍다.”<sup>6</sup>고 높이 평가한 데서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발해삼채’ 도기는 고구려의 도기제작기술에 토대하여 그를 계승 발전시킨 결과 출현한 발해인민들의 창조물이며 이것은 그 이후 발해자기나 고려자기제작기술발전에서 밑거름으로 되었다.

발해인민들이 고구려의 도기제작방법을 계승 발전시켜 ‘발해삼채’ 도기를 만들어낸 것은 고구려와 발해가 서로 뗄 수 없는 같은 민족의 국가였던 사정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그것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역사사료들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발해사람들은 자기의 역사자료를 거의 남기지 못하였지만 국내외의 역사사료들 가운데서 발해에 대한 관련기사들을 찾아보면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발해국의 역사를 다소나마 체계적으로 쓴 가장 오랜 문헌은 중국사서 『구

---

6 『고금도서집성』, 212책 변예전 제41권 발해부 두양자편.

당서』의 발해말갈전이다. 이 책은 발해국이 멸망(926년)한 다음 19년 후인 945년에 편찬된 것으로서 여기에는 발해국의 창건자인 “대조영은 본래 고려(고구려)의 별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일본의 력사자료인 『속일본기』에는 727년에 발해 2대왕 무왕이 일본과 국교를 여는 첫 국서에서 “발해국은 고려(고구려)의 옛 령토를 회복하고 부여의 유습을 소유하고있다.”라고 하였으며 3대왕 문왕은 758년에 일본에 보내는 국서에서 ‘고려국왕 대흥무’라고 칭하였으며 771년에 보낸 국서에서는 발해왕실이 고구려왕실과 같은 천손 즉 천제의 자손이라고 칭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고려시기 편찬된 『삼국사기』에 발해를 “고구려의 잔재세력”이 세운 나라라고 기록하였으며 『삼국유사』에서 이미 없어진 『신라고기』를 인용하면서 『신라고기』에 말하기를 “고려(고구려) 옛 장수 조영의 성은 대씨인데 패잔한 군사를 모아 태백산남쪽에 나라를 세워 국호를 발해라고 하였다.”고 한 기록들과 함께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다는 것을 똑똑히 반증하여 주고 있다.

바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고 발해를 세운 사람들 역시 고구려유민인 결과, 세상에 널리 알려진 ‘발해삼채’ 도기 역시 고구려시기 발전하였던 도기 제작기술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 발해인민들이 창조한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문화유산으로 되는 것이다.

##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 『비변사등록』의 사료적 가치

송 현 원

조선사회과학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세상에 널리 지랴 할만한 문화적 재부를 창조하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자랑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인민은 오랜 옛날부터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우수한 민족문화유산들을 수많은 창조하여 인류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여왔다.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문화유산 가운데서 민족고전유산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화유산이라고 할 때 그것의 포괄범위는 매우 넓고도 다양하지만 크게는 물질유산과 정신문화유산으로 구분된다. 민족문화유산의 하나인 민족고전유산은 일정한 내용을 일정한 대상에 기입한 기록문헌유산이라는 자체의 특성으로부터 물질유산으로 되는 동시에 정신문화유산으로도 되며 따라서 민족문화유산 가운데서 그것이 차지하는 지위와 비중은 자못 큰 것이다.

일체의 기록문헌을 다 포괄하고 있는 민족고전유산에는 기록의 대상에 따라서 금석문헌, 죽간문헌 등 여러 가지 유형의 문헌들이 포함되지만 가장 보편화된 기록문헌은 종이에 쓴 문헌 즉 서적문헌이며 이 서적문헌은 사실상 우리나라 민족고전유산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도합 2만여 종의 서적문화유산, 다시 말하여 민족고전 유산이 있는데 개개의 민족고전유산에는 크든 작든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 있으며 따라서 그것들은 어느 것이나 다 민족의 재보로 되지만 그중에서도 일부 민족고전들인 경우에는 다른 민족고전들과 대비할 수 없는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하여 국보적인 민족고전유산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국보급의 민족고전유산 가운데는 분량에 있어서나 사료적 가치에 있어서 리조시기 3대문헌의 하나로 불리워지는 『비변사등록』도 있다.

리조시기 3대문헌이라고 할 때 그것은 『리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을 말한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비변사등록』은 리조 후반기 봉건국가의 최고중앙관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 비변사의 관청일지이다.

『비변사등록』은 비록 그것이 한 개 관청의 관청일지이기는 하지만 분량에 있어서 우리나라 민족고전유산 가운데서 『승정원일기』, 『팔만대장경』, 『리조실록』 다음으로 방대한 고전문헌이다.

원래 리조봉건국가에서는 중앙의 각 관청들에서 자기 관청에서 관여한 정무처리내용들을 매일매일 일지형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규례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규례가 리조성립 초기부터 있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문종실록』 권 12, 2년 2월 병술조에 『세종실록』 편찬에 『승정원일기』를 리용하였다는 기사가 수록되어 있는 것은 관청일지의 하나인 『승정원일기』가 세종집권시기인 1418년부터 1450년 기간에 벌써 편찬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관청일지의 편찬이 15세기 전반기부터 진행되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1623년부터 1721년까지의 『승정원일기』 개수본에는 『승정원일기』 개수에 리용된 각 관청의 관청일지(등록)들이 출처로 명기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거의 모든 중앙관청들의 관청일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15세기 전반기부터 관청일지의 편찬이 시작되었으며 그것이 보편화되어 나중에는 하나의 규

례로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비변사는 관청일지편찬이 시작된 이후시기인 1510년에 처음으로 력사무대에 등장하였고 1541년부터 상설적인 군사담당기관으로 운영된 관청이었다. 그러므로 비변사의 관청일지인 『비변사등록』은 비변사가 상설관청으로 설치된 1541년, 늦어도 을묘왜변을 계기로 비변사가 봉건국가의 최고군사의 정기관으로 운영된 1555년부터는 편찬되었을 것이지만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것은 1617년 광해군 9년의 등록부터이다.

한편 비변사는 1865년에 의정부에 합속되어 자기의 존재를 마치었으며 이때부터는 『정부등록』이라는 이름으로 관청일지가 정리되었다. 그러나 비변사의 관제와 합좌모임에 기초한 그의 관청운영방식은 의정부에 그대로 옮겨졌으며 따라서 1865년부터 『정부등록』이라는 이름으로 편찬된 의정부의 관청일지도 본질에 있어서는 비변사의 관청일지이다.

『승정원일기』도 근대시기에 이르러 승정원의 명칭이 개칭되고 그의 기능이 다른 관청에 이전됨에 따라 『승선원일기』, 『궁내부일기』, 『비서감일기』, 『규장각일기』 등으로 그 책명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이것들도 모두 『승정원일기』에 포함된다.

1865년부터 편찬된 『정부등록(비변사등록)』은 1894년 갑오정장 때까지 편찬정리되었을 것이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은 1892년(고종 28년)까지의 등록뿐이다.

이처럼 『비변사등록』은 『정부등록』까지 포함하여 1617년부터 1892년까지의 276년간의 역사적 시기를 포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광해군, 인조시기의 일부 등록을 비롯하여 루계적으로 57년분에 해당하는 등록이 결실되어 있으므로 실지 『비변사등록』은 219년간에 해당되는 등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비변사등록』에는 219년간 비변사에서 토의처결 된 정무처리 내용들이 날자순에 따라 정리되었는데 기본상 1년분의 등록으로 1책을 묶게 되어있었지

만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상, 하 두 책으로 묶던가 상, 중, 하 3책(숙종 37년)으로 묶었다. 이런데로부터 『비변사등록』은 총 219년분에 해당하는 등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의 책 수는 그보다 더 많은 273책으로 되어 있다.

『비변사등록』이 219년간에 걸쳐 거의 매일이다시피 정리된 것으로 그의 분량은 매우 방대하여 이로부터 그것은 리조시기의 3대문헌으로 불리우고 있다.

『비변사등록』은 분량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리조 후반기 역사연구에서 매우 귀중한 가치를 가지는 민족고전유산이다.

『비변사등록』에는 최고중앙관청 비변사에서 200여 년간 진행한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여러 분야의 정책 작성과 그 집행정형을 보여주는 각종 토의내용과 문건들이 집대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비변사등록』은 리조 중후반기의 각종 제도사연구와 부문사 연구에서 『리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와 서로 맞먹는 사료적 가치를 가진다.

『비변사등록』의 사료적 가치는 우선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주요정사관련 사료들이 집중적으로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비변사는 1592년 이후로 리조봉건국가의 최고의정기관, 최고행정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였다. 당시 비변사에서는 국가정권 운영에서 제기되는 주요정사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들을 세웠으며 그 집행을 감독 통제하였는데 『비변사등록』에는 비변사에서 담당 처리한 이러한 주요정사관련 사료들이 집중적으로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

『비변사등록』에는 주요정사관련 사료들이 『리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 비해보더라도 더 풍부하게 집중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우선 『비변사등록』에는 주요정사관련 사료들이 『리조실록』보다 더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

『비변사등록』의 총 분량은 『리조실록』에 비해 절반이 채 못되지만 실지의 포괄년대가 219년이라는 것을 넘두에 두면 두 책의 분량은 거의나 비슷하다. 그러나 사료의 취급범위와 대상에 있어서는 『리조실록』이 『비변사등록』에 비

할 바 없이 넓고 방대하다. 『비변사등록』에는 비변사에서 취급한 정무처리내용들 다시 말하여 비변사관리들이 국왕을 접견하고 진행한 정사토의내용과 국정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책적 의견을 첨부하고 올린 문건 등을 위주로 수록된 것으로 하여 그의 사료취급범위는 기본상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부문으로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리조실록』은 봉건국가의 정부일지로서 주요정사관련기사만이 아니라 자연현상, 생물현상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분야의 사료들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결국 『비변사등록』과 『리조실록』의 시기별 분량이 비슷한 조건에서 사료취급범위가 국한되어 있는 『비변사등록』에는 그의 주요취급대상인 정치, 경제, 군사, 외교부문의 사료들이 『리조실록』에 비해 더 풍부하게 실려있는 것이다.

또한 『비변사등록』에는 주요정사관련 사료들이 『승정원일기』에 비해 보다 집중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승정원일기』는 『비변사등록』과 마찬가지로 승정원의 관청일지로서 거기에는 승정원에서 관여 취급한 각종 기사들이 집대성되어 있다.

리조시기 승정원은 국왕의 비서처격인 관청으로 운영되었는데 승정원에서는 국왕으로부터 내려오는 각종 지시들을 받아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고 중앙과 지방에서 올라오는 일체 문건들을 접수하여 국왕에서 올리는 일을 맡아하였으며 또 사관의 직능도 겸하고 국왕의 관리접견과 행차 등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 전 과정을 기록하는 기능도 수행하였다.

승정원의 이러한 기능으로부터 승정원의 관청일지인 『승정원일기』에는 당시 국왕을 둘러싸고 벌어진 모든 문제들이 다 수록되어 있으며 그런 것으로 하여 『승정원일기』의 분량은 『비변사등록』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이나 더 많다.

『승정원일기』에는 『비변사등록』에 수록된 대부분의 정사관련 사료들이 실려 있지만 그의 분량이 방대하고 사료취급범위가 매우 넓은 데로부터 주요정사관련사료들은 여러 기사들에 산재해 있다. 그러나 『비변사등록』은 봉건국

가의 최고중앙관청 비변사에서 토의처결한 정무처리 내용들만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주요정사 관련사료들이 『승정원일기』에 비해 집중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비변사등록』에는 주요 정사관련 사료들이 보다 집중적으로 풍부하게 실려 있는데 이것은 리조시기 각 제도사와 부문사를 연구하는데서 『비변사등록』이 가지는 중요한 가치의 하나이다.

『비변사등록』의 사료적 가치는 둘째로, 다른 문헌들에 실려 있지 않은 사료들이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변사등록』에는 『리조실록』에 실려있지 않은 사료들이 전반에 걸쳐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지만 국왕의 비서처격인 기능을 수행한 승정원의 관청일지인 『승정원일기』에는 거의 모두 실려 있다.

그러나 『승정원일기』의 1623년부터 1721년까지의 99년분에 해당하는 일기는 1746년에 개수한 것으로서 이 부분의 일기에는 『비변사등록』에 수록되어 있는 사료들이 적지 않게 루락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1623년부터 1721년까지의 99년분의 『비변사등록』에는 『리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실려있지 않는, 오직 『비변사등록』에만 수록되어 있는 사료들이 적지 않다.

실례로 숙종 8년(1682년) 10월 1달분의 『비변사등록』에서 『리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모두 실려 있지 않은 사료들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10월 1일의 금군의 도시시험에 대한 사료와 대홍산성소속 6개 고을 군사들에게 취재시험을 보이고 상을 준데 관한 사료 등 2건의 사료, 10월 9일의 재해입은 고을의 기병과 보병들이 바치던 군포를 줄여 줄데 관한 사료, 재해입은 여러 도에서 군사훈련을 중지할 데 관한 사료, 강화의돈대축조공사를 당분간 중지할 데 관한 사료, 성절사의 행차에 강화의 은 6,000-7,000냥을 떼줄데 관한 사료, 상군관의 전복들에게 어물전을 허락해주는 문제를 논의한데 관한 사료 등 5건의 사료, 10월 14일의 영소전과 익릉의 제사비용을 각 관청에 3년 동안 분담시킬 데 관한 사료, 10월 21일의 수도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콩 대신

벼로 거들 데 관한 사료, 10월 22일의 서원현감의 죄를 용서해 주며 영문에서 몰수한 서원현의 관속들을 돌려보낼 데 관한 사료와 1결당 4말씩 거두던 조세 공을 전부 줄이고 대동미도 적당히 줄이도록 할 데 관한 사료 등 2건의 사료, 10월 27일의 금군장 7명, 별군직 5명, 금군 634명에게 떼줄 마초값인 무명 38동 38필을 여정목과 순찬위목으로 절반씩 나누어준데 관한 사료, 10월 29일의 흉년과 관련하여 3년 이전의 환자를 거두지 말도록 한데 관한 사료 등이다.

『비변사등록』의 이 1달분의 기사에만도 『리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실려있지 않은 사료들이 13건이나 수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일부 가치 있는 사료들도 있다. 이것을 통하여 1623년부터 1721년까지의 99년분에 해당하는 『비변사등록』에 오직 『비변사등록』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가치있는 사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721년 이후의 『비변사등록』에도 『리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사료들이 적지 않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비변사등록』에는 주요 정사관련 사료들이 『리조실록』에 비해 더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지만 『승정원일기』에는 『비변사등록』에 실려 있는 사료들이 거의 모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비변사등록』에는 『승정원일기』에 실려 있지 않은 사목, 절목, 별단 등이 근 400개나 수록되어 있다.

절목과 사목은 봉건정부에서 토의 처결한 제반문제들을 집행해 나가는데서 반드시 의거하여야 할 규정을 적은 세칙을 말하며 별단은 집행정형이나 실태를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별지문건이나 별지명단을 말한다. 비변사에서 작성 공포한 절목과 사목은 그대로 준수하여 할 규정이나 법으로 간주되었으며 따라서 비변사의 절목, 사목, 별단 등은 당시의 역사를 연구하고 사회상을 파악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사료로 된다.

비변사에서 작성한 절목, 사목, 별단 등은 승정원을 거쳐 국왕에게 보고된 것들이지만 승정원에서는 그와 관련한 기본제의만을 일기에 수록하였을 뿐

별지의 절목, 사목, 별단은 전혀 신지 않았다. 이런 데로부터 『승정원일기』에는 근 400건에 달하는 비변사의 절목, 사목, 별단들이 한건도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리조실록』에도 그의 십분의 1 정도밖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결국 『비변사등록』에는 오직 『비변사등록』에만 실려 있는 절목, 사목, 별단 등이 적지 않다.

이처럼 『비변사등록』에는 다른 문헌들에 실려 있지 않은 가치 있는 사료들이 적지 않은데 이것은 『비변사등록』이 가지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의 하나이다.

『비변사등록』의 사료적 가치는 셋째로, 수록된 사료들의 신빙성이 상당한 정도에서 담보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변사등록』은 제기된 기사들을 성문화되어 있는 그대로 기계적으로 옮겨 기록하는 서술방식에 따라 정리된 관청일지이다.

『비변사등록』은 기본상 국왕과 비변사관리들의 접견에서 진행된 정사토의 내용과 비변사와 기타 관청들에서 작성하여 국왕에게 올려 보낸 문건, 국왕의 지시 등으로 기사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사들은 모두 『비변사등록』에 정리되기 이전에 벌써 성문화된 것들이었다.

국왕과 비변사관리들 사이의 접견에서 진행된 정사토의내용은 승지나 주서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성문화하여 비변사에 내려준 것이었으며 비변사에서 국왕에게 올린 문건으로 비변사유사당상관의 주관 밑에 성문화된 것이었다. 또한 국왕의 지시도 성문화된 것들이었다. 선유문이나 교지문, 권농문, 비망기와 같은 지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승전색을 통하여 전달된 국왕의 구두지시도 승정원에서 성문화하여 비변사에 보내준 것이었다.

『비변사등록』의 정리는 비변사의 량청들이 담당하였는데 그들은 바로 이러한 성문화되어있는 기사들을 수정보충하거나 윤색가미 하지 않고 성문화되어 있는 그대로 등록에 옮겨 기록하였다. 이런 데로부터 관청일지의 이름을 옮겨 기록하는 책을 의미하는 등록으로 부른 것이다.

결국 『비변사등록』에 수록된 사료들에는 정리자의 주관적의도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그것들은 아무런 가공도 가해지지 않은 당시의 원사료 그대로이다.

『비변사등록』이 성문화되어 있는 기사들을 기계적으로 옮겨 기록한 관청일지인 것으로 하여 그에 수록된 사료들의 신빙성은 상당한 정도에서 담보되어 있으며 이것은 『비변사등록』이 가지는 중요한 사료적가치의 하나이다.

이와 같이 『비변사등록』은 분량에 있어서나 사료적 가치에 있어서 손꼽히는 국보급의 민족고전으로서의 우리 선조들이 창조하여 후대들에게 물려준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의 하나이다.

우리 공화국의 학자집단은 리조 후반기 역사연구에서 큰 가치를 가지는 『비변사등록』을 우리말로 번역하기 위한 사업을 힘 있게 벌려 『비변사등록』번역본 전 150책을 훌륭히 완성하였으며 지금 그의 출판을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이제 머지않아 선군시대에 우리 인민의 진정한 향유물로 번역 출판 된 『비변사등록』번역본이 세상에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민족의 선행세대들이 남긴 귀중한 민족고전유산들을 더 많이 번역하여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구체계화하고 근로자들에게 조선민족제 일주의 정신을 심어주는데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다.



# Reorienting the Book Market in Colonial Korea - Private Publishing Companies after 1919\*

Sang-ho Ro\*\*

Princeton University

## 1. Introduction

The term *book market* is broadly associated with a variety of publishing activities that are intended to promote books. Historically, the Korean book market can be understood not only through the publication of Confucian canons, such as *Four Books and Five Classics* (*Sasŏ ogyŏng*), *Elementary*

---

\* In this paper, I follow McCune-Reischauer's understanding of Korean Romanization. I am indebted to Professor Mizuno Naoki, independent researcher Nakamura Osamu, Professor Yi Sŭng-yŏp, Kate McDonald, other faculty, librarians, and friends at the Institute for Research in Humanities, Kyoto University. I'd also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Professor Joy Kim, Paul Eason, William E. Young and other friends at Princeton University for their warm encouragement and critical comments. Additionally, I extend my appreciation to various commentators at the ISKS International Conference in Shanghai. Sharon Bea helped me correct my grammatical errors in English writing. Finally, I especially thank the generous funding of the Japan-Korea Cultural Foundation for enabling me to conduct this research in 2008-2009.

\*\* Ph.D. candidate in the East Asian Studies Department, Princeton University (sro@princeton.edu).

*Learning (Sohak)*, and *Classics of Filial Piety (Hyogyŏng)*, but also through more mundane books such as novels that are purchased for entertainment and reference books for the education of children and preparation for civil service exams (*kwagŏ*). Before the introduction of metal-based printing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woodblock printing and carved stone printing supported the book business in Chosŏn Korea. Because metal-based printing significantly enhanced the productivity of book making,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Korea was able to gradually enter into a new era of mass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printed books (Yi Chung-ha et al., 2001 ; Paek Un-gwan and Pu Kil-man, 1992 ; An Ch'un-gŭn, 1987). Despite this printing revolution, however, the book sellers and market still depended on the affluent elite literati as major consumers; inevitably, the print business was sustained by the elite reading public who had not only the willingness to read and to study, but also the financial ability to purchase the books.

The Kaebyŏk Publishing Company (KPC hereafter) was founded in 1920 by a Korean religious group, Ch'ŏndogyo (Heavenly Way), which left a unique footprint on the book market through its three magazines: *Kaebyŏk (Creation)*, *Ŏrini (Children)*, and *Sinyŏsŏng (New Women)*. That the religious group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rint culture was unexpected; the Ch'ŏndogyo group was a religious minority which claimed orthodox lineage from the Chosŏn period's heresy - Tonghak (Eastern Learning). One might ask how the minor religious group, operating under the censorship of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could have influenced the literary world of traditional elites. Of course, any mention of "traditional

elite” or Yangban is problematic because, by the time that Korea passed through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in the lat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y, the so-called Yangban elite literati had come to lose its privileged status as comprising degree-holders and retired public officers of the Chosŏn court. Additionally, non-Yangban families had been reading and publishing books in classical Chinese and vernacular Korean for a century, resulting in upward social mobility (Hwang Kyung Moon, 2004). Nevertheless, the attention that the Kaebyŏk Publishing Company received as an agent of public discourse and its appeal to a wide range of classes were new to Korea. For most of modern Korean history, the influence of religious publishing companies had been limited to their direct sectarian activities. Moreover, the Tonghak movement was by no means a part of high culture; the faithful had long been oppressed as the heretic by the Chosŏn court. Thus, although the book market had long been dominated by Yangban elite writers, new groups of social agents from the heterodoxy began to utilize the books to take the lead in public discourse after the March First Movement. Specifically, I’d like to argue that this period saw the formation of the KPC Company, for which books are a tool of social reform.

Although the pioneering role of the KPC is readily apparent and often the topic of scholarly attention in Korean and English, its struggle in the book market deserves attention in terms of rethinking the historical form of ‘the public sphere’ in modern Korea (Sŏng Chu-hyŏn, 2009 ; Choe Su-i, 2008 ; Im Kyŏng-sŏk et al., 2007). As a scholar of British history David Zaret mentioned at *Habermas and the Public Sphere*, historians can find no

historical case which exactly fits to Habermas's model of 'the public sphere' as an ideal type (David Zaret, 1994: 212-215). However, empirical historians can understand that there did exist "something resembling a public sphere" and that "the important things are the practices that constituted this sphere, not the model itself." In this paper, I will follow Zaret's critical approach to 'the public sphere.' I'd like to argue that the KPC was an early example of such practices formulating the public sphere in modern Korea. According to Habermas, the term of "the public" can be defined as "the abstract counterpart of public authority" (Jürgen Habermas, 1991: 23). In the face of the public authority, the civil society can be the critical public when it is consisted of "the adversary of the ruling authorities", instead of "the receiver of regulations from above" (*Ibid*, 26). In this sense, the KPC made a sensational debut at the public sphere, criticizing Korean society and the colonial state. My argument in this paper is that the KPC mobilized various strategies and resources to build itself as a social agent, as something equal to the public authority. More importantly, the KPC signified the rise of new non-elite writers, who diffused their criticism on Korean society and tradition through print.

## 2. A Tool of 'Self-help': Japanese colonial education and study-aid books

The development of colonial education in Korea brought together issues of class, culture, nation, and state. The colonial government was a dominant actor in building the new education system, but there were others as well who influenced the education of the next generation. By

1910, there was a broadly shared practice of children's education throughout the country both at schools and at home. This practice overlapped with and eventually came into conflict with the Japanese education project and colonial reforms, causing significant concerns by Koreans about encroachments by Japanese imperial power. Although Japanese and Koreans who were involved in education frequently researched each other's educational systems and practices, they both retained considerable autonomy over how they would apply this information to their own contexts (Son In-su, 1992 ; Sano Michio, 1993).

Most of all, class plays a significant role in understanding colonial education. Because there was no compulsory educational system, the decision to register children in school depended on both the willingness and financial resources of individual families (Kim Pu-ja, 2005: 80-84). Colonial government officers were aware that considerable numbers of Korean families were too destitute to educate their children under such a system. When a Japanese anthropologist, Zenshō Eisuke, visited villages in Suwŏn County (*kun*) in 1928, he witnessed the reality of uneven educational opportunities in colonial society. He conducted a survey of the life conditions at that time and left a record of detailed interviews with 28 individual households. In his survey later published by the colonial government, he gathered a broad range of information for each family, including social status, number of family members, annual income, annual expenses, level of education, Japanese language skill, personal hygiene practices, and personal hobbies. In some respects, he was impressed by the local Korean schools, stating, "People [in Suwŏn] have respected

Confucian teaching for a long time. Thus, they have had a county school (*hyanggyo*) in Suwŏn County (*kun*) and a private village school (*sŏdang*) in every village (*myŏn and tong*). Almost all of these people are studying Confucian classics, except for the lower class (J: *karyŭ kaikyŭ*)” (Zenshō Eisuke, 1929: 109). He also praised the achievement of Japanese colonial rule, noting, “Since the annexation of Japan and Korea, thanks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educational system, the county school has been diminished in importance, and private village schools now exist only deep in the mountai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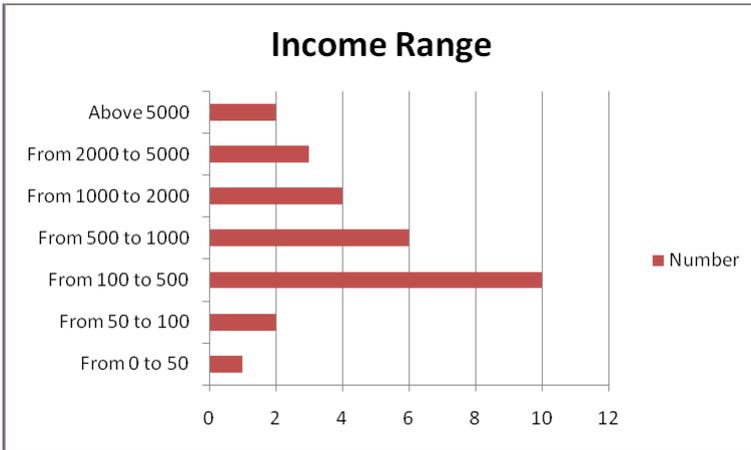
Zenshō Eisuke tempered his praise by expressing concern about Korean middle-class families who were financially exhausted by putting their children through the colonial education system. He concluded that the current education fee was too expensive, stating, “In elementary schools for Koreans (*pot’ong hakkyo*), parents are willing to register their children because they are impressed by the social progress [of the schools]. Nonetheless, almost all middle-class families feel financial pressure when paying tuition. Spending one wŏn per month for tuition plus additional costs for school supplies is a financial burden to them.” Therefore, it is not surprising that substantial number of students had no choice but to drop out simply because their parents could no longer afford their education. According to Zenshō’s account, in the year 1929 alone, the parents of 443 elementary school students failed to pay tuition. Considering the financial burden involved, children from the homes of the well-to-do, rather than the middle and lower classes, were more likely to be able to enjoy and benefit from a colonial education.<sup>1</sup>

To understand what was at stake in the colonial educational system, it is useful to analyze the households that the Japanese anthropologist visited. He interviewed 28 families, including four Japanese and two Chinese. As presented in Table 1, these households are sorted by me according to their annual income. As can be seen, over 50 percent of the homes (16/28) had an annual income from 100 to 1,000 wŏn, and can plausibly be considered “middle class.” Of course, there is a significant variety in this group of “middle class.” For example, 62-year-old Yi family earned 650 wŏn a year from their rice paddies and farms. He lived with a wife, two sons, and a daughter-in-law and spent 20 wŏn for a son’s tuition. In addition, he stated that he was a Christian and often read books as a hobby. In comparison, 55-year-old Hong was a tenant-farmer earning only 155 wŏn a year. His 17-year-old elder son worked as a laborer, while his 7-year-old son stayed at home. Because the boys did not attend school, he had no educational expenses. Therefore, at table 2, I classify the families such as the Yi family whose income were over 500 wŏn as upper-middle class and the families such as the Hong family which earned less than 500 as lower-middle c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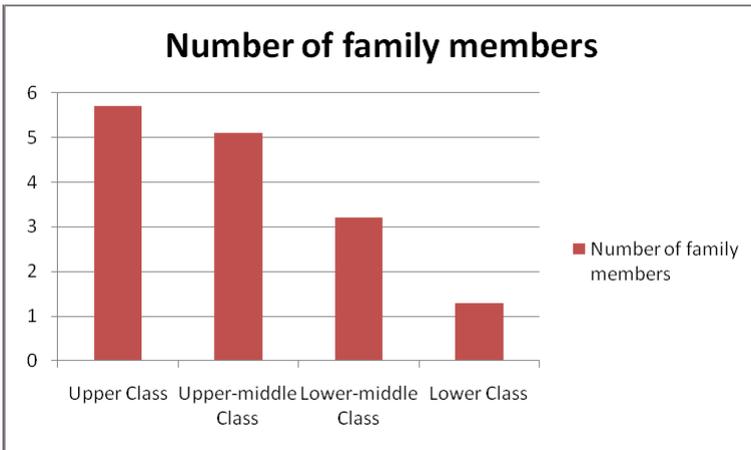
---

1 According to Patricia Tsurumi’s analysis of the case of colonial Taiwan, the colonial governments in Korea and Taiwan did not favor the idea of a general educational system that might produce the “educated unemployed” as is seen in India and the Philippines. Therefore, all educational expenses were to be paid by the Koreans and Taiwanese (Patricia Tsurumi, 1977: 45-47).

〈Table 1〉



〈Table 2〉



How can an analysis of class help us to understand colonial education? First, we start with the average number of family members according to class. As can be seen in Table 2, the number shows considerable variation. Strikingly, the lower-middle and lower classes had much smaller family

sizes than did the upper and upper-middle classes. It is not known, however, whether they controlled the number of births or whether some children were away serving as an apprentice or a nanny and simply not counted.<sup>2</sup> Based on family size,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 consumption of children's education was more likely among the well-to-do. While 9 upper class homes spent 77.6 wŏn on average, upper-middle and lower-middle class families spent only 5.8 and 2.3 wŏn, respectively. In other words, there was a serious imbalance in children's education, from which the children of the wealthy benefited.

The market for children's books, which can be broadly defined as sales of fairy tales, song books, study-aid books, was similarly biased toward the demands of the well-to-do. In particular, study-aid books appeared in the book market as the colonial school system hurriedly expanded under the so-called "cultural rule" of the colonial government. Well-to-do families purchased these study materials because they saw education as a way to raise the social status of their children. As Japanese colonial bureaucrat Tokizane Akiho observed about Korean parents in 1925, colonial education conjured up visions of individual advancement. He stated, "[Korean]

---

2 A writer Ch'ae Man-sik describes high infant mortality and human trafficking of lower-class families in his novel *T'angnyu* (*The Muddy Stream*), originally published from 1937 to 1938. From the perspective of a young medical student, he mentions a case of infant death that was attributed to the parents' ignorance and trust in shamanism. Additionally, the protagonist shows his anger at poor Korean parents, who sell their daughters into prostitution, by stating, "Peasants look forward to seeing that a piglet and a calf grow up and wean themselves from their mothers. When they can walk and feed themselves, they happily sell them at the market. Similarly, some parents sell their daughters into prostitution (kisaengjip) when they grow tall and their breasts become mature enough" (Ch'ae Man-sik, 1987: 121-122).

parents anticipate that their children will receive respect and will wear a western suit as a white-color worker once they graduate from elementary school……They indeed need to realize that they are abandoning their duty as a subject, by spoiling their children with their misleading idea that education would provide them with an opportunity for personal aggrandizement (J: risshin shusse)” (Tokizane Akiho, 1925: 6).

The appearance of study-aid book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can be illustrated in the case of the publishing company, Imundang Corporation. This private publisher tried to maintain a safe distance from the possibility of inspiring Korean nationalism and anti-Japanese sentiment, which, due to police censorship, could destroy the company's fortune. Instead, the company focused on practical contents dealing with non-political educational concerns. That is to say, the company chose to be oriented toward the book market that was carefully audited by the police. It is not clear when the company was founded, but we do know that an ex-elementary school teacher Kim Kap-che owned the company at least since 1922. He graduated from a temporary teachers' training school affiliated with Keijō High School. After teaching at schools for several years, he resigned in 1919 and entered the book industry in 1922. From his own experience at colonial schools, he believed that Korean children needed reference books. Two years later, his company began to circulate a new kind of a book, titled *Correct Answers for High School Entrance Examinations*. The Japanese bookseller, Yanagita Bunjirō, edited six chapters consisting of geography, history, science, national language, Korean language, and mathematics. Of course, geography and history were

portrayed within the context of the Japanese Empire. The book was distributed through five local booksellers in the three major cities of Seoul, P'yŏngyang and Haeju (Yanagita Bunjirō, 1924).

The company's non-political strategy also had the effect of exposing Korean children to official state ideology. The high school examination itself was designed to test knowledge of the new ruler-the Japanese Empire. For example, materials for a geography test given at Kongju High School in 1924 contained questions such as "please write the names of all the prefectures in the Kantō area [in Japan] and locate their prefectural capital on the map." Another question concerned the name of the major products of Nagano, Shizuoka, Fukushima, and Mie prefectures in Japan in addition to Korea's South Kyŏngsang province (Yanagita Bunjirō, 1924: chiri 1).

In addition, the exam preparation book repeatedly offered the state version of history as "the correct answer." On a history exam for Keijō Second High school, successful candidates were asked to write "the correct answer" to a question about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Treaty of Portsmouth. According to the book, "the correct answer" should look as follows:

Negotiations for the treaty were mediated by U.S. President Roosevelt at the end of the Russo-Japanese War. Foreign Minister Komura Jutarō attended from Japan as an envoy plenipotentiary and negotiated with the Russians and their envoy Witte at Portsmouth in the U.S. Signed in September in the [Meiji]

thirty-eighth year, here are its major conclusions: First, Russia will hand the southern half of the Island of Sakhalin over to Japan. Second, Russia will acknowledge Japan's political and military dominance over Korea. Third, Japan will occupy the Liaodong Peninsula that Russia leased from China as well as the Southern Manchurian Railroad up to Changchun. Fourth, the Japanese will be allowed to enter the Russian Sea for fishing near the Maritime Province of Siberia (Yanagita Bunjirō, 1924: rekishi 1).

This model answer concisely emphasizes the international legitimacy of the Japanese Empire in the Asian continent after the Russo-Japanese War in 1905. In particular, the authors urged that Korean examinees should not miss the point that the treaty was signed by an official two-party negotiation mediated by U.S. President Roosevelt. Any comments concerning the humiliation of Korea in the face of Japanese penetration during the war would not be accepted as “the correct answer” and thus decrease the chance of gaining entrance into the elite colonial high school. Therefore, success depended on student's grasp of official knowledge concerning the Japanese Empire.

What, then, was the *raison d'être* of such kinds of study-aid books for Koreans? The notion of ‘self-help’ justified individual efforts to improve one's condition and status, even if it required embracing colonial ideology. The absence of an independent state discouraged Korean political elites and literati from participating in public activities related to either nationalistic resistance or collaboration with the new ruler. Reluctant to commit to one political position, some families preferred to embrace a mode of individualism. Justified by the scientific claims of social

Darwinism, the notion of 'self-help' appealed to Korean families who were looking for a safe outlet for their desires and energy. The introduction of a reference book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published in 1927, is a good example of individualism and the promotion of 'self-help.'

Study for yourself!! The slogan of self-education now can be heard even at schools located in deep mountain areas. People are abandoning the old concepts of education that 'students should memorize what teachers teach.' They have realized 'their own ability,' about which they had forgotten until now. This is indeed a good trend. Study for yourself!! Self-education!! This means preparing for tomorrow's lessons and reviewing today's lessons. Because the time that you study at school is too short, you should study beforehand and review at home. This book is designed as 'a kind friend' and 'a trustworthy teacher' for you who study at home (O Tŏk-yŏng, 1927: Introduction).

The author emphasized that daily efforts and self-study could change the future of children. He asked his audience to give up their illusions about school. He argued that they could only achieve success if they purchased this book and followed the advice of fellow Koreans. When their nation is failing and helpless, individuals are wise to rely on themselves. In other words, the message of 'self-help' mirrors the retreat of Korean elites into an individual concern about family fortune.

The rapid development of such books for 'self-help', of course, can be attributed to the censorship of the Japanese colonial police, since any discourse on public affairs was prohibited after 1910. Soon after the Japanese Empire annexed Korea, the colonial police raided book

publishers and bookstores in Seoul and confiscated 62,479 volumes of books from 35 locations. The loss to the book industry was estimated to be more than 21,624 wŏn from this single act (*Kyŏngnam Ilbo* 21 and 23 Dec 1910). A day before the roundup, the police chief of the government-general, Akashi Motojirō, announced the titles of 51 “forbidden books” and ordered the prohibition of printing and circulation of these books under threat of confiscation. The stated reason was “obstructing the public order.” These books covered a variety of topics, but the colonial police were particularly disturbed by what they considered to be menacing words: ‘nation (K: kungmin)’, ‘state (K: kukka)’, ‘patriotism (K: aegukchuŭi)’, and ‘imperialism (K: chegukchuŭi)’ (Chōsen government-general, 1910: 83-84).<sup>3</sup>

Private Korean publishers learned a painful lesson from the police roundup of 1910, and in the ensuing decade, they only dealt with materials that would not provoke the colonial police. The colonial book market never disappeared under this censorship, but it was seriously diverted into individual entertainment and education. For example, *The Romance of Ch'unhyang* (*Ch'unhyangjŏn*), printed by Pangmun sŏgwan in 1912, became the greatest seller of its time. This masterpiece of Chosŏn-period folk drama was printed in the Korean vernacular language by writer Yi Haejo. Of course, its popularity can be attributed to the celebration of Korean folk culture by the reading public.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folk tales limited readers into a world of stories with happily-ever-after endings.

---

3 For example the forbidden books included *What a National Citizen Must know* (*Kungmin sujŏ*), *The Liberty and Progress of a Nation* (*Kungmin chayu chinboron*), *Principles of State Science* (*Kukkahak kangnyŏng*), *On the Competition of Nation* (*Minjok kyŏngjaengnon*), *Patriotism* (*Aegukchuŭi*), and *Imperialism* (*Chegukchŭi*).

These popular novels became a golden opportunity for booksellers. The owner of Pangmun sŏgwan Noh Ik-hyŏng prioritized the growth of sales during his management of the publishing business. Although the police raids of the 1910s damaged his company, he successfully revitalized his business through the sale of popular novels. Born into a humble family, he had worked at market streets in Seoul as an apprentice since the age of fourteen. After saving enough money to open his own shop, he founded a printing and book sales shop, Pangmun sŏgwan, in the city. From the 1900s to the 1930s, his business was so successful that the once-poor shopkeeper turned into one of the nouveau riche. In 1935, the magazine *Samch'ŏlli* included him in a list of the new rich, along with Park Chŏngghyŏn of Tansŏng Cinema and Ch'oe Nam of the Tonga Department Store (*Samch'ŏlli* September, 1935: 198-199). According to its advertisements in 1912 and 1914, the company quickly responded to the increasing demand for study-aid books devoted to individual advancement. The company sold the Confucian textbooks, *Four Books and Five Classics and Elementary Learning (Sohak)*, as well as reference books on subjects such as physics, math, Japanese, and English (Park Yŏng'un, 1912 ; Unknown, 1914).

Therefore, contemporary intellectuals such as journalist Pak Tal-sŏng were disappointed by the absence of public discourse in the book market. In 1922, Pak described the situation of the bookstores in Seoul as “a shame [because they are] displaying several hundred titles of new novels and some classical Chinese textbooks.” He added, “[However] you can find no books valuable to our life, dealing with such topics as religion, literature,

politics, and economy. Alas, isn't it surprising that there is no book on Koreans who proudly call themselves culture-loving people from the oriental ancient?" (Pak Tal-sǒng, 1922: 46) To Pak Tal-sǒng, it seemed that national degradation was caused by wasteful consumption of popular novels such as *The Romance of Ch'unhyang* (*Ch'unhyangchǒn*). Addressing his fellow Koreans, he stated, "No nation in the world can beat you at loving novels. In almost every house, even in the servants' room, you can find one or two books such as *The Romance of Ch'unhyang* or others. Every night, I am disturbed by the noise from people reading aloud [from these novels] on every corner of every street."

Indeed, the onset of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expansion of colonial education influenced the Korean book market using a carrot-and-stick policy. When the opportunity for education arose, Korean families devoted their resources to the future of their children. In this effort, affluent parents were advantaged because only they could afford the high costs of tuition and educational aids. In addition, the notion of 'self-help' justified the drive of elite Korean families which were gradually losing hope in the future of their nation under the Japanese Empire. In a short period of time, Korean society under the Japanese rule began to show serious fragmentation due to the merciless competition of colonial subjects who struggled over a limited chance for social success. More importantly, the transformation of the book market implies that the elite class was losing its traditional leadership role in society because they were retreating from the public sphere either by choice or by forc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 3. A Tool of Social Reform: Kaebyŏk Publishing Company and its two magazines – *Kaebyŏk* and *Ŏrini*

After the March First Movement in Korea in 1919, the book market changed considerably. As is well known, the nation-wide demonstration claiming Korea's natural right of independence from an alien ruler was a landmark event in colonial history. As Michael Robinson noted, there is irrefutable evidence that Korean nationalism became a mass phenomenon based on "a widespread national consciousness" (Michael Robinson, 1988). In the course of the demonstration, 7,509 people were killed and 15,961 were severely injured. Four months after the demonstration, the colonial police had imprisoned 8,787 individuals who participated in the movement (Sin Yong-ha, 1984: 53-56). As a result, the Japanese Empire began to reconsider its colonial policy in Korea and declared the amendment of previous military rule into a more civic line of "cultural rule (*bunka seiji*)."

From then on, Korean society was given more freedom of speech in the public sphere via their own vernacular media such as *Tong-a Ilbo* and *Chosŏn Ilbo*.

In post-1919 Korea, the religious group Ch'ŏndogyo emerged as a new social reformer. It demonstrated political and social leadership in its role as a major organizer of the March First Movement. When 33 national leaders signed the declaration of Korean independence in March, 15 were from the Ch'ŏndogyo sect. Moreover, as one of the signers, faithful Yi Ch'ong-il supervised the printing of the declaration at his publishing company, Posŏngsa, and distributed them throughout the country via the

religious network. In the Suwon area of the Kyōnggi province, the Ch'ōndogyo group organized a demonstration that ended with a confrontation with the police. In the course of the conflict, three demonstrators were shot to death by the police and one Japanese policeman was beaten to death. The Japanese Army later took action to end the movement and killed 40 Christians and Ch'ōndogyo members at Cheam-ni church on April 15 (Kyōnggi Munhwa Chaedan, 2001: 276-279). This tragic event exemplifies the significant role of these two religious groups in organizing the movement.

After the movement, these two religious groups maintained their role as public agents. Soon after the movement, the Ch'ōndogyo took action by expanding its network through social activities—the youth organization—and through the journalistic publications of the Kaebyōk Publishing Company (KPC). The Ch'ōndogyo Youth League (*Ch'ōndogyo ch'ōngnyōnhoe*) was organized in September 1919 under the leadership of young faithfuls such as Kim Ki-jōn. The league created subdivisions of public lectures, publications, and athletics, and later in 1920, it founded the KPC. In 1923, the youth league was transformed into a more political body of the Young Ch'ōndogyo Party (*Ch'ōndogyo ch'ōngnyōndang*). However, in terms of political doctrines, it still maintained its religious aspirations, expressed by “the construction of a heavenly kingdom on earth” (Cho Ch'ansōk, 1984: 238-239).

The KPC functioned particularly as a public medium through which the youth league publicized its social reformism. Its magazine, *Kaebyōk*,

explained their reformism as the spiritual legacy of the Tonghak (Eastern Learning) movement in the late Chosŏn period. The league attempted to regain the sacred honor of the Tonghak movement and to rescue it from the status of religious and political heresy. The youth league actively urged the elevation of two past leaders, Ch'oe Che-u and Chŏn Pong-jun, into the realm of martyrdom. Ch'oe Che-u, the founder of the Tonghak, was persecuted by the Chosŏn dynasty as spreading heterodoxy and was executed in 1864. Chŏn Pong-jun was a leader of the 1894 Tonghak Rebellion in which peasants revolted against the Chosŏn dynasty under the leadership of the Tonghak faithful. When the rebellion was suppressed by the military intervention of Meiji Japan and Qing China, he was captured and executed in 1895.

The magazine unmistakably claimed to restore the honor of these two men. In 1922, it published a series of articles titled "The reform movement in Kap-o year [1894] as the first outcry of people." The author, Hwang Ŭi-don, stated that the founder, Ch'oe Che-u, was a great man who was equal to Jesus Christ, Gautama Buddha, and the Prophet Muhammad. He wrote that not only was his birth full of wonder but also that his entire life was sacred. In addition, he commented that the founder spread humanism and egalitarianism in Chosŏn Korea through his doctrine of "the unity of Heaven and humans" and "the equality of all humans" (Hwang Ŭi-don 1922(a), 25). Further, he shows a radical reformism in regard to the re-evaluation of the Tonghak rebellion. Hwang Ŭi-don suggested restoring the honor of Chŏn Pong-jun as a heroic leader who fought the holy war against "the aristocratic class, which is the source of injustice, oppression,

and all vice.” Ch’ŏn never failed, he said, because “his success is in spirit, and it will last forever” (Hwang Ŭi-don, 1922(b): 75). Thus, the past martyrs of the Tonghak justified social activism of Ch’ŏndogyo to eradicate “the evils of the aristocratic class.”

Born in a middle-class peasant family, Kim Ki-jŏn became a leader of the Ch’ŏndogyo youth organization and the *Kaebŏk* Publishing Company. For him, the magazine was a means of social critique. In particular, he was critical of the Korean Confucian literati and their dominance. As a quixotic dissenter of Korean Confucianism, he criticized the basic principles of Confucian ethics: “three basic ethical principles and five human relationships (*samgang oryun*).” Based on this, the Korean elite literati classified human society into the two classes of the superior and the inferior: a master and a subject, a father and a son, a husband and a wife, the old and the young, and a male and a female (Kim Ki-jŏn, 1923: 20-26). Kim Ki-jŏn also felt that social evils such as child abuse were often justified by Confucian ethics. The lesson of “*changyu yusŏ* (one should always keep a hierarchy between the old and the young),” he argued, has excused violence and abuse of children, constructing an unconditional hierarchy between the old and the young. In his opinion, Korean traditional elites misinterpreted Confucianism for their own benefit, failing to understand its genuine meaning (Kim Ki-jŏn, 1921a).

As a result, *Kaebŏk* Magazine, based on its religious and historical background, maintained a critical attitude toward the upper class. More often than not, the magazine assumed that the reading public would

support its reformist policy against social evils of the social ruling class. The case of an arranged marriage in 1923 illustrates to whom the magazine was addressed. The victim was a female teenager who was *de facto* sold to a wealthy man by her parents. According to the report, the wealthy man already had two wives and many children but still searched for a new concubine. The magazine reporter explicitly characterized the man as “a well-educated and rich gentleman who has enough influence and power to do whatever he wants in the entire city of Kaesŏng.” The magazine condemned him, but at the same time, it criticized her penniless father who felt no guilt over exchanging a daughter for opium and money. By exposing her father’s domestic violence and shameful behaviors, the magazine rejected the opportunity to excuse it as a tragedy of lower-class poverty (Ilkija, 1923: 47-48). The magazine, after briefly mentioning that the colonial police refused to intervene in the case, inspired public awareness of and support for the girl.

The colonial state was as apathetic in solving social problems as was the traditional Korean elite. The Korean Civil Code issued by the government in 1912 ordered Koreans to follow the unwritten law of so-called ‘Korean custom.’ In the article 10, it declared that “legal transaction among Koreans will be judged by their own custom, on the condition that there is a custom and that it has nothing to do with public order.” That is to say, Japanese Civil Code would be applied only to cases involving Japanese citizens. Therefore, business within a Korean family, such as marriage, divorce, and inheritance, was left outside of the court (Yi Sŭng-il, 1999: 163-164).

In the above case, the colonial police were unable to intervene due to the legality of 'Korean custom.' Based on a Japanese survey conducted from 1908 to 1910, the colonial government admitted the parental arrangement as a legal condition of marriage. "It is not rare [in Korea] that girls get married at the age of 12 and 13 and boys around 10. It is common for the arrangement to be made when children are infants. There is even a rare case in which a marriage was promised before birth" (Chōsen sōtokufu, 1912: 301-302). After 1923, the government finally took action to change the legal age of marriage for Koreans. From then on, Koreans were to follow the Japanese Civil Code, even in the cases of marriage and divorce. Nevertheless, the colonial state still remained passive in reforming Korean society at least in the 1920s (Yi Sŭng-il, 1999: 173-174).

The Ch'ōndogyo group tried to fill the void in the public sphere that was left when the state and traditional elite abandoned their leadership under the notion of 'Korean custom.' The magazine noted the need for spiritual repentance to revive communal activities. Its chief editor, Kim Ki-jōn, blamed the selfishness of the elite class for the degradation of the nation. He insisted that the elite class of literacy (*yusik*) and wealth (*yusan*) should discard their egocentric attitude of chasing individual success and advancement because Korea needed religious brotherhood instead of merciless individualism. In the magazine, Kim Ki-jōn stated:

So far, we can see many people with a distorted mind and attitude. The worst case is someone who believes that he can get better even though other people are getting worse. Worse than the worst is a person who takes

advantage of desperate people to boast of his excellence. You can find this attitude in an old-fashioned [aristocratic] master who never cares about the workers in his house, using them as his servants and nannies. ... My well-to-do fellows! When you enjoy your beautiful garden at home, you must not forget the outside world. Have you ever cared about the people working in your garden? We must live together (Kim Ki-jŏn, 1922: 17).

In this way, he encouraged the elite class to restore their leadership in public matters as an expression of spiritual brotherhood and egalitarianism. It is wrong to assume that he was inclined to use a Marxist critique of class, as he was speak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h'ŏndogyo doctrine and its religious salvation. In other words, what was important to him was to restore solidarity across the classes, inspired by religious strength. This spiritual solution, therefore, represented a unique layer of social reformism, which can be distinguished from traditional Confucian paternalism and socialism, which were about to spread in the 1920s. Considering that he was from a middle class peasant family in South P'yŏn'gan province and that the faithful of the religion were mostly from the middle and lower classes, we can assume that he represented a new voice of middle-class social reformism in the public sphere.

In addition, the Kaebyŏk Publishing Company extended its audience to children and women, who had received little attention in the book market. The company began to publish a children's magazine, *Ŏrini*, and a women's magazine, *Sinyŏsŏng*, in 1923. The chief editor of the children's magazine, Pang Chŏng-hwan, was a son-in-law of the Ch'ŏndogyo leader Son Pyŏng-hŭi. From a bankrupt merchant family, he studied with Kim

Ki-jŏn at Posŏng College (later Korea University), which was then managed by the Ch'ŏndogyo group. Unlike Kim Ki-jŏn, Pang had a chance to study in Japan from 1920 to 1923 under the sponsorship of the group (Yŏm Hŭi-kyŏng, 2008 ; Nakamura Osamu, 1999). In Tokyo, he embraced the Japanese Taishō decadent literary movement and introduced it to colonial Korea. After World War I, Taishō Japan culturally experimented with aestheticism. A group of new writers including Akutagawa Ryūnosuke began to deny previous formulations of nationalism by embracing the decadent aestheticism of *fin de siècle* Europe (Roy Starrs, 1998: 219). In children's literature, *Red Bird (Akai tori)* and *Golden Ship (Kin no fune)* appeared as new literary magazines under the banner of aestheticism (Fukuda Kiyoto, 1968: 3). Like the Taishō Japanese writers, writers such as Oscar Wilde and Maurice Maeterlinck impressed Pang Chŏng-hwan.<sup>4</sup>

However, it would be wrong to exaggerate the influence of Taishō culture and Taishō children's magazines without a proper understanding of Pang Chŏng-hwan's religious spiritualism. He echoed his colleagues at the Ch'ŏndogyo youth league, arguing that colonial Korea should be saved by spiritual repentance. His uniqueness, however, lies in his mixing of aestheticism with religion. Although he agreed with the independent value of beauty from the moral, he linked the beautiful with the young and the sacred with Heaven. In other words, he stayed within his religion. This point is well illustrated in his article, "Praise the beauty of children (*Ŏrini*

---

4 In 1922, he translated European fairy tales into Korean and published them under the title of *Gift of Love (Sarang ūi sŏnmul)* through the Kaebyŏk Publishing Company. For his translation of European novels, refer to Yŏm Hŭi-kyŏng's Ph.D. dissertation (Yŏm Hŭi-kyŏng, 2008: 30-31).

*ch'anmi*)."

A child is blessed. Although God blesses all of us, only children are most loved by him. And they want to share their immeasurable blessings with us. They are pure happiness. Everything is cheerful, lovely, and friendly to them. Mercy, equality, love, happiness, and beauty all belong to them. Their life shows the will of Heaven. They have natural talents of literature, so they can make a poem from whatever they feel. I never doubt that they have an endless and genuine source of fine art (Pang Chǒng-hwan, 1924: 66-74).

This is the reason that he created a magazine only for children, which was a surprising move in the book market. Prior to *Ŏrini*, there were several similar attempts, but in most cases, they positioned themselves as a tool of self-education. Therefore, it is striking that the genre of the children's magazine in Korea was pioneered by a group of quixotic religious youth who incorporated the Chosŏn period's religious heresy with European cultural aestheticism. Through the magazine, juvenile literary works of European writers such as Hans Christian Andersen were first introduced to Korean children.

When Pang Chǒng-hwan edited *Ŏrini*, he emphasized egalitarian messages concerning children in general, rather than boys and girls at upper-class families who were looking for educational information. The magazine published a series of songs, play scripts, and fairy tales all in Korean vernacular language. Even Chinese characters did not appear. Pang himself translated European fairy tales and wrote adventure novels until he died in 1931. His writing was consistent with the Kaebyŏk groups,

following the same trajectory of spiritual repentance and brotherhood. In the first volume of the magazine, he translated Andersen's "the little match girl" and showed his sympathy with the poor little girl who froze to death on the street on one New Year's Eve (*Örini* 1923 no.1 vol.1, 2-3). But he was not at all a realistic writer who focused on the poverty and cruelty of the modern world but rather a religious one who was impressed by the happy ending of the little girl whom, at the end of the story, was saved by God.

In addition, his adventure novels for children contained implied messages of social brotherhood. According to Pang Chŏng-hwan, boys and girls should learn social cooperation, not 'self-help.' This is well illustrated in his short story, "*Secrets of the Circle of Seventy-seven*," Printed in the magazine from April 1926 to December 1927. The protagonist is an orphaned Korean boy who grew up with his sister in a Japanese circus. One day, when the circus is in Seoul, the boy meets a man who claims that he is their uncle. The man states that the boy and his sister were abducted by the circus when they were infants and that their mother died from the shock. Another Korean boy appears in the story, and voluntarily steps forward to help the boy and girl run away from the Japanese circus. However, although they manage to escape from the circus, the sister is caught again. And, the circus reports it to the colonial police, and the uncle is imprisoned as a kidnapper. Meanwhile, the circus leaves with the girl to go Manchuria, and two Korean boys chase them up to Mukden. The boy's adventure ends with their uncovering all the secret crimes of the circus; the Japanese had been engaged in illegal drug dealing and human

trafficking of Korean girls, moving back and forth between Manchuria, Korea, and Japan.

In this adventure novel, it is easy to see that Pang Chŏng-hwan intentionally contrasts the brotherhood of Koreans with the hostility of foreigners. First, the colonial police not only overlook the criminal activities of the circus, but they also imprison the uncle. He describes in detail how thoroughly the police chase the Korean boy and his uncle. This was his expression of criticism of the colonial police who did not stand with the Koreans. As a consequence of this criticism, the colonial police quickly prohibited his next adventure novel from being printed in the magazine. Moreover, Pang's story conclusion contains the implication that Koreans should help one another in the face of hostile foreigners. At the end of the story, the Korean Residents' Association of Mukden helps the two boys and easily catches the Japanese gangsters who arm themselves with guns. Additionally, the two boys and the girl happily return to Korea. While the story may lack realistic and literary value, the author creates a world in which boys engage in adventure for brotherly sacrifice, not for personal aggrandizement.

To conclude, the Kaebyŏk Publishing Company and its magazines expressed the Ch'ŏndgyo social reformism in the 1920s' Korean book market. Its leaders, Kim Ki-jŏn and Pang Chŏng-hwan, represented a new type of journalistic writer who was hostile to the traditional literary elite and Confucian culture. The most important basis of the magazines was the Ch'ŏndogyo group, which claimed lineage from the Tonghak, the

heterodoxy of Chosŏn Korea. This radical heresy inspired religious youth to criticize traditional elite and upper-class families as a source of social evils. Unlike the Tonghak peasants who depended on their arms in 1894, the Ch'ŏndogyo youth used the magazines as their weapon of social reform. Indeed, the book market was influenced by the appearance of *Kaebyoŏk*, and *Ŏrini*, which identified themselves as social journalism against selfish individuals. Nonetheless, we should not overemphasize the influence of these magazines because they were still limited within the boundaries of their affiliated religious networks. Private publishers, such as Pangmun sŏgwan and Imundang, survived throughout the 1920s, but the KPC eventually withered under financial pressure and state censorship. The important point is that the KPC and its magazines ended the long silence of public discourse in the book market. The response appeared gradually, but steadily, from the young generation of students and intellectuals from the mid-1920s on.

#### 4. Conclusion

Between 1910 and the early 1920s, the Korean book market was influenced by the grand political events of Japan's annexation of Korea and the March First Movement. Many elite Korean patriots chose to be political refugees abroad, exploring ways to find independence of Korea, in Shanghai, Manchuria, and the United States. When the Japanese Empire effectively disconnected Korea from the former patriots who chose to resist from abroad, the colonial book industry lost a significant number of writers who had been leaders in the public sphere. In addition, the colonial police

eliminated any possibility of printing public discourse by auditing the Korean publishing industry through censorship.

If this was ‘the stick,’ the colonial government provided ‘the carrot’: the colonial education system which allowed the possibility of personal advancement within the imperial rule. In the 1910s and 1920s, this vision spread to upper and middle-class families who chose a politically safe mode of ‘self-help.’ Regardless of the fortune of the nation, individuals could change their social status through education. Because the empire monopolized the production of the knowledge in the fields of geography, history, and science, Korean readers were forced to acknowledge it as “correct answers.” If they failed to reproduce this knowledge, they were not able to pass competitive entrance exams and would lose their chance for social mobility. The level of engagement with colonial institutions that “self-help” entailed thus engendered a steady trend toward social fragmentation in the 1910s and 1920s.

In contrast, religious groups, which had maintained their public influence, opposed the absence of a public discourse in the book market. Along with Protestant Christians, the Ch’ōndogyo group became the most vibrant dissenter of colonial Korea after the March First Movement. Their consciousness of the historical legacy from the Tonghak movement motivated them to develop a new social movement aimed at attacking social rule of traditional elite class. Unlike the physical violence of the Tonghak Rebellion, however, this time, they used print instead of weapons. The KPC was founded in such a unique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within the religious doctrine of egalitarian humanism. It is not surprising, therefore, that the KPC reoriented the concept of the book as a tool of social reform.

Finally, the history of book market of the 1910s and 1920s directs us to a reexamination of previous assumptions concerning colonial censorship in Korea. Scholars have tended to emphasize the thoroughness of the censorship that inhibited the 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Nonetheless, censorship itself did not contain the proliferation of many varieties of printed material: novels, study-aids, *Kaebŏk*, and *Ŏrini*. The colonial police had obvious guidelines, but private publishing companies still managed to produce books that could aid individualistic pursuits or encourage social reform. As mentioned in this paper, private and religious publishers constructed their own ways of persuading Korean readers while also trying to avoid the colonial police. After the March First Movement, the colonial state briefly remained in the background instead of directly intervening in publishing. Meanwhile, a new group of social reformers from non-elite peasant families struggled to restore their own public sphere which had been abandoned by the elite class and oppressed by the colonial state.

## Glossary

〈Korean〉

개벽(開闢)

Kaebŏk

개성(開城)

Kaesŏng

경남일보(慶南日報)	Kyŏngnam Ilbo
국가(國家)	kukka
국가학강령(國家學綱領)	kukkahak kangnyŏng
국민(國民)	kungmin
국민수지(國民須知)	kungmin suji
국민자유진보론(國民自由進步論)	kungmin chayu chinboron
기생집(妓生집)	kisaengjip
김갑제(金甲濟)	Kim Kap-che
김기전(金起田)	Kim Ki-jŏn
노익형(盧益亨)	Noh Ik-hyŏng
동(洞)	tong
동아일보(東亞日報)	Tonga Ilbo
동학(東學)	Tonghak
면(面)	myŏn
민족경쟁론(民族競爭論)	minjok kyŏngjaengnon
박달성(朴達成)	Pak Tal-sŏng
박문서관(博文書館)	Pangmun sŏgwan
방정환(方定煥)	Pang Chŏng-hwan
보성사(普成社)	Posŏngsa
보통학교(普通學校)	po'tong hakkyo
사랑의 선물	Sa'rang ūi sŏnmul
사서오경(四書五經)	sasŏ ogyŏng
삼강오륜(三綱五倫)	samgang oryun
삼천리(三千里)	Samch'ŏlli
서당(書堂)	sŏdang
소년회(少年會)	sonyŏnhoe
소학(少學)	Sohak
손병희(孫秉熙)	Son Pyŏng-hŭi
수원(水原)	Suwŏn
신여성(新女性)	Sin'yŏsŏng
애국(愛國)	aeguk
애국주의(愛國主義)	aegukchu'i
양반(兩班)	yangban
어린이	Ŏrini
어린이찬미(어린이讚美)	Ŏrini ch'anmi

유산(有産)	yusan
유식(有識)	yusik
이문당(以文堂)	Imundang
장유유서(長幼有序)	changyu yusŏ
전봉준(全琫準)	Chŏn Pong-jun
제국주의(帝國主義)	chegukchuŭi
제암리(提巖里)	Cheam-ni
조선야소교서회(朝鮮耶蘇敎書會)	Chosŏn yasogyo sŏhoe
조선일보(朝鮮日報)	Chosŏn Ilbo
천도교(天道敎)	Ch'ŏndogyo
천도교청년당(天道敎靑年黨)	Ch'ŏndogyo ch'ŏngnyŏndang
천도교청년회(天道敎靑年會)	Ch'ŏndogyo ch'ŏngnyŏnhoe
최제우(崔濟愚)	Ch'oe Che-u
춘향전(春香傳)	Ch'unhyang chŏn
탁류(濁流)	T'angnyu
향교(鄕校)	hyanggyo
효경(孝經)	Hyogyŏng

<Japanese>

赤い鳥	Akai tori
明石元二郎	Akashi Motojirŏ
文化政治	bunka seiji
下流階級	karyŭ kaikyŭ
金の船	Kin no fune
立身出世	risshin shusse
大正	Taishŏ
時実秋穂	Tokizane Akiho
柳田文治郎	Yanagida Bunjirŏ
善生永助	Zenshŏ Eisuke

References

An, Ch'un-gŭn (1987) *Hanguk ch'ulpan munhwasa taeyo*, Seoul: Ch'ŏngrim ch'ulpan.

- Ch'ae, Man-sik (1987) *Ch'ae Man-sik chŏnjip* vol.2 T'angnyu, Seoul: Ch'angjosa.
- Cho, Ch'ansŏk (1984) "1920 nyŏndae Hanguk'ŭi ch'ŏngnyŏn undong," *Inch'ŏn kyoyukdaehaggyo nonmunjip* vol.18 no.2, 233-258.
- Choe, Su-il (2008) *Kaebŏk yŏngu*, Seoul: Somyŏng chulpansa.
- Choe, Wŏn-sik (1982) "Changhanmong kwa wian ũrosŏŭi munhak," *Minjok munhak ũ nonri*, Seoul: Ch'angjak kwa bipyŏng, 68-94.
- Chŏsen government-general (1910) *Chŏsen sŏtokufu kanpŏ* no.69, Seoul: Chŏsen sŏtokufu insatsukyoku, 19 December, 83-84.
- Chŏsen sŏtokufu (1912) *Kanshŭ chŏsha hŏkokusho*, Seoul: Chŏsen sŏtokufu, 1912.
- Fukuda, Kiyoto (1968) "Akai Tori sŏron" in *Kaisetsu Akai Tori fukkanhan bessatsu ichi*, Tokyo: Nihon kindai bungakukan.
- Habermas, Jürgen (1991)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Cambridge: The MIT Press.
- Hwang, Kyung Moon (2004) *Beyond Birth: Social Status in the Emergence of Modern Kore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 Hwang, Ũi-don (1922a) "Minjungŏk kyuho ũi cheilsŏng'in kap'oŭi hyŏksin undong" *Kaebŏk* no.22, April 1922, 17-26.
- Hwang, Ũi-don (1922b) "Minjungŏk kyuho ũi cheilsŏng'in kap'oŭi hyŏksin undong sok" *Kaebŏk* no.23, May 1922, 73-75.
- Ilkija (1923) "Kagonhal kŭmgwŏn, ch'ingwŏnŭi wiryŏk," *Kaebŏk* vol.36, June 1923, 47-48.
- Im, Kyŏng-sŏk (2007) *Kaebŏk ae pich'in singminji Choseŏn ũi ŏlgul*, Seoul: Mosinŭn saramdŭl.
- Kim, Ki-jŏn (1921a) "Uriŭi sahoeŏk sŏngkyŏk'ŭi ilburŭl koch'al hayassŏ tongp'o hyŏngjeŭi chayu ch'ŏdanŭl ch'okham," *Kaebŏk* vol.16, October 1921, 2-17.
- Kim, Ki-jŏn (1921b) "Uri ũi chŏngjungdonggwan," *Kaebŏk* no.16, October 1921, 56-62.
- Kim, Ki-jŏn (1922) "Mŏnjŏ yusik yusanjach'ŭgŭrobotŏ pansŏng hara," *Kaebŏk* no.24, June 1922, 4-18.
- Kim, Ki-jŏn (1923) "Kaebŏk undong kwa hapch'idoenŭn chosŏn ũi sonyŏn undong," *Kaebŏk* vol.35, May 1923, 20-26.
- Kim, Pu-ja (2005) *Shokuminchiki Chŏsen no kyŏiku to jendā*, Yokohama: Seori Shobŏ.
- Kyŏnggi Munhwa Chaedan (2001) *Ilcheha Kyŏnggi-do chiyŏk chonggyogyŏe ũi minjok munhwa undong*, Suwŏn: Kyŏnggi Munhwa Chaedan.
- O, Tŏk-yŏng (1927) *Pot'ong hakkyo chŏn'gwa mobŏnjŏnghae*, Seoul: Imundang.
- Nakamura, Osamu (1999) "Pang Chŏng-hwan kenkyū josetsu" in *Seikyū gakujyutsu*

- ronshū* 14, 77-115.
- Paek, Un-gwan and Pu Kil-man (1992) *Han'guk ch'ulp'an munhwa pyŏnch'ŏnsa : tosŏ yut'ong ŭi sŏngnip kwa palchŏn*, Seoul: T'arae.
- Pang, Chŏng-hwan (1924) "Ŏrini ch'anmi," *Sinyŏsŏng*, vol.2 no.6, 1924, 66-74.
- Pak, Tal-sŏng (1922) "Kyŏngsŏng hyŏngiedŭl'ege tan'wŏn hapnida," *Kaeb'yŏk* vol.21, March 1922, 43-52.
- Park, Yŏngun (1912) *Kongsan myŏngwŏl*, Seoul: Pangmun sŏgwan.
- Robinson, Michael (1988) *Cultural Nationalism in Colonial Korea, 1920-1925*,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Sano, Michio (1993) *Kindai Nihon no kyōiku to Chōsen*, Tokyo: Shakai Hyōronsha.
- Sin, Yong-ha (1984) *3.1 tongnip undong ŭi sahoesa*, Seoul: Hyŏnamsa.
- Son, In-su (1992) *Han'guk kŭndae kyoyuksa*, Seoul: Yŏnse Taehakkyo Ch'ulp'anbu.
- Sŏng, Chu-hyŏn (2009) *Ch'ŏndogyo ch'ŏngnyŏndang yŏngu*, Hanyang University Ph.D. dissertation.
- Starrs, Roy (1998) "Writing the National Narrative," *Japan's Competing Modernities: Issues in Culture and Democracy 1900-1930*, edited by Sharon A. Minichiello,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6-227.
- Tokizane, Akiho (1925) "Kyōikusha heno kibō," *Bunkyo no Chōsen*, vol.3, 2-11.
- Tsurumi, Patricia (1977) *Japanese Colonial Education in Taiwan, 1895-1945*,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Unknown (1914) *Chŏlch'ŏ bongsaeng*, Seoul: Pangmun sŏgwan.
- Wells, Kenneth M. (1990) *New God, New Nation: Protestants and Self-Reconstruction Nationalism in Korea, 1896-1937*,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Yanagida, Bunjirō (1924) *Chōsen kankōshiritsu kōtōhutsugakkō shihangakkō jitsugyōgakkō nyugaku shikenmondai mohankaitō*, Seoul: Imundang.
- Yi, Chŏng-ho (1923) "Ŏ'nŭlkkaji," *Ŏrini* vol.1 no.1, March 1923, 1.
- Yi, Chung-han et al (2001) *Uri ch'ulp'an 100-nyŏn*, Seoul: Hyŏnamsa.
- Yi, Sŭng-il (1999) "Ilchesidae ch'injokgwansŭp ŭi pyŏnhwa wa Chosŏn minsaryŏng kaejŏng ae kwanhan yŏngu," *Hangukhak nonjip*, vol.33, 161-197.
- Yŏm, Hŭi-kyŏng (2008) *Sopa Pang Chŏng-hwan yŏn'gu*, Inha University Ph.D. dissertation.
- Zaret, David (1994) "Religion, Science, and Printing in the Public Sphere in Seventeenth-Century England," in Craig Calhoun (ed.) *Habermas and the Public Sphere*, Cambridge: The MIT Press, 212-235.
- Zenshō, Eisuke (1929) *Seikatsu jŏtai chŏsha*, vol.1, Seoul: Chŏsen sŏtokufu.

# 재일동포사회와 한국 4·19혁명

- 한국민단계 학생청년운동을 중심으로

정 아 영

입명관대학

## 1. 머리말

오는 2010년 한국현대사에 있어서의 거대한 전환점이었던 1960년 4·19학생혁명으로부터 50년째를 맞이한다.

“미완의 혁명”이라고 자주 불리는 4·19혁명은 대한민국 성립 후 처음으로 사회의 민주화와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의 근원적 과제를 실천적 사회운동을 통해서 정면에서 제기한 점으로 민족사에 큰 발자국을 남겼다.

그러나 4월혁명은 한국 국내역사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었다. 1960년 당시 일본사회에서 태어나 자란 재일한국인 2세는 재일동포 학생세대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특히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재일한국민단(당시 재일한국거류민단) 계열 학생청년에게 있어서 이승만 독재정권을 넘어뜨린 한국학생 청년들의 데모는 큰 충격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 학생청년과 비교해 재일동포로서의 명확한 이념성과 전망성이 결여된다고 보였던 민단계 학생청년운동이었지만 그들은 4월혁명을 계기로 종래 우익 반공적 활동이 중심이었던 재일한국학생동맹(한학동)과 재일 한국청년동맹(한청동)

을 재조직해 한국학생운동에 적극적인 공감과 연대를 표시함과 동시에 한국 군사정권에 대한 비판, 너무도 일본정권에 타협적인 한일협정 반대운동, 재일 동포 권익옹호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계속적으로 전개해 민단내부뿐만 아니라 재일동포사회 전체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다.

이러한 학생청년들의 변화에 영향 받아 민단 내부에도 민주적인 지향을 가진 집단이 형성되어 민단사회는 격동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민단계 학생청년들은 그들의 기본이념을 단순한 반공주의나 북한식 사회주의 사상이아니라 민주통일을 지향한 “반봉건, 반독재, 반매관, 반외세(서울대 4·19 제2선언)”를 기반으로 4월혁명 정신에 두었다. 이것은 민단계 학생청년운동의 큰 전환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부터 4월혁명까지 불과 12년이라 말할 것도 없이 그 사이에 전쟁에 의한 철저한 반공적 사상 정화도 경험했다. 최장집은 보통선거라는 민주주의 제도가 최초로 수립되고 나서 10여 년 사이에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정권을 붕괴시킨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고 전세계에 없다고 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급속하고 압축적인 변화”를 지적했다(최장집, 1996: 15). 하지만 1960년에 갑자기 학생들이 고도로 정치적 의식화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대학교육기관은 1945년에 31개 학교였지만 1960년에는 62개 학교로 증가하고 고등학교와 학생 수도 1945년 19개 학교 7,819명에서 1960년 640개 학교 27만 3,000명까지 증가해, 중등교육은 이미 대중화 되어 있었다.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1960년 당시 정기간행물은 1,500 종류를 넘고 있었다고 한다(文京洙, 2005: 87).

이승만 독재정권시대 학생은 학도호국단으로 조직되어 반공/반일 쫓기대회나 북진통일쫓기대회와 데모에 동원되었다. 정부에 있어 학생은 가장 쉽게 동원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서중석, 2007: 51).

그러나 거둬지는 부정선거나 진보당사건과 같은 정치 불의를 목격한 학생

층에 정치비판의 마그마가 축적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1954년 경기도여주농업고교, 금산사범학교, 1955년 부산수산대학, 서울낙양중고교, 성심여자중고교 등에서 학생들이 학비가격인상반대나 학원영리화반대 등을 주장하고 파업을 실시했다(고준석, 1980: 145). 남북분단에 의해 한국사회 내에서 존재감이 희박화되었던 진보적 민족주의는 반공의 테두리하에 있다 해도 학생청년층에 건재해서 그것이 4월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재일한국인 학생청년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1950년대까지는 1세대 재일 학생이 많고 그들은 한국정치정세에 대해 비교적 민감했지만 생활지역인 일본의 사회조건으로 제약을 받아 한국청년학생과 차이가 확대되는 상황에 고민하고 있었다. 하물며 일본에서 태어난 2세대 학생청년에게 독재정치 아래서 빈곤이 만연한 한국사회는 자기들에게는 먼 존재이며 마이너스 이미지밖에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4월혁명을 계기로 2세대 중심의 민단계 학생청년은 한국에 있어서의 진보적 민족주의에 촉발되어 한국과 민단사회의 민주주의 변혁을 목표로 하여 혼신적으로 싸우기 시작했던 것이다. 새로운 민단계 학생청년운동은 한국군사정권이나 민단보수세력과 날카롭게 대립하여 자주 억압당했지만 한편으로 조총련계 학생청년운동과도 분명히 구별을 하며 종래의 냉전적 좌우대립 사고로부터 벗어난 신선한 재일민족운동을 목표로 했다.

문경수는 조총련 성립 후의 재일조선인 사회의 골조를 재일판 “1955년 체제”<sup>1</sup>라고 규정하면서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이 정점에 달한 1955년부터 1970년대 초기까지의 재일사회는 분명하게 해방 후 60년 동안 재일조선인의 행적 속에서 그 이전과도 이후와도 다른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55년 체제’의 현실과 접속해 197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중개가 되는 20년이며 재일조선인에게 있어서의 “지금”을 되찾기 위해서 반드시 재검토할 필요

---

1 일본 정계에서 1955년 이후 여당 자유민주당과 야당 사회당이 2대정당으로서 의회정치를 주도한 시기의 정치구도임.

가 있는 하나의 “시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한다(文京洙, 2007: 178).

재일동포사회에서는 이미 2세대가 일선으로부터 퇴장을 시작해 3, 4세대가 사회중심층을 형성하고 있는 오늘, 재일동포사의 변혁점이었던 1960년 4·19혁명을 전후하는 시대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해방 초기 재일조선인 운동사에 대해서는 최근에 들어 활발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의 대상은 당시 압도적으로 주류였던 재일조선인연맹이나 조총련 등 좌파계열운동에 한정되어 있어 우파 민단체 청년학생단체의 운동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적다.

본 논문에서는 1950, 1960년대의 재일조선인 사회의 상황을 개괄하고 재일 1세대에서 2세대로 이행하고 있던 재일학생청년운동이 4·19혁명에 의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민단체 사회 속에 잠재해 있던 진보적 민족주의 지향이 1950년대부터 1960년대 당시 어떠한 변모를 이루어 갔는지를 당시의 자료를 근거로 기본적으로 검토한다.<sup>2</sup>

## 2. 1950-1960년대의 재일동포 사회상황

### 2.1. 전후 일본의 사회변용

한반도에서 비참한 내전이 진행되고 있던 1951년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패전국 일본과의 평화조약이 체결되어 일본의 주권 회복이 결정되었다.

---

2 얼마 안 되는 연구자료로 리순애 『2세의 기원과 「전후사상」』(2000, 平凡社)이 있다. 1960년대에 재일청년학생운동의 재검토를 테마로 하여 재일민족운동의 사상적 축적의 부족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은 흥미롭지만, 평화통일을 외치며 급진적 운동을 전개해 재일청년학생운동을 혼란시킨 후 단기간으로 좌우로 분열 소멸한 한국민족자주통일청년동맹(한민자청)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여기서 민단체 청년학생 운동의 전체성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또 김희로공판대책위원회에 끝까지 관계한 프랑스문학자 스즈키 미치히코의 회상기 『월경 때 1960년대와 재일』(2007, 集英社)은 일본인의 시선으로부터 민족차별에 대한 일본사회의 책임성과 김희로의 주장에 상징되는 “재일의 주체성”을 논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미군의 일본주둔을 인정하는 일미안전 보장조약도 체결되어 일본은 미국에 의한 압도적인 정치적 군사적 보호를 받으면서 경제부흥을 본격화시켰다. 한국전쟁으로 생긴 군사수요의 혜택으로 일본경제의 성장노선이 궤도에 올라 일본정부가 “이미 전후는 끝났다(일본 경제기획청, 『경제백서』, 1956)”라고 선언했을 무렵 일본정계에서는 강대한 보수정당이 영속적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이른바 ‘1955년 체제’가 성립되었다.

경제성장에 의해서 급증한 일본인 중산시민층은 일미안전보장조약을 풍부한 경제생활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불길한 군사조약이라 보고 1960년 조약개정 시에는 안보조약반대를 외치는 10만 명 학생시민 시위대가 국회를 둘러쌌다. 그러나 조약개정 반대운동이 실패한 직후에 보수정권이 경제성장의 가속화와 국민소득 2배 증정책을 발표함에 의해 일본여론은 바로 보수화했다.

그동안 일본의 GNP는 1950년 대략 3.9조 엔에서 1960년 16.7조 엔, 1970년 75.2조 엔까지 20배 가깝게 증가해 1968년에 미국, 소련 다음으로 세계 제 3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가정전자제품의 세대 보급율이 거의 90% 전후가 된 것(일본 총무성통계국) 이외에도 단기대학을 포함한 대학진학율이 1960년 10.3%에서 1970년 23.6%로 상승해 “대학교육의 대중화”가 진행되거나 “핵가족”의 출현으로 상징되는 가족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등 일본사회는 국가경제에서부터 시민생활에 이르기까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변혁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변혁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전후 일본의 기술혁신은 노동을 평균화해 대량의 청년노동자를 받아들이면서 대량소비사회를 실현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의 협동적 성격과 협동노동조직은 없어져 노동자는 개인적 목적 충족을 목표로 하는 종업원, 도시형시민으로 재편되었다. 노동의 보편적 가치를 상실하고 상품경제 속에 고립해 표류하는 종업원·시민은 기업으로부터 ‘차립’하지 못하고 자본은 생산과정과 시민생활을 일관해서 계속 지배했다고 말할 수 있다(竹内静子, 1982: 184-186).

1960년을 분수령으로 하는 일본사회의 급속한 보수화 우익화는 이러한 사회 변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 2.2. 1950-1960년대 재일사회의 상황과 변화

그러나 이와 같은 일본사회에 생활하면서 1960년대 재일동포 생활은 성장, 변용하는 일본사회의 현실로부터 놀라울 정도로 괴리한 상황에 있었다.

박재일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시기 일본에서 조선인노동자는 광공업, 건축업 특히, 육체노동이나 비숙련노동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이 패전 직후 전쟁터나 식민지에서의 귀한자 유입에 따르는 과잉인원에 의해 재일조선인은 이러한 직장으로부터 일제히 추방되어 버렸다. 1940년과 1952년에 재일조선인 직업분포를 비교하면 광공업, 건축업 취업자는 47.6% 감소한 한편, 단일고용의 육체노동일용직, 가사일용직, 실업자가 48.9% 증가했다. 실업자의 증가는 특히 심각해서 1952년 일본적십자의 조사에 의하면 재일조선인 직업인구 안에서 60%가 사실상 실업자라고 보여 지는 상태에 빠졌다(朴在日, 1957: 64-74). 1955년 생활보호 적용율은 일본인이 총인구의 2.3%였는데 조선인은 21.4%였다(일본후생성, 『후생백서』).

박재일은 일본의 전후 부흥이 궤도에 올라 고도성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던 1950년대 중반기에 “오늘 조선인의 실업은 부분적 또는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조선인 전반의 반영구적인 실업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재일조선인 직업현상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더 한층 살아갈 수 없는 조건하에 있어,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의 재일조선인 생활의 근본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보여 진다(朴在日, 1957: 71).”<sup>3</sup>라고 장래의 재일동포세대의 생활에 대해서 지극히 비관적인 예

---

3 다만 박재일저작이 간행된 시기를 보면 재일동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귀환을 요구하는 운동이 있었던 시기에 재일동포의 곤궁한 생활고를 분명히 해 귀환 운동의 근거를

측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에 시작한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은 재일동포사회에도 간접적이고 또 약간의 타임랙(time lag)을 두면서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직업별 인원수로부터 그 변화를 보자. 1954년부터 1969년을 비교하면 한국·조선국적의 외국인등록 수는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 조선국적 외국인 등록자 수(명)

1954년	1959년	1964년	1969년
556,239	607,533	578,572	603,712

(자료) 법무성 입국관리국 「재류외국인통계」.

1964년에 인구가 줄어든 것은 1959년에 시작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귀환사업에 의한다. 귀환자는 1967년 말까지 대략 8만 8천 명에 이르렀다.

동포 직업분포에 대해서는 1952년의 일본적십자에 의한 조사와 그것을 수정한 박재일에 의한 통계가 존재하는데 후자를 보면 유직자 19만 명 중에 일용직노동자 35,558명, 상업 일반 31,186명, 공업 24,573명 등이다. 그러나 최다직업은 “그 외 직업” 46,084명이고 박재일에 의하면 여기에 일용직노동자와 실업자 41,732명을 더한 223,404명(유직자의 52.4%)이 현실적인 실업자 수로 추정된다.

그리고 일본법무성 입국관리국의 통계에 의한 1959년과 1969년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기업경영자와 관리직을 나타내는 ‘관리직직업종사자’가 1959년 1,200명에서 1969년 4,732명으로, 관리직 이외의 회사원인 ‘사무종사자’가 7,005명에서 14,530명으로, 자동차 운전기사를 나타내는 ‘운수통신종사자’가

---

보강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인용한 기술은 그러한 의도로 간주할 수 있다.

8,803명에서 13,005명으로, 소매점주/점원, 음식점주, 부동산업을 나타내는 ‘판매종사자’ 27,214명에서 31,239명으로, 의사·간호사를 나타내는 ‘의료보건 기술자’가 370명에서 543명으로 각각 증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종래부터 재일동포사회에 많았던 빠칭코(pachinko) 등의 오락 풍속산업이나 음식점이 가세해 일본 내의 대규모 공공투자나 대기업의 설비투자의 증가에 따라 토건업, 기계·금속·플라스틱의 제조가공업,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영업에도 불안정하면서 일정한 이익이 분배되게 되어, 그 대부분은 소규모 영세경영이었다고 해도 동포의 고용증가에도 기여하고 있었다. 또한, ‘의료보건 기술자’의 증가도 일정한 사회진출을 증명한다.

민단계 조총련계의 금융기관이 많이 설립되게 된 것도 요즘에 있어, 민단계의 한국신용조합(한국상은)은 1960년에 점포 수가 9개인 것이 1969년에는 28개로, 조총련계의 조선신용조합(조은)은 같은 해 1960년 점포 수 32개가 1969년에는 94개로 증가하고 있었다. 조은의 경우, 1960년의 예금고가 50억 엔 미만이었지만 1970년에는 1,000억 엔을 넘고 있었다(김철왕 1995: 124).

이것은 재일사회가 1950년대의 빈곤의 수렁(늪)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2.3. 재일동포 학생의 사회조건

그러나 1960년대의 경제적인 상황은 약간 개선되었다고 해도 재일한국 조선인의 일본사회에의 진출, 특히 학생청년층의 일본기업에의 취직에 관해서는 1950년대와 거의 변화가 없었던 시대이기도 하다.

1970년에 관동지방의 대규모 회사(자본금 30억 엔 이상)를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 설문조사에 의하면, 회답이 있던 106개 회사 가운데, 기업의 채용 방침으로 입사지망자가 재일조선인이면 “문제 삼는다”가 41.5%, “문제 삼지만 본인 나름”이 37.7%로 합계 79%였다. “본인 나름”은 일본국적에의 귀화, 통칭

명(일본명)의 사용여하를 의미한다(神奈川県自治総合センター, 1984: 76). “히타치 취직차별” 소송<sup>4</sup>은 1970년에 시작했지만 국적을 이유로 재일한국 조선인을 기업채용으로부터 차단(shutout) 또는 폐쇄하는 사태는 1980년대 초반까지 계속 되었다. 일본의 대기업이 정주외국인에게 채용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였다. 1960년 전후 일부의 기술계 전문직을 제외하고 일본 기업에의 취직은 거의 불가능했다.

세대구성으로 보면, 재일한국 조선인의 총인구 중 일본태생의 사람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시기는 1950년대 초반이며, 1964년에는 이미 68%에 이르고 있었다. 1964년의 재일동포 인구를 5세 계급별로 구분하면 최다 인구는 남녀 모두 10세부터 14세의 부분이며, 그다음이 15세부터 19세의 부분이다(李瑜煥, 1971: 384-387). 그들은 말하자면 ‘재일판 베이비부머(baby boomer)’이며 1960년대 후반에는 대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층이다.

1964년의 재일동포 인구구성에서는 10세부터 14세까지 구분의 수가 중심이고 이하의 연령층은 감소로 나타난다. 재일사회에서도 출생을 감소현상(少子化)이 시작되고 있어 이후 민족전통의 대가족제에서 이탈한 핵가족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표 2〉 한국적·조선국적자 수 비율추이

연도	조선적(朝鮮籍)		한국적(韓國籍)	
	인구	%	인구	%
1950	467,470	85.8	77,433	14.2
1952	413,122	77.2	121,943	22.8
1954	421,078	75.7	135,161	24.3
1956	428,956	74.6	146,331	25.4
1958	440,419	72.1	170,666	27.9
1960	401,959	69.2	179,298	30.8

4 재일동포2세 박중석은 고등학교 졸업 후 1970년 유명기업인 히타치제작소 입사시험을 일본 명으로 보고, 합격통지를 받았다가 국적이 한국이란 이유로 나중에 회사로부터 취소당했다. 1971년 패소, 1974년 승소했다.

1962	370,186	65.0	199,174	35.0
1964	350,173	60.5	228,372	39.5
1966	331,667	56.7	253,611	43.4
1968	308,525	51.6	289,551	48.4
1970	282,813	46.0	331,389	54.0

(자료) 일본법무성.

재일동포 중에 있어서 조선국적 한국국적 보유자의 비율은 <표 2>로 나타났다. 한국전쟁이 시작된 당시 한국국적 보유자는 불과 15%이며 1960년이 되어 간신히 30%에 이르는 상황이었다. 한국국적 보유자 수가 조선국적 보유자 수를 상회한 이유는 한일협정(1965년)에 의해서 한국국적 보유자만을 대상으로 일본영주권 부여가 결정된 것이 컸다. 한국국적 보유자가 조선국적 보유자 수를 능가한 1970년대 이후도 실제로 한국국적을 가지면서 조총련활동에 참여하는 동포는 적지 않았다. 대한민국을 조국이라고 인식하는 민단계 재일동포 청년운동은 조총련계에 비해 압도적으로 취약한 기반밖에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재일동포의 대학진학 상황은 어떠했을까? 다음의 표는 도노무라 마사루의 문헌에서 인용한 것이다.

<표 3> 15-17세 인구에 차지하는 고교생의 비율 추이

연도	재일조선인	일본인
1956	28.4%	50.6%
1960	27.0%	59.4%
1965	51.5%	63.7%
1970	65.1%	82.5%

(자료) 外村大, 2004: 466.

재일동포 사회의 고학력화가 착실하게 진행되었다고 해도 일본인의 고교 대학 진학율에 비해 분명하게 뒤져 있어 1960년 당시 재일동포 청년 속에서

대학 진학할 수 있던 사람은 지극히 소수였다. 일본에서 “대학교육의 대중화”라는 말이 등장하는 시기는 1960년대 중반 이후지만 재일동포사회에서는 일본인보다 15년 늦게 “대학교육 대중화”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또한 재일민족학교는 조총련계/민단계 두 가지로 갈라졌는데 조총련계 학교수가 민단계를 압도해 1950년대 후반부터 조총련계 초중고교는 약 100개 학교에 비해 민단계 초중고교는 4개 학교에 지나지 않았다. 조총련계 민단계 쌍방을 합계한 민족학교 재학생 수는 1960년 4만 8천 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로 변하지만 취학연령에 가까운 5세부터 19세까지의 재일동포 인구는 1960년 약 20만 명이었으므로 재일동포 어린이의 대략 4명에 1명은 민족교육을 받고 있던 것이 된다(2009년 시점에서는 10%로 내려가고 있다).

재일한국 조선인사회는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의 여파를 받아 1950년대의 극한의 빈곤상황에서 벗어나 일정도의 풍부함을 향수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사회 특히 기업집단은 재일한국 조선인이 자신의 기업구성원이 되는 것을 엄격히 봉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일한국 조선인 청년은 아무리 대학교육을 수료해도 졸업 후의 진로는 친인척이 경영하는 자영업에 참가할지 동포계 영세기업에 취직할지 지극히 범위가 한정된 상황에 있었다.

1960년대 일본의 시민사회의 변용과 비교하면, 재일사회의 변용은 대량 소비문화의 확대, 인구유동화에 따른 한국조선인 밀집지역의 축소 및 핵가족화의 개시, 대가족주의적 유대=넓은 관습으로부터의 해방, 고학력화의 진행이라는 부분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사회적 위치 또는 입장이 일본경제의 주변부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재일동포 청년학생의 사회생활은 일본인 경우와 큰 차이가 있었다.

여하튼 1960년 당시의 재일한국 조선인의 젊은이들은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의 영향하에 있으면서 아직도 일본사회의 핵심적 부분에 들어가는 것을 계속 거절당하고, 게다가 한반도예의 귀국은 점차 현실성을 잃기 시작하는 겹겹의 딜레마 속에서 생활하면서 인생의 장래를 전망해야 했던 것이다.

### 3. 재일한국인 학생청년과 4·19혁명

#### 3.1. 민단체 학생청년운동의 창생기와 진보적민족주의

1967년 4월 18일 발행 『한국학생신문』(재일한국학생동맹 기관지)은 「한학동소사(小史)」를 게재해 그 안에서 1949년 한국학생 동맹(한학동)의 결성을 “형식적 탄생”이라고 해, 그 당시 한학동은 이승만 독재정치에 영합해서 학생에 의한 민주적 조직이란 면은 거의 보이지 않고 평가에 적합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하나도 없었다고 단언하고 있다.

재일한국청년동맹(한청동)의 자료도 1950년대의 활동에 관해서 거의 다루지 않았다. 민단체 청년학생운동 창생기를 살펴보면, 해방 직후 일본에서는 조선인에 의한 자주적 민족조직이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해 1945년 10월 재일조선인연맹(조련)이 결성되었다. 조련은 당초 모든 재일동포 결집을 목표로 했지만 일본공산당에 소속한 조선인당원 등 좌파계가 주도권을 잡게 되자 우파적민족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친일파 등은 이탈해 1946년 10월 비조련의 여러파를 규합해 재일조선거류민단(후에 한국거류민단, 한국민단으로 개칭)을 결성했다.

민단은 조련에 비해 조직기반이 취약하고 비조련의 연합체라고 하는 성격으로부터 운동이념도 약하고 더욱이 일본정부로부터의 배급 물자에 관한 부정이나 이권 분쟁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민단은 조련활동에 찬동하지 않았던 다양한 사상그룹의 연합체라고 하는 측면도 있어 단순한 반공 우익단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민단결성의 핵심적 단체는 신조선건국동맹(건동, 1946년 결성)과 조선건국축진청년동맹(건청, 1945년 결성)이다. 건동은 원래 무정부주의자 박열<sup>5</sup>과 이

5 1902-1974, 경상도 태생, 1925년 천황 암살을 계획한 “제2차 대역사건”의 주범으로서 해방 후까지 옥중생활을 보냈다. 민단 초대단장, 1949년 한국귀국, 한국전쟁 시에 인민군으로 연

강훈<sup>6</sup>을 중심멤버로 해 강령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었다.

- 一, 근로대중의 자유를 획득하고 민주주의체제 확립을 기한다.
- 一, 사회주의경제를 확립하고 국민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한다.

박경식은 이와 같은 강령에 대해 정책적으로도 조직적으로도 현실성이 없는 탁상의 산물로 확실히 관념적인 것(朴慶植, 1989: 77)이라고 했다. 실제 건동은 구체적인 활동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민단에 합류했지만 관념적이었다고 하지만 ‘사회주의경제확립’을 표방하고 있던 것은 주목해야 한다.

또한 민단에 합류해 건동보다 활발히 활동했던 건청은 김구, 김규식을 신봉하는 입장에서부터 1948년 4월 진행 중인 남북협상회담을 지지해 남쪽 단독 총선거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게다가 1949년 9월 일본정부가 조련과 산하의 청년단체를 강제 해산시키자 민단은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그와 동시에 조선민족 재일동포인권옹호공동투쟁위원회를 설치해 일시적이지만 조련계 단체와 해산반대의 공동투쟁을 시작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면 한국전쟁 개시 이전의 한 시기 민단사회의 일부에는 조총련과는 구별을 분명히 하면서도 유연한 진보적 민족주의에의 지향이 남아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관념적이었다고 해도 한국정치 정세의 동향에 따라서 그 후의 재일동포사회에 다른 선택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해방 후에도 일본의 대학에 잔류한 조선유학생은 1945년 9월 재일조선학생 동맹(조학동)을 결성했다. 당초는 비정치적 입장을 유지했지만 조련계 좌파가 주도하게 되자 좌우대립이 일어나 1949년 제4회 정기 총회에서는 좌우 쌍방에 의한 유혈의 참사까지 발생했다. 이것을 계기로 우파가 분열해 한국전쟁

---

행되어 공화국에서 간부로 근무도 했다.

6 1903-2003, 강원도 태생, 간도 신민부에 참가해 1933년 상해 주재 일본 공사 아리요시의 폭살을 시도하다가 실패, 해방 후까지 일본에서 옥중생활을 보냈다.

발발 직전의 1950년 5월 한국학생동맹으로 개칭해 민단산하단체가 되었다. 1950년대에는 메이지대학(明治大學)과 중앙대학(中央大學)에 한국연구회 등의 활동 거점이 있었다.<sup>7</sup>

이와 같이 한국 측에 의거해 공화국을 지지하는 좌파와 격렬하게 대립 충돌하면서 출발한 한학동이지만 1951년 5월 15일 발행 기관지 『한국 학생신문』 제1호(일본어)에는 한학동 강령이 게재되어 있다.

1. 우리는 자유로운 사상과 창조적 정신으로 학문을 연마해 진리를 탐구한다.
2. 우리는 조국의 통일과 자주독립을 확립해 민주국가와 균등(평등- 저자 주)사회 건설에 진력한다.
3. 우리는 상호의 친목을 도모해 고상한 인격과 진보적 정신으로 세계 문화향상에 공헌한다.

같은 지면에 게재된 차년도 한학동 기본이념을 보면,

1. 우리는 대한민국을 토대로 하는 남북통일을 급속히 추진한다.  
(2, 3생략)
4. 우리는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한다.

‘균등사회건설’이나 ‘민주주의적 사회주의 사회건설’이라고 하는 말에 건동의 강령을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학동은 건동과 달리 진보적 민족주의를 발산시키는 구체적 행동도 일으켰다.

한국전쟁이 계속 중이던 1952년 5월 한학동 제9회 정기총회에서는 이승만 정권의 임시수도 부산에 있어서의 독재적인 정책(부산정치파동)을 비판하고 부산지구계엄령 즉시철폐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이것을 한국국내에 송

---

7 1951년 일본 중앙대학에 입학한 박진산에 의하면 당시 중앙대학의 조선인 학생 수는 대략 300명으로 조선문화연구회(조학동계)에 80%, 한국문화연구회(한학동계)에 20% 정도였다고 한다(小熊英二·姜尚中, 2008: 278).

부했다. 재일동포학생의 주장은 한국 내 학생운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리유환, 1971: 151).

학생조직으로서의 주체성을 발휘한 이 결의문 채택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맡은 한학동위원장(1953) 박권희 씨는 한국의 정치계를 목표로 해 대학졸업 후 민단중앙에서 일하면서 한국 총선거에 몇 차례 입후보했지만 4·19혁명 후의 1960년 총선거로 진보정당 사회대중당으로부터 입후보해 당선되었다(『민단신문』, 2006년 8월 15일).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학동의 소식이 한국사회에 직접 닿아 일정한 영향력을 미친 것은 1960년 이후 급진화했던 시기를 포함해 한학동 역사상 유일한 사례였다. 또 박권희의 이력은 민단사회 내부의 사회민주주의(혹은 민주사회주의)적인 온건 진보주의의 존재를 추측시킨다.

그러나 1950년의 한국전쟁의 발생은 민단사회 내부의 이러한 진보적 민족주의의 존재공간을 많이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쪽의 단독총선거 반대성명을 낸 건청은 성명내용을 둘러싸고 내부 대립이 생겨 약체화 되었다. 1950년 한국육군참총장 채병덕, 전문교부장관이며 대한청년단장인 안호상이 일본을 방문해 한국과 같이 군사적 성격을 가지는 청년단 조직화를 진행시킨 결과 건청을 해소하고 재일대한청년단(한청)이 결성되어 민단 산하단체가 되었다. 한청은 한국정부의 개입을 받아 창건되었던 것이다. 한학동, 한청도의 1950년대는 1세대가 조직의 중심을 담당했다.

한국전쟁 발발 후 민단은 ‘재일한국자원군본부’를 설치해 참전 희망자 776명이 한국 전쟁터에 투입되었다. 결성된 지 얼마 안 되는 한학동, 한청도 내부로부터 많은 참전자를 보냈다.

또한 1959년 재일동포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의 귀환이 개시되자 한학동과 한청은 민단 방침에 따라 “북송반대”를 외치며 귀환자를 태운 열차운행을 방해하는 등 실력 행사도 하였다.

그런 상황하에 ‘부산정치파동’ 비판결의문을 채택한 이후 한학동, 한청은 눈에 띠는 정치적 주장이나 활동을 실시한 흔적이 없다. 1954년 한국학생신문은

1년에 4번 발행되고 있어 조직기반이 정비된 것을 알리거나 활동내용은 한국 소개의 사진전이나 영화제의 개최, 동포학생 친목캠프의 기록 등이며 비정치적 문화활동이 중심이다. 그 이외의 기사는 주일 한국공사의 인사말이나 북한 정권과 재일좌파 조직비판의 내용이다. 1950년대 말에는 민단 진보파가 한국의 신국가보안법 반대집회를 열거나(1958년 2월) 민단중앙이 한국정부에 대해서 「교포정책 불신임 선언」을 발표하는(1959년 6월) 등, 민단 자주성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한학동과 한청은 이러한 운동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4·19혁명 직후 민단중앙 기관지 『민주신문』(후에 『한국신문』-『민단신문』이라고 개칭) 5월 3일호에 「4·19사건을 생각한다」라는 칼럼이 게재되어 그 필자는 식민지시기의 재일청년학생운동의 훌륭한 역사를 말한 다음, “그러나 해방 후 재일청년학생운동은 쇠퇴한 것처럼 느껴진다. 4·19사건과 같은 사태에 대해서 젊은 세대는 날카로운 점검을 필요로 해야 한다. 교포청년은 우리의 선배들에 의해서 단순한 자기만족을 위한 도구에 사용되어 온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전쟁에 의해서 재일사회에서도 좌우대립이 극단적인 수준에 이르러 민단계 학생청년운동은 자립적 활동공간을 잃은 한편, 1950년대 후반에 조총련사회에서 활발했던 일본 전국에 영향을 미치게 한 공화국 귀환운동에 양적·질적으로 압도되어 학생청년운동의 존재자체가 위험한 상황에 있었다.

다만, 민단의 시점으로 편찬된 『민단30년사』에 의하면 1955년 한청 제3회 전국대회 이후 「민단과 의견이 대립해 점차 반민단적 경향이 농후하게 되어」라고 하는 글이 기술되어 있는 한편, 1958년 12월 한학동총회에 대해 당시 조학동의 학생이 평화노선 운운하면서 반정부, 반민단운동을 전개해 교묘하게 한학동의 조직에 침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색출하는 것과 동시에 한학동 자체의 조직 강화 및 민단과의 유대강화에 진력했다라는 글도 볼 수 있다(재일한국거류민단, 1977: 453).

한학동총회 개최 시에는 한국의 진보당사건이 이미 전해지고 있었던 시기이며, 북한귀환운동이 일본국내에서 크게 보도되고 있었던 점도 감안하면 민단계 학생청년들이 초조함을 느껴 남북의 테두리에 고집하지 않는 주체적인 노선을 모색하기 시작하고 있었던 가능성이 있다.

단, 아직 전체화하기 위해서는 미흡했다. 당시 한청집행부의 대부분은 1세대 중에서 최연소층(유년기에 일본에 건너온)이 담당하게 되어 있어 한학동 같이 세대교체의 물결이 밀려들고 있었다.

민단 사회내부, 특히 학생청년운동 내에서는 진보적 민족주의는 끝난 것이 아니라 간신히 계승되어 4·19 이후의 새로운 운동 전개를 준비하고 있었다.

1950년대 당시의 민단계 학생단체의 일상 활동을 와세다대학 한국문화 연구회(한문연) 발행의 잡지 『고려』 제3호(1963)에 게재된 「와세다대학 한국문화연구회 간략사」로부터 살펴보면, 한문연은 한학동의 지부이며 와세다대학 한문연은 1954년 10월 창설된 한국유학생동창회를 전신으로 한다. 당시 대학 내에는 북한을 지지하는 조선문화연구회(조문연)가 있어 조문연 학생이 주도하는 현역·및 졸업생 120명의 “와세다대학 조선인 동창회”<sup>8</sup>도 존재해 있었다. 조선인동창회는 신입생활영회, 야유회, 대학문화제 와세다축전 참가 등을 통해서 재일학생의 친목을 도모했지만 동창회 속에서 소수파였던 민단 지지파가 탈퇴해 한국유학생동창회를 결성하게 됐다. 당초 회원은 17명으로 현역 학생의 회장과 간사장, 간사 등의 직무역할이 주어졌다. 이후, 하나의 대학에 남북한의 분단을 배경으로 하는 두 가지 민족씨클이 병존하게 되었다.

와세다대학 한국유학생동창회는 매년 와세다축전에서 민족문화전시와 전통예능의 발표, 국제시합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선수의 응원, 야유회를 활동내용으로 해 그동안 조선인동창회로부터의 합동제안을 거절한 적도 있었다(1955).

---

8 현재 와세다대학동포동창회는 통일됐다(早稲田大学ウリ同窓会, 1976: 148).

또한 1955년의 와세다축전에서는 한국 삼성그룹의 창시자인 이병철 삼성물산(주) 사장과 롯데제과의 신격호 사장으로부터 1만 엔씩 원조금을 받았다. 두 사람은 와세다대학의 동창생이었다.

4·19를 눈앞에 둔 시기에 민단체 학생활동의 중심은 문화활동, 친목활동이었는데 일부분의 학생은 이미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 3.2. 4·19학생혁명의 충격

4·19혁명이 일어나자마자 민단은 재빠르게 변신을 이루었다. 1960년 4월 21일에 민단중앙은 성명을 발표해 “조국사랑에 대해 너무도 관념적·소극적이었던 지금까지의 태도를 탈피해”, “전교포의 조국에 대한 불만과 정당한 요구를 담당하며”, “조국의 실정을 시정하는 일에 공헌한다”라고 언급했다(『민주신문(民主新聞)』, 1960년 4월 26일). 이어서 5월 26일 민단 전국 대회에서 “조국에 대한 무한의 애국심과 그 발전을 바라는 나머지, 국정에 대한 옳고 그름의 비판을 게을리해왔다”고 인정해 향후는 “교포에 대한 시책 및 대일정책에 대해서는 시시비비 태도를 견지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헌법에 위배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가부(可否)의 태도를 한층 명확하게 하는” 일을 주지로 하는 선언(민단 제3차 선언)을 발표했다.

동시에 ‘통일문제연구위원회’를 설치해 조총련 측과의 공식접촉을 정하기도 하고, 1960년 4월 30일에는 ‘4·19 의거 학도추도회’를 열었다. 다음 1961년 4월에도 ‘4월 민주혁명 1주년 기념식전’을 주최해 “4·19혁명열사의 뜻을 지키자”(『민주신문』, 1961년 4월 12일)라고 외쳤다.

그런데 그러한 입장에서부터 불과 1개월 후인 5월 16일에 한국에서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자 바로 그 당일 전국대회를 개최 중이었던 민단중앙은 쿠데타를 주도한 군사혁명위원회의 성명을 “전면적으로 신뢰하고 기대하며 이번의

행동에 동감하며 만족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내 쿠데타의 귀추도 정해지기 전에 지지를 선언했던 것이다.

4·19나 5·16 어느 쪽도 단순한 정변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민단 지도층에 비해 4·19학생혁명이 재일학생 청년층에게 준 충격은 컸다.

한국학생의 과감한 가두투쟁이나 대통령퇴진이라는 극적 전개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현상에 대한 지적인 분석에 근거한 ‘반봉건, 반독재, 반매관, 반외세’라는 운동의 이념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전제로 한 민족통일로의 지향은, 이미 인적으로, 수적으로 주류를 차지하고 있던 재일2세 학생청년에게는 부패나 빈곤으로 상징된 종래의 이미지와 다른 청신한 “우리나라”를 발견시키는 것과 함께 일본에서의 소외감으로 가득 찬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민족관과 재일사회에서 사는 근거를 찾아낼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여졌다.

일본이라는 남의 나라에서 할 수 없이 “반쪽 일본인”으로 삶을 보낸다라는 종래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한국을 둘러싼 사회정세에 스스로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민족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해 움켜쥐자라는 주장이 순식간에 젊은이들을 매료시킨 것이다. 1967년 『한학동신문』 게재의 「한학동소사(小史)」에 의하면 “그때까지 민족의 일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방법을 알지 못하고 민족적 허무감에 빠져있던 많은 교포학생은 이 4·19혁명에 의해 강력하게 민족적으로 각성됐다. 우리 교포학생의 인간성확립은 정말로 민족주체성을 확립하는 자기변혁 과정에 존재하고, 민족주체성 확립이라는 것은 민족사 조류에 자기를 위치 설정하는 작업으로 실현한다. 4·19에 의해서 각성되어 한국인으로서의 자기를 사회적으로 인식해, 민족주체성의 확립을 도모하는 교포학생은 한학동에 결집했다. 한학동은 과거에 보이지 않았던 민주적·애족(애국)적 회원에 의해 조직 운영되게 되었다.”

『민단30년사』에 의하면 500명이 결집한 1960년 제19회 한학동 총회에서는 「학생 중에서 일부 이탈해 좌경화하는 학생이 생겨」라고 하는 글이 있으며 한국학생운동의 영향을 받아 독자적인 행동을 모색하는 재일학생의 동향을

전하고 있다.

한편 한청도 1960년 10월 명칭을 한국청년동맹(한청동)으로 개칭했다. 종래의 '대한청년단'이라는 이름은 너무도 군사적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이었다. 『민단 30년사』에는 당시 일부 간부가 한청 본래의 노선에서 이탈하는 행동이 현저하게 표면화해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 내용의 글이 있으며, 여기에도 4·19혁명의 영향으로부터 예전 민단의 방침을 비판해 새로운 노선을 추구하려고 하는 민단계 청년조직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다. 한청동은 1962년의 신집행부로부터 완전하게 2세대 중심이 되어 1세대부터 큰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4·19혁명의 영향은 대학의 재일동포 서클활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와세다 대학한문연 「간략사」에 의하면 1960년부터 한문연 활동은 “제2단계에 들어간다”고 하며, “지금까지의 동창회적 성격을 좋은 의미에서 탈피해,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을 연구하는 문화씨클의 성격을 강하게 해간다”고 하며 구체적 활동으로서는 1960년의 와세다축전에서 4·19혁명과 그 이후의 한국 정세를 소개하는 전시, 4·19혁명을 테마로 한 연극을 실시했다. 또한 4·19혁명 이후 한국에 있어서의 남북통일운동의 활발한 움직임에 반영해 와세다대학한문연에서도 1960년부터 1961년에 걸쳐 종래 대립관계에 있던 조총련계의 조선문화연구회(조문연)와의 관계도 호의적으로 되어 합동야유회나 분열하고 있던 동창회의 합동을 행하고 있었다.

1960년 6월에 '신쥬쿠교엔'에서 행해진 조문연과의 합동야유회에서는 “조문연 회원과 즐거운 반나절을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상황의 변화를 느끼게 한다. 1960년도에 발행된 와세다한문연 『고려』 창간호에도 4·19혁명의 영향에 의한 민단계 학생의 고양된 정신을 찾아낼 수 있다.

「창간에 임하여」라는 표제의 문장에는 한문연과 조문연의 우호를 호소해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양쪽 통합의 가능성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상호간의 편견이나 의견의 강제적인 경향이 강했던 종래의 관계를 시정해서 서로 인정하며 양보의 정신을 가지자고 호소한다. 정치논쟁보다는 우선 서로

가 함께 커피를 즐기며 예술을 말하고 연애를 말하자. 돈이 부족했을 때는 빛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초월한 친구관계의 수립이야말로 필요하지 않을까?(早稻田大学韓国文化研究会, 『高麗』, 創刊号, 1961, 27)

또한 게재된 학생 수필 중에는 대학입학 후에 민족적으로 살아갈 결심을 하고 종래 사용하고 있던 일본명을 폐지한 것을 고백하는 정치학과 1학년생의 문장이 있다. 그 이유는 “세계역사에 비교할 수 없는 순수한 학생을 진영의 맨 앞에 전개시킨 4·19혁명이 세계의 주목을 끌어 우리 민족의 위신을 회복 고양시켜 모든 조선인에게 자랑과 영광의 빛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며 자신도 격렬하게 불타는 민족감정이 다시 살아나서 없어진 민족자랑이 다시 일어났던 것이라라고 써있다.

### 3.3. 급진적 재일학생청년운동의 등장과 진보적민족주의의 부활

한국에서는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비롯한 육군소장 군인에 의한 군사쿠데타가 발생해 4·19혁명 후의 ‘민주 공간’은 1년에 무너져 버렸다. 이후, 1990년대에 문민정권이 등장할 때까지 30년간에 걸친 군사정권시대가 시작됐다.

조속히 군사쿠데타 지지를 표명한 민단에 대하여 한학동은 5월 27일 제20회 중앙대회를 개최해 「5·16쿠데타 반대성명」을 발표해 군사정치 비판을 명확하게 했다. 이 성명은 “4·19혁명에 의해서 간신히 성장하기 시작한 한국의 민주주의가 아름답게 꽃피는 것을 재일한국인 학생은 염원했지만, 이번 군사쿠데타에 의해서 민주주의의 새싹은 끔찍하게 찢어져버려 폭악의 폭풍우 속에 평화통일의 외침은 끊어지려 하고 있다. 파시스트의 검은 구름이 다시 조국을 덮고 있다. (중략) 지금 우리가 일어설 때이다. 조국의 학생들의 입을 대변하고, 꺾어진 조국의 학생들의 다리를 대행해서 우리들은 서야 할 때이다. 좌익소아병과 동맥경화증을 유발시키고 있는 조총련계 학생들의 주도권

을 배제해, 우리들이야말로 구국운동의 선두에 서야 하는 것이다. 우선 우리의 당면과제는 조국을 군부의 군화발과 총검으로부터 해방하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반군부, 민주주의옹호의 대오조직을 만들어서 광범위한 재일동포의 지지와 힘을 여기에 결집해 우리들은 쫓겨야 하지 않겠는가. (중략) 군부 독재를 타도해 4월 혁명의 정신을 계승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회복 달성하는 싸움에 서자!”

이것은 한국국내도 포함해 5·16군사쿠데타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 표시를 실시한 가장 빠른 행동이었다. 한청동은 7월 초순에 이와 같은 쿠데타 반대 성명을 냈다.

학생 독자적인 의사표명에 대해 민단은 동년 12월에 한학동 집행부의 대부분을 민단자격정권 처분을 해, 이후 1963년 6월까지 한학동은 분열 상태가 되어 버렸다. 또한 1962년 4월 민단은 한청동 위원장에 대해 역시 정권 처분을 실시해 활동에 압력을 가했다.

한학동, 한청동 모두 조직운동의 위기적 상황을 맞이했지만 1963년 이후 다시 운동을 정상화시키자 그들의 운동은 이전에 비해 한층 더 활발해져 민단 조직의 내부에 있으면서 재일동포의 권익옹호나 한국 군사정권비판, 한국학생운동 지지를 명확하게 표명하면서 재일동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주된 운동과제는 『민족일보』 조영수사장구명운동, 한일회담과 한일협정 반대운동, 재일동포의 일본에 있어서의 안정적 법적지위요구운동, 재일동포 민족교육에의 억압을 노린 외국인학교법안 반대운동 등, 재일동포의 권익을 지키는 운동과 한국군 베트남과병반대운동, 한국대통령3선개헌 반대운동 등, 한국학생운동에 호응한 운동도 연속적으로 전개했다.

민단사회를 기본점으로 하면서도, 기성의 정치적 입장에 과잉하게 사로잡히지 않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려고 한 1960년대 이후의 민단계 학생 청년들의 사고 테두리가 형성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1960년대 민단계 재일학생 청

년운동은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재일사회 전체에 강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학생청년들의 행동에 촉발되어 민단 내부에서도 경직화된 지도부와는 다른 자발적인 대중운동이 자주 전개되게 되었다. 일본 전국을 합해 몇 십만 명의 동포를 모은 1960년대 법적지위요구운동이나 3세대가 중심이 된 1980년대 지문날인거부운동 등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

한국 군사정권이나 민단의 보수적 체질을 비판하며 한국의 민주화나 재일동포의 생활권을 쟁취하자고 했던 학생청년운동은 민단집행부와 심한 갈등대립을 되풀이했지만 조선총련조직의 강한 사상적 카테고리 밑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총련계 학생청년단체의 활동 내용을 비교하면 자주적·주체적 운동이었다는 측면에서 민단계 학생청년운동은 보다 근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1960년대를 통해서 한국 군사정권과의 관계를 강하게 한 민단은 급진화하는 학생청년운동의 배제를 도모하게 되어, 드디어 1972년 7월 7일 민단중앙위원회에서 한학동, 한청동의 산하단체 자격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사실상의 추방처분이었지만 한학동, 한청동도 4·19정신의 계승을 기본이념으로 한 채로 많은 다양한 변천을 거쳐 오늘 여전히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 4. 민단계 학생청년운동사에의 시점과 과제

해방 후 재일동포사회는 그 자립적 존속과 발전을 요구해 일어섰지만 식민지시대 이래의 여러 가지 사상적 경향을 가진 집단이 난립해 집합이산을 반복했다. 그 집단 속에는 공산주의 여러 각파, 무정부주의자, 좌우민족주의, 또 친일파까지 존재했다. 한국정치정세의 변화에 따라 재일동포사회도 좌파인 조련과 우파인 민단으로 크게 두 개의 조직으로 수렴됐지만, 좌파, 우파의 구분은 현재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는 명확하지 않고 우파민단 안에도 진보적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한 온건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조류(부류)까지 포함되어

있고, 특히 학생청년단체의 주장이나 활동 속에 그 흔적을 찾아낼 수 있다.

남북한의 분단, 한국전쟁이라는 심각한 한국정치정세를 배경으로 재일사회도 좌우 양대립은 극대화되어, 민단체 학생청년운동도 반공 우익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어 민단 내부의 진보적 민족주의는 일시적으로 희박화하지만 완전하게 소멸한 것이 아니었다. 민단체 학생청년단체는 1960년 4·19혁명을 계기로 그 용모(변모)를 일전시켜 한국 민주화운동의 이념과 재일동포로서의 민족적 지향을 결합시키는 것으로 일본사회와 한국사회 사이에 정신적으로 표류했던 재일2, 3세를 보다 진보적·개방적인 민족주의운동으로 유도해 재일사회의 발전적 유지를 목표로 하려고 했다. 민단체 학생청년운동의 급진적 전개는 두드러졌기 때문에 그 영향에 의해서 민단단원 중에도 한국 군사정권을 비판해 군사정권을 추종하는 민단운영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 4·19혁명의 영향은 재일민단사회에 진보적 민족주의의 부활을 가져왔던 것이다.

그러나 민단조직은 1970년대 이후, 한국정권의 지지협력을 받아 민단 내부의 진보적 세력 배제를 시도해 한학동, 한청동이나 민단 민주파 인사 다수를 조직적으로 추방했다. 그 이후 민단의 진보적 민족주의 주류는 표면적으로 크게 축소되어 버렸던 것이다.

이순애가 비판한 것처럼 민단체 학생청년운동에 내재한 과잉된 정치주의나 엘리트적 사고는 재일2, 3세의 일본사회에의 동화를 완전하게는 저지할 수 없었고 재일동포 젊은이들의 소리는 한국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었다(이순애, 2000: 98-162).

그러나 민단체 학생청년운동은 1960년대 재일한국인사회와 일본사회를 배경으로 한 운동의 독자성뿐만 아니라 1970년대 이후에 전개되는 일본의 반차별운동이나 한일민중연대운동 혹은 요즈음의 다문화공생운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다.

또한 보다 넓은 시야에서 생각해 보면 한국으로부터 지리적·정신적으로

거리가 있던 재외학생청년이 4·19혁명이라는 한국의 획기적인 정치상황에 강하게 자극되어 왕성한 민족주의운동을 펼친 특이한 역사적 사실은 해방 후 60년 이상에 걸친 민족주의운동의 모든 흐름과 범위 내에서 재검토할 가치가 있다. 민단계 학생청년운동은 한국과 일본, 남한과 북한, 재일1세와 2, 3세, 정치운동과 시민운동, 그리고 민족운동 사이를 결부시키는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자료를 기초로 4·19혁명을 전후 한 민단계 학생청년운동의 역사를 기본적으로 고찰했지만, 1950년대 민단사회의 구성과 실태, 한국정권이나 한국에 있어서의 사회운동과의 관련, 조총련 측의 운동으로부터의 영향, 혹은 일본에 있어서의 민주교육이나 학생운동의 영향 등이 해명되어야 할 문제점은 많이 남아 있다. 실제 운동경험자의 증언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자료수집과 다각적인 시점으로부터의 분석 과제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姜在彦·金東勲(1989) 『在日韓国・朝鮮人歴史と展望』, 労働経済社.  
 金哲雄(1995) 「在日朝鮮人の経済問題」, 朴鐘鳴 編, 『在日朝鮮人歴史・現状・展望』, 明石書店.  
 小熊英二·姜尚中(2008) 『在日一世の記憶』, 集英社.  
 文京洙(2005) 『韓国現代史』, 岩波書店.  
 ——(2007) 『在日朝鮮人問題の起源』, クレイン.  
 朴慶植(1989) 『解放後在日朝鮮人運動史』, 三一書房.  
 ——(2001) 『在日朝鮮人關係資料修正』 3·8卷, 不二出版.  
 朴在一(1957) 『在日朝鮮人に関する綜合調査研究』, 新紀元社.  
 徐仲錫(文京洙訳)(2008) 『韓国現代史60年』(서중석, 2007, 「한국현대사60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日本語訳), 明石書店.  
 李順愛(2000) 『二世の起源と「戦後思想」』, 平凡社.  
 李瑜煥(1971) 『在日韓国人60万—民団・総連の分裂史と動向』, 洋々社.

- 崔章集(中村福治訳)(1997) 『現代韓国政治變動』(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日本語訳), 木鐸社.
- 神奈川県自治総合センター 編(1984) 『神奈川の韓国・朝鮮人 自治体現場からの提言』, 公人社.
- 竹内静子(1982) 『1960年代』, 田畑書店.
- 外村大(2004) 『在日朝鮮人社会の歴史学的研究—形成・構造・変容』, 緑蔭書房.
- 在日韓国居留民団 編(1977) 『民団三十年史』.
- 在日韓国居留民団機関紙, 『民主新聞』.
- 在日韓国民団中央本部 編(1994) 『民団五十年の歩み』, 五月書店.
- 在日韓国学生同盟, 『韓国学生新聞』.
- 早稲田大学韓国文化研究会, 『高麗』, 1961-1978.
- 法務省入国管理局, 入管協会 編, 『在留外国人統計』, 各年版.
- 厚生省, 『厚生白書』, 各年版.
- 内閣府経済社会総合研究所ホームページ(<http://www.esri.cao.go.jp/>), および総務省統計局統計データ.

# 동해 표기와 일본 식민주의

Rainer Dormels

Vienna University

## 1. ‘동해’ 표기 인정을 위한 1992년 이후 한국의 노력

1992년 대한민국 담당부처들은 동해의 공식 영문명칭을 ‘East Sea’로 결정하였다. 그때로부터 한국정부는 한일 양국이 동의하는 적절한 명칭이 확정될 때까지 ‘동해’(이하 ‘동해’)와 “Sea of Japan”(이하 ‘일본해’)을 동시에 사용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를 위해 한국이 그동안 취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 관련 팸플릿의 제작과 출판
- ‘동해’와 관련된 인터넷 홍보사이트 제작
- ‘일본해’라는 단독 명칭을 사용하는 국제사회의 관공서, 출판사 그리고 저널리스트 등과의 직접 면담
- UN과 기타 관련 국제기관에 이 문제를 정식 주제로 상정
- 관련 연구분야의 지원
- 국제심포지엄 개최

일본은 이에 반해서 ‘일본해’라는 단독 명칭을 계속적으로 인정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도 한국의 활동에 대응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줄곧 취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오늘 발표를 통해 15년 이래로 계속되어 온 한국의 노력이 얻어낸 결과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 나아가야 하는지 묻고자 한다.

## 2. ‘동해’ 표기 인정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한 결과

### 2.1. 동아시아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지도의 24%에 ‘동해’가 기입됨

전 세계 일반 지도의 약 1/4에서 ‘동해’라는 명칭이 발견되지만 국가나 그 밖의 공적 기관이 제작한 공식지도에서는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전 세계의 주요한 국제기관이 ‘동해’라는 명칭을 공인할 때까지 그들이 동해 표기 사용을 보류하고 있어서라고 추측된다.

‘동해’ 명칭사용이 약 25%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 이 시점에서 그것이 성공인지 아니면 실패인지 가늠하는 것은 물론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2.2. 국제기관 문서에 기입된 ‘동해’ 명칭

한국정부는 UN의 각종 회의 가운데, 특히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에 한국 측 입장을 공식 논의과제로 상정하기 위해 줄곧 노력해왔다.

특히 현재 그 어느 곳보다 “국제수로기구”(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의 해양과 바다의 경계 4판 최종 개정판 출간에 동해 표기를 관

철시키고자 지속적이며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HO는 1928년 세계 주요 해도와 수역명칭에 관한 국제적인 입장을 확정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라는 표준원칙을 발표하였다. 이 원칙은 8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세계지도 제작시 그 대부분의 지침이 적용되고 있다.

1953년에 출판되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3개정판은 세계 전체 수로를 102 수역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가운데 한국 인근 해역을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 있다.

이 지도에 따르면 “Japan Sea”가 동해뿐 아니라 남해 대부분을 포함하는 명칭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오류가 표기된 관련 당사국은 “해양과 바다의 경계”의 제3개정판의 대규모 수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1977년 개최된 제11차 국제수로기구 회의 이후 여러 번의 개정 노력이 있었다. 그 뒤 1986년 이미 제4개정판의 출간을 위해 초고가 마련되기도 했지만 그때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승인 받지 못한 상태이다.

1997년 제15차 국제수로기구 회의에서 한국은 IHO 출판물의 새 개정판에 그때까지의 동해 수역명칭이 “Japan Sea”로 단독 기입되어 있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2002년 8월, ‘일본해’ 혹은 ‘동해’ 수록 예정 부분을 백지로 한 가이드라인 제4판 최종 초안이 전체 회원국에 전달되어 찬반 여부를 물었으나 일본의 강력한 항의와 회원국간의 혼란으로 인해 가이드라인 최종안 의견이 철회되었다.

2007년 5월에 개최된 17. IHC에서도 동해 표기와 관련하여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IHO의장인 Williams는 제4개정판을 1권과 2권으로 나누어

서 출판하는 것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1부에는 모든 이론의 여지가 없는 문제점들이 제시되어야 하며 즉시 출판되어야 한다. 2부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이 해결되는 즉시 출판되어야 한다.

즉 일본해 등과 같이 관계국과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우선 게재해 출판하는 제1권과, 문제 당사국간의 합의가 이뤄진 후 발간하는 최종 제2권을 나누어 출판하자는 것이었으나 이때도 일본은 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현하였다.

IHO 총회인 국제수로회의가 5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므로 다음 IHO 총회는 2012년에 개최될 예정이다. IHO가입국가들은 이미 오랜 시간 1953년 출판된 시대착오적 3권이 새 개정판으로 바뀌어지길 오랜 시간 기다려 왔다. 만일 ‘동해’명칭이 마침내 IHO의 “해양과 바다의 경계” 새 개정판에 기입되면 많은 각국의 지도제작자들과 정부 담당부처들이 ‘일본해’의 단독표기를 멈추는 쪽으로 그들의 의견을 바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 2.3. 해외 언론 동해 표기 실상: “기이한 익살극”인가 아니면 “정치적 올바름”인가?”

새 명칭의 확대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그 명칭을 대하는 해외 언론의 태도이다. 이 명칭이 쓰여지는지, 쓰여진다면 얼마나 자주 쓰여지는지에 관해 통계자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해외 언론이 동해 표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실상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중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기사로는, 독일 시사주간지 ‘일요세계(Welt am

Sonntag)의 편집장인 쉐케 크뤼거(Sönke Krüger)가 쓴 논쟁적인 주제 “네덜란드, 마케도니아, 그리고 동해에 관한 논쟁(Wortgefechte um Holland, Mazedonien und das Ostmeer)”에 붙은 부제 “기이한 익살극”인가 아니면 “정치적 올바름”인가?”이다.

“지리학적인 관계를 살필 때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인들은, 일본해에서 불쾌감을 느끼고 있고, 체코인들은 ‘Tschechei(체카이, 체코의 다른 이름)’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며, 아울러 마케도니아인들은 자신의 나라를 ‘마케도니아’라 불러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이상의 경우들은 “정치적 올바름”의 상황을 드러낸다(Krüger, 2008).”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크뤼거가 우리가 지금까지 소홀히 한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를 동해문제와 관련시켰다는 점이다.

### 3. 동해와 일본해,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

#### 3.1. 정치적 올바름의 일반적 인식

‘일본해’와 ‘체카이’(Tschechei, 체코공화국의 약자)와 관련해서, 독일 시사주간지 일요신문(Welt am Sonntag)의 편집장, 크뤼거(Krueger)는 “정치적 올바름”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주목한다.

물론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표현 자체는 많은 논쟁의 여지를 남긴다. “정치적 올바름”이란 태도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가? 가장 일반적인 지식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Wikipedia를 보면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미국의 좌파는 미국의 주류사회가 남성중심, 그리고 서구중심주의로 각인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질책한다. 그들은 보통의 표현방식을 경시하거나 생각 없는 언어남발로 다른 특징(여성)을 지니거나 차별적 위치에 놓여있는 사회적 비주류(혈통, 출신,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능력, 성별 성향, 종교, 사회적 위치 등에 있어서)를 소홀히 하고 있는 주류를 비판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표현은 회의적인 의미로 쓰이는 일이 많아졌다. 즉 “미국에서는 정치적 올바름이 좋은 의미가 아닌 나쁜 쪽으로 더 많이 쓰인다. 그것은 속으로 전혀 딴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선을 떠는 것이며,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 3.2. 정치적 올바름과 ‘Tschechei’

특별히 언론인 크뤼거는 “정치적 올바름”을 지리적 언급과도 관련시킨다. 예를 들어 체코공화국의 약자는 “체카이”이다. 독일어로 체코의 공식명칭은 “Tschechische Republik”인데 비공식 약자로 각각 “Tschechien”과 ‘Tschechei’ 등이 함께 존재한다.

그 가운데 “Rest-Tschechei”(체코 나머지부분)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것이 나치독재의 선전도구로서 체코슬로바키아가 파괴될 당시(1938-1939) 생겨났기 때문이다.

‘체카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미 그 이전 1918년부터 생겨났으나 오늘날 많은 체코인들에게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체카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독일어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 3.3. “정치적 올바름”, 동해 표기의 문제 제기에 도움이 되는가?

‘일본해’라는 단독표기사용이 “정치적 올바름”의 관점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동해 표기 논쟁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위의 예에서 보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지명을 사용하면 그것이 비록 정당하다 할지라도 결국 사람들에게 조소거리가 되어 사용이 외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표현은 우선 긍정적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또 다른 한 편, 매우 부정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적잖게 생겨나고 있으므로 그 같은 표현이 동해명칭을 둘러싼 논쟁에서 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정치적 올바름”과 연계하여 진행된 토론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동해명칭과 관련된 남다른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다.

-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명칭과 이름들은 수십 년간 별 이의 제기가 없었음에도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운동의 발단은 유럽중심(서구중심주의)으로 각인된 인식 형태를 거부하는 데서 출발한 것이다.
- ‘체카이’란 명칭도 나치시대 이전에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치시대에 다시 나타나 그와 연계되었다는 이유로 배척되었다.

## 4. ‘일본해’와 일본 식민주의

### 4.1. 서양 지도에서의 동해

일본은 ‘일본해’이라는 명칭을 일본 식민주의와 연결하면 매우 예민하게 반

응한다. 2009년 새로 발간된 팜플렛에서 일본 외무성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한국의 주장: “일본해라는 명칭은 일본의 식민지 확대와 강점의 결과로 널리 확산되었다.”

이에 대한 일본 측 반론: “일본 정부가 주요 고지도를 조사한 결과, 19세기 초에 이미 일본해라는 명칭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시기는 일본의 에도시대로서 이미 쇄국정책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해라는 명칭을 확립하는데 외부세계에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19세기 후반, 일본이 식민지를 확대하고 한반도를 강점한 결과, 일본해라는 명칭이 확산되었다는 한국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은 이에 관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걸쳐 전 세계 각 도서관을 뒤져 역사적 사료가치가 있는 서양의 주요 고지도에 동해가 어떻게 기입되었는지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지도에서 아무런 명칭도 없는 경우가 많았고 그 나머지, 동해 명칭이 기입된 지도들은 시대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다.

- 1단계: 약 1720년까지: 여러 가지 이름이 쓰여짐. Sea of Japan, Sea of China, Sea of Korea, Oriental Sea
- 2단계: 1720-1740: 여러 이름이 쓰여졌고, 다수의 지도에 “한국”이라는 명칭이 기입되어 있음
- 3단계: 1740-1800: “한국”이라는 호칭 포기된 지도가 다수
- 4단계: 1800-1840: “일본”(다수) 또는 “한국”(소수)이라는 호칭 포함한 지도가 주류임
- 5단계: 1840 이후: “일본”이라는 호칭 포함한 지도가 대세임

이상의 조사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명료해졌다.

- 역사적 사료가치가 있는 서양고지도에 동해는 다양한 호칭으로 표기되었음
- 18세기에 접어들며 상당 기간 “Sea of Korea”나 그와 유사한 명칭이 주류를 이룸
- 일본 식민주의 시대 이전에 이미 ‘일본해’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음

‘일본해’이라는 표현이 대체를 이루게 되고, 1860년 이후 사실상 단독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배경은 무엇인가?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중 하나가 러시아 해군제독 크루젠스테른 (Adan J. Krusenstern)이라 할 수 있다. 그는 1815년 발간하여 이후 각 나라 말로 옮겨진 자신의 저서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여 이를 서구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다. 일본 외무성은 크루젠스테른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People also call this sea the Sea of Korea, but because only a small part of this sea touches the Korean coast, it is better to name it the Sea of Japan.

일본은 한국에 비해 유럽국가와의 교역이 규모 면에서 앞섰을 뿐 아니라 쇄국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비해 유럽에 더 주목하는 외교정책을 통해 유럽인들의 환심을 샀다. 그 결과 네덜란드는 일본에 상사영업소를 열 수 있었고 독일 탐험가(연구여행가) 엔겔베르크 캠퍼(Engelbert Kaempfer, 1651-1716)는 1727년에 발간되어 유럽 다수 국가의 언어로도 번역된 자신의 저서 『일본의 역사와 기행(원제: Geschichte und Beschreibung Japans)』을 통해 일본을 자세히 소개해 유럽세계에 일본을 알리는데 지대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므로 유럽인들 다수가 동해를 “Sea of Korea”가 아닌 “Sea of Japan”으

로 부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유럽인들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 진다. 따라서 19세기 후반 이래 주요 서양 지도에 거의 대부분 단독으로 표기된 ‘일본해’ 명칭은 이후 발생한 일본의 식민주의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 오히려 그것에 원인을 제공한 것은 그 시대가 절대적으로 서구 중심의 지식을 맹목적으로 추종해 온 서구중심사관의 전형적인 한 가지 표출 형태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

#### 4.2. 20세기 초반의 한국지도에 기술된 동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지도에 나타난 동해명칭의 변화과정을 통해 일본 식민주의와 동해 명칭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가 드러난다.

20세기 초, 일본의 조선강점 이전에 한반도에서 제작된 지도에 동해는 “대한해(大韓海)” 혹은 “조선해(朝鮮海)”로 표기되었다. 대한(大韓)을 대한제국(大韓帝國, 1897-1910)의 단축어로 파악할 경우, 이 두 명칭을 다같이 영어로 “Sea of Korea”로 번역할 수 있다.

그 좋은 예가 1907년 장지연(張志淵)이 발간한 『대한신지지(大韓新地誌)』라는 대한전도(大韓全圖)로써 그곳에 동해는 “대한해(大韓海)”로 표기되었다.

현공염(玄公廉)에 의해 제작된 지도 『대한제국지도(大韓帝國地圖, 1908)』에도 ‘동해’는 ‘대한해’로 기술되었고 한국 서쪽 바다는 “황해(黃海)”로 표기되었다. 이 지도에서 특별히 흥미를 끄는 것은 그것의 왼편에 수록된 한일청도(韓日淸圖) 제하에 한반도 동해의 서편을 ‘대한해’로, 동해 수역에 속한 일본열도 근해를 ‘일본해(日本海)’로 표기했다는 점이다.

그밖에 1909년 정인호(鄭寅琥)에 의해 발간된 『최신고등대한지지(最新高等大韓地誌)』는 동해를 ‘조선해(朝鮮海)’로 기술했다. 그러나 1910 한일합방 후 일본 공관의 개입으로 ‘한국해’라는 명칭은 모두 ‘일본해’로 바뀌었다.

지리전문가 이찬(1992: 266)은 1908년 현공염이 발간한 자료를 바탕으로 10페이지에 달하는 『최신고등대한지지』를 모두 꼼꼼하게 수정 기술했다. 1911년에 이 지도는 ‘대한해’ 명칭을 모두 ‘일본해’로 바꾸고 최신조선팔도지도(最新朝鮮八道地圖)라는 새 제목으로 개정 발간된바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 일본의 한반도 식민주의 정책이 “Sea of Korea”라는 명칭이 ‘일본해’로 바뀌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Sea of Korea”라는 이름이 ‘일본해’로 바뀐 과정은 다른 각각 다른 시대적 배경 가운데서 상이한 동기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시기	원인
유럽지도	19세기 초반	유럽의 관점변화
일본지도	19세기 후반	유럽의 호칭에 따르는 변화
한국지도	1910년경	일본의 점령

#### 4.3. 일본 식민주의를 통한 ‘일본해’라는 명칭의 의미변화

이미 주지한 바와 같이 국제수로기구 IHO는 1928년 동해를 “Japan Sea”로 부르도록 결정하였다. 이는 1928년 당시 “Japan Sea”라는 명칭이 국제적으로 이미 널리 통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IHO가 쉽게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 한국은 1928년, 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였다. 따라서 ‘Sea of Korea’라는 이름은 일본 식민주의자들로 인해 지도에서 쉽게 삭제되었고, 아울러 한국인들은 1928년 개최된 IHO 총회에 참석할 수도 없었다.
- 일본의 한반도 강점으로 인해 동해는 공식적으로 일본의 식민지 朝鮮과 일본 열도 사이에 위치한 일본 내해(內海)로 자리매김 되었다.

그렇다고 위 두 가지 사실이 그 당시 “Japan Sea”라는 명칭이 단독명칭으로 쓰이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최소한 “Japan Sea”라는 명칭이 일본의 식민지 확대과정을 통해 상당한 의미변화를 겪은 것은 사실이다. 그때로부터 “Japan Sea”는 더 이상 일본의 경계가 되는 바다만을 의미하지 않고 한국은 물론 중국 일부분까지 일본의 지배 아래 놓은 일본 식민지 하의 일본의 내해(內海)를 지칭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1940년대 중국지식인들이 ‘일본해’를 “Taiping Sea(大平海)” 혹은 “Leping Sea(樂平海)”라는 명칭으로 바꾸려 했다는 사실이다. ‘일본해’라는 명칭을 제거하려는 중국 지식인들의 그 같은 열망은 물론 중국에 대한 일본의 과격함의 반작용으로 비롯된 것이었다. 한 가지 명칭만으로도 그 바다가 일본의 내해(內海)로 혼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해’는 용납될 수 없는 명칭이었다.

이로써 ‘일본해’라는 명칭은 일본 내해(內海) 성격이 다분히 내포됨으로 해서 “대한해/조선해(Sea of Korea)”라는 명칭도 이시기에 ‘일본해’로 변경해 사용할 것을 강요 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명료해진다. 그러므로 일본의 식민주의가 오래 전 사라진 지금 ‘일본해’라는 명칭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일본은 ‘일본해’이라는 명칭이 일제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쓰이기 시작했으므로 그것을 일본 식민주의와 관계 짓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체코인으로부터 사용이 외면된 “체카이(Tschechei, 체코공화국의 단축어)”라는 단어도 나치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생겨나 이 명칭의 사용이 나치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치의 체코인 박해에 한 가지 원인 제공을 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독어권에서는 이 명칭이 영구히 사라지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일본해’라는 명칭도 1910년 이래로 일제 식민주의의 개운치 않은 뒷맛을 풍기고 있으므로 이를 다른 명칭으로 대체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일본해를 계속해서 단독표기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세계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다음 몇 가지 고찰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1. ‘일본해’라는 명칭의 단독 사용이 올바르지 않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면 일제시대 한국지도에서의 동해 호칭의 변화가 일본 식민주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일본해’는 분명 한국인들에게 강요된 명칭이다.

2. 유럽지도에 기입된 “Sea of Korea”가 ‘일본해’로 변화된 결정적 배경은 ‘일본해’라는 명칭을 유럽사회에 널리 소개한 유럽이 지속적으로 문호를 개방한 나라의 이름을 따 바다 명칭을 확정하는 유럽 전통을 따라 시행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일본해’이라는 명칭은 그 안에 서구중심주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3. 동해가 1910년부터 1945년 사이 일본 식민주의를 통해 사실상 일본의 내해(內海)가 되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일본해’라는 단어는 “일본 내해(內海)”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일본해’는 강력한 식민주의의 냄새를 풍긴다. “Sea of Japan”은 분명히 일본이 ‘일본해’를 일본 내해(內海)로 만들려고 한 일본 식민주의 시대를 연상시킨다.

4. “일본해(동해)” 대 “한국/일본해.” 그렇다면 어떤 명칭이 ‘일본해’를 대신 할 수 있을까? 일본은 ‘일본해’의 단독사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이 입장을 바꿀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므로 한국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언급한 대로 한국은 ‘East Sea’를 동해의 영어표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동해의 영문표기 ‘East Sea’는 전통이 그다지 길지 않다. 이것은 한국 내 통용어(Endonym)인 ‘동해’를 영어로 직역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왜 굳이 ‘East Sea’라는 영문표기를 선택했을까?

‘동해’를 영문표기로 선택한 이유는 한국에서 ‘동해’로 불리는데 국제적으로 사용할 다른 표기를 선택한다는 것이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해’를 문자 그대로 영어로 옮기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은 비논리적인 것인가?

이와 관련되는 예가 독일어권에서 나타난다. 독일 북부에 위치한 ‘발트해’는 독일어로 “Ostsee(동해)”로 표기된다. 영어로 직역하면 여기도 ‘East Sea’가 되어야 하지만 현재 그것의 공식 영문표기는 ‘East Sea’가 아닌 “Baltic Sea”이다. 그렇다고 이것을 문제 삼는 사람은 독일에서 아무도 없다.

‘동해’라는 이름은 분명 문제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이 명칭은 “Eastern China Sea(東海; Tung Hai);”, “Southern China Sea” - 베트남인들이 영어로 ‘East Sea’로 부른다 -, 그리고 위에 언급한 발트해(Ostsee, 한국어로 동해)와 혼동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에 반해 “Sea of Korea/Japan”이라는 명칭은 충분한 타당성을 제

공한다. 이 명칭은 “한국해/일본해”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여있는 바다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가 한국 내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관해 실제로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1. 한국정부가 ‘동해’를 지지한다.
2. 전 세계 지도의 약 25%에 이미 ‘동해’ 명칭이 표기되어 있다.

그러므로 “Sea of Korea/Japan”이라는 명칭을 다시 주장한다면 이는 당장에 적잖은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 뻔하고 지금까지 줄곧 ‘동해’ 명칭사용을 주장해 온 한국의 위상을 잠시나마 흔들리게 할 것이다.

‘동해’에 새 명칭을 붙이는 데에 몇 가지 의견이 있다. 어떤 이들은 ‘청해(Blue Sea)’를 선호하며, 또 다른 이들은 ‘동해(Donghae)’를, 그밖에 ‘한국해(Sea of Korea)’ 내지는 ‘Sea of Korea/Japan’ 등을 지지하는 의견들도 적잖게 존재한다.

그렇지만 각 명칭에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질이 있음을 유의해 보아야 한다. 게다가 지명은 협상을 통해서 확정된다. 그 밖에 지도제작자들은 각국 지도를 만들 때 어떤 명칭이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에서 주로 다루어지는가를 살펴면서 결정한다.

비엔나에 소재한 서점이나 인터넷상의 세계지도를 살펴보면 몇몇 중요한 독일어 세계지도에서 ‘일본해’와 ‘동해’가 동시 표기되고 있음이 분명히 관찰된다. ‘동해(East Sea)’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명칭이어서 한국의 입장에서, 그 어떤 이유로든 간에 명칭을 바꾸는 것은 우선 당장에 상당한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참고문헌

- 金新(1998) 「東海 表記의 歷史의 小考」, 『經營史學』 18, 265-284.
- 김준진(2006) 「국회의원들 “한국해를 되찾자”」 URL: [http://news.media.daum.net/snews/society/affair/200601/24/m\\_daum/v11486375.html](http://news.media.daum.net/snews/society/affair/200601/24/m_daum/v11486375.html)(29.8.2006).
- 양보경(2004) 「朝鮮時代古地圖에 표현된 東海地名」, 『문화역사지리』 제16권 제1호, 89-111.
- (2008) 「동해(東海) 지명과 조선 시대의 고지도(古地圖)」.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지명의 지리학』, 335-357.
- 이기석(2008) 「동해(東海) 지리 명칭의 역사와 국제적 표준화를 위한 방안」,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지명의 지리학』, 307-334. 대한지리학회지 33(4)(1998)에 실린 글을 수정·보완한 것.
- 李相泰(1999) 「일본해(日本海)가 밀어낸 동해(東海) 명칭」, 『한국사연구』. 107, 137-155.
- 이찬(1992) 「韓國의 古地圖에서 본 동해」, 『地理學』 제27권 제3호, 263-267.
- 정성화·이동수·김상민(2007) 「외국 고지도에 표현된 우리나라 지도 변천과 연구」, 국토지리정보원 편.
- Sönke Krüger(2008) 「Wortgefechte um Holland, Mazedonien und das Ostmeer」 ; Welt online Debatte vom 25.3.2008 ; <http://debatte.welt.de/kolumnen/80/wortgefecht/65842/wortgefechte+um+holland+mazedonien+und+das+ostmeer?#comment-120043>; (10.6.2009).

## 『국제고려학』 투고교정

### 1. 원고작성

논문의 분량은 그림과 도표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언어

논문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원고를 받는다.

### 3. 본문

본문의 장, 절, 항은 아라비아숫자를 이용하여 장은 1., 절은 1.1., 항은 1.1.1.로 표기한다.

### 4. 주석

주석의 경우 참조주는 될 수 있는 대로 내각주로 처리하고 내용주만 외각주로 처리한다. 논저를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과 출판년도, 쪽수를 밝혀, 홍길동(2007: 123-125)와 같이 표시한다. 내각주일 경우에는 (홍길동 2007: 123-125)로 한다.

### 5. 예문 및 인용문

예문이나 인용문은 위아래로 본문과 한 줄을 띄운다. 예문이 하나 이상일 때에는 붙인다.

### 6. 참고문헌

논문 서지 표기는 다음과 같은 표기 순서와 원칙을 지킨다(✓는 띄어쓰기를 표시함).

- 1) 한국어일 경우: 저자명(역자명)(년도)✓「글명(논문명)」,✓판자명,✓『서적명』, 출판지✓출판사명,✓쪽수.

예) 홍길동(2006) 「지식인의 역할」, 『국제고려학』 1, 국제고려학회, 100-111.

예) 홍길동(1997) 「육망과 쾌락」, 서울사회과학연구소(편) 『탈주의 공간을 위하여』, 서울: 푸른숲, 100-111.

- 2) 일본어, 중국어 논문의 경우에는 한국어 서지 작성 원칙에 준한다.

- 3) 서양논문일 경우: 저자명(역자명)✓(년도)✓「글명(논문명)」,✓in✓판자명 (ed.)✓서적명(이탈릭),✓출판지:✓출판사명,✓쪽수.

예) Chomsky, Noam (1980) 'On binding,' *Linguistic Inquiry* 11,1, 1-46.

예) Comrie, Bernard (1995) 'Form and function in explaining language universals,' in Brian Butterworth et al. (ed.) *Explanations for Language Universals*, Berlin: Mouton, 87-104.

- 4)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에는 논문 제목과 인터넷 주소, 검색일자를 병기한다. 인용부분을 가능한 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웹 주소는 html까지 그 페이지 주소창에 뜨는 부분을 모두 적어 준다.

예) Allen, Jonathan, 'Balancing Justice and Social Unity: Political Theory and the Idea of a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http://www.utpjournals.com/utlj/493\\_allen.html](http://www.utpjournals.com/utlj/493_allen.html), 2006.5.25)

7. 문장 속에서 사용되는 부호는 다음과 같다.

- 1) “ ” : 인용
- 2) ‘ ’ : 재인용 혹은 강조 어구
- 3) 『 』 : 서적명, 총서명, 원전, 단행본, 신문명, 음반 등
- 4) 「 」 : 논문명, 기사명, 글명, 작품명, 편명, 조명
- 5) · : 동일사항의 나열 예) 백두산·한라산·지리산

8. 기타

이 원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543-0024 日本 大阪市天王寺區舟橋町2-2 OIC Center

國際高麗學會「國際高麗學」編輯委員會

The Edi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OIC Center, 2-2 Funahashi-cho, Tennoji-Ku, Osaka.

543-0024, Japan

Email: info@isks.org 편집위원회는 교정쇄를 필자에게 송부하며 필자는 교정쇄를 받으면 조속히 점검 및 교정을 하여 편집위원회에 반송해야 한다.

#### 논문모집

『국제고려학』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회원 여러분이 보내 주신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선정 작업을 거쳐 본지에 게재하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넓고 다양한 주제를 통하여 본지가 코리아학 연구자들의 학문적 교류의 마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국제고려학회 임원

### 본부임원

회장	정 광(한국 고려대학교)
부회장	徐永彬(중국 对外经济贸易大学)
	김정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이병혁(한국 서울시립대학교)
	연재훈(영국 SOAS, University of London)
	朴 一(일본 大阪市立大学)
	Donald Baker(캐나다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宋南先(일본 大阪経済法科大学)
편집위원장	Edward J. Shultz(미국 University of Hawaii)
사무총장	배 룡(일본 大阪経済法科大学)

### 각지부임원

아시아분회	회장	徐永彬(중국 对外经济贸易大学)
	사무국장	崔顺姬(중국 北京语言大学)
일본지부	회장	朴 一(일본 大阪市立大学)
	사무국장	裴光雄(일본 大阪教育大学)
서울지부	회장	이병혁(한국 서울시립대학교)
	사무국장	김병로(한국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평양지부	회장	김정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사무국장	이민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유럽지부	회장	연재훈(영국 SOAS, University of London)
	사무국장	Lucien Brown(영국 SOAS, University of London)
북미지부	회장	Donald Baker(캐나다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사무국장	박찬웅(미국 The Ohio State University)

국제고려학 제13호

발행일 2009년 12월 31일  
발행인 국제고려학회 회장  
회장 정 광  
편집인 국제고려학회 편집위원회  
발행처 國際高麗學會  
〒543-0024 日本 大阪市天王寺區舟橋町2-2 OIC Center  
TEL: +81-6-6768-8425 FAX: +81-6-6763-5080  
Email: info@isks.org HP: http: www.isks.org  
만든곳 도서출판 선인  
TEL:+82-2-718-6252

ISSN 1347-7307

2009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